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8

#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 일 러 두 기

##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로 서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북구·사상구·사하구의 민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I. 현장조사 민요, II. 기존 현장조사 민요, III. 문헌 소재 민요로 편성하고, 각 장의 민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I 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민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 (5) II 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민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III 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민요로 현장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요 자료를 엮은 것이다. 동일한 민요의 경우 먼저 출판된 민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민요라도 세부적인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민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민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제보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설화에서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부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은 소괄호 ( ), 구연의 표시는 대괄호 [ ]에 넣어서 제보자의 가창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부 기존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어 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부 문헌 소재 민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 ● ● ● ● 각 권 별 편 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I)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예정]
-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I)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예정]
-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 - 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I) - 부산진구·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4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 목 차

일러두기	i
<b>I. 현장조사 민요</b>	1
1. 북구 민요	3
2. 사상구 민요	140
3. 사하구 민요	252
<b>II. 기존 현장조사 민요</b>	403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405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442
<b>III. 문헌 소재 민요</b>	515
1. 북구 민요	517
2. 사상구 민요	580
3. 사하구 민요	622
※ 참고문헌	634
※ 제보자 색인	635
※ 민요 제목 색인	640



# I. 현장조사 민요

1. 복구 민요
2. 사상구 민요
3. 사하구 민요



## 1. 복구 민요

[복구 민요 1]

### 당산지신풀이

이경준(남, 1949년 생) 가창  
2015년 4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주민센터]

어여라 지신아 당산지신을 울리소 [뽕과리소리]  
울리주소 울리주소 우리당산을 올려주소 [뽕과리소리]  
대법천황에 당산지신 제석천왕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이십팔수에 당산지신 삼십삼천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오악지신에 당산지신 후토지신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금정산주령에 당산지신 당산선왕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명당구진에 당산지신 청룡백호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일백이혁에 당산지신 삼백사록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오학육백에 당산지신 칠척팔백에 당산지신 [뽕과리소리]  
이십사산에 당산지신 이당산에 좌정하소 [뽕과리소리]  
이당산을 왕래한자 제수대통을 점지하소 [뽕과리소리]  
오는길에는 복을주고 가는길에는 명을주고 [뽕과리소리]  
금년해운 갑오년에 동네방네 지신밧아 [뽕과리소리]  
잡구잡신을 몰아내고 안녕빌고 풍년빔니다 [뽕과리소리]  
당산신님에 은덕으로 안가태평을 하옵시고 [뽕과리소리]  
일년하고 열두달에 환희봉행을 하옵소서 [뽕과리소리] [뽕과리소리]

[복구 민요 2]

### 오방지신풀이

이경준(남, 1949년 생) 가창  
2015년 4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주민센터]

어허야 지신이야 지신지신을 밟아주소 [팽과리소리]  
올려보세 올려보세 오방지신을 올려보세 [팽과리소리]  
동방에는 청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팽과리소리]  
남방에는 적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팽과리소리]  
천하지신 백호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팽과리소리]  
동남서북 사방지신 사방중앙에 황제지신 [팽과리소리]  
토목지신에 수목지신 산신지신에 용왕지신 [팽과리소리]  
천지신명 하늘지신 지하지신 땅지신에 [팽과리소리]  
비난이다 비난이다 오방지신에 비난이다 [팽과리소리]  
금년해운 올미년에 자리지신을 밟아주소 [팽과리소리]  
동네방네 풍년들고 안가태평을 하여주소 [팽과리소리]  
잡귀잡신은 몰알로가고 만복수복은 이리주소 [팽과리소리]

[북구 민요 3]

### 성주풀이

이경준(남, 1949년 생) 가창  
2015년 4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주민센터]

이러허 지신아 성주지신을 울리자 [팽과리소리]  
놀이자 놀리자 성주힘으로 놀리자 [팽과리소리]  
세상천지 개벽후에 태고천지가 돌아올때 [팽과리소리]  
유유비장 하늘천자 자방자시가<sup>1)</sup> 열려있고 [팽과리소리]  
천지오행 따지자<sup>2)</sup> 축방축시가<sup>3)</sup> 벌어져서 [팽과리소리]  
우리인생이 나타날때 인방임씨로<sup>4)</sup> 나타나고 [팽과리소리]  
우리조선이 생길때 백두산도 생겨나고 [팽과리소리]  
백두산 기슭에는 단군님도 나오셨다 [팽과리소리]  
우리인생이 나타날때 인방임씨로 나타나고  
단군님이 나오셔서 이세상을 살펴보니 [팽과리소리]  
목을것은<sup>5)</sup> 무엇이며 입을것은 무엇이고 [팽과리소리]

---

1) 자방자시(子方子時)가.  
2) 땅 지(地)자.  
3) 축방축시(丑方丑時)가.  
4) 인방인시(寅方寅時)로.

우리인생 집이없어 바우틈을<sup>6)</sup> 집을삼고 [뽕과리소리]  
 나무열매로 밥을삼고 나뭇잎을 옷을삼아 [뽕과리소리]  
 동지선달에 엄동설한 눈비맞고 살아갈때 [뽕과리소리]  
 신농씨는<sup>7)</sup> 나오셔서 농사법을 가르쳐서 [뽕과리소리]  
 여화씨는<sup>8)</sup> 나오셔서 길쌈질을 가르칠때 [뽕과리소리]  
 좋은품목을 많이짜서 옷을지어도 입게하고 [뽕과리소리]  
 수천씨는 나오셔서 불을빌려 화식할때<sup>9)</sup> [뽕과리소리]  
 삼시세끼나 밥을지어 처음으로 먹게하고 [뽕과리소리]  
 남녀여식 법을내고 남녀분별 가려주고 [뽕과리소리]  
 세존님은 나오셔서 자손벌기를 마련하고 [뽕과리소리]  
 무정세월 여류하야 성주님도 나오셨다 [뽕과리소리]  
 성주님은 나오셔서 세상을 살펴보니 [뽕과리소리]  
 이세상에 만민들이 성주님을 잘모시소 [뽕과리소리]  
 성주님을 모실라하니 성주본을 알아야지 [뽕과리소리]  
 성주본이 어디메나 성주근본이 어디메요 [뽕과리소리]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든가 [뽕과리소리]  
 제비원에 솔씨밭아 금정산에다 흐쳤더니<sup>10)</sup> [뽕과리소리]  
 낮이되면 태양받고 밤이되면은 이슬밭아 [뽕과리소리]  
 그솔이점점 자라나서 잔솔밭이나 되었구나 [뽕과리소리]  
 잔솔밭이 자라나서 타박솔이나 되었구나 [뽕과리소리]  
 타박솔이 자라나서 황장목이나 되었구나 [뽕과리소리]  
 황장목이 자라나서 도리기둥<sup>11)</sup>이 되었구나 [뽕과리소리]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성주목이나 되었구나 [뽕과리소리]  
 가자시라 가자시라 그나무비로 가자시라 [뽕과리소리]  
 둥글박자 박대목 버들유자 유대목 [뽕과리소리]  
 시렁시렁 톱들이야 뚜걱뚜걱에 짜구<sup>12)</sup>들아 [뽕과리소리]  
 갓은연장<sup>13)</sup> 갓차지고<sup>14)</sup> 백양산을 올라간다 [뽕과리소리]

5) 먹을 것은.

6) 바위 틈을.

7) 신농씨(神農氏)는.

8) 여화씨(女禍氏)는.

9) 화식(火食) 할 때.

10) 흘렸더니.

11) 도리(楸, 樗) 기둥.

12) 자귀.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도끼날이 자루에 평행하게 박혀있는 도구.

13) 갓은 연장. 온갓 연장.

백양산을 들어서니 시목밭은 우거나지고<sup>15)</sup> [팽과리소리]  
둘러보소 둘러보소 좌우나한번 둘러보소 [팽과리소리]  
한나무를 잡았더니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팽과리소리]  
그짐승이 미물이라 그나무는 못쓸레라<sup>16)</sup> [팽과리소리]  
새로운나무<sup>17)</sup> 잡았더니 황새덕새가 새끼로쳐서 [팽과리소리]  
그짐승도 미물인데 성주대목은 못쓸레라 [팽과리소리]  
한등넘고 두등넘어<sup>18)</sup> 한곳에 당도하니 [팽과리소리]  
그중에도 한나무 절곧고<sup>19)</sup> 곧았더라 [팽과리소리]  
동쪽으로 뺨은가지 삼정승이 둘러있고 [팽과리소리]  
남쪽으로 뺨은가지 육판서 꽃이피네 [팽과리소리]  
하탕에 수족씻고 중탕에는 세수하고 [팽과리소리]  
상탕에는 메를지어 촛대한쌍에 불을켜고 [팽과리소리]  
삼소지에 불을붙여 북향재배를 올리면서 [팽과리소리]  
비난이다 비난이다 신령님전에 비난이다 [팽과리소리]  
황장목을 모셔다가 성주기둥에 되게하소 [팽과리소리]  
무지한 백성들이 나무작발 왔소이다 [팽과리소리]  
갓은벗어 등짐하고 옷은벗어서 낭게걸고 [팽과리소리]  
서초담배<sup>20)</sup> 피워물고 그나무에 톱을걸어 [팽과리소리]  
밀어라땡기라 톱질이야 시리렁시리렁 톱질이야 [팽과리소리]  
넘어간다 넘어간다 낙락장송이 넘어간다 [팽과리소리]  
낙락장송이 넘어가니 땅이울어 기동하고 [팽과리소리]  
천지가울어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한다 [팽과리소리]  
곧은낭근<sup>21)</sup> 곧게치고 굽은낭근 등을치고 [팽과리소리]  
날여주소<sup>22)</sup> 날여주소 먹줄한대를 날여주소 [팽과리소리]  
먹줄놓은 그자리에 소톱대톱을 걸어놓고 [팽과리소리]  
깨여낸다 깨여낸다 황장목도나 깨어낸다 [팽과리소리]

14) 갓추어 쥐고.

15) 옥어지고.

16) 못쓸레라.

17) 새로 한 나무.

18) 한 등 넘고 두 등 넘어.

19) 절(節) 곧고. 절은 나무의 마디.

20) 일본에서 들어온 담배를 남초(南草)·왜초(倭草)라 하였고, 중국 베이징이나 기독교인들  
이 들어온 담배를 서초(西草)라고 하였다.

21) 곧은 나무는. 낭은 나무의 옛말.

22) 놓아 주소.

도대목에 거동보소 한손에는 잣대들고 [팽과리소리]  
 또한손에는 먹통들고 이리저리 찾아놓고 [팽과리소리]  
 그중에 곧은낭건 사방기둥 발가놓고<sup>23)</sup> [팽과리소리]  
 동쪽으로 뺨은가지는 연목<sup>24)</sup>으로 찾아놓고 [팽과리소리]  
 북쪽으로 뺨은가지 도리납시를 찾아놓고 [팽과리소리]  
 남쪽으로 뺨은가지는 대들보로 둘러놓고 [팽과리소리]  
 서쪽으로 뺨은가지는 상량으로 찾았구나 [팽과리소리]  
 동래야 초군들이 나무운송 야단이다 [팽과리소리]  
 올려왔네 모셔왔네 성주목을 모셔왔네 [팽과리소리]  
 이재목을 내었더니 이집터가 없을손가 [팽과리소리]  
 풍수양반 잡아놓고 천지오행 자를잡고 [팽과리소리]  
 금정산을 둘러보니 범어사가 좌정을하고 [팽과리소리]  
 백양산을 들어서니 운수사가 대지를하고 [팽과리소리]  
 주지봉을 내려오니 거북구가 되었구나 [팽과리소리]  
 좌청룡 우백호로 구포가 생겼구나 [팽과리소리]  
 진모는 내모요 사모에는 주추를 박아 [팽과리소리]  
 세웠구나 세웠구나 사칸팔척을 세웠구나 [팽과리소리]  
 삼오네 핑경달아<sup>25)</sup> 동남풍이 불때마다 [팽과리소리]  
 동남풍이 불때마다 핑경소리가 듣기좋다 [팽과리소리]  
 동해바다 바라보니 배가삼척이 뜨들어온다 [팽과리소리]  
 은하수로 돛을달고 무지개로 선을둘러 [팽과리소리]  
 연화봉으로 배를모와 인왕보살이 노를젓고 [팽과리소리]  
 보현보살이 앞장서고 문수보살 뒷장서고 [팽과리소리]  
 뜨서온다 뜨서온다 배가삼척이 뜨들어온다 [팽과리소리]  
 첫째배를 둘러보니 시주님이 타신배요 [팽과리소리]  
 둘째배를 둘러보니 성주님이나 타신배요 [팽과리소리]  
 셋째배를 둘러보니 조왕님이나 타신배다 [팽과리소리]  
 싸리나무 쟁반에는 시주님을 모셔놓고 [팽과리소리]  
 오리나무 쟁반에는 성주님을 모셔놓고 [팽과리소리]  
 오리나무 쟁반에는 시주님을 모셔놓고 [팽과리소리]  
 부뚜막 정지에는 조왕님을 모셔놓고 [팽과리소리]

23) 가려서 놓고.

24) 연목(椽木). 즉 서까래.

25) 풍경(風磬) 달아.

시주님은 좌정하여 금은보화 널려주고 [뽕과리소리]  
 성주님은 좌정하여 자손복을 점지하고 [뽕과리소리]  
 조왕님은 좌정하여 이가정을 밝혀주소 [뽕과리소리]  
 나라에는 충신이요 부모에는 효자동이요 [뽕과리소리]  
 이집에라 이가정에 동지간이<sup>26)</sup> 모이거든 [뽕과리소리]  
 삼동시 사동시 웃음꽃이나 만발하소 [뽕과리소리]  
 대문앞에 썩들어서니 입춘대길 떡붙었다 [뽕과리소리]  
 천증세월은 인증수요 춘만건곤은 복만가라<sup>27)</sup> [뽕과리소리]  
 춘만건곤은 뚝떨어지고 복만가만 남았구나 [뽕과리소리]  
 고대광실 높은집에 각지장판이 소로되고 [뽕과리소리]  
 청로<sup>28)</sup>에는 태백사 백로<sup>29)</sup>에는 띠를둘러 [뽕과리소리]  
 동남풍이 불때마다 핑경소리가 듣기좋다 [뽕과리소리]  
 오동장농<sup>30)</sup> 벽계수야 자개한농<sup>31)</sup>은 반다지<sup>32)</sup> [뽕과리소리]  
 화초한평 이불병풍 보기좋게도 둘러놓고 [뽕과리소리]  
 두자두치 두통베개 유자이불을 비돌리고 [뽕과리소리]  
 샛별같은 은요강은 발채마중에<sup>33)</sup> 밀쳐놓고 [뽕과리소리]  
 샛별같은 은요강은 이불밑에 집어놓고 [뽕과리소리]  
 이루었네 이루었네 큰방치장도 이루었네 [뽕과리소리]  
 구름같이 흠은머리 열개설개 갈아빚고 [뽕과리소리]  
 궁초댕기에 끈을달아 머리길게 땅아놓고 [뽕과리소리]  
 보래비단 접치마야<sup>34)</sup> 보래비단 접치마에 [뽕과리소리]  
 검은갑자 걸괘자는 미루단추를 달아서입고 [뽕과리소리]  
 앞으로보니 금봉래요 뒤를보니 축월래라 [뽕과리소리]  
 이루었네 이루었네 성주치장도 이루었네 [뽕과리소리]

26) 동서 간에.

27) 천증세월(天增歲月)은 인증수(人增壽)요 춘만건곤(春萬乾坤)은 복만가(福滿家)라.

28) 청로(靑輅). 일찍이 중국의 주왕조 때에 주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육로(六輅)로 호천상제와 동, 남, 서, 북, 중의 오방상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를 육로제사라 하는데, 청로는 둘째 제사로 동방상제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29) 백로(白輅). 호천상제와 오방상제에게 지내는 육로제사 중 백로는 서방상제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0) 오동나무로 만든 장롱.

31) 자개로 넣어 만든 장롱.

32) 반달이. 반달이는 앞면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 면만을 여달도록 만든 가구이다.

33) 발치 끝에.

34) “접저고리”라고 해야 할 부분을 “접치마”라고 잘못 불렀다.

난데없는 봉황새가 노죽빠가리<sup>35)</sup> 새끼치며 [뽕과리소리]  
한바리새끼를<sup>36)</sup> 치거들랑 일천석을 하옵시고 [뽕과리소리]  
두바리새끼 치거들랑 이천석을 점지하고 [뽕과리소리]  
세바리새끼를 치거들랑 이천석 마련하소 [뽕과리소리]  
이집세운 삼년만에 아들애기를 놓거들랑 [뽕과리소리]  
소학대학을 잘가르쳐서 진사급사를 마련하고 [뽕과리소리]  
이집세운 삼년만에 딸애기를 놓거들랑 [뽕과리소리]  
길쌈바느질 잘가르켜서 요조숙녀 마련하고 [뽕과리소리]  
이집에라 이가정에 아들딸이 장성커든 [뽕과리소리]  
석송이복을 점지하고 삼천갑자에 명을주고 [뽕과리소리]  
산에가면 산살이요 들에가면 들살이라 [뽕과리소리]  
농사라고 짓거들랑 천하지 대본이라 [뽕과리소리]  
장사라고 하거들랑 장재수나 앓아주소 [뽕과리소리]  
이집대주가 나가시면 남에눈에는 꽃이되고 [뽕과리소리]  
이웃눈에는 잎이되어 말소리마다 향내나소 [뽕과리소리]  
나갈때는 빈손이요 들어올때는 참손이라 [뽕과리소리]  
일년하면은 열두달 윤달이들면 열석달에 [뽕과리소리]  
삼백이라 예순날을 하루아적같이만<sup>37)</sup> 넘어가소 [뽕과리소리]  
잡귀잡신을 썰어모아<sup>38)</sup> 자라등에 실어서 [뽕과리소리]  
똥져주소 똥져주소 낙동강물에 똥져주고 [뽕과리소리]  
잡귀잡신을 물알로가고 만복수복은 이리주소 [뽕과리소리] [뽕과리소리]

[복구 민요 4]

### 잠자리 잡는 노래

정종읍(여, 193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잠자라 잠자라  
먼데가면 니죽는다

35) 노적봉에(?).

36) 한 마리 새끼를.

37) 하루 아침같이만.

38) 썰어 모아.

붙은자리 붙어라

[복구 민요 5]

### 모심는 소리

김수연(여, 192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오까타고 가는님아  
첩에방에 가거들랑 나의말을 듣고가쇼

[복구 민요 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수연(여, 192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당사맹도 도맹고<sup>39)</sup>  
두리쭈치<sup>40)</sup> 장두칼  
피인때기 일수장  
까마구 까치 양지바구  
두우지아<sup>41)</sup> 방구야 통 탕 (이러 칸다.) (조사자: 아따 길다.)

[복구 민요 7]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김양자(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

39) 당사 망근 도 망근.

40) 도래 주머니.

41) 돼지야.

불매야 불매야 불매야  
어 불매가 누불매고  
정상네 또불매  
불매나 한분 불러보자  
불어라 딱딱 불어라 딱딱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딱딱 [일동 웃으며 박수]

[북구 민요 8]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김영숙(여, 1933년 생) ·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이복순]

웃니빠진 개오지  
아랫니빠진 개오지  
오데 가서 (아!)

[김영숙]

신창<sup>42</sup>밑에 가지마라  
아웅<sup>43</sup>한테 물린다 (이러 칸다.)

(조사자: 어디 어떻게? 어디 가지 마라?) (신창 밑에.) (조사자: 신창 밑에. 신창이  
뭔고?) (살강 밑에.) (조사자: 아아. 살강, 선반. 이거 저 엎어놓는 거 말이제.) (옛  
날에는예 부억에.) (조사자: 부억에. 아아.) (그릇 엎는 것.) (조사자: 그릇 엎는 것  
어 어 어. 앞니 빠진.)

개오지

신창밑에 가지마라

아웅한테 물린다

(조사자: 아웅, 아웅이 고양이?) (고양이.)

---

42) 선반.

43) 고양이.

[북구 민요 9]

### 모 찌는 소리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북구 민요 10]

### 모심는 소리(1)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오늘해가 다졌는가~ 집집마당 연기나네  
우리할망 어딜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북구 민요 11]

### 모심는 소리(2)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자: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그런 노래 있제?) (청중1: 아, 있었어. 그거는 까뭇어 줌.)  
낭창낭창 베룽끝에~44) (청중2: 줌 크구로 해라.) 무정하다 저오랍아 (아휴.)  
나도죽어 고운자되여  
(조사자: 후생 가서. 저 낭군부터.) (청중1: 나도 죽어 남자가 되여.) (조사자: 나도 죽어 남자가 되여.) (청중1: 남자가 되여. 그 소리라. 남자가 되여 여자.) (청중2: 처자 건성을. 아 맞다. 그라더다.) (청중1: 다 잊아뭇다.)

---

44) 벼랑 끝에.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한번 섬길라네

[북구 민요 12]

### 모심는 소리(3)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땀박땀박 수저비를<sup>45)</sup> 사오상에<sup>46)</sup> 다올랐네 (청중: 잘하시네.)  
우리할망 어디로가고~ 딸에동자 시깁는고<sup>47)</sup>

[북구 민요 13]

### 모심는 소리(4)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졌는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북구 민요 14]

### 모심는 소리(5)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비문었네 비문었네 진주덕산 비문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조사자: 억만군사.) (아.) 억만군사 눈물이네

---

45) 수제비를.  
46) 사위 상에.  
47) 시켰는가?

[복구 민요 15]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sup>48)</sup> 시집간다  
가매꼭지<sup>49)</sup> 물흐른다 비단처매 얼릉진다

[복구 민요 16]

### 파랑새요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파랑새야 파랑새야 녹 (뭐라 카더노?)  
(청중: 녹디낭게 앉지 마라.) 녹디낭게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만 청포장사<sup>50)</sup> 울미간다<sup>51)</sup> (조사자: 아이구 잘 하시네.)

[복구 민요 17]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복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 자장 자장  
멍멍개야 짚지마라

---

48) 우리 형이.

49) 가마 꼭지.

50) 청포장사.

51) 울며 간다.

코코닭아<sup>52)</sup>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잘도잔다

[북구 민요 18]

### 파랑새요

정재임(여, 192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0일 채록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파랑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sup>53)</sup>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몬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러지.)

[북구 민요 19]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근 또맹근  
짹바리 희양근  
도루매춤치 장독간  
멀구밭에<sup>54)</sup> 덕서리  
동지선달 무서리  
정산에 먹갈아라

[북구 민요 20]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

52) 꼬꼬닭아.  
53) 녹두나무에.  
54) 머위 밭에.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sup>55)</sup> 시집간다<sup>56)</sup>  
고운옷에 얼룩진다  
고분머리<sup>57)</sup> 비맞는다 (그라고.)

[복구 민요 21]

### 농부가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농사짓는 농군들아 (아, 그래 안 한다.) (조사자: 아 그 농무가.)  
저건네 갈미봉에 비가절씩 묻어오네  
그것이 비아니라 (우리 하는 데서는 그리 합니다.) (조사자: 그것이 비 아니라. 억  
만군사 눈물이고 그 뭐.)  
그것이 비아니라 농사꾼들 땀이로다 (그래는 부르고.) (조사자: 아하. 모 심을 때  
소리.)

(조사자: 저 건네 갈미봉에.) (비가 잔뜩 묻어.)  
농사짓는 농군들아 어서배빼 손놀리라  
저건네 갈미봉에 비가잔뜩 묻어온다  
그것이 비아니라 농사꾼들 땀이로다 (그렇게 한다.)

[복구 민요 22]

### 논매는 소리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

55) 우리 형이.  
56) 시집 간다.  
57) 고운 머리.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에여라 디여~ 상사디아  
이눈에 못꾼들아 어서바빠 손실어라  
점심때가 다돼간다 (그라고. 또 그 너매 그런데, 또 모르겠다.)

[복구 민요 23]

### 베 짜는 소리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이베로 짜서러 누를 해주꼬  
기억도 나도 안 하고  
이 손질러대 대리대리해서  
와이리 떨어지노

(그래 한분서<sup>58</sup>) 앉아서 패롱하다가 마이 떨어지몬 그래 인자 사아살 풋고추로 달  
아놓고 잇어낸다 아닙니까? 그래가 저녁으로도 짜고 낮으로 짜고.) (조사자: 낮으  
로도 짜고.)

[복구 민요 24]

### 신랑 월망 노래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달이떴네 별이<sup>59</sup>떴네 이수산에 달이떴네  
이수양반 어디가고 저달떴는줄 모리는고  
가곳없네<sup>60</sup> 가곳없네 두불장개 가곳없네

---

58) 한 번씩.

59) 별이.

한모링이<sup>61)</sup> 돌아가니 말다리가 빨라지고  
두모링이 돌아가니 상두자리 빨라지고

(그래 인자 장개, 처로 놔주고 인자, 장개로 새, 새장개를 가고도 있는데, 그래 노래를, 막 그 여자가 불렀답니다.)

밥상이라 받거들랑 수젯가락 빨라지고  
앞거들랑 잠이오고 목거들랑 숨이나갔도

(그리 많이 불렀어요. 거기 인자 꿈만 부르는 노래.) (조사자: 거기, 그라모 그거는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 그 저 신랑이 죽었는가?) (신랑이 인자 죽어서 간기 아이고, 애기로 애기로 못 놓은께는 그라는가 장개로 갔어. 그란께는 인자 여자가 혼자서 달로 보고 부르는 노래랍니다.)

[복구 민요 25]

### 사발가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잘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네 (그리 부르고.)

[복구 민요 26]

### 청춘가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어라

---

60) 가고 없네. 또는 간 곳 없네.

61) 한 모퉁이.

아깝다 내청춘 다늠어진다 (그리 부르고.)

[복구 민요 27]

### 양산도

박종이(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에헤에~  
양산도 큰애기 베짜는 소리  
자다가 들어도 정든님 소리 (그리. 그런 기 다 노래. 옛날에 노래.) (조사자: 옛날  
노래 그렇습니다.)

에헤이야~ (청중: 잘한다.)  
간다 문간다 얼마나 울었노  
신작로 복판에 사장구소리에 논다 (그라고 그랬습니다.)

[복구 민요 28]

### 노랫가락[그네 노래]

주학수(남,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오색가지도 그네를매고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어  
임아점점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복구 민요 29]

### 노랫가락[나비 노래]

주학수(남,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sup>62)</sup> 꽃잎속에다가 자고가소  
꽃잎이 떨어지고 없거든 꽃밭속에다 자고가소

[복구 민요 30]

### 모심는 소리

한복선(여, 192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부모가 죽어서 연자가 되어서  
춘색끝에다가 집을지었네  
날맨보고 들면봐도<sup>63)</sup> 굵은줄을 왜몰랐나 (아이고.) [웃음]  
(조사자: 할매요. 이거 무슨 노랜교? 요거는 모 심을 때 소리는 아이고.) (와 아이  
라예.) (조사자: 요것도 모 심을 때 소리고.) (예.)

[복구 민요 31]

### 못 갈 장가 노래

한복선(여, 192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구포2동 구남경로당]

앞집에는 책력을보고 뒷집에는 공합보고  
책력에도 못갈장개 공합에도 못갈장개  
이러나 저러나 내갈라요  
첫모리를 돌아가니 까막칸치가 진동하고  
두모리를 돌아가니 산짐승이 진동하소  
(아이고 대라.)  
대문밖을 척들어서니

---

62) 저물거든.

63) 나오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삼단걸은 저머리가 상가리걸이도 흠어졌네  
(아죽 까망구나. 다 할라 카모.) (조사자: 아이고, 그래도 그것까지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시네.) (책력에도 못 갈 장개 궁합에도 못 갈 장개, 저거 아버지가 암만 머러 캐도, 그러나 저러나 내가 갈라요, 그래 저 장개 간다고 장개를 다 채려 가이께네, 인자 대문 밖에 척 들어서이 처녀가 죽어가지고 머리로 삼단같은 머리가 삼가래같이 흠어져가 있다 카대.)

[북구 민요 32]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우선(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도맹근 또맹근  
짹빠리 히양각  
노래춤치 장뚝간 (이라대.)

[북구 민요 33]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김우선(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웃니빠진 개오지  
새미가에 가지마라  
빈대한테 뺨맞는다 (이래 샐던대.) (조사자: 아, 그래 맞아예.)

[북구 민요 34]

### 대추복숭아 노래

김우선(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강남땅 강대추 주지가지가 열렸네  
충청도 중복송 아개자개가 열렸네

[복구 민요 35]

### 모심는 소리(1)

이기상(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밀양삼당 궁노숲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을랑 따서 또 묵고 (조사자: 내 따줍세.) 내따주고

[복구 민요 36]

### 모심는 소리(2)

이기상(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해다졌네 해다졌네 산골마중 연개나네  
(그것고 모정잡니다.) (조사자: 어 그래 맞심더.) (예. [웃음]) (청중: 우런님은<sup>64</sup>) 어  
데 가고, 우런님은 어데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는공.) (예. 예.)  
산골마자 연개나네 (조사자: 우리 님은 어데 가고.)  
우리임은 어데가고 (조사자: 연기 낼 줄 모르는고.) (예. 예. 그래 마이 했심더.)  
(청중: 연기 낼 줄 모르는공.) (조사자: 그래 맞어.)

---

64) 우리 님은.

[북구 민요 37]

### 모심는 소리(1)

이자야(여, 1931년 생)<sup>65</sup>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꽃갓을쓰고 어디갈라오  
첩의집에 갈라하면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소

첩의방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연못의금붕어는 사시절이고 첩의방은 한봄한철이요

[북구 민요 38]

### 모심는 소리(2)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모시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질라하니<sup>66</sup> 알수라고<sup>67</sup> 불라하니 병이나네<sup>68</sup>

[북구 민요 39]

### 모심는 소리(3)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서마지기 요논빼미 반달겉이 떠나가네  
물꼬철철 혈어놓고 첩의방에 놀러가니

---

65) 경남 창녕 태생임.  
66) 쥐려고 하니.  
67) “원수라고”의 뜻인 듯함.  
68) 병이 나네.

오뉴월 삼복시절 첩을팔아 부채사니  
구시월이 똑같이오니 첩의생각 절로나네

[복구 민요 40]

### 모심는 소리(4)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칠년대한 가물음에 앞뒤동산에 비가뭍으니  
만백성이 춤을추네 (그카지 뭐.)

[복구 민요 41]

### 고사리 꺾는 노래[남녀연정요]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남산밑에 남대룡아<sup>69)</sup>  
서산밑에 서처녀야  
나물캐러 안갈란가  
나물캐러 갈라캐도  
신도없고 칼도없네  
남대룡춤치<sup>70)</sup> 똑떨어보니  
돈닷돈이 나왔는데  
성냥주고 칼싸들고  
두냥들고 신사신고<sup>71)</sup>  
올라가미<sup>72)</sup> 올고사리  
오들오들 꺾어담고

---

69) 남도령아.

70) 남도령 주머니.

71) 두 냥 들고 신을 사 신고.

72) 올라가며.

내러가미 늦고사리  
녕출녕출 꺾어담고  
남대롱밥 점심때가 되었구나  
남대롱밥은 들어보니  
이시같은 쌀밥이고  
서처녀의밥은 들어보니  
작년묵은 콩보리밥이라  
남대롱밥은 서처녀가먹고  
서처녀의밥은 남대롱이먹고  
점심밥을 먹고나니  
영똥생각이<sup>73)</sup> 절로나서  
처매벗어<sup>74)</sup> 치알치고<sup>75)</sup>  
[웃음] (청중: 잘한다.) (조사자: 어어어, 인자 연애한다 그지예.) (예.)  
적삼벗어 팽풍치고<sup>76)</sup>  
난들은 백년계약을 맺었구나 (그래 했음니더.)

[복구 민요 42]

### 진주난봉가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는말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 불라하니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 가라 한께네, 빨래를 한께네.)  
태양걸은 말을타고 구름걸이 날러오네  
껌은빨래 꺾기하고 흰빨래는 희게하고  
어서배뻘 쫓아가서 사랑방문을 열어보니  
기상첩년 옆에두고 열두가지 술을놓고

---

73) 영똥한 생각이.  
74) 치마를 벗어.  
75) 차일을 치고.  
76) 병풍 치고.

니목우라 내목우라 권주개를<sup>77)</sup> 하고있네  
옷방에라 올라가서 석자수군<sup>78)</sup> 목에잘라  
목을잘라 죽었더니  
서방님이 보선발로 쫓아나와  
니쫓그만 참았으면 본처정 첩년은 이별나고  
본처가 (저 머라 카더노?) (조사자: 첩의 정은 삼년이고, 본처 정은 백년인데.)  
첩의정은 삼년이고 본처정은 평생이다 (이러 카지.)

[복구 민요 43]

### 창부타령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바람불어서 쓰러전낭계<sup>79)</sup> 눈비온다고 일어나리  
임이없어서 누운몸이 약방약을 쓴다고 일어나리  
임이와야 일어나지

[복구 민요 44]

### 모심는 소리(5)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농창농창 벼르끝에<sup>80)</sup> 무정하다 저오랍아  
시누올키<sup>81)</sup> 빨래를가니 난데없는 토수가와서  
(물에 떠려가는 기라. 물에 떠내려가는 거. 올케, 시누는 오라바이가 시누는 동서  
가 건지가 도로 열어뿌고 올케는 건지냈어.<sup>82)</sup> 그래 올케를 건지내니, 그래 나도

---

77) 권주가를.

78) 석 자 수군.

79) 쓰러진 나무에.

80) 벼랑 끝에.

81) 시누이와 올케.

죽이카는 그카고 나서 그 사람이 나도 죽어 후승 가서.) (조사자: 나도 죽어 고거 죽어서러.) (나도 죽어 후승 가서 낭군님부텨 섬길라네. 날 살렸네 날 살렸네 버들낭게<sup>83)</sup> 날 살렸네. 버들낭게 걸리 살아 나왔는 기라. 거기 그래 한담더 우리는.)

[복구 민요 45]

### 연치 노래

이자야(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그 인자 여자가 산지불공을 디리고 내리오다가 오줌을 누렵어<sup>84)</sup> 오줌을 누모, 연치 한 마리 뛰 나와서 연치가 마 펄떡펄떡 뛰간게, 지 아아라고<sup>85)</sup> 그걸 보고 오든지, 지 아아라고 들고, 그래 그거 노래를 억시기 불러쨌는데 다 잊어뻘네. 그거 들고, 뭐 이마 혈떡 버어전<sup>86)</sup> 거는 저거 조부도 닳고, 무정알 짓은 빠진 거는 저거 아부지도 닳고.) [일동 웃음] (조사자: 응응응. 그래 맞아.)

(오바털 입은 것은 저거 삼촌 닳고 저거 저 가게 오바라 카고, 그래 그게 아 타령이라 안 하나 그거.) (조사자: 아! 맞아. 맞습니더. 그래. 그 연치 지 오줌을 누어 뉘니까 연치가 풀떡 뛰나와서 고걸 잡아가지고.) (고걸 잡아가 아라고. 삼시불공하고 내리와 자손 달라고 불공하고 내리오다가 오줌을 눈께네, 거기 연치가 되놓 인끼네, 그걸 아라꼬 잡고 그러지.) (조사자: 아하, 맞아요.) (이마 혈떡 버어진 거는 저거 조부 닳았고, 무정한 짓을 따지모 저거 아부지 닳고.) (조사자: 머어 빠진 거?) (다리가 안 진교.<sup>87)</sup> 무정알 짓을 빠진 거 저거 아부지 닳고 오바 털 입은 것은 저거 삼촌 닳았다고.)

[복구 민요 46]

### 모심는 소리(1)

- 
- 82) 건져냈어.
  - 83) 버드나무에.
  - 84) 마려워.
  - 85) 아이라고.
  - 86) 벗겨진.
  - 87) 길지 않은가요.

전덕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sup>88)</sup> 열매열래  
훗달크고 (조사자: 이 달 크고.)  
이달크고 훗달크고 그훗달에는 열매연다

[북구 민요 47]

### 노랫가락[그네 노래]

전덕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수천당<sup>89)</sup> 세모진낭계<sup>90)</sup> 당사실로나 군대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가민다  
그임아 줄밀지마자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북구 민요 48]

### 창부타령

전덕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임은가고 봄은오니 임은 (모르겠다.) (청중: 꽃만 피어도 임의 생각.)  
꽃만피어도 임오생각<sup>91)</sup>  
생각생각 임오야생각 끄칠날이 전혀없네

---

88) 너 언제 커서.

89) 추천당.

90) 세모 진 나무에.

91) 임의 생각.

[북구 민요 49]

### 모심는 소리(2)

전덕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녕창녕창 저비리끝에<sup>92)</sup>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군자가되야 (뭐라 카노?) (조사자: 나도 죽어 군자가 되어 처자.) 처자  
건색 샘기볼래<sup>93)</sup>

[북구 민요 50]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최평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구포3동경로당]

앞니빠진 갈가지  
앞도랑에 가지마라  
피리새끼 놀란다

[북구 민요 51]

### 밀양아리랑

김종순(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로 날넘가주소

---

92) 저 벼랑 끝에.

93) 처자 권속 섬겨 볼래.

[복구 민요 52]

### 잠자리 잡는 노래

김종순(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철비야 철비 (우리는 철비라 갠거던.)  
철비야 철비야  
붙든자리 붙으라  
앉던자리 앉아라  
먼데가몬 죽는다  
(청중: 가까이와야 산다 그래라.)

[복구 민요 53]

###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플국새 노래]

김종순(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  
어찌살까 어찌살까

[복구 민요 54]

### 파랑새요

김종순(여, 1944년 생), 이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복구 민요 55]

### 삼팔선 노래<sup>94)</sup>

이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삼자가 팔자라고~ 삼팔선이 생겼던가  
한나라 한민족이~ 국경이 왜생겼나

[복구 민요 56]

### 노랫가락

이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내년삼월 봄이오면 꽃은다시 피련만은  
초로같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나

(거기 1절이고 2절은.)

춘초는 연연록이요 왕손은 귀불귀라<sup>95)</sup>  
(그 다음 뭇이더라?)  
풀잎에 이슬같은 (내나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이슬같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못오나니

[복구 민요 57]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94) 청춘가 가락으로 불렀다.

95) 중국 왕유(王維)의 오언절구 한시인 <송별(送別)>에 나오는 구절이다. 山中相送罷 日暮掩柴扉 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산중에서 그대와 송별하고 난 뒤, 날 저물어 사립문을 닫네. 봄풀은 해마다 푸르련만, 그대는 돌아올지 못 올지?).

이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구포3동 시랑골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야 짚지말고  
꼬꼬닭도 울지마라  
자장자장 우리아가  
누누에 수복잡아  
눈알로 내리거라  
자장자장 우리아가  
(또 뭐라 카더노 또?)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준들 너를사라  
은을준들 너를사라  
나라에는 총신동아  
부모에겐 효자동아  
일가친적 화목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그 다음 중 뭔지 모르겠다.)  
(조사자: 형제간에.) (우애동아.)  
우애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끝이라.)

[복구 민요 58]

### 모심는 소리(1)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서월이라 낭기없어<sup>96)</sup> 당세실로 다리났네<sup>97)</sup>  
그다리를 건네가면 쿵쿵절사 소리난다

[복구 민요 59]

### 모심는 소리(2)

이남이(여,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서월선부 연을띠와<sup>98)</sup> 지죽장단에 걸렀다네  
아래옷방 처녀들아 연줄걷는 구쟁가세<sup>99)</sup>

[복구 민요 60]

### 모심는 소리(3)

이남이(여,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밀양삼당 알짱처녀 전오배<sup>100)</sup>에 갇혔다네  
옥사장아 문열어라 천유첩<sup>101)</sup>을 보고갈래 (청중: 잘하네.)

[복구 민요 61]

### 모심는 소리(4)

이남이(여,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물꼬청청 혈어놓고 주연양반<sup>102)</sup> 어데갔노

---

96) 서울이라 나무가 없어.

97) 당사실로 다리를 놓았네.

98) 서울 선비 연을 띄워.

99) 구경 가세.

100) '전오배'의 뜻을 알기 어렵다.

101) '천유첩'의 뜻을 알기 어렵다.

102) 주인 양반.

문에전복<sup>103)</sup>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뭇선첩이<sup>104)</sup> 대단해서 밤에가고 낮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가네

첩의야방은 꽃밭이오 나의방은 연못이라  
꽃밭수령은 반짝이오 연못의고기는 사시사철

[복구 민요 62]

### 주머니 타령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우리선조 송근나무<sup>105)</sup>  
각각솔을 복을조여<sup>106)</sup>  
시아실실 물을조여  
그끝에라 열매가열어  
해도열고 달도여네  
달은따서 안을영고  
해는따서 걸을영고  
쌍무지기<sup>107)</sup> 선을돌려  
계곡팔사 끈을달아  
천다래비 뺨을맞차<sup>108)</sup>  
옥다래비 뺨을맞차  
서월이라<sup>109)</sup> 남대문에  
줍치<sup>110)</sup>한쌍을 걸어놓고

---

103) 문어 전복.

104) 무슨 첩이.

105) 우리 선조 심은 나무.

106) 각 소나무에 복을 주어.

107) 쌍무지개.

108) 천을 다리는 다리미로 뺨을 맞추어.

109) 서월이라.

110) 주머니.

올라가는 신관들아  
내리오는 구관들아  
다른구경을<sup>111)</sup> 하지말고  
좁치구개를 하고가소  
좁치는 좋것만은  
누구랑 앉아서 지었는고  
어제가든 송우씨라  
오늘가든 용무씨라  
서이너이 지은좁채  
어느해도 열에닷냥  
돈을해도 열에닷냥  
삼천냥이 제값이오

[북구 민요 63]

## 댕기 타령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올아버지 서월가서<sup>112)</sup>  
천냥주고 떠온댕기  
우리엄마 접은댕기  
우리올키 눈치댕기  
우리친구 붉은댕기  
성안에다 널뛰다가  
그때하나 (아이구!) 편지놓고  
두근두근 신두근아  
주은댕기<sup>113)</sup> 나를주소  
사방살짝 주은댕기  
연분없이 너를주까

---

111) 다른 구경을.

112) 서울 가서.

113) 주은 댕기.

치매자락 덮친내자락<sup>114)</sup>  
마주칠적에 너를좁세  
두근두근 신두근아  
주은댕기 나를주소  
동솔걸고 큰솔걸고  
시간살제<sup>115)</sup> 너주꾸마

[북구 민요 64]

## 부모 그리는 노래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하늘천자<sup>116)</sup> 높이올라  
따지자로<sup>117)</sup> 들고보네  
돌아가는 맹자님은  
책책이도 실렸건만<sup>118)</sup>  
어허불쌍 우리부모  
어는책에 실렸는고  
아해동자야<sup>119)</sup> 물떠오이라  
삼천수 먹을갈아  
이천수에 베리보세<sup>120)</sup>  
팔묵지를 되갈아서  
글문자를 찢라고해도  
눈물이 가리서 몬쓰겠네  
돈백냥을 끼어차고  
장바닥에 내리가서

---

114) “치맛자락 덮은 내 자락”의 뜻인 듯함.

115) 세간을 살 때. 즉 살림을 같이 할 때.

116) 하늘 천(天)자.

117) 땅 지(地)자로.

118) 실렸건만.

119) 아이 동자야.

120) 벼리 보세.

알쏭달쏭 참외사고  
성로유자로 다사놓고<sup>121)</sup>  
전전히 다맹기도  
부모님 살전은<sup>122)</sup> 왜없는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원한걸은 집에다가  
말채걸은 종에다가  
부모 기리서 몬살겠네  
조선일사 첩을두고  
만구절사 본쳐두고  
부모 기리서 몬살겠네  
조선일사 아들두고  
꽃과같은 딸을두고  
부모 기리서 몬살겠네  
하늘걸이도 너른들에  
구름걸이도 농사를지여  
안개걸이도 걷아드리  
눈비걸이도 재여놓고  
부모 기리서 몬살겠네  
저건네 깊은산에  
투근새가<sup>123)</sup> 슬피우네  
새야새야 투근새야  
부모님 원한에 날과같다

[북구 민요 65]

### 밭매기 노래[시집살이 노래]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121) 석류 유자를 다 사서 놓고.

122) 살 수 있는 가게는.

123) 두견새가.

시집가는 삼일만에  
일거리를 도라하니  
불같이 더운날에  
맷밥같이 짙은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을 매고나니  
엄마죽은 부고왔네  
시아바시 하는말이  
아가아가 매늘아가  
매던골만 매고가라  
몬매겼소 몬매겼소  
눈물을가리서 몬매겼소  
몬매겼소 몬매겼소  
새엄마시 하는말이  
매고가라 매고가라  
매던골만 매고가라  
매던골 다매고 고향가니  
(지가 시가집 가는 거라. 친정에. 그래 인자 가니꺼네.)

[다시 노래로]  
우리엄마 거동봐라  
(오라버니가 나쁜 기라.)

[다시 노래로]  
아흡성지 맡을기야  
엄마웃은 다투짜고  
짚만붙은 적삼입히고  
말만붙은 처매로입히  
(카거던요. 그런게 인자 그래 거게서 그 쿠는 기라. 젓은게 그래 인자 밍다꼬 올  
키 그 시누부 안 쳐다보는 기라. 그런게 인자 마지막 갈 때는 그래요.) (조사자:  
응.) (그래.)

[다시 노래로]  
성아성아 올키성아이

쌀한식대 잣앗시문  
너도묵고 나도묵고  
꾸중물이 남으면은  
니새주제 내새주나  
밥떠꺼리 남으면은  
니개주제 내개주나

[북구 민요 66]

### 못 갈 장가 노래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궁합에도 문갈장개  
책력에도 문갈장에  
앞집에는 책력보고  
뒷집에는 궁합보니  
궁합에 문갈장개  
책력에도 문갈장개  
내가좋아 가는장개  
(자기들 책력.)  
혼신아비<sup>124)</sup> 앞세우고  
영화한쌍 뒷세우고  
한모랭이<sup>125)</sup> 돌아가니  
까막까치가 진동하네  
두모랭이 돌아가니  
백야시가 우는구나  
세모랭이 돌아가니  
피리성냄이<sup>126)</sup> 날라온다  
두손으로 푸는편족<sup>127)</sup>

124) 혼수아비. 즉, 함진아비.

125) 한 모퉁이.

126) 피리를 부는 사람이.

127) 두 손으로 풀어보는 편지. 즉 부고.

한손으로 받아보고  
신부색시가 죽었다네  
아부지도 들어보소  
이양지양 나선집에  
신부방에 가나볼까  
(전부 다 돌아가고 지 혼차 가는 거라.)  
동구밖에 들어강께  
곡소리가 진동하네  
한대문을 열고강께네  
널쟁이가 널따듬네<sup>128)</sup>  
두대문을 열고강께  
상두꾼이 밥을묵네  
세대문을 열고강께  
재인장모가<sup>129)</sup> 썩나오매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갈꺼 니와오노<sup>130)</sup>  
들어갈래 들어갈래  
신부방으로 들어갈래  
둘이베자 지은베개  
혼체베고<sup>131)</sup> 가고없네  
둘이덮자 지은이불  
혼체덮고 가고없네  
(갈라고 집에 나서는 기라. 이제 막. 이제 울고 간께네 그래.)  
쪼끄만만은 (처남아제.)  
자형자형 우리자형  
인지가먼<sup>132)</sup> 언제오노  
동솔에 삶은담이  
훼치거던 내오꼬마<sup>133)</sup>  
자형자형 우리자형

---

128) 널을 다듬네.

129) 장인 장모가.

130) 울고 갈 걸 너 왜 오노.

131) 혼자 베고.

132) 이제 가면.

133) 훼를 치거던 내가 오마.

인지가면 언제오노  
팽풍에 기린학이<sup>134)</sup>  
훼치거든 내오편마  
자형자형 우리자형  
인지가면 언제오노  
시내강변<sup>135)</sup> 반제거리  
바우되몬 내오편마  
자형자형 우리자형  
인제가면 언제오노  
저건네 속씨밭이  
질나거든 내오편마 [일동 박수]

[북구 민요 67]

### 모심는 소리

이남이(여,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성주라고 개우산에~이 사녕에는 꽃아닌가  
그꽃한쌍을 떼어다가 임의용상 걸고줍네<sup>136)</sup>

[북구 민요 68]

### 시집살이 노래[사촌형 노래]

이남이(여,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똥더노  
쫓꾸매는 시동상이<sup>137)</sup>

---

134) 병풍에 그린 학이.

135) 시내 강변.

136) 걸고 싶네.

말하기도 애렵더라 (아이 그리 안 나온다.)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제 놓기 정애럽대<sup>138)</sup>  
중우벗은 시동성은<sup>139)</sup>  
말하기도 정애럽지 (그래 나오지.)

[복구 민요 69]

### 베틀 노래

이남이(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구포3동 신천경로당]

오늘날에 하심심하여  
베틀이나 (아!)  
[잘못 부른 것을 알고 가사를 바꾸어]  
하늘월궁에 노던선녀  
옥황님께 죄를짓고  
인간으로 귀향와서  
하실일이 전히없네<sup>140)</sup>  
달가운데 계수나무  
동편으로 뺨은가지  
금도끼를 찍어낸게  
옥도끼를 따듬아서  
앞집에라 김대목아  
뒷집에라 이대목아  
우리집에 자주와서  
당침받던 백동대로  
담배한대를 피우시고  
베틀을한대 벌여주리  
먹줄로 탕가내어<sup>141)</sup>

---

137) 조그만 시동생이.

138) 수제 놓기 정 어럽대.

139) 중의(中衣)는 남자들이 입는 여름 홑바지. 중의 즉, 바지 벗은 시동생은.

140) 전혀 없네.

굽은나무는 잣다듬고  
 잣은나무 굽다듬고  
 얼른뚝뚝 베틀나요<sup>142)</sup>  
 베틀이야 좋건만은  
 베틀놀데가<sup>143)</sup> 전히없네  
 사해를 둘러보니  
 비였구나 비였구나  
 옥난간이 비였구나  
 베틀을놓세 베틀을놓세  
 옥난간에 베틀놓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나의다리는 두다리라  
 안질개<sup>144)</sup>에 앉인선녀  
 양지비개<sup>145)</sup> 능인도다  
 부테허리 두른양은<sup>146)</sup>  
 만첩산중 깊은산에  
 허리안개 두르는듯  
 북이라고 나드는거는<sup>147)</sup>  
 (아이고.)  
 너수강에 잉에붕에가<sup>148)</sup> 노는듯  
 바대집<sup>149)</sup> 치는양은  
 한양군사 전칠닥에<sup>150)</sup>  
 전무끄는 소리걸네  
 쳇발이라<sup>151)</sup> 노는거는

141) 퉁겨 내어.

142) 베틀을 놓아요.

143) 베틀 놓을 데가.

144) '안장(鞍裝)'의 경남 방언.

145) 둘이 함께 베는 베개. 두동베개.

146) '부테'는 부티의 잘못. 부티 허리 두른 모습은.

147)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148) 잉어 붕어가.

149) 바디집.

150) 전쟁을 치를 적에.

151) 최활이라. 최활은 베를 짤 때 직물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 쳇발이라고도 함.

강태공의 낚숫댄가<sup>152)</sup>  
이래저래 잘도노니  
잉앗대<sup>153)</sup>는 삼형지요  
놀깃대는<sup>154)</sup> 호불애비  
세모젓다 버그미는<sup>155)</sup>  
올올이도 가리놓고  
이사참대는 사철 사참  
(아이고 마.) (조사자: 천천히 천천히.)  
사참이<sup>156)</sup>라 갈린양은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 갈리난닷  
도투마리 노는양은  
늪은이라 병일란가<sup>157)</sup>  
앞이여라 누워라  
뱀때기<sup>158)</sup> 널짚양은<sup>159)</sup>  
도서건네 숫가진가  
이리도치고 저리도치네  
용두머리 우는양은  
새벽절에 찬바람에  
외기러기 짝을 잃고  
벗부르는 소리겘네  
철거신 노는양은  
헌신 짝을 목을 걸고  
꼬빱꼬빱 늪어지네  
봄주에 맹지부울 자연해서  
앞넷물에 씻거다가  
뒷넷물에 헤어다가

---

152) 낚싯대인가.

153) 잉앗대

154) 놀림대는.

155) 비거미는.

156) 사참이. 사참네. 베틀에서 도투마리와 비경이 사이에 엮어, 날의 사이를 띄워 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

157) 병이런가.

158) 뱀명이. 베틀을 짤 때, 날이 서로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지르는 가는 막대.

159) 떨어진 모습은.

담장위에다 널었네라  
 꽃과같은 풀을해여  
 흥두깨를 옷을입히  
 아당따당 뚜디리서<sup>160)</sup>  
 지어나보세 지어나보세  
 이모질로 베어나보세  
 은가위로 베어갓고  
 은바늘로 폭을붙이  
 은다리 비탈이갓고  
 햇대걸면 먼지얇고  
 개어주면 사라지네  
 점점이 곱게매어  
 자개화로 반다지에  
 맵시있게도 여여놓고<sup>161)</sup>  
 대문밖에 썩나오시니  
 저게오는<sup>162)</sup> 저사람은  
 우리선배 안오던가  
 오기사야 오지만은  
 칠성판에 실려오네  
 웬말이고 웬말이고  
 칠성판이 웬말이고  
 갈짜에는<sup>163)</sup> 일산땀데  
 올짜에는 명정다네<sup>164)</sup>  
 아가아가 우리아가  
 너거아배가 죽었단다  
 저승길이 길같으만  
 오민가민 보지만은  
 저승문이 문같으만  
 열고달고 보지만은

160) 두들겨서.

161) 넣어 놓고.

162) 저기 오는.

163) 갈 적에는.

164) 올 적에는 명정(銘旌) 다네.

사장사자 옥사자  
옥문잠깐 열어주소  
임의얼굴 보고갈래 (아이구 대라.)

[복구 민요 70]

### 모심는 소리

김복열(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남창남창 베루끝에<sup>165)</sup> 무정하던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석을 거느릴래

[복구 민요 71]

### 너냥 나냥

김복열(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너냥나냥 두리등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 오빠 줄라꼬 옛사다 놓니요  
시리 샅샅 동풍에 다녹아졌네

[복구 민요 72]

### 양산도

박명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

165) 벼랑 끝에

우리집

(아이구! 모르겠다 내.) (조사자: 우리집 양반 나를 안고)

나를안고 돈다

[북구 민요 73]

### 모심는 소리(1)

박명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님 산소등에 소를심어 영화로다

[북구 민요 74]

### 모심는 소리(2)

박명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애전복<sup>166)</sup>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소

점شم시계 열두신데 점شم참이 늦어오네

미나리아 시금초는<sup>167)</sup> 맛본다고 더디왔소

뜸복뜸복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맘은 어데가고 딸을동제를 맏겼던고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sup>168)</sup>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는 환승할래

---

166) 문어와 전복.

167) 시금치는.

168) 꽃을 피워 다 자라면.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부모님 산소등에 젓묵으러 내가가요

포롱포롱 봄배차는<sup>169)</sup>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들은<sup>170)</sup> 춘향이는 이대령오기만<sup>171)</sup> 기다리오

모시적삼 안섰아래 분통같은 저젓보소  
마이보믄<sup>172)</sup> 병이나니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복구 민요 75]

### 시집살이 노래

박명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주바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복구 민요 76]

### 화투 타령

박명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정월속가지<sup>173)</sup> 속속한마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

169) 봄배추는.  
170) 옥에 갇힌.  
171) 이대령 오기만.  
172) 많이 보면.  
173) 솔가지.

사월흑싸리 허사만사  
오월난초 나비날라  
유월목단에 떨어지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시절은국화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오동추야 달이밝아  
임의님생각이 절로난다

[복구 민요 77]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임구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캐샀데 저기.) (청중: 에이고! 잘하네.)

[복구 민요 78]

### 권주가

안수복(남, 1939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뉘.) (청중: 권배주요.) 권배주요 (카는, 고 고런.)

[북구 민요 79]

### 청춘가

안수복(남, 1939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일각서산에 해떨어지고 일출동녘에 달이등실뜨다  
(카는 기, 그 노래를 들었구만.)

[북구 민요 80]

### 너냥 나냥

이오용(남,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조사자: 너냥나냥 뭐 있다 아닙니까, 두리동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북구 민요 81]

### 보리타작 소리

이오용(남,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공창새마을회관]

(이삭이, 이리 뚜드리다 보면, 보리이삭이 이리 하나씩 나오잖아 이래 딱. 이래가  
처음에 밀어 내주는 사람이 그래 탁 쳐밀어주면서.)  
형수씨 보지보소  
(커며 이라거든. 이제 보리라 카는 기 썰가<sup>174</sup>) 짜른께네.)  
보지보소. [웃음]

---

174) 혀가.

(그르면서도 타작을 하거든.)

[복구 민요 82]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계화(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청두맨두 도맨두  
짜바리 이양근  
도리집치 장두칼  
호매이 통가리 꽃밭

[복구 민요 83]

### 양산도

홍길자(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선읍에 물레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우리집에야 저멍텅구린 나를안고 못도네

[복구 민요 84]

### 모심는 소리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이논뻬미에 모를심어 가지가벌어서 장화로다  
님아님아 우리님아 우리님은 어디가고

[북구 민요 85]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참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북구 민요 8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손아래 박구 떡박구요  
연지 조래 조래로  
도래짐치 장두칼!

[북구 민요 87]

### 사발가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고요  
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없다

[북구 민요 88]

### 시집살이 노래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더노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에럽더라

[북구 민요 89]

### 진주난봉가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올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머님 하신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을 만날라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흰빨래는 희게빨고  
검은빨래 검게빨아  
집이라꼬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서방을 만날라면  
웃사랑을 올라가라  
웃사랑에 올라가이까네

(그래, 기생첩을 옆에 두고 그래, 진주 남강을 하고 있더라, 그래, 이것을 본 며늘  
애기는 뭐 사랑방에 올라가여, 석사수치 명지수건에 목을 매어 죽었다 안카나.)

(조사자 :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본댁 정은 백년이오.)

(그래, 그래 맞다 내 빠자 먹었다 그래.)

본부인은 백년이오

기생첩은 삼년인데  
니죽을줄 내몰랐다 (이개.)

[복구 민요 90]

### 본조아리랑

황명순(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금곡동 주공1단지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복구 민요 91]

### 모심는 소리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sup>175)</sup>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마연다<sup>176)</sup>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즌데 (청중1:응, 맞다.) 어데가노  
우리야엄마 산소등에~이 젓묵으러 나는간다  
(청중2: 잘 하네.) (청중1: 옛날에 그래 켜다.)

농창해창 저비루끝에~이 무정하다 저오라바  
좋다!  
나도죽어 후생가서~이 남자한번 새기볼래<sup>177)</sup>

---

175) 니는 언제.

176) 열매 연다.

177) 사귀어볼래.

서마지기 이논빼미~이 반달같이도 떠들어오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청중: 이 후후후후 그런대.)

풍당풍당 수지비~이<sup>178)</sup> 사우판에 다올랐네  
저놈의할마시 어디가고 딸만동자 시키노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몽상을 입었는데  
(또 뭐라쿠노. 잊어뵈다.) (청중: 나도 까무뵈다.)

물꼴랑청청 혈어놓고 주인에한량은 어디갔노  
등님에다가 첩을두고 첩의아집에 놀로갔네

밀양삼단 연못안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그연밥을 내가따주께 이내품에 잠들어라 [웃음]  
(맞는가 모르겠다. 다 잊어뵈다.)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걸은 저젓바라  
그젓을한번 덩씩지른 영결영천 귀양간다  
띠띠리~ 띠띠리리야 아니야놀고도 못사리라

저게가는 저구름아 눈실었나 비실었나 (청중: 잘 하네.)  
눈도비도 아니실고 노래명창을 내실었다  
띠띠리~ 띠띠리리야 아니야 놀고도 못사리라

[복구 민요 92]

## 노랫가락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

178) 수제비.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은 여전하다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가 좋네 아니놀고도 못살리라

[북구 민요 93]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자화자 좋네 아니놀고도 못살겠네  
(청중: 좋다!)

[북구 민요 94]

### 시집살이 노래(1)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텃밭에라 수시를숨겨<sup>179)</sup> 건더령건더령 시동상아  
텃밭에라 고추를숨겨 맵고짭고 맞동서야  
(또 뭐라쿠노?)

[북구 민요 95]

### 댕기 타령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

179) 수수를 심어.

산드리~이 봄바람 삼각사 자리댕기  
범나비한쌍 춤을추네

[복구 민요 96]

### 시집살이 노래(2)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도리도리 도래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중우버신 시아버지(저 시아버지라 카나?) 말하기도 어렵더라  
(맞다 고기.)

[복구 민요 97]

### 진주난봉가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울도담도 없느난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목이 다 간다.)  
시어머님이 하신말씀  
야야아가 며느리아가  
진주야냥군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야남강에 빨래를가니  
돌도좋고 물도좋아  
흰빨래는 희게다가씻고  
검은빨래는 검게씻쳐  
난데없는 발자국소리

기회라고서 돌아보니  
하늘같은 낭군님이  
구름같은 갓을씌고  
태산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도 지나가네  
집이라꼬 찾아오니  
시어머님 하신말씀  
야야아가 며느리아가  
진주야낭군을 불러거든  
아랫방으로 내려가라  
아랫방으로 내려가니  
아홉가지 술을놓고  
기생아첩을 옆에끼고  
권주가를 하는구나  
그길로 내방에돌아와서  
석자수건 명주에다가  
목을잘라 죽었구나  
낭군님이 그말을듣고  
보신발을<sup>180)</sup> 뛰어내와  
사랑아사랑아 내사랑아  
하루에정은 석달이오  
본댁정은 백년이라  
심통만통 말도없이  
당신이 그랄줄<sup>181)</sup> 내몰랐네  
(이기, 이기 좋아.)

[복구 민요 98]

## 못 갈 장가 노래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

180) 버선발로.

181) 그렇게 할 것을.

사주에도 못갈장가 공합에도 못갈장가  
못갈장가를 밀치놓고 장갓질을 찾아가니  
한모랑이 돌아가니 까마귀간치가<sup>182)</sup> 진동하고  
두모랑이 돌아가니 질밑에라 야시새끼  
지붕에야 풀짚뛰네  
(이제 다 까 묵고 모르겠다. 고마 그기 첫날밤꺼징 다 있는데.)  
[연이어 말로]  
담뱃채가 내려앉고 또한모랭이 돌아가니  
(이 옛날에 그기 뭐꼬? 저 저.)

[복구 민요 99]

### 백발가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어지<sup>183)</sup>겘이도 소년이더니 오늘겘이도 백발이다

[복구 민요 100]

### 남녀연정요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화초동방 첫날밤에 이불평풍 둘러치고  
상춧불을 피워놓고 긴비개 마주비고  
(아! 긴비개 마주 비고.)  
[연이어 말로]

---

182) 까마귀와 까치.

183) 어제.

방가운데 키안촛불<sup>184)</sup> 임이끝까 내가끝까  
핑풍<sup>185)</sup>에 기린학이<sup>186)</sup> 니가날라 불을끄리

[복구 민요 101]

### 화투 타령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청중: 정월 속가지 속속한 마음.) (맞아예, 그기라.) (청중: 이월 매자에 맺아 놓  
고.) (응.) (청중: 삼월 사쿠라 산란한.)  
사월흑싸리 허소하다  
오월난초 나비날아  
유월목단에 춤을친다  
칠월홍दै지 홀로쉬어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피자마자  
시월단풍에 쓰러졌다<sup>187)</sup>

[복구 민요 102]

### 양산도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양산읍내 물리방아<sup>188)</sup>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영감은 나를안고 돈다 [웃음]

---

184) 켜 놓은 촛불.

185) 병풍예.

186) 그린 학이.

187) 쓰러졌다.

188) 물레방아.

[복구 민요 103]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윤도맹도 도맹도  
짜벌어 해양자  
정지문에 장독칼

[복구 민요 104]

### 베틀 노래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오늘날도 하심심하야 베틀한상 모았더니  
베틀놀데 전혀없어 옥난강에 둘러보니  
옥난강이 비었구나  
[말로하다 이어 노래로]  
앞다리는 도와놓고 뒷다리는 낮기놓고<sup>189)</sup>  
부티한상 돌른양은 심심산골 허리안개 두른겘고  
북한산 나던양은 (아이구 잉. 뭐라?)  
백비둘기 알을품고 배옥강에 넘나드네  
잉엣대는 이형지요<sup>190)</sup> 놀령대는 호불애비  
보김이는 육형지요 (또, 하이고!)  
도토마리 (아이고!, 다 잊어뒀다. 그 뭐꼬 이거?)  
용두마리 노는것은 낮게뒀다 쌍기러기  
높이뒀다 위기러기 기러기한쌍 노는구나  
(이기 뭐꼬? 그거 철기신.)

189) 낮게 놓고.

190) 이형제요.

철기신은 호불애비 미신째기 목을메어

오도가도

(몬하고, 만날 웃다갔다 웃다갔다 그거. 비짜면 이래 이래 안하나? 거기 거기다.

그기 아이다. 아이고 모르겠다 까뭇뿌고.)

[복구 민요 105]

### 권주가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칠년대왕 가문날에

이슬받안 술이오니 권할적에 잡으시오

(에이, 맛좋다.)

[복구 민요 106]

### 창부타령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아니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하늘같이도 높으신사랑 하해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뭐라쿠노? 맞나?) (청중: 칠년대왕에 가무름에)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기

운사람

(그카고 또 뭐라쿠노?) (조사자: 얼씨구야.)

좋다 기화자가 좋네 [웃음]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복구 민요 107]

### 남녀연정요[삼 삼기 노래]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남산밑에 남대롱아<sup>191)</sup> 서자밑에 서처녀야  
니신짝도 짝이있는데 너와나는 짝이없네  
(뭐라 캔 기라, 아! 닭 우는 소리.)  
첫닭울어 밥을짓고 두개울어 신발신고  
시에울어<sup>192)</sup> 행장을차려 (아이구!)  
서산밑에 서대롱아 [웃음] (아이다.)  
남산밑에 남도령아 서산밑에 서처녀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처마벗어 치알치고<sup>193)</sup>(이거 뭐꼬? 이거.) 헐띠벗어<sup>194)</sup> 평풍치고  
(아이고, 모르겠다 나. 그래가 둘이 맺았는데, 다 까묵고.)

[복구 민요 108]

### 뱃놀이 노래

박종식(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금발에라 솔씨를뿌려 그솔이점점 자라나서  
황송정이 되었구나 그솔을몽땅 비어다가  
조그맣게 배를모아 한강에등실 띄어놓고  
술이며안주 가득신고  
(또 모르겠네, 그거는 또 먼저 하는 거로 뒤에 했네.) (조사자: 괜찮습니다.)  
찰떡매떡 두당세기 인절미썩떡에 네당세기  
전주약주 뚜두리미<sup>195)</sup> 일등면기생과 복장기를<sup>196)</sup> 가득신고

---

191) 남도령아.

192) 세 번째 울자.

193) 차양을 치고.

194) 허리끈 벗어.

195) 두드리며.

196) 복과 장구를.

선동아 배질러라 악양으로 놀러가자  
(그것도 다 까뒀다.)

[복구 민요 109]

### 화투 타령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청중]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청중: 쫘 해주라.) (다 잇아뻘어 나는 인자. 중간에 밖에 몰라.)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 (조사자: 날아.) 날라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또.) (조사자: 칠월)  
칠월 (조사자: 흥돼지.) 흥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그 뭐도?) (조사자: 구월)  
구월국화 (청중: 굳은마음.) (응.)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그 뭐도?)

[복구 민요 110]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알강달강 그기 또 뵈인니라?)  
밤한개 좇어올라  
밤한톨을 주웠더니  
머리깎은 새앙주가<sup>197)</sup> 다가묵고 (조사자: 밤 한 톨이 하나 남은.)  
한톨이 남은거는 (조사자: 껍데길랑.)

꿍데길랑 애비주고  
보늬는 애미주고  
알키는 니캉내캉 갈라묵자  
(청중: 알콩달콩.)

[복구 민요 111]

### 노랫가락[그네 노래]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sup>198)</sup> 오색당색실 그네를매아  
임이밀면 내가뛰고 내가밀면 임이뛰고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복구 민요 112]

### 사발가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sup>199)</sup>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복구 민요 113]

### 달 타령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

197) 생쥐가.

198) 세모진 나무.

199) 연기도 김도.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은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뺏겼으니  
(뫼이라 카더노? 또.)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또 뭐라 카더노? 누캉 뭐라 카더노?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또.)

[박종식]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천부모 모시놓고 천년만년 살고지라

[복구 민요 114]

### 파랑새요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개 앞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믄  
청포장수 울고간다

[복구 민요 115]

### 너냥 나냥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너냥나냥 둘이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너냥나냥 둘이등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박종식]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로 갔는데  
바람아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에이, 나쁘다.)

[북구 민요 116]

### 창부타령

안명수(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1일 채록  
[덕천1동 기비골마을아파트경로당]

백구야백구야 나지마라 너를쫓아 내아니간다  
세상이 가련하야 너를쫓아서 여기왔나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북구 민요 117]

### 사발가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나 풍풍나는데  
(조사자: 요내.)  
요내가슴 타는데는 영도  
(조사자: 연기도 짐도.)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북구 민요 118]

### 백발가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보고서 반절마라  
어제같이 소년이더니 오늘같이도 백발이로다  
열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웃음]

[복구 민요 119]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뭘라 쿠노?) [웃음] (청중: 찬 이슬, 찬 이슬.) (조사자: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그 전부 다 외았는데 다 잊아뿌고 모르겠다.)

[복구 민요 120]

### 모심는 소리(1)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능청능청 벼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래비  
나도죽어 후생가서 낭군한번 되어볼래

[복구 민요 121]

### 모심는 소리(2)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북구 민요 122]

### 모심는 소리(3)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물꼬야청청 혈어놓고 주인댁양반 어데갔소  
(조사자: 문어야 대전북 손에 들고.) (다 잊어뿌고 몰라.) [웃음]

[북구 민요 122]

### 도라지 타령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리  
(조사자: 반실만.)  
철철넘는다

[북구 민요 123]

### 노랫가락[그네 노래]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 군대답는<sup>200)</sup> 저처녀야

(또 모르겠다.) [웃음] (조사자: 임이 타면 내가 밀고.)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어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정만 떨어지나 오만전신<sup>201)</sup> 다떨어진다

[복구 민요 124]

### 양산도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올의님은<sup>202)</sup> 나를안고 돈다

[복구 민요 125]

### 창부타령

구말순(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젊어좋다 젊어서놀아 [웃음]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인생은 일자춘몽에 아니놀고서 못하리

[복구 민요 126]

### 창부타령

김명순(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

200) 그네 닦는.

201) 오만 것, 모든 것을 말함.

202) 우리 님은.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졌겼느냐  
열씨고 절씨고  
날두고 가는낭군님 가고싶어 갔겼나  
열씨고 절씨고  
(그리빠이<sup>203</sup>) 모린다.)

[북구 민요 127]

### 모심는 소리

김명순(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청중: 낭창낭창 그 노래 카는 기 있었다.)  
바위끝에 무정한 우리오빠야 우리오빠야  
앞에가는 동생두고 뒤에오는 처를잡나  
(그래.)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처를한번 섬기볼래  
(뭐 그런 노래도 있었다.) (조사자: 맞습니다. 예.)

[북구 민요 128]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정임(여, 192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맹금 도맹금

[북구 민요 129]

### 파랑새요

박정임(여, 1924년 생) 가창

---

203) 그것밖에.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 앉지마라  
(조사자: 녹디꽃이.)  
녹디꽃이 떨어지른 청포장사 올고간다

[복구 민요 130]

### 모심는 소리

서분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저훗달에 열매열래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겉이 내나가네

열두시가 되었는데 떠나오네 떠나오네  
동네서 점سم광주리 떠나오네  
(그때는 말끔 여다가 갔거든. 다 까뒀어.)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올오마니 산소등에 짓먹으러 내가간다

물꼬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노  
(주인양반 어데 갔노. 주인양반 인자 첩의 집에 놀러갔다고.)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짜골짜이 연기나네  
울의님은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던고  
이곳저곳 다댕겨도 울의님은 간곳없고

[복구 민요 131]

### 모 찌는 소리

서분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이아내자 이아내자  
(뭣이 그 또 잊아뻘네.)  
서마지기 이모판을 언제이아널꼬  
(언제 찌 널꼬 이기라. 많이 불러쨌는데, 그것도 뭐뭐 한 사십년이나 삼십년이나  
까무나니<sup>204</sup>) 모르겠다.)

[복구 민요 132]

### 남녀연정요(1)

서분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양산도 독얏은샘이 보리쌀씻는 저큰아가  
뉘간장을 녹힐라고 니그리곱게 생겼노  
여보당신 그말마소 당신언제 날봤다고  
(그리쿠고. 그 인자 선배가 손목을 잡는 기라. 연애를 보고.)

[복구 민요 133]

### 남녀연정요(2)

서분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가래같은 반동안에 시집못간 내아니아  
오만총각이 내손목잡고 낙노를해도

---

204) 잊어버려.

(옛날에는 돌아볼똥 말똥 했거든. 요새는 좋으면 연애를 하지만은. 그런 노래도 다 까뒀어.)

[복구 민요 134]

### 너냥 나냥(1)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하면서 노셨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데.)

너냥나냥 두리둥실 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노는새는 님기리와<sup>205)</sup>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복구 민요 135]

### 너냥 나냥(2)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신작로 복판에 하이아가 가고요  
하이야 복판에 신랑신부 노닌다

[복구 민요 136]

### 청춘가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

205) 님이 그리워.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말아라  
아까운 내청춘 다늬어간다

[복구 민요 137]

### 모심는 소리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뜸복뜸복 찰수지비는 사우야판에 다올린다

[복구 민요 138]

### 성주풀이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낙양산 십리하에 높고낮은 저무덤아  
저산비둘기 잡지마라 저산비둘기 나와같이  
님을잃고 밤새도록 님을찾아 헤매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복구 민요 139]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불매불매 불미야  
이불미가 누불미고  
전라도 자랑새

[복구 민요 140]

### 화투 타령

황경자(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덕천1동 대방아파트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진다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더라  
칠월홍दै지 홀로선마음  
팔월공산에  
구월국화 굳은절개  
시월단풍이 들었구나  
동지섣달 서런마음  
(동지섣달 서런 마음, 그기 까지만.)

[복구 민요 141]

### 모심는 소리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내훗달에 열매연다

더디오네 더디오네 점심참이 더디오네  
순가락도 (뭐, 닷단을 뭐 깬다고 더디왔다 하더나?)

해다졌네 해다졌네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던고

(청중: 다풀다풀 타박머리.)

타박머리 (저 저.) (조사자: 해다진데.) 해다진데 어데가노

엄마찾아 (저 저.) 산소간다 (하는가?) (조사자: 엄마?)

(청중: 엄마. 젓묵으러 간다던가 모르겠다.) (참 엄마 산소, 엄마 무덤에 젓 먹으러 간다. 맞다.)

유월달이 두달이면은 첩을팔아 부채사고

동지선달 (저 저.) (청중: 구시월이 닥쳐오면.)

구시월달이 닥치면 첩을팔아 (또.) (청중: 첩의 생각 절로난다.) 첩의생각 절로난다 (맞다.)

모시적삼 안설편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많이보든 병날끼고 쌀날만치<sup>206)</sup> 보고가라

낭창낭창 벼랑끝에 (조사자: 무정하다.) 무정하다 저오랍아. [웃음] (그래 카이 또 생각이.)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속 섬겨볼래

이논에다 모를심어 영화로세 (또, 저 저게. 우리 산소 응.)

우리엄마 산소에다가 솔을심어 영화로다

저기가는 저구름에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명창 내들었다

올뽕달뽕 뽕밭에 뽕잎따는 저큰아가

---

206) 쌀 한 톨 만큼만.

뽕잎은 내따주게 내강 백년해로해가 살자 (카노, 뭐라 카노?)

[복구 민요 142]

### 너냥 나냥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그러카고.)  
(조사자: 아침에 우는.)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청중과 함께] (이라고.)  
냥군님 드릴라꼬 호박덩어리를 삶았더니  
아차감차 잊어뿌고 요강단지를 삶았네 [일동 웃음] (또, 저 저.)  
서방님 줄라꼬 명태동태를 삶았더니만  
아차 잊어뿌고 물방맹이로 삶았네 [일동 웃음]

[복구 민요 143]

### 양산도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서방님은 나를안고 돌고

[복구 민요 144]

### 시집살이 노래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예렵더라<sup>207)</sup> (또 뭣이고 또?) (조사자: 중우벗은.)  
중우벗은 시아주바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북구 민요 145]

### 방귀 타령

김정의(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동시방구는 뭐.) (청중: 며느리 방구는 도둑방구. 저 그렇게 하더라고.)  
시어마이 방구는 (청중: 양살방구.) 양살방구  
동서방구는 우둑방구  
(청중: 시누부방구는 개살방구.)  
개살방구 [웃음] (조사자: 시누 방구는 개살방구?) (응) (조사자: 시아버지 방구는  
예?)  
(시아버지 방구는 몰라 무서운 방군이 뭣인가 모르겠다.)

[북구 민요 146]

### 보리타작 소리

김정의(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앞다리 때리라  
옹헤야  
요리 때리라  
옹헤야 (캐사며 그란데.) [웃음]  
지수씨도  
옹헤야 (뭘.)  
형수씨도

---

207) 어렵더라.

옹헤야  
지수씨도 내손만 바래고  
옹헤야 (카고.)  
지수씨도 내손만 바래고  
(조사자: 혀가 짧아가지고.) (응, 혀가 짧아가지고.)  
(청중: 내 손만 그거로, 그거 혀가 짧아가지고 내 좇만 바랜다꼬)

[복구 민요 147]

### 사발가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물레  
(청중: 연기와짐도 나건만은.)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청중과 함께 가창]

[복구 민요 148]

### 권주가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청중: 묵고 놀자는.) 묵고놀자는 백년주라 (카나? 뭐라 카나?)

[복구 민요 149]

### 백발가

김정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아래 청춘이더이만은 오늘에사 백발이다  
백발되기 잠시로다

[북구 민요 150]

### 화투 타령

김정익(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놓고  
오월매조 맺은마음  
(청중: 오월난초.)  
오월난초 (참.) (청중: 나비되어.) 나비되어  
유월목단에 날라들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오르고  
구월국화 굳은잎이  
시월단풍에 똑떨어지고  
오동지선달 (뮌라카노?) (청중: 동지선달.) 서런품에 (청중: 서런풀에.) 서런품에  
(청중: 십이월은?)  
십이월에 (뮌라 카노? 모르겠다.) (청중: 다 잊어뿌고 뮌 뮌.)

[북구 민요 151]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정익(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도맹도 도맹도

[복구 민요 152]

### 아기 어르는 노래[동계요]

김정익(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동계동계 동계야  
이자식 (뭘.)  
은을주고 나를살까  
금을주고 너를살까  
동계동계 동계야  
우리손지 동계야  
(카노, 뭘라 카노?)

[복구 민요 153]

### 베 짜는 노래

김정익(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올도담도 없는집에 (그거 짜는.) 삼비<sup>208</sup>짜는 저큰아가  
그비짜가<sup>209</sup> (뭘라 카노? 그래 하면서.) 서울간남군님 (조사자: 와이짜츨.) 바지저  
고리 해줄라고짚다 (이래.)

[복구 민요 154]

### 베틀 노래

김정익(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

208) 삼베.

209) 그 베를 짜서.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베틀농세 베틀농세 옥난강에 베틀농세  
낮에짜른 일광단이오 밤에짜른은 월광단이오  
(그거 해가지고.) (조사자: 일광단 월광단.) 응, 일광단 월광단 (조사자: 짜서.) (그  
거 해가지고 뭐 비로 짜가지고, 그래 이 베 짜가지고 뭐 할라 카노 카면은 서울  
간 낭군님, 선비님 오면은 옷 해 줄라꼬 그리 했다 이라는데, 모르겠다.)

[북구 민요 155]

### 모심는 소리

박명화(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딸년을 동자로시키고 사우절에 찰수제비가 다들어갔다

[북구 민요 156]

### 아기 어르는 노래(1) [불매요]

박명화(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불매야 불매야  
퍼다딱딱 불매야  
(이러 카면, 아가 마 신이 나가 다리가 끄떡끄떡 캐삼써.)

[북구 민요 157]

### 아기 어르는 노래(2)

박명화(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손주로 아담고<sup>210</sup>) 무릎에 엮이놓고.)  
밥잘먹는거는 아버지덕  
옷잘입는거는 엄마덕  
밥잘먹는거는 아버지덕  
옷잘입는거는 엄마덕  
(깨싸며, 우리 할배가 만날 그리 해쌌어.)

[복구 민요158]

### 모심는 소리(1)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 (대답으는.)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심어서 정자로다  
(그리 한다.)

낭창낭창 배리끝에 밀고가는 울오랍아  
(인자 또 받는 사람이.)  
난도야<sup>211</sup>죽어 후생가서 낭군님부텨 섬길란다  
(그 인자 그 끝자리 그렇구만.)

[복구 민요 159]

### 모 찌는 소리[후리 소리]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

210) 안고.

211) 나도.

밀치라 닥치라 모두다 훌치라  
(청중: 그래 했다.) (어.)  
영해영덕 초목은  
(끝자리가 뭉고 모르겠다. 가다가 어, 그리 했고.)

[복구 민요 160]

### 모심는 소리(2)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수양산바람이 내리불어 야산풀잎이 발발편다  
(쿠고, 그 인자 또 고 다음에 받는 사람은느.)  
천하일색이 내하난가 나를잡고서 발발편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나네<sup>212)</sup>  
울의야임은 어디가고 연개낼줄을 모르느고 [웃음]

모시야적삼 씨적삼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웃음]  
(조사자: 많이 보면, 받아 주이소 소리.)  
(청중: 병날 끼고 쌀날만치 보고 가소 안 카나.)

[복구 민요 161]

### 사발가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sup>213)</sup>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아니나네

---

212) 연기 나네.

213) 연기.

[복구 민요 162]

### 노랫가락(1) [남녀연정요]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도다이 등거산에 낚시질하는 총각아  
아가씨 바람에 풍파를 만나서  
나물도 쿵덕쿵덕 내맘도 쿵덕쿵덕  
대장부 간장을 다눙힌다

[복구 민요 163]

### 노랫가락(2)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배고파 지으난밥은 미도많고 돌도많다  
미많고 돌많은것은 임이없으나 탓이로다

[복구 민요 164]

### 노랫가락(3) [봄배추 노래]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웃음]

[북구 민요 165]

### 쌍가락지 노래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어내어  
(조사자: 먼 데 보니.)  
먼데보니 달일래라 짚해보니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돌일래라  
홍달바시 오라바님 거짓말씀 말아시오  
남풍이 디리불고 북풍이 내리부니  
풍지떠는 소릴래라

[북구 민요 166]

### 비둘기 노래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낙동강변에 비둘기한마리 파란콩하나 주아다가  
암놈은물어 숫놈을주고 숫놈은물어 암놈을주니  
청춘과부는 반붓짐싸고 늙은과부는 한숨쐬네 [웃음]

[북구 민요 167]

### 남녀연정요(1)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독수공방 빈방안에 귀신아끝은 저임보소  
분통같은 이내몸에 다담다담이 손들온다

어리춘색 만나방청 대마종다 벗님네요  
우리벗님 어두로가고 날찾을줄 모르는고

[복구 민요 168]

### 베틀 노래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청산에 노던선녀 지하에 내리와서  
하루것이 정이없어 배운것이 베틀이라  
베틀다리 니다리요<sup>214)</sup> 선녀다리 두다리라  
안칠대우에<sup>215)</sup> 앉은애기 (이 앉아가 베를 짜거든.)  
안칠대우에 구름우에 앉아있는 선녀같고  
구태야 돌인냥은  
천태산 높은산에 허리안개 두린덧고  
보림지 치는소리는 천상옥황 벽락치는<sup>216)</sup> 소리겘고  
잉엣대 삼형제요 놀림대 호불애비  
쿵덕쿵 (넘어, 베틀이 이래 팽기면은 턱 넘어가고, 쿵덕쿵 넘어간다.)

[복구 민요 169]

### 신세 타령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가소롭다 가소롭다 여자일생 가소롭다  
전생에 무슨죄로 여자몸이 생기나서  
생명부지 남의집에 이십전에 출가하여  
부모형제 이별하고 키울때는 마른자리

---

214) 네다리요.

215) 앉는대 위에.

216) 벽락 치는.

진자리를 가려가며 가고  
(하이고! 그 다 잊어뵈다 마. 다 잊어뵈다. 그래 그거.)

[북구 민요 170]

### 남녀연정요(2)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올너매 담너매 임숨가<sup>217)</sup> 놓고  
날실날실 호박잎이 날속인다

[북구 민요 171]

### 노랫가락(4)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산은 내산이로되 물은내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흘러가니 내물이라꼬 할수없어

[북구 민요 172]

### 노랫가락(5)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저건네 저산이 하도 명산이라서  
오동지 선달에 함박꽃 팝니다

---

217) 입을 숨겨 놓고.

[복구 민요 173]

### 창부타령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인생일장 춘몽이요 노다가  
(마, 잘 놀다 갑시다.) [웃음]

[복구 민요 174]

### 아기 어르는 노래

박시화(여, 192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준들 너를살까 돈을준들 너를살까  
(그 복판에도 뿔이 마이 있다. 있는데 다 잊어뿔다.)

[복구 민요 175]

### 양산도

박호연(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영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요  
남방골 큰애기 나를안고 돈다  
(칭중: 우리는 서방님은.)

[복구 민요 17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호연(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도맹도 도맹도  
보리가 나도록 살아라

[북구 민요 177]

### 사발가

박호연(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풍풍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풍풍아니난다

[북구 민요 178]

### 모심는 소리

배종곤(남,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2일 채록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물길랑어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조사자: 문어야.) (청중1: 살구야짜지 손에들고.) (조사자: 문어야 전복.) (청중1:  
“살구야짜지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다.” 안 카나. 우리야 님은 어디갔노 카  
면은.) (조사자: 아! 예.) (청중1: 살구짜지 그 들고 첩의야 집에 놀러갔다.) (조사  
자: 아! 살구짜지가 살구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까?) (청중1: 아니, 살구짜지 그  
거, 옛날에 그거 짜지 물길 혈고 하는 거 살구짜지라고 있거든.) (조사자: 살미짜  
지예?) (청중1: 끈티, 끈티 뭐 수건포 맨치로 달고 있거든.) (청중2: 물길 혈로 갔  
다.) (청중1: 물길 혈로 갔다.) (청중2: 물길 혈로 갔다.) (청중1: 그래 물길 맞다.)

[북구 민요 179]

### 화투 타령

공춘덕(여,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상학경로당]

정월솔솔 솔심어놓고  
이월메조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에  
사월흑사리가 월날아든다  
오월난초 나는날에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여  
팔월공산에 달도나뵈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북구 민요 180]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김옥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우리 동네는.) (조사자: 어떻게 했는교?)  
앞니빠진 갈가지 (조사자: 앞니 빠진 갈가지라고?)  
앞니빠진 갈가지  
또랑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란다 (이카고.) (조사자: 붕어새끼 놀란다.)

[북구 민요 181]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도맨도 도맨도<sup>218)</sup>  
짜발로 희아서  
모내춤치 도리서  
육구육구 질라육구<sup>219)</sup>  
당산에 뭐  
질똥 말똥 (요라모 오구리고 이래 하는 기라.)

[북구 민요 182]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싱이 시집갈제  
가매꼭지 물드간다  
(똥라 캐? 비단치마 얼렁진다 캐는가?) (조사자: 응. 비단치마 얼렁진다.)

[북구 민요 183]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불미불미 불미야  
이불미가 뉘불미고

---

218) “진주 망근 도 망근”이 변형되었다.

219) 전라 육구.

정상도 대불미

(뭐, 뭐.)

후르르 딱딱 (켰는가? 뭐라 컸는가. 또 그것도 모르겠다.) (조사자: 후르르 딱딱.

후르르 딱딱.)

[복구 민요 184]

### 이갈이 노래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내 헌니 줄게 새이 나도라 (카고. 뭐 떼지면서 뭐라 컸는지도 모르겠다.)

[복구 민요 185]

### 화투 타령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메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여

팔월공산에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그래. 그래 한다.)

[북구 민요 186]

### 청춘가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세월아 네월아~이요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춘 좋~다 다늙어지노라

[북구 민요 187]

### 사발가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고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에헤요 아여라 난다 지화자 허송세월이 다간다

[북구 민요 188]

### 노랫가락[그네 노래]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추천당 세모진낭게 떨어진가지 군대를 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살살밀어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그래 쫓다.)

[북구 민요 189]

### 양산도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양산도 큰애기 베짜는 소~리  
질가던 총객이 발맞차 가~ (우리 그런 것도 하기는 한다. 안자 고만 할란다.)  
(조사자: 에허라.) 놓여라 아나가 못노리로~다 (아이고 안 할란다.)

[북구 민요 190]

### 모심는 소리

변순희(여, 1934년 생) 가창  
2015년 2월 7일 채록  
[만덕1동 새솔경로당]

[음조리듯이]  
모시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두고보몬 병날깁데 손톱만치만 빌려줄라고 (이카고.) (조사자: 많이 보면 병 날 기  
고.) (많이 보몬 병 날 끼고 그래 썩다.)

[북구 민요 191]

### 모심는 소리

김유선(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이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가되여 처자곤석 시기볼세

[북구 민요 192]

### 파랑새요

김유선(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파랑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 앉지마라  
청포장사 (청중: 아이야. 녹디꽃이.)  
[말로]  
(아! 녹디꽃이 떨어지문 철포장사 울고간다.)

[복구 민요 193]

### 청춘가

김을선(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세월이 가면은 너흔차 가지만은  
아깝운 내청춘은 좋~다 다늬어가노라

[복구 민요 194]

### 양산도

김을선(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에헤헤이여~  
양산읍네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낭군은 나를안고 도~네  
에야 밀어라 밀어 땡기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복구 민요 195]

### 사발가

김을선(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포올 나누라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만나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야라 난다 지화자  
(안 넘어간다.)

[북구 민요 196]

### 창부타령

김을선(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산도봄철이든강 만가지풀잎이 둘러싸고  
우런님도 밤중이던강 이불자락이 나를 덮네  
(요만침만 하입시더.) [일동 웃음]

[북구 민요 197]

### 모심는 소리

이순우(남,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모시야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나보면 병들끼고~ 좁쌀만치 보고가소

이물기저물기 다혈어 제쳐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등념에다 첩을두고~오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오늘해가 다졌는가~ 집집마다 연기나네  
우리네마누라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네

[북구 민요 198]

### 산비들기 소리 흥내 노래

이순우(남,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기집죽고<sup>220)</sup> 자석죽고  
사방농사 지어다가  
내호무차<sup>221)</sup> 어째살꼬

[복구 민요 199]

### 청춘가

이순우(남,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너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청춘이 좋더라 다늬어가노라

[복구 민요 200]

###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순우(남, 1941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시천당<sup>222)</sup> 세모진낭게 오색가지로 추천을매여  
내가타면 님이~밀고 님이타~면은 내가민다  
님아님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복구 민요 201]

### 노랫가락[나비 노래]

---

220) 계집 죽고.

221) 나 혼자서.

222) '추천당'을 이렇게 불렀다. 추천당은 추천 즉, 그네를 타는 곳이다.

이점숙(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만덕2동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 내품안에 자고가세 [웃음]  
(다 틀린다 아임니꺼.)

[복구 민요 202]

### 노랫가락[술배 띄우는 노래]

박외선(여, 1928년 생) 가창  
2015년 2월 8일 채록  
[만덕2동 중리경로당]

[가창하지 않고 읊조림]  
탁주를 배를모아서 청주강에다 띄아놓고<sup>223)</sup>  
늦제까지<sup>224)</sup> 잼이를짚고 반물치마<sup>225)</sup>를 돛을달아  
소주바람 솔솔히부는 안주선창에 유람가자

[복구 민요 203]

### 파랑새요

김봉희(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케<sup>226)</sup> 앉지마라 (청중: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푸장사가 울고간다 [웃음]

---

223) 띄워 놓고.

224) 늦젓가락.

225) 반물 빛깔의 치마.

226) 녹두나무에.

[북구 민요 204]

### 객귀 물리는 소리

김봉희(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칼로 물 좀 바가지다 뜨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그래 인제 마 사람들이 춥고 한전<sup>227</sup> 들고 막 이래 덜덜 떨고 이러마 객귀, 뭐 귀신.) (조사자: 객귀 들었다고 그라지.) (야. 객귀가 들었다 카고 그래 물리내고 머리끄덩이 조금 오래 뜯어가고 물에 주우 넣고.) (조사자: 짜르고 그라지.) (야. 그래가이고 갖다가는 물도 내 빠리고 칼도 내빠리고, 바가지는 거 얹어놓고 그래 칼이 인제 끝으로, 끄티미가<sup>228</sup> 바깥으로 나가만 객귀가 나가고, 들오만 안 나간다 카고, 안 나갔다 카고 이랬잖아.) [웃음] (조사자: 그렇지. 객귀 물리는 이야기라.) (어.) (조사자: 그런데 거기 소리 하는 기 있거든. “에잇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호령을 하거든. 어이 어드메 귀신아 어디서 나왔노.) (야. 귀신 이름도 알고 성도 안다. [웃으며] 함박 물에 썩- 물러 나가라 이라지.) [웃음]

[북구 민요 205]

### 모심는 소리

이유남(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심어~ 주인네한량 어데갔노  
(그래 주인네는 첩의 집에 놀러가고, 인자 거 갖주인들이 인제 모로 일꾼들 불여가지고 모로 송구는데 그 노래지.) (조사자: 주인네 양반은 어데 갔노?) (주인네 양반은 첩의 집에 놀러간다.) (조사자: 받는소리를 해주야지. 받는소리를.)

[북구 민요 206]

### 본조아리랑

227) 한기.

228) 끝이. 끄티미는 끝의 속어.

이유남(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고 발병난다 (우리들 클 때는 이래 배웠어.)

[복구 민요 20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유남(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때박구 독박구  
가 사 머 리

[복구 민요 208]

### 이갈이 노래

이유남(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옹조리듯이]  
까치야 까치야  
헌닐랑<sup>229)</sup> 니가져가고  
새일랑<sup>230)</sup> 날주세요 (카고.)

---

229) 헌 이는.

230) 새 이는.

[북구 민요 209]

### 화투 타령

이유남(여, 193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그린코아2차경로당]

정월술아 속속한마음  
이월메조에 맺어놓고  
삼월쌀보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흘쳐놓고  
오월난초 날아든나비  
유월목당에 앉았구나  
칠월칠석 흘 (조사자: 흘로. 흘 칠월 흥돼지 누워.) (뭉 흥돼지, 흘로나 돼지.) 흘  
로나 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동지섣달 긴긴밤에  
님의생각이 절로난다

[북구 민요 210]

### 모심는 소리

김순덕(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모시야적삼 흰적삼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은 병날꺼고<sup>231)</sup> 쌀날같이만 보고가소

[북구 민요 211]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

231) 병 날 것이고.

김순덕(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빠르게 읊조리듯이]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친다  
소주뱅이 갱물든다 (카는 그런 노래 했어.)

[복구 민요 212]

### 모심는 소리(1)

박복순(여, 1927년 생)<sup>232</sup>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에~야 반달겉~이 남았구나  
지가무신<sup>233</sup> 반달이러~야 초승달~이 반달이래

[복구 민요 213]

### 모심는 소리(2)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모야~모야 얼른커래~야 니언제커~서 노랑모고  
(해봐 해보이쇼.) (조사자: 이 달 크고 저 달 크고.) (이 달 크고 저 달 크고 훗달  
크고 해가지고.) (조사자: 칠팔월에 열매 열래.) (열매 연다 글 카고.) (조사자: 이  
달 크고. 받는 소리 해봅시다.)  
이달크~고 저달크고~야 니온제커서<sup>234</sup> 열매열래 (우리는 글 쿠요.<sup>235</sup>)

---

232) 고향이 경남 진주이다.

233) 자기가 무슨.

234) 너 언제 커서.

[북구 민요 214]

### 모심는 소리(3)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야 해다진-데 오이가노<sup>236)</sup>  
울오마니<sup>237)</sup> 산소등에~야 짓먹으러이 나는가네

[북구 민요 215]

### 모심는 소리(4)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모수적삼<sup>238)</sup> 안섰안에~야 연자걸은 저젓보래  
(그래 또 글 쿠고 나몬 옆에 사람이.)  
한분-보고~ 두분보고~야 볼짜마당 뱅나겼네<sup>239)</sup>

[북구 민요 216]

### 모심는 소리(5)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오늘마당

(모 찌러 가서 저 사람이 글 쿠몬, 이 사람이 답을 똑 그래 하는 기고.) (조사자:

---

235) 우리는 그렇게 하요.

236) 어데 가노.

237) 우리 어머니.

238) 모시적삼.

239) 볼 적마다 뱅나겼네.

오늘 해가 다 졌는가.)  
다졌는거야 골골마~다 연기나네  
(이러 쿠고.) (조사자: 우리 할망 어데 가고.) (이기 한, 내가 글 쿠몬 저 사람이  
받기로.)  
우리~할매 오데가고~야 연기낼줄 왜모리노

[복구 민요 217]

### 모심는 소리(6)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비물었네이 비물었네~야 저산골목 비물었네  
그것-이라 비아니라야 (한문<sup>240</sup> 해봐라 같이.) (조사자: 억만 군사 눈물이라.) (그  
러 쿠는교? 거.) (조사자: 억만 군사 눈물인데.)

[복구 민요 218]

### 모심는 소리(7)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신사도래이<sup>241</sup> 신사도래이~야 총각낭군 신사도래이  
신사주모 냐이알고야<sup>242</sup> 돈을주문 내사신지<sup>243</sup>

[복구 민요 219]

### 모심는 소리(8)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

240) 한 번.  
241) 신을 사 달라.  
242) 신을 사 주면 남이 알고.  
243) 돈을 주면 내가 신을 사 신지.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물기는철철 혈어놓고야 주연양반<sup>244)</sup> 어데갔노  
첩의야이방에<sup>245)</sup> 자로갔소

[북구 민요 220]

### 모 찌는 소리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모로부여야<sup>246)</sup> 모찌내~기 난감하네  
줄뽕갈뽕 우는님어야 어디가고 간곳없노

[북구 민요 221]

### 모심는 소리(9)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줄뽕갈뽕 우는새여~야 우런님은 어이가고~야  
줄뽕갈뽕 울고있나

[북구 민요 222]

### 잠자리 잡는 노래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

244) 주인 양반.

245) 첩의 방에.

246) 모를 부여야.

잘랍아<sup>247)</sup> 잘랍아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다몬 죽는대이

[복구 민요 223]

### 진주 처자 노래

박복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진주남강 남강물에  
갱피훅는 저처지야<sup>248)</sup>  
니언제커서 내낭군될래

[복구 민요 224]

### 화투 타령

배필연(여, 1925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만덕3동 동원아파트경로당]

정월솔가지 송송한마음  
이월메다지 맺아놓고  
삼월사쿠나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헐어놓네 (그렇게 끝이다.)  
(조사자: 다음에 오월.)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단풍에 떨어진다 (그러제?) (조사자: 유월 목단에. 유월 목단이라 목단.) (야.  
유월 목단에 떨어진다. 또.) (조사자: 칠월 흥돼지.)  
칠월흥돼지 홀로앉아

---

247) 진주지역에서는 잠자리를 '잘라비'라 한다.

248) 저 처자야.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조사자: 어, 구월 국화.)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북구 민요 225]

### 모심는 소리(1)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뭘꼬?) (조사자: 이 달 크고.)  
이달크고 칠월크고 칠팔월에 환승한다.

[북구 민요 226]

### 모심는 소리(2)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풍당풍당 수제비 (조사자: 사우야 판에.)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이노무할마이 어데가노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웃음]

[북구 민요 227]

### 모심는 소리(3)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대장부 손에들고 첩우야집에 놀러갔네

[북구 민요 228]

### 모심는 소리(4)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님 황천을갔는데 젓묵으러 나는가네요

[북구 민요 229]

### 모심는 소리(5)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낭창낭창 배라야끝에<sup>249)</sup>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돼서 처자한쌍 생기볼까<sup>250)</sup>

[북구 민요 230]

### 시집살이 노래

박상조(여, 1930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둥글둥글 수박깨고 밥담기도 에렵더라  
쪼끄만한 시아바니(시삼촌이다 그래.)말하기도 어렵더라

[북구 민요 231]

### 모심는 소리

---

249) 벼랑 끝에.  
250) 섬겨볼까.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 (해보소.) (조사자: 반달처럼 남았구나.) 반달만큼 남았구나  
(반달만큼 남았구나. 하늘에 뜬 반달만큼 남았구나.)

[복구 민요 232]

### 장타령[숫자풀이요]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열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로 한장 들고봐 일선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 지 가창하지 않고 넘어감]  
이자로 한장 들고봐 이승만이는 대통령이요 장자석이는 부통령  
삼자로 한장 들고봐 군인가신 삼년만에 이등이병이 왜말이나  
사자로 한장 들고봐 사천이백 칠십팔년 해방의깃발이 날렸나  
오자로 한장 들고봐 오쫄오쫄 커는애기 젓줄라꼬 열안나  
육자로 한장 들고봐 육이오사변에 김태우 거지생활이 왜말이나  
칠자로 한장 들고봐 칠십맹이 괴뢰군이 삼팔선을 넘어온다  
팔자로 한장 들고봐 팔자도없는 두건을씨고 그떡장수가 왜말이나  
구자로 한장 들고봐 구십살먹는 할머니 똥노놓고 베루뺨에 문힌다

[복구 민요 233]

### 성주풀이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강남땅 강제비는 (좋다!)  
솔씨한동을 물어다가 (조사자: 성주풀이네예.) (좋다!)  
저집땀네 저집땀네

거제옥포산에다 저집땀네  
그솔이점점 자라나서  
곶은나무는 곶기깎고  
곶은나무는 곶기깎아  
삼간초간 집을지어  
그집지은 삼년만에  
소가나면 향소가나고  
말이나면 용말이나고  
개가나면 삽살개나고  
닭이나면 봉닭이나고  
딸이나면 열녀가나고  
아들이나면 효자가납니다.

[북구 민요 234]

### 조왕풀이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조왕님네 조왕님네  
어녀러러 조왕님  
가정은 박씨가정  
도량은 강씨도량  
(지신은 그리 뵙습니다이.)

[북구 민요 235]

### 본처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해다지고 저무신날에 꽃갓을씩고서 어디가요  
첩우방을 가시거들랑 날죽는거 보고가소

첩우야방은 꽃방일까 요네방은 연못일까  
꽃과나비는 봄한철종구요 고기야연못은 사철이세  
본처밭에 허는사랑 떼오장기 짚어지고  
호박잎은 밥을엮고 상추나잎은 된장넣고  
토란잎은 무르렸고 수릿대를 잡기짓고  
사랍사랍 다님서로 본처나생각이 절로난다

[북구 민요 236]

### 너냥 나냥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에헤라 나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낮이냥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야 서방님은 오이조차판에 갔는데  
공산명왈은 시조팔러만 논다  
너이냥 나이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냥 밤이낮이냥 참사랑이로구나

[북구 민요 237]

### 베틀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오늘날이 심심하여 베틀이나연쟁이나 챙기보세  
(베틀 연장 챙기거든요.)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동서나남북을 갈라놓고  
(네 군데다가 가리거든요.)  
그우이맷대는 세명지요 밀대는 두행자요  
만구군사 거느리는 보투마리가 있습니다  
그우에 앉인선배 부태라꼬 둘인것은

허리나안개를 돌렸구나  
(모투마리라. 몰대라꼬 하는 겁니다, 요 베를 감는 겁니다.)  
몰대라꼬 하는것은 님의죽은 넓일랑가  
요내가슴을 안고  
(몰대 이거는 요래 감으면 내 가슴을 안고 돕니다이.)  
보주지비라 하는것은 넣고땅땅 넣고땅땅  
(저자 요 그기 쳇발이라 하는 거는.)  
쳇발이라 하는것은 무루에서 뜯는구나  
자질개라 하는것은 오구갯말인가  
질금도잘금도 하는구나

[복구 민요 238]

### 쌍가락지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은금은금 은가락지  
호작질을 닦아내어 먼데보면 달일로췌  
절에나본다면 처자로췌  
처자한쌍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이로다  
천배복신 울오랍시 거짓말한데를 말아주소  
동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실래요<sup>251)</sup>  
옥등장에 불을서서 지름에닿는구나 소실래요  
피꼬리 기름방에 참새나거치도 나누엿소

[복구 민요 239]

### 못 갈 장가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

251) 소리래요.

앞집에는 궁합을보고 뒷집에는 책력보고  
 책력에도 못가실장개 궁합에도 못갈장개  
 우득부득 가는장개 한모리를<sup>252)</sup> 넘어가니  
 난데없던 부정기란놈이 꺾끄덕꺾끄덕 허는구나  
 한대머리 넘어가니 난데없던 피랭이썩놈이  
 꺼뜩짜뜩 오시더니 받으시오 받으시오  
 편주나<sup>253)</sup> 한장을 받으시오  
 한손으로 받은편주 두손으로 페어보니  
 돌아갔네 돌아갔네 우리나라쳐가 돌아갔네  
 앞에가는 상각예상주 뒤에오는 혼시애비  
 돌아가소 돌아가소 오시는길로 돌아가소  
 처야집을 들어가니 우리백모님 허는말씀  
 자네자네 자네쳐가 돌아갔네  
 오시는길 가시거든 어머님어머님 그말마소  
 내가와서 처야방을 들어가서  
 처야방을 들어가니  
 돌이덮자 요이불은 덮을듯이 개어놓고  
 돌이나베자 진베개는 벨듯이나 얹어놓고 (우리 그때 머리는 참 깁니다요.)  
 보리짚겉은 저머리는 (비네 꽃일라고.) 얹힐듯이 어깨우에 얹혀놓고  
 돌아갔네 돌아갔네 우리나라쳐가 돌아갔네  
 백모님 허는말이  
 자네갈길은 삼십리네 내갈길은 십리라네  
 어서가세 바빠가세 자네나집을 돌아가소

[복구 민요 240]

### 남녀연정요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252) 한 모퉁이를.  
 253) 편지나.

진주띠에 남편띠에 꼬사리꽃대를 집을지어  
원추리는 대문을달고 호박끝이 끄덕허다  
니따르라 은을주끄마 날따리라 돈을주끄마 날따리라  
은이나돈도 내사싫고 내몸하나만 챙기주소  
백년언약을 걸고사요

[북구 민요 241]

### 올케 먼저 구한 오빠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시누올케 연밥따다 연못가에 떨어졌네  
울오랍시 거동을보소 절에동생 밀치놓고  
먼데나첩의에 손을주네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첫째는 부모를삼기고<sup>254)</sup> 둘째는 처를삼기  
삼길라네 삼길라네 나도한번 삼길라네

[북구 민요 242]

### 과부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시집가신 삼일만에 (다 적으께네 아네.) 서방님이 병이나서  
비네풀고 댕기풀고 약한첩을 지어와서  
그약이 꿀자 그님이 가자  
아이고 청춘과부로세

[북구 민요 243]

### 화투 타령

---

254) 부모를 삼기고.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화토로다  
정월솔가지 속속디리하여  
이월매태 이상한디  
삼월이라사꾸라 살랐던마음  
사월흑쏘리가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육월목단에 꽃에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여  
팔월공산 달도밝네  
구월국화 굳었던나무  
시월단풍에나 다떨어진다  
동지선달 눈이와서  
정이월 바람에도 다떨어지네

[복구 민요 244]

### 시집살이 노래

박행순(여, 1933년생) 구술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대림타운아파트경로당]

성아성아 사춘성아 시집간께 어땡더노  
쫓끄만은 시아주버이(아니.) 도래판에 수저놓기도 애럽더라  
쫓끄만한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복구 민요 245]

### 모 찌는 소리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음조리듯이]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래카면, 받는 사람은 뭐라카나쿠면.)

저바대장같은 이모자리 장구야판만춤 남았구나

(이래카면, 그래믄 다 찌가면 마 또 마 인자 지업어사면<sup>255</sup>), 마 그 모 찌기는 상  
그랍지, 이전에 지업어사면.)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 흠치라 (캐사면서 마.)

[북구 민요 246]

### 모심는 소리(1)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음조리듯이]

이논에다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네 (이카면.)

우리부모 산소등에 소를심어 영화 (소를 심어 영화로네 이래 카고.)

[북구 민요 247]

### 모심는 소리(2)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이라고. 그라면.)

할맘은 어데가고 딸으년을 정지시키고

[북구 민요 248]

### 모심는 소리(3)

---

255) 지겨워하면.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옴조리듯이]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이래 카면.)  
문어야저전복 손에들고 첩우집에 놀러갔네 (이래 카면, 첩도 또.)  
첩우집에는 밤에가고 주무집에는 낮에간다

[북구 민요 249]

#### 모심는 소리(4)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카면.)  
이달크고 훗달크고 다음달에 열매연다 (칸다. 환승한다 이래 카제.)

[북구 민요 250]

#### 모심는 소리(5)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옴조리듯이]

낭창낭창 배리끝에 무정하다 우리오빠, 울오랍아  
나는죽어 남자되어 (그리고 그렇게. 또 아!)  
나는죽어서 추녀끝에 (뭐고? 추녀 끝에. 그 와 안 생각키노? 아가.)  
임이죽어 연자가되어 추녀끝에 드나드네 (이래 카드나?)  
나며보고 들며봐도 임인줄은 내몰랐다 (카면서.)

[북구 민요 251]

### 모심는 소리(6)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옹조리듯이]

모시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보라 (카면서.)  
마이보면 병날끼고 쌀날만춤 보고가라 (이라대.)

[북구 민요 252]

### 모심는 소리(7)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옹조리듯이]

다박다박 다박머리 해다즌데 어데가노  
(카면, 또 받는 사람 있거든. 받는 사람은.)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러 내가간다 (이라대.)

[북구 민요 253]

### 화투 타령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세월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दै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이 밝아오네  
구월국화 굳은절기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쿠든가? 뭐라 카노?)

[북구 민요 254]

### 구멍 타령

이필복(여, 1926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뒷집에 김대령은 돌구멍도 뚫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뚫버논구멍도 못샀는다 (캐샀대.)

[북구 민요 255]

### 모심는 소리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래 카이, 또 저 쪽에서로 칠팔월에 커  
가. 아, 뭐라 카더노?) (조사자: 이 달 크고.) (아!)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이래.)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노(이래 카이, 뭐.)  
첩우야 집에갔다 (캐샀코.)

이골짜 저골짜 연기가 나는데  
우리집에는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노 [웃음]

[북구 민요 256]

### 너냥 나냥

임화자(여, 1941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우리서방님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불어라 선달열흘만 불어라

[북구 민요 257]

### 보리타작 소리

최무연(여, 192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그 타작을 하면은, 그래 인자, 요 이래 보리로 조로로록 늘어놓으면. 이삭이, 이삭이 우로 보구로 요래 첩으로 첩으로 놓는데, 이삭이 우로보면 별이 딱 쪼야 인자 마루에 고 뚜드리면 잘 떨어지거든. 그런까네 그거 목도루개로 그래 하는. 그래 남자가 한사람이, 고거 인자 솜씨가 좋아야 하거든. 탁탁 쳐내면 이삭을 보고 인자 때리라꼬 그래. 내 손만 보고, 지수씨도 내 손만 보고, 요고로 때리라. 그래 인자 그 세가 좀 짤랐는가.)

지주씨도 내쫓만보고 [일동 웃음]

형주씨도 내쫓만보고 [일동 웃음]

[북구 민요 258]

### 백발가

최무연(여, 1922년생) 구술  
2015년 2월 8일 채록  
[화명1동 대천경로당]

이팔청춘 백발보고 웃지마라

너거도 백발되기 잠시로다

[북구 민요 259]

### 모심는 소리

이미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청중: 이 후 후 후 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연다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या대전복 손에다들고 첩ैया방에 놀러갔소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랏아  
나도야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부터 섬길라네

모시야적삼 안섰안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많이나보면 병날끼고 쌀날만치는 보고가소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오기만 기다린다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북구 민요 260]

### 모 찌는 소리

이미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한강에다 모를심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풍당풍당 찰수지비<sup>256)</sup>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울언님은<sup>257)</sup> 어디가고 동제차리를 맏겼는고  
(그기 잘 모르겠어.)

[복구 민요 261]

### 진주난봉가

이미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신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난데없는 자죽소리 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슬큼슬큼 걸어가네  
흰빨래 희게씻고 껌둥빨래 껌게씻고  
집이라고 찾아오니  
(그거 모르겠다.)

[복구 민요 262]

### 상여소리

이미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오느라니 백발이요 면치못할건 죽음이로다  
천왕제왕 원앙신명 요순요탕에 문무주고  
덕향이없어서 봉해시며 말잘하는 소진장에도  
육국지왕은 다달래서 엄라대왕은 못달래요

---

256) 찰수제비.  
257) 우리 님은.

그러한 영웅들은 죽은사정이라도 있건만은  
우리초롱 인생들이야 아차하면 죽어지른  
앞이나나 짝시나나  
너는명년 춘삼월이면 다시보고여 오건만은

[복구 민요 263]

### 회심곡

이미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세요 세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누덕으로 나왔나  
서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이내일생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공 아될쓴가  
이삼십이 당하여도 부모은덕 못다값아  
어이없고 애달쿠나 절통하고 통분하다

[복구 민요 264]

### 사발가

이우연(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또 뭐고?) (조사자: 요내 가슴.)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에헤야 에헤야  
어어 예루아 넘어간다  
(예, 모른다.)

[북구 민요 265]

### 도라지 타령

이우연(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만 사리살살 다녹힌다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에야라난다 지가자가자가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북구 민요 26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OOO(여, 19??년 생)<sup>258</sup> 가창  
2015년 2월 9일 채록  
[화명1동 수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구 때망구  
수구리빠꾸 뜰빠꾸  
(워라카노? 또 그라고 나서 또.)

[북구 민요 267]

### 아기 재우는 노래

강순자(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앞집개야 짓지마라

---

258) 제보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상을 극구 밝히지 않았음.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복구 민요 268]

### 모심는 소리(1)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오늘해는 다짚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또 그다음에 부르는 사람은.)  
울엄마는 어디가고 연기낼줄도 모리는고

[복구 민요 269]

### 꽃 타령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꽃사세요 꽃들사세요 꽃들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올려매고 꽃팔러 나왔소  
울긁불긁 노란꽃 노리고도 하얀꽃  
알롱달롱 곱은꽃

[복구 민요 270]

### 노랫가락(1)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산이야 높아야 골도나 깊으지

조만한 요내속이 좋다! 얼마나 깊으리

[북구 민요 271]

### 양산도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울으집에 우리님은 나를안고 돈다  
에라야 등계디어라 아니못놀겠나  
능기능기를 하여도 내가못놀겠나

[북구 민요 272]

### 너냥 나냥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르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구요  
밤이 밤이나 낮이 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북구 민요 273]

### 염불가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만주별판 너린들에 염줄닷대로 심었더니 (뭇이러 오디 갔네?)  
진양보살 뒤편에갈까 문수보살의 따리게서<sup>259)</sup>  
제석보살 배를모아 팔대장선 지어내야  
굳은가지는 장산걸고 굳은가지는 꼬깔걸고  
나무심봉천

[북구 민요 274]

### 시집살이 노래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저놓기 정에롭다  
주어버신 시아재비 말하기도 정에롭다

[북구 민요 275]

### 모심는 소리(2)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저참안에 분통같은 저젓바라  
많이보면 병나는데 손톱만치만 보고가라

[북구 민요 276]

### 권주가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잡으세요 잡으나세요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259) 따르고자 해서.

이술이 술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복구 민요 277]

### 노랫가락(2)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아가동자야 술걸러라  
저달이지도록 놀다가자

높은산 산상봉 외롭게 선나무  
너도야 날강같이 외롭게 섰구나

[복구 민요 278]

### 진주난봉가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즙살이 삼년살고  
시오마니라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을 만날라면  
진주남강을 빨래가라  
진구남강 빨래가니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오드랑 도드랑 두드리니  
(진주낭군이 말로 타고 몬 본듯이 지나가더라캐. 그래서 집에 와가꼬, 집에 와가  
뭐라하대?) (청중 : 시오마이하는 말씀에 아가 사랑방에 내리가봐라.)  
시오마니 하시는말씀

진주낭군을 만날라면  
아릿방을 내려가라  
그말듣던 매늘아기  
아릿방으로 내려가니  
기생첩을 옆에두고  
아리랑찬가를 하는구나  
그말듣던 매느리는  
옷방으로 올라와서  
맹지수건 석자에다  
목을매어서 죽었구나 (서방이 인자 와서.)  
그말듣던 진주낭군  
보선발로 올라와서  
니그럴줄로 내몰랐네  
기상첩은 석달이고 (본처는 백년이란다.)  
신통망통이 죽었구나

[북구 민요 279]

### 못 갈 장가 노래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궁합에도 문갈장개  
책력에도 문갈장개  
우력으로<sup>260)</sup> 가는장개  
한모래기 돌아간께  
까막까치 깎깎울고  
두모래기 돌아간께 (뭉가.)  
곡소리가 진동하고  
세모래기 돌아간께  
은짜끄는 소리나네 (그래 인자 각시가 죽어서 인자 못 치는 기다 그자?)

260) 우겨서.

[복구 민요 280]

### 화투 타령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솔이나여  
이월매조에 매자놓고  
삼월사쿠라가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비가날아 (청중 : 아이다, 오월 난초 날던 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 흥사리 (청중 :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팔월국화 굳었던마음에  
시월단풍에 달도밝다.  
오동추야 달이동실이 밝은데  
임에생각이 절로나네

[복구 민요 281]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서울가서 밤한되를 주어다가  
채독뒤에 열었더니  
머리감은 새양지가  
들락날락 다까묵고  
한토리가 남았는기  
껍질라컨 애비주고  
본일라컨 애미묵고  
알은 니하고내하고  
달랑달랑 목자

[복구 민요 282]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불매딱딱 불어라 (그 우짜다 본께 잇아뿌네.) (조사자 : 이 불매가.)  
이불매가 누불매고  
박사왔네 불매로다

[복구 민요 283]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만주 또만주  
짜별로 이앵근  
도리매춤치 장도방  
깊게서라 불서라  
동지설달 대서리

[복구 민요 284]

### 사랑가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사랑 사랑 사랑이란것이 무엇인지  
알다가도야 모릴사람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방울같이도 안긴사람 (또 그 다음에 뭐고?)

[김갑순 할머니가 이어서]

삼령하에 양귀비는 이도령이에 춘향이다

일년삼백육십에오일에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

[복구 민요 285]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푸름푸름 봄배추는 봄비오기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대령오도록 기다리네

[복구 민요 286]

### 창부타령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도 높으나사람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람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사람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다

[복구 민요 287]

### 노랫가락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바람불어서 휘어진낭기 눈비온다꼬 일어나리  
뱅이드러 누워신가장 약드신다꼬 일어나리

[북구 민요 288]

### 남녀연정요

김갑순(여, 193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울너메 담너메 꿀비는 총각아  
너언제 커서러 좋다~! 내낭군 될라노

울도담도 없느냐집에 맹지베짜는 저큰아가  
니언제커서 내낭군 될라나

[북구 민요 289]

### 너냥 나냥

강점순(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바람이 불수록 문지만 나고요  
임은야 불수록 짜증만 난다  
니냥 내냥 두리둥실 놀구요  
밤이 밤이나 낮이 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이 늙으면 단맛이 있구요  
사람이 늙으면 공동묘지를 간다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구요  
    밤이 밤이나 낮이 낮이나 참사랑  
[청중이 이어서]

아침에 우는새가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니냥 내냥 두리둥실 놀구요  
밤이 밤이야 낮이 낮이야 참사랑이로구나

[복구 민요 290]

### 모심는 소리

박희분(여, 1937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낭창낭창 새별끝에 무정하다 우리오빠  
나도죽어 호승가서 낭군님한번 만나볼래

[복구 민요 291]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자자자자 우리애기  
잘도 잔다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르애기 깹다

[복구 민요 292]

### 남녀연정요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녹수에청가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겉에까지 젖히놓고 속에속대를 나를주라 (카이.)  
저게있는 저손부는 언제전제 날봤다꼬  
겉에꺼 씻이놓고 속에속대로 돌라카노

[북구 민요 293]

### 사발가

이분선(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나퐁퐁 나건만  
내가슴에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북구 민요 294]

### 노랫가락

이임이(여, 1944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낮은산에는 비날리고 높은산에는 눈날리고  
얼씨구 좋네 절씨고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북구 민요 295]

### 모심는 소리

이필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모야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연다

[복구 민요 296]

### 사발가

이필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개짐도 아니난다

[복구 민요 297]

###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필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수천당 세모짓낭게 오색당색을 군대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복구 민요 298]

### 백발가

이필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말아라  
우리도어지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깐이다

[복구 민요 299]

### 도라지 타령

이필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0일 채록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신산천에 백도라지  
한돌뿌리만 캐어도  
바기미반산에 되노라  
에헤야라 요팽기 조팽기 하노라

## 2. 사상구 민요

[사상구 민요 1]

### 방귀 타령

김석이(여, 191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시아바이빵구는 호령빵구  
시아마이빵구는 유세빵구  
며느리빵구는 도둑빵구  
아들빵구는 유세빵구

[사상구 민요 2]

### 집짓기요

김석이(여, 191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저게저게 저달속에 계수나무 한나무밖에섰네  
금도끼로 찍어다가 옥도끼로 따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니 [웃음]  
북두칠성 돌짜구요 동도칠성 고리로다  
견우직녀 직녀성은 [웃음] 좌우에 조추받고  
여하씨 보초석은 음양으로 기와얏어  
석순이 주름되고 일월이 창월하다  
그가운데 어떠한낭자 칠년금실 베짜았고  
옥서동남 부는바람 실실리 해롱하여  
올봄마다 해와져 이아서 더할쏘냐  
(아이고, 숨이 차라. 못 한다 인자. 숨이 차서 못 한다.)  
일주일 거동보소 골목골질 들어가야

남자손을 잡으니 남자 필석대왈  
어떠한 사람이 남의손을 잡느냐  
이뿐이 거동보소 무료하고 물라서네  
대량살펴보니 음양으로 기와얏아 석순으로  
주름대로 일월이 창월하다 그가운데는

[사상구 민요 3]

###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정자(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  
(군대를 이름 모르것다) (조사자: 군대를 매어.)  
군데매여  
니가뛰든 내가밀고 내가뛰든 니가밀고  
(아!)  
임이뛰든 내가밀고 임이뛰든 내가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든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4]

### 사발가

김정자(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몽실도 나는구나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내가내간장을 스리슬슬 다녹인다

[사상구 민요 5]

### 노랫가락

박순임(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당실당실 솔을숨겨 해도당실 꽃이피어  
오늘이라 지는해는 내일아침 오련만은  
은짜안에 드는꿈은 백년이나 다시볼까  
저승질이 질갈으믄 오고가고도 왜못할까  
저승문이 문이라면 열고닫고 왜못할까

[사상구 민요 6]

### 한탄가

박순임(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우리나서이 클찍에는 백년인줄 알았더니  
이십안짜 꿈이구나 안세안들 사랑앞에  
연연하고도 봉술아꽃은 철철마당 피어난디  
매화당찬 밝은달은 내가보고 넘가줍세

[사상구 민요 7]

### 삼 삼는 소리[죽은 새신랑 노래]

박순임(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간들간들 강도령이 강돌책을 옆에끼고  
강남으로 장가들어 어제오신 새신랑은  
백만보고<sup>261)</sup> 외겠는가 정재<sup>262)</sup>아그야 좋아그야

함박쪽박에 물갈아라 울림소리나 내여보자  
어제오신 새신랑이 칠성판에 무어내리  
시아바니 나섬서로 아강아강 매늘아가  
어제오는 니팔자가 좋을람사  
어제오는 새신랑이 칠성판에 무어내리  
시어마니 나섬수로<sup>263)</sup> 아강아강 매늘아가  
니팔자가 좋을람사 어제오는 새신랑이  
칠성판에 무어내리  
조그마한 시누애기 어제가는 새신랑이  
칠성판에 무어내리  
성님성님 우리성님 가기로사 가소만은  
우리오빠 자던방에 구경이나 하고가소

[사상구 민요 8]

### 화투 타령

박윤희(여, 192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아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오월아 (청중: 사월 흑싸리. 그 잘 문 했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떴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261) 벽만 보고.

262) 부역의 사투리.

263) 나섬면서.

임의야생각이 절로난다  
좋다

[사상구 민요 9]

### 달거리 앵풀이요

유막달(여, 192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정월달에 오는액은  
정월달에 막아내고  
이월달에 오는액은  
이월달에 막아내고  
삼월달에 오는액은  
삼월삼진날에 막아내고  
유월달에 오는액은  
유월유듯날 막아내고  
칠월달에 오는액은  
칠월팔월에 막아내고

[사상구 민요 10]

### 댕기 타령

윤옥자(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올아부지 떠준댕기 올어무니 저문댕기  
우리오빠 호랑댕기 우리올케 눈치댕기  
잊어구나 잊어구나 널창안에 널뛰다가  
널창배깬에<sup>264)</sup> 잊어구나  
하장이나 주였는가 비장이나 주였는가

---

264) 널판 밖에.

하장비장도 아니좁고 수태연이가 주였다네  
수태연아 수태연아 니가나뎡기를 주였시믄  
너거아부지 뚝찌자락<sup>265)</sup> 너거어무니 치매자락  
매지나놓고 너를주마  
에라요놈 요망헌놈 하늘겘은 부모두고  
천금겘은 돈을주면 그많은뎡기가 없을쏘냐

[사상구 민요 11]

### 모심는 소리

정차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줄을 넘군다 잘 넘군다 [말로]  
모 모를 숨겨서 이논애기  
노랑노랑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가열어

오늘해는 다져간데  
자~ 넘가라 [말로] [웃음]  
골골마덩 연기나네  
줄 넘가라 [말로] [웃음]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올어머니 산소등에 젓먹으로이 나는가네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청중: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사상구 민요 12]

### 도라지 타령

정차점(여, 1939년 생) 가창

---

265) 도포자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니 반실만되노라  
에헤요 에헤요 어야로 난다 지화자자 좋다  
내가내간장을 스리살살 백도라지

[사상구 민요 13]

### 너냥 나냥

정차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립아<sup>266</sup>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밤이나 낮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우리집 낭군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우리덕 본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청중: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있고요  
사람은 늙으면 보기보기가 싫다

[사상구 민요 14]

### 권주가

정차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

266) 님이 그리워.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잡으나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나시오  
이술은 술아니라고 안주없이는 몬묵겼네

[사상구 민요 15]

### 노랫가락

최갑순(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당강당강당강당강  
논두렁에서 시골의처녀가 오줌을싸니  
밑에있던 미꾸라지 깜짝놀라서  
오늘의 소나기는 와이리뜨겁노

[사상구 민요 16]

### 백발가

최이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골랑 반절마라  
어지겔이<sup>267)</sup> 소년이되니 백발되기가 잠시로다

[사상구 민요 17]

###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이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

267) 어제같이.

뒷동산 세모시나무 오색가지를 그네를매어와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저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진다면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18]

### 양산도

최이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양산읍니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울의집의 큰아기는 나를안고 돈다  
에헤라 둥가디어라 아무나 못노리  
여연기를 하야야도 나는 못노나니

[사상구 민요 19]

### 모심는 소리

황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모야모야 나락모야 니운제커서 한상할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구시월에 한상한다

[사상구 민요 20]

### 성주풀이

황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낙양산 십리하여 높고낮은 저무덤은  
영영호걸이 땃땃인가 절대가인이 그누구나

우리야인생 한번가면 저게저무덤 갔구나  
어라만수 어라대신이야

저건너 잔솔밭에 솔솔기는 저포수야  
저산비둘기 잡지마라 저산비둘기 나와같이  
임을잃고 밤새도록 입을찾아서 헤매노라  
어라만수 어라대신이야

[사상구 민요 21]

### 새 타령

황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새가 날아든다 오만잡새가 날라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삼고곡식에 무정처 술이빛어에 무쇠더니  
산들산들 날라든다  
이산으로 가면은 쑥국 쑥국  
저산으로 가면은 쑥쑥국 쑥국  
쑥국아 이히이히 자유로간다

[사상구 민요 22]

### 노랫가락

황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감전1동할머니경로당]

세상만종 정이요 호자열녀는 각각대라  
한형제 날자다하니 무귀유신 하오리까  
우리도 성주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인생일자 춘몽인데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백호야 날지를마라 너를쫓아서 내안간다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장족하지

일천간장 맏힌설움은 부모님설움이 절로난다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요렇게 좋다가도 문팔으겠다

[사상구 민요 23]

### 밀양아리랑

손필선(여, 1937년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감전동 중앙노인회]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겨주소

[사상구 민요 24]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근 또맹근  
십리바꾸 돌빠꾸  
연지상구 열두야

[사상구 민요 25]

## 진주난봉가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옛말이 안 그렇나.)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마이 하는말씀이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를 가거라 (카이.)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아  
검은빨래 검게빨고 흰빨래는 희게빨고

(그리 인자 진주남군이 보이께네, 구름같은 말을 타고 마마 막 달리가문스 본척  
만척하고 가더라 안 카더나. 본척만척하고 가이까네, 그 여자는 빨래를 빨아가 이  
고 오이께네. 마 저거 집에 온께네, 아랫방을 본께네, 마 기생첩을 옆옆에 놓고  
마, 열두 가지 술을 놓고 마마, 안주 놓고 마, 막 니 무라 내 무라 권주가를 하더  
란다. 그래서 이 여자는 딱 옷방에 올라가, 지방에 가가주고. 양단이불 내리깔고  
석자수건 목을 메어 자는듯이 죽었구나 안 카나. 그리 카이. 죽었으니, 진주남군  
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여보당신 일어나소 본처는 백년이고  
기생첩은 삼년인데 당신갈줄로 내몰랐소  
(카더라 안 카나. 억울하게 살았다 아이가.)

[사상구 민요 26]

## 쌍가락지 노래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찍어내여  
금도끼로 따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짓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캐샷대.)

[사상구 민요 27]

### 모심는 소리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연밥따는 저처자야 연밥줄밥 내따줍세  
(뭘 우짤다 카더라?) (청중: 내 품 안에 잠들어라.)  
내품안에 잠들어라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칠팔월이 돌아오른 열매연다

물꼬야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애야전복을 외와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사상구 민요 28]

### 양산도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요  
(조사자: 우리 집 서방님은.)  
우리집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사상구 민요 29]

### 구멍 타령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뒷동산 딱따구리는 참나무구녕도 뚫는데  
우리집의 저문디는 뚫었던구녕도 못뚫네  
어랑 어랑 어랑

[사상구 민요 30]

### 아기 재우는 노래

박종금(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자장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이래 짚대.)

[사상구 민요 31]

### 모심는 소리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연밥줄밥 내따줄꾸마 내품안에 잠들어라  
(그래.)  
품안에 잠들기는 어렵지않지만은 품안에들기가 어렵더라  
(하더라. 연밥줄밥 따지기는 쉽지만은 품안에 들기는 어렵소 이카더라.)

포롱포롱 봄배추는  
(청중: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처를찾아 피건만은  
우리인생 늘어지면 다시오기 어렵도다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아름다운 처이가 나서니.)  
분통걸은 저젓바라 그젓한번 답씩쥐만  
당신편에 들겠구만은  
(답씩 쥐어가 어렵는 기라 그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꽃갓을씩고 어데가요  
첩의집에 가거들랑 내죽는꼴을 보고가소  
(청중: 첩의 집은 꽃밭이고.)  
내집으는 연못이라

농창해창 저비루끝에<sup>268)</sup>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후세상가서 낭군한번 샘기볼래<sup>269)</sup>

타박타박 단발머리 해다진데 어데가요  
우리야엄마 산소등에 젓목으러 내가가요

풍당풍당 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요놈의할마시 어데가고 사우판에 다올랐네

도라지핑퐁 영상아래 잠든큰아가 이리온나  
잠든큰아기는 오지않고 모진강풍만 날씩이네

[사상구 민요 32]

## 시집살이 노래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

268) 저 벼랑 끝에.

269) 섬겨볼래.

중우버신 시아주버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야시같은 시누부는 말하기도 어렵더라  
호랭이같은 시어매이도 말하기도 어렵더라  
끝틀어짓듯 시동생 말하기도 어렵더라  
(조사자: 도리도리 도리판에.)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사상구 민요 33]

### 백발가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이팔청춘 소녀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같이 청춘이디 오늘백발 잠깐이네  
머리센데 물칠하고 이빠진데 박씨박고  
아가당에 놀러가니 아가당이 괄세하네

[사상구 민요 34]

### 못 갈 장가 노래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앞집에 궁합보고 뒷집에 책력보고  
팔자에없는 장가를가니  
한모탱이 돌아가니 가마채가 부러지고  
또한모탱이 돌아가니 말다리가 부러지고  
또한모탱이 돌아가니 동네밖으로 들어서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그 처녀이가 죽었다꼬 곡소리가 진동하네 카더란다. 그래 못 갈 장개를 갔어 그  
래.)

[사상구 민요 35]

### 너냥 나냥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입을찾아서 운다  
너냥나냥 돌이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야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사상구 민요 36]

### 베들 노래

송월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괘법동 협화경로당]

낮에짜면은 일광단이오 밤에짜면은 월광단이오  
(그래, 곱게 곱기 짜서 서방님 옷을 지아 입혔다 카대.)

[사상구 민요 37]

### 노랫가락[나비 노래]

박소임(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나비야 청산가자 노랑나비 너도가자  
가다가다 저물거든 숲속에서 자고가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아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사상구 민요 38]

### 진도아리랑

박소임(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 새재에 웬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에헤야 에헤이야라야  
이배미 다심기고<sup>270)</sup> 장구배미로 가세  
뺏다뺏다 점심바쿠리가<sup>271)</sup> 뺏다  
장구뺨이를 다시밀고 점심무러<sup>272)</sup> 갑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사상구 민요 39]

### 다리 세기 노래

박소임(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한대리 건대리<sup>273)</sup>  
너청 너청

---

270) 이 논배미 다 심고.

271) 점심을 담은 바구니가.

272) 점심 먹으러.

273) 한 다리 건넌 다리.

너거 삼촌  
어디 갔냐  
뒷산으로 총누러 갔다  
맨날 떴냐 밤날 떴다  
포수 풍 통 탕

[사상구 민요 40]

### 화투 타령

윤분식(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정월이라 솔솔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살살한마음  
사월흑사리에 들어놓고  
오월남초 나는나비  
유월목당에<sup>274)</sup>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만 채다보니<sup>275)</sup>  
구월국화 맺인꽃이  
시월단풍에 낙엽진다

[사상구 민요 41]

### 청춘가

윤분식(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간다간다~ 얼마나 우렸노

---

274) 유월 목당에.

275) 처다보니.

정기정 마당에- 좋~다 한강수 되노라

[사상구 민요 42]

### 이같이 노래

윤분식(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집 주께  
새집 도고 (카미.)

[사상구 민요 43]

### 모심는 소리

현인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나도죽어서 후승가서 낭군님을 심길라네  
(하는데, 거기 거기 무슨 뜻인공 또 물으니까, 그래 인자 저저 여, 여 누난지 여  
동생인지 형제간하고 마누라하고 떠내려가는데 형제간은 안 건지고 마누라를 건  
짚다고.)

[사상구 민요 44]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현인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널을  
(세모진 뭐 카노?) (조사자: 낭계.) 늘어진가지에 추천을매여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며는 임이민다

[사상구 민요 45]

## 노랫가락(2)

현인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청산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하니  
산수간에 나도절로 [웃음]

[사상구 민요 46]

## 객귀 물리는 소리

현인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훗세이- 귀신아 들어봐라  
오다가다 반갑다 즐겁다<sup>276)</sup> 하고  
잠시 왔으몬 오늘 이 칼로 썩 물러가라  
(카매.) 꺾짚카이<sup>277)</sup> 묵고 물러가라  
(카매 막 젓어가지고 바가지 밥 하고 뭐 고기 꺾디하고<sup>278)</sup> 막 모도 마 말아가지  
고 그래가 막 젓어가 이래 해가 칼을 던지마<sup>279)</sup> 칼이 밖으로 나가마 이래 십자로  
기리가<sup>280)</sup> 칼을 딱 꼽아놓고 우에다 바가지 그걸 대문 밖으로 짝 뿌리고 그거  
다<sup>281)</sup> 바가지로 얹어놓고 들어오대요.)

[사상구 민요 4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 
- 276) 즐겁다.  
277) 걸쭉하게.  
278) 건더기하고.  
279) 던지면.  
280) 그려서.  
281) 그곳에다.

현인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강선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도맨도 도맨도  
서버리 박고 독바꼬<sup>282)</sup>  
진내 만내

[사상구 민요 48]

### 모심는 소리

김점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환승혈래  
이달크고 저달크서 (조사자: 칠팔월에.) 칠팔월에 환승한다 (그런다.)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목골목 연기나네  
우런님은 죽었는가 우리집에 연기가 안난다

[사상구 민요 49]

### 창부타령

이정옥(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애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런님은 나를안고 돈다- (그러지.)

---

282) 독 받고.

[사상구 민요 50]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이정옥(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계 오색당사로 그네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며는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며는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51]

### 노랫가락(2) [나비 노래]

이정옥(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길이저물면 꽃을보고야 자고가자  
꽃이지고 없거들랑 잎을보고 자고가자

[사상구 민요 52]

### 노랫가락(3)

이정옥(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꽃종다 탐내지말고 모진손길로 끊지를마라  
그꽃을 끊고나나며는 그목에서러 피가난다

[사상구 민요 53]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정옥(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신백양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개 또맹개  
짜발로 해영근  
소리줍리<sup>283)</sup> 소리엿  
육도육도 잘라유  
(조사자: 육도 육도 전라육.)  
육도육도 전라도

[사상구 민요 54]

###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요]

국학연(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정상도 대불매다  
불어라 딱딱 불어라  
불어라 딱딱 불어라

[사상구 민요 55]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영자(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자장자장

---

283) '도래줍치'를 이렇게 부름. '줍치'는 주머니의 방언.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사상구 민요 56]

### 모심는 소리(1)

성락동(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연다

[사상구 민요 57]

### 모심는 소리(2)

성락동(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데갔소  
(그라몬 뭐라 카더라. 또 모르겠다. [웃음])  
(조사자: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으야집에 놀러갔소

[사상구 민요 58]

### 모심는 소리(3)

성락동(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sup>284)</sup> 사우야판에<sup>285)</sup> 다올랐네  
우리야할맘은 어디가고 딸자식을 시켰던공

[사상구 민요 59]

### 화투 타령

성락동(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똑떨어졌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밤은데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똑떨어졌네  
동지오동 오신님이  
섣달비에 비맞았네

[사상구 민요 60]

### 창부타령

성락동(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

284) 찰쌀수제비.

285) 사위 판에.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방울같이도 반긴사람

[사상구 민요 61]

### 모심는 소리(1)

정옥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는 열매연다

[사상구 민요 62]

### 모심는 소리(2)

정옥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일 채록  
[덕포1동 일동경로당]

모시야적삼 안설편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조사자: 많이 보면.)  
많이보면 좋지마는 안된다고 전해라 [일동 웃음]

[사상구 민요 63]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김경자(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수천당<sup>286)</sup> 세모진 가지에 그네를매여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이뛰다면 내가민다

---

286) '추천당'을 수천당으로 부름.

[사상구 민요 64]

### 노랫가락(2)

김경자(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수천당 흐르는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걸에걸잎 재쳐놓고 속에속잎은 나를도라  
당신이 날언제봤다고 속에속잎을 달라하요

[사상구 민요 65]

### 밀양아리랑

김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날좀보소 (청중: 그거는 아리랑 노래다.) 날좀보소~오 날좀보소  
동지선날 꽃본듯이 날좀보소

[사상구 민요 66]

### 청춘가

김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산이 높아야~아 골도 깊우지~이  
쫄그만 내가슴에 좋~다 얼마나 깊을소냐

[사상구 민요 67]

### 화투 타령

김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아놓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청중: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동산에 달밤았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는데 (뉘라 카노?) (청중: 임의 생각 절로 난다.)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사상구 민요 68]

### 모심는 소리(1)

전장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시집갈래  
이달가고 훗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사상구 민요 69]

### 모심는 소리(2)

전장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이산저산 야산중에~이 슬피우는 송낙새야  
어지야봉산 어디두고 야지야산에서 슬피우네

[사상구 민요 70]

### 모심는 소리(3)

전장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등실 떠나오네  
니가무슨 반달이고~이 초생달이 반달이지

[사상구 민요 71]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전장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자장자장 자장개야  
우리 아무것이 자는방에  
불안캐도<sup>287)</sup> 밝아오고

[사상구 민요 72]

### 청춘가(1)

히태임(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함양산천 물레방에~에 물을안고 돌고요~오  
우리집에 울런님은 좋~다 날안고 도는구나

[사상구 민요 73]

### 청춘가(2)

---

287) 불을 안 캐도.

허태임(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대한노인회 덕포분회]

정들었던 고향은 타고향 되고요~오요  
임크던 고향이 좋~다 내고향 되는구나

[사상구 민요 74]

### 모심는 소리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어서커서 한석해라<sup>288)</sup>

배고파 지은밥은 돌도많고 뭉도많네  
돌많고 뭉많은밥은 임오없는<sup>289)</sup> 탓이로다

[사상구 민요 75]

### 사발가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요내가슴에 타는데 [말로 바꾸어] 연기도짐도 만나네 (청중: 그래.)

[사상구 민요 76]

### 청춘가(1)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

288) 한 석 해라.  
289) 임이 없는.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홍안낭군 만넬라고 좋~다 산나물 뜯지요

날모시 가거라~아<sup>290)</sup> 날모시 가거라~아  
넘지고 돈재이야<sup>291)</sup> 좋~다 날다리 가거라<sup>292)</sup>

다리고 갈맘은~은 야마야마 하는데~에  
칼날겜은 법이무서<sup>293)</sup> 좋~다 못다리고 가겠네

[사상구 민요 77]

### 부모 이별 노래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우리동생 열다섯에  
요내나는 열여섯에  
웃입고 석나서서  
서른석자 대려놔서  
배꽃겜이 바래여서  
밀꽃겜이 따듬아서  
서른석자 배려놔서  
오동나무 반반통에  
뵈기 좋기 담아이고  
갈래갈래 나는갈래  
우리엄마 사로갈래<sup>294)</sup>  
오리세마리 토랑에<sup>295)</sup> 떠서옵서

---

290) 나를 모셔 가거라.

291) '넘지고'는 "부인이 죽고"의 뜻인 듯함. 돈재이는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함.

292) 나를 데려 가거라.

293) 법이 무서워.

294) 사러 갈래.

아가아가 처녀아가  
다른전은 다샀어도  
엄마전은 아니났대<sup>296)</sup>  
그소리로 감서울고 움서울고<sup>297)</sup>  
눈물강이 한강이네  
그강에서 오리한쌍 떠서오네

[다시 말로 읊조림]

서른석자 베풀나서 배꽃겉이 바래여서  
오동나무 반반통에 뵈기 좋게 담아이고  
갈래갈래 나는갈래 엄마사러 나는갈래  
아가아가 처녀아가 다른전은 다나여도  
엄마전은 아니났대  
그소리로 깊이듣고 감서울고 움서울고  
눈물강이 돼갓고 오리한쌍이 떠오더란다

[사상구 민요 78]

## 청춘가(2)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술과 담배는~은 나심정 알아도~오  
한품에 잠든님도 좋~다 내심정 모르더라

산이 높아야 골도마<sup>298)</sup> 짚으제<sup>299)</sup>  
여여라 시처강<sup>300)</sup> 두여라  
삼님고 등넘으면 좋~다 또사랑 있구나

---

295) 도랑에.

296) 엄마전은 아니 났더라. '엄마전'은 어머니를 파는 가게.

297)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298) 골도. 골짜기도.

299) 짚지.

300) 시처 강. 시처는 시가집을 말하는 뜻함.

[사상구 민요 79]

### 청춘가(3)

오학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일부 가사 녹음 안됨] 철을알고 흔드는데  
우리집에 저문디기는<sup>301)</sup> 철도모르고 흔들구나

[일부 가사 녹음 안됨] 쓰러진 낭군아  
바람이 불며는 좋~다 일어날수 있느냐

잘났네 잘났네 신간을<sup>302)</sup> 말고서~어  
각시는 작아도~오 치마는 질어서~어

[사상구 민요 80]

### 모심는 소리(1)

이경년(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오늘해는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집에 저문디는<sup>303)</sup> 어디가고 연기도집도 안나네 [일동 웃음]

[사상구 민요 81]

### 청춘가

이경년(여, 1934년 생) 가창

---

301) 저 문둥이는. 문디기는 문둥이의 방언. '문둥이'는 남편을 낮추어 하는 말.

302) 실랑이를.

303) 저 문둥이는.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일부 가사 녹음 안됨] 총칼로 차는데~에  
우리집에 저문디기 좋~다 정지칼<sup>304</sup> 차는구나

[사상구 민요 82]

### 모심는 소리(2)

이경년(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오늘해는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사상구 민요 83]

### 노랫가락(1)

이말달(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벽장에 걸린시계야 니가 오닥닥 가지를마라  
니가가면 세월이가고 세월이가면은 나눌어진다  
나눔는거 원통치안해 만인간이 다눌어진다

[사상구 민요 84]

### 도라지 타령

이말달(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

304) 부엌 칼.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여도~오  
대바구니 반돈만 캐노~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헤어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사상구 민요 85]

### 창부타령

이말달(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에헤에헤  
바람불어 쓰러진나무<sup>305</sup> 눈비온다꼬 일어나리  
병이들어서<sup>306</sup> 누워진낭군 약썬다고서<sup>307</sup> 일어나리  
얼씨고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사상구 민요 86]

### 노랫가락(2) [그네 노래]

이말달(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수천당 세모신낭계<sup>308</sup> 늘어전가지다<sup>309</sup> 그네를매어  
임이뛰며는 내가나밀고 내가뛰며는 님이민다.  
임아임아 줄살뿔밀어<sup>310</sup> 줄떨어지며는 정떨어진다.

---

305) 쓰러진 나무.

306) 병이 들어서.

307) 약 썬다고.

308)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309) 늘어진 가지에다.

310) 줄 살짝 밀어.

[사상구 민요 87]

### 신고산타령

이말달(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신고산이 우루루령 화물차 나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아기~ 빈포밥 사기가 바빴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헤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독힌다

[사상구 민요 88]

### 청춘가(1)

이순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일부 가사 녹음 안됨] \*\*아지~이 청도포 잘인데  
머리 좋고 키큰처녀 좋~다 앞으로 오너라

[사상구 민요 89]

### 진주난봉가

이순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하얀망또를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흰빨래 희기하고  
검은빨래 꺾기하고  
토닥토닥

[사상구 민요 90]

### 모심는 소리

이순덕(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능청능청 저베리끝에<sup>311)</sup> 무정할사 저오랍아  
나도죽어 후승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며]  
후승가서 나도 낭군님부터 섬길라네

[사상구 민요 91]

### 청춘가

최시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녹음 불량]<sup>312)</sup> 외나무 선나무  
날강가치도<sup>313)</sup> 좋~다 애홀로<sup>314)</sup> 섰구나

산차지 물차지 총독부 차지요  
저기가는 저처녀 좋~다 내차지로구나

[녹음 불량으로 일부 가사 청취 불능] 날거늘 내따라 살젼나  
칼날것은 법이라서 내따라 살지요

---

311) 저 벼랑 끝에.

312) 일반적으로 “\*\*산 상상봉에 외로이 선나무”로 부른다.

313) 나와 같이도.

314) 외롭게 홀로.

[사상구 민요 92]

### 신세타령요

최시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덕암경로당]

곶이타야<sup>315)</sup> 넘어알제 속만타고<sup>316)</sup>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짐도<sup>317)</sup> 만나고

[사상구 민요 93]

### 다리 세기 노래

김양순(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들쭉 날쭉  
오다 가다 뻗친 내야  
우렁 주렁 비밀이 척 (그래.)

[사상구 민요 94]

### 방귀 편 사람 찾는 소리

박화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이똥 저똥 빵구똥  
누가 빵구 깬노  
뭐가 어찌고 저짜고

---

315) 곶이 타야.

316) 일반적으로 “곶이타야 넘어알제 속만타면 누가아나”라고 부른다.

317) 연기(나) 김도.

어 니가 깃네

[사상구 민요 95]

### 이같이 노래

박화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를 줄게  
새이빨 도 (이라고 탁 떼지고.)

[사상구 민요 96]

### 다리 세기 노래

이연옥(여, 194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일 채록  
[덕포2동 충효정경로당]

진주맹근 도맹근  
짹다리 히연근  
도리미 줌치 (줌치 뭐?)

[사상구 민요 9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오순남(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 1동 고동바위경로당(할머니)]

이거리 저거리 갖걸이  
청도맨도 도맨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신랑개비 똥물 깨꿈

[사상구 민요 98]

### 모심는 소리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물꼬는청청 헐어놓고 주인한량 어디갔노  
문어전복 애워들고 첩의집에 놀러갔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사상구 민요 99]

### 노랫가락(1) [나비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들랑 꽃밭수렁에 자고가자  
그꽃이 푸대접하면 앞에서라도 자고가자

[사상구 민요 100]

### 노랫가락(2) [그네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발에 오색당사실 [조사자와 제보자 함께] 군데를<sup>318)</sup>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

318) 군데는 그네를 말함.

님아좀좀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101]

### 화투 타령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정월솔까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오월 (청중: 사월.)  
사월목단에 (조사자: 흑싸리.) 춤잘춘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육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대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은잎이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고 좋다  
아니 놓고서 무엇하리

[사상구 민요 102]

### 창부타령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며는 기우나니

[사상구 민요 103]

### 청춘가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세월아 네월아~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알뜰한 내청춘 좋~다 다늬어 가노라

간다 못간다~아 얼마나 울었던지~이  
정거장 마당이 좋~다 한강수 되노라

니가 잘나서~어 일색이더냐  
내눈이 어두워~어 환장이 드노라

철가시 담장은~은 높아야 좋고요~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오  
우리내 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구나

[사상구 민요 104]

### 각설이타령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일자로 한장 들고봐  
일선에 가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짜로 한장 들고봐  
이승만이는 대통령 함태영이는 부대통령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 중단]

[사상구 민요 105]

### 사발가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사상구 민요 106]

### 양산도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에헤헤헤이히요~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도~올~고~오  
우리집에 저문디기는 나를안고 돈~다~  
에헤여라 놓아라 아니나 못놓리~다  
능기를 하여도 내사 못노리~다 (좋다.)

[사상구 민요 107]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가는데  
가매꼭지 물드간다  
가매꼭지 물드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사상구 민요 108]

## 너냥 나냥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그리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사상구 민요 109]

## 이같이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 물고가고  
새이 다오

[사상구 민요 110]

## 고사 소리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청중: 소지에다 불을 요래 딱 붙히가지고 하이튼 우쨌든간에.)

우리저 박씨 둘째 저거 벌깡생이같은 거 저거 열댓 살 묵은 거 저거 우쨌든간에  
건강하게 올해는 훨훨 날라댕기도록 해주소 (카매 휘익~ 이라더라 캐.)

[송현자]

[일부 가사 녹음 안됨] 이리 뛰도 암 사고 없이 잘 일 년 삼백육십오일 잘 지내게  
해 주세요 (이라고 빌고 그란다 아이가.)

[사상구 민요 111]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이걸이 저걸이 갖걸이  
동서남북 도맹근  
짹바리 해향근  
도래쭈치 장도갈  
오마이 쭈치 꼬~빱

[사상구 민요 112]

### 잠자리 잡는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잘래바<sup>319</sup> 잘래바  
불던자리 불어라

먼데가면 죽는다 [웃음]

[사상구 민요 113]

### 파랑새요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사상구 민요 114]

### 진도아리랑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왜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에 희망도 많다

땀네 땀어 무엇이 땀나  
시아버지 요강단지에 똥덩어리가 땀네 [청중 웃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화투야 판에서 앉아서 놀면

---

319) '잘래비'는 잠자리의 방언.

팔도 잡놈이 모두 친구라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사상구 민요 115]

### 저승사자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저승사자가 날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간다고 여쭙라  
칠십세에 저승사자가 날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외출중이라 못간다고 여쭙라  
팔십세에 저승사자가 날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청중: 할 일이.)  
할일이 많아서 못간다고 여쭙라  
구십세에 저승사자가 날데리러 오거든  
오신김에 같이가자고 여쭙어라

[사상구 민요 116]

### 정 드는 노래

송현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모라1동 곡상골경로당]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들 적에는  
등어리만 굶어도 정이 들고  
과부 흠애비가 정들 적에는  
막걸리 한잔에 정이 들고  
신랑 각시가 정들 적에는  
목공단 이불속에 정이 들고  
어린아이가 정들 적에는

눈깔사탕 한알이 정이 들고  
여러분과 나랑 정들 적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정이 들고 (청중: 좋다!)

[사상구 민요 117]

### 청춘가

김도연(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청천 하늘에~에 잔별도 많고요~오  
요내야 가슴에~에 좋~다 수심도 많구나~아

[사상구 민요 118]

### 쌍가락지 노래

노월선(여, 1927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오굶오굶 옥가락지  
먼데보니 달이로다 짚에보니 처녀같다  
그처녀여어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가지네  
천두복숭 오라버니 기죽말씀<sup>320)</sup> 하지마소  
나암풍이<sup>321)</sup> 들어불어 풍지떠는 소리로다

[사상구 민요 119]

### 청춘가

문정이(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

320) 거짓 말씀.

321) 남풍이.

저건네 저산밑에~에 우런님 집인데~에  
지안오고 내안가니~ 수천리로더라

너가 잘나서 천하의 일색이냐~아  
내눈이 어두워서~어 한탄이 되는구나~아

[사상구 민요 120]

### 모심는 소리

배차순(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오늘해가 요만되면 산골마다 연기나네  
울언님은<sup>322)</sup> 어디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느냐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소  
(조사자: 문어야 전복.)  
문어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의야방으로 놀러갔소

찐레야꽃은 살꿈뒤척 임의야보신에<sup>323)</sup> 잔불걸어  
임을보고 보신을보니 임줄생각 전히없네<sup>324)</sup> 우후후후

찐레야꽃은 장개가고 석류야꽃은 요각가네<sup>325)</sup>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야임은 오데를가고 딸을동자 시켰던고

농창농창 벼룩끝에<sup>326)</sup> 무정하다 저오랍아

---

322) 우리 님은.

323) 임의 버선에.

324) 전혀 없네.

325) 유곽 가네.

326) 벼랑 끝에.

나도죽어 후세상가서 낭군일신 심기볼래<sup>327)</sup>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 떠나가네  
(조사자: 니가 무슨.) (잊어뵈다. 그것도 모리겠다.)  
[청중과 함께]  
니가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반달이지

[사상구 민요 121]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배차순(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짚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도잔다

[사상구 민요 122]

### 청춘가

배차순(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산이 높아야~아 골도나 깊지요~오  
쪼꼬만은 요내속이 좋~다 얼마나 깊을소나

세월 네월아~아 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춘이~이 좋~다 잘넘어 가는구나

---

327) 섬겨 볼래.

신작로 넓어서 질가기 좋고요~오  
전깃불 밝아서 좋~다 임보기 좋구나

[사상구 민요 123]

### 모심는 소리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오늘해가 요만되면 살골마다 연기나네  
울언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느냐

저기가는 저구름아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맹창<sup>328)</sup> 내들었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들기 알을놓아  
그알하나 주었으면 금년과거를 내가할걸

[사상구 민요 124]

### 청춘가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이내 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더라

간단 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정 마당에<sup>329)</sup> 한강수 된다

---

328) 소리 명창.

329) 마당에.

[사상구 민요 125]

### 창부타령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간다더니 왜또왔나 간다더니 왜또왔나  
기왕지사 완걸음에 발치잡이나 자고가고  
자면자고 말면말지 발치잡이야 못자겠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며는 기우나니  
인생일자 춘몽이되면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사상구 민요 126]

### 양산도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에헤이~요~  
양산도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오  
이십세 큰아기 나를안고 도~온다  
에하야 놓여라 아니 못노리~라  
널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놓리~라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마~라~아  
알뜰한 내청춘 다늙어진~다  
에하라 놓여라 아니 못노리~라  
널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놓리~라

[사상구 민요 127]

### 노랫가락(1) [나비 노래]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밭속에서 자고가자  
그꽃이 푸대접하거든 이내품속에 자고가자

[사상구 민요 128]

### 노랫가락(2) [그네 노래]

백귀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모라1동 모라할머니경로당]

추천당 세모진낭게 오색가지요 추천을매어~  
님이뛰면 님이나밀고 님이타며는 내가나민다~  
그임아 줄놓지마라 줄떨어지며는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129]

### 창부타령

김순자(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높은산에는 눈날리고 낮은산에는 재날리고  
억수장마에 비따루고 대천한마당에 물갈린다  
열씨구나 오케 절씨구나 할루  
우리대한민국 평화가 돌아오소

이팽풍 연달이안에 잠든큰아가 문열어주소

바람불고 비오신데 안올줄알고 문닫았소  
여보당신 그말씀마요 바람불고 비가온들  
내아니오고 말것이나

[사상구 민요 130]

### 모 찌는 소리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한강에 (조사자: 인자 모 찢 때 소리다 그제?) (청중: 모를 부어야 모를 심지.)  
모를심어 (한강에 모를 심어.) 모찢일도 난감하네  
하늘에 목화심어 목화딸일도 난감하네

[사상구 민요 131]

### 모심는 소리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디로갔나

[사상구 민요 132]

### 양산도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에헤헤이~요  
간다 가노라 내가 돌아간~다  
저님을 버리고 내가 돌아간~다  
아서라 말어라 너그리 마~라~아

너 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로다

에헤헤이~요

너가 잘나서 일색이되~나

내눈이 어둡어 환장이로구~나

아서라 말어라 너그리 마~라~아

너 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로~다

양산읍네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오

우리집에 우리낭군은 나를안고 도~온다~아

아서라 말어라 너그리 마~라~아

너 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로~다

[사상구 민요 133]

### 사발가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만나네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슬슬 다눙힌다

[사상구 민요 134]

### 청춘가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세월아 네월아~아 가지를 말어라~아

알뜰한 내청춘을 좋~다 다데리고 가느냐~아

니가 잘나서~허 내눈이 어두우냐~아  
내눈이 어두워서~어 어라 좋~다  
(청중: 일색이 되지요. 내 눈이 어둡아서 너가 일색이 됐다.)  
내눈이 어두워서 에헤라 니가 잘났구나

[사상구 민요 135]

### 노랫가락(1) [나비 노래]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에서러나 자고가자  
꽃에서 피대접하거든<sup>330)</sup> 앞에서라도 자고가자

[사상구 민요 136]

### 노랫가락(2) [그네 노래]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연당앞에 백일홍심어 백일홍가지에 추천을메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며는 임이밀고  
저님아 줄미지말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137]

### 잠자리 잡는 노래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

330) 푸대접하거든.

먼데가면 죽는다  
붙던자리 붙어라  
먼데가면 죽는다

철철이 곰돌아  
붙던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사상구 민요 138]

###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이성득(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2일 채록  
[모라1동 수강경로당]

구구구구 구구구구  
지집죽고 자식죽고  
내호문차<sup>331)</sup> 우째살꼬  
구구구구 구구구구

[사상구 민요 139]

### 모 찌는 소리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줄이자 줄이자 이뭇자리 줄이자

메우자 메우자 이논뺨미를 메우자

넘기자 넘기자 이뭇줄을 넘기자

---

331) 나 혼자.

[사상구 민요 140]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짚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사상구 민요 141]

### 사발가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와짐도 나고  
요내야간장 타는데는 연기짐도 아니나네

[사상구 민요 142]

### 시집살이 노래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언니언니 새언니야 시집살이 어땠더노  
시집살이 좋다만은 큰골바람 찬바람에  
손이시리<sup>332)</sup> 몬살겠네

---

332) 손이 시러워.

[사상구 민요 143]

### 아리랑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밤꽃같은 얼굴에 도래꽃양산 들고  
인력꾸을<sup>333)</sup> 집어타고 시마이구경 가네

열두살 먹는것도 같보라고  
오전짜리 술잔들고 발발떠네

[사상구 민요 144]

### 노랫가락

박순자(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신작로 넓어서 길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네  
(청중1: 임보기 좋다 됐다.) (임보기 좋아.) (청중2 : 도망가기도 좋다 됐다.)

[사상구 민요 145]

### 파랑새요

성상경(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새야새야 팔강새야 녹두낭개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미간다<sup>334)</sup>

---

333) 인력거를.  
334) 울며 간다.

[사상구 민요 146]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성상경(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새야새야 팔강새야  
밤을한디<sup>335)</sup> 주웠더니  
깍데길랑 애비주고  
보닐랑 애미주고  
알은내가 다먹고  
(청중: 니강 내강 갈라먹자.)

[사상구 민요 147]

### 화투 타령

성상경(여, 194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이월매조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피는끝에  
유월목단에 올라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넘어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었는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다  
동지선달  
(뭐, 뭇이더노?)

---

335) 밤 한 되.

[사상구 민요 148]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윤추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징개맹개 도망개  
짹발로 시양근  
도리주멈치 사리좁  
육도육도 전라육  
하늘에숨군 제비콩  
뿔뿔 몰아 장두칼

[사상구 민요 149]

### 아기 어르는 노래

윤추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하늘에서 뚝떨어졌나 땅에서 불끈솟았나  
어허둥둥 내사랑아  
눈발에 꽃송인가 어름꾼에게 수달핀가  
어허둥둥 내사랑아  
(그런거 있어.) (조사자: 애기 어를 때?) (어. 어.)

[사상구 민요 150]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은수연(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밤을한되 주워다가  
조롱박속에 넣었더니  
(저, 저, 뭐꼬.)  
머리껍은 생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청중: 한 쪽 알이 남았길래.)

[사상구 민요 151]

### 모심는 소리

은수연(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나 처녀야눈썹이 다반달이지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사상구 민요 152]

### 너냥 나냥

은수연(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립어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사상구 민요 153]

### 보리타작 소리

은수연(여, 1944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그 썩썩<sup>336</sup>) 그 뭐꼬? 시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리타작을 하면서 그  
인자.)

앞집에 형수님도

뒷집에 제수씨도

내좃만 바래고

(내 손만 바란단 소릴, 내 좃만 바래고.)

봐라 봐라

여기도 보지

저기도 보지

알보지 저거 알보지

때리라 때리라

보지가 떨어지도록

때리라 때리라

(카더래.)[일동 웃음]

[사상구 민요 154]

### 모심는 소리

이귀선(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또 뭐라카노?) (조사자: 이 달 크고.)

이달크고 저달커서(청중: 훗달커서) 훗달커서 (뭐 몇 월 달에?) (청중: 칠월달에)

열매열께

산아산아 높은산아 눈비떨떨 날지마라

니잡으러 내안간다

---

336) 혀 짧은.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그거 모심기 노래거든.)  
많이보면 병날테니 살날만큼만 보고가소

[사상구 민요 155]

### 말 유희요

이귀선(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우리집에 텔레비전샀지요  
할매 보지요  
엄마 보지요  
누나 보지요  
모두모두 보지요  
우리집에 침대샀지요  
할아버지 자지요  
아버지 자지요  
오빠 자지요  
모두모두 자지요

[사상구 민요 15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허점조(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망근 도망근  
도리도리 짹짹  
(해쌌코 그랬는데.)

[사상구 민요 157]

### 신아리랑

허점조(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아리랑 춘자가 보리쌀을 씻다가  
강서방 노래소리에 오줌을 짰네  
오줌을 씻시믄 작기나 짰나  
서마지기 논빼미 한강이 됐네  
좋~다!

[사상구 민요 158]

### 파랑새요

허점조(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사상구 민요 159]

### 청춘가

허점조(여, 194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경로당]

신작로 가운데는 하이야가 놓고  
하이야 가운데는 신부신랑 놓고  
(막 그라더라.)

[사상구 민요 160]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정주맹근 요맹근  
짹바리 호약발  
도리 주머니  
자리요

[사상구 민요 161]

### 아기 어르는 노래(1) [불매요]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불무야 불무야  
경상도 대불무  
전라도 서불무  
불어라 딱딱 불어라  
불어라 딱딱 불어라

[사상구 민요 162]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사상구 민요 163]

### 사발가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디는 연기나어병병 나건만  
요내가심 타는디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사상구 민요 164]

### 도라지 타령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 캐어도  
대바구리 반춤만싸노라

[사상구 민요 165]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실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고

[사상구 민요 166]

### 아기 어르는 노래(2) [알강달강요]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달강 달강  
알밤한톨 주워다가  
살강밑에 묻었더니  
들랑날랑 시양쥐가 다까먹고  
한쫓가리 남았구나  
(한 쫓가리 남은 거 까가지고 너랑 나랑 슈아가 목자는 기라.)

[사상구 민요 167]

### 백발가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웃지마라  
우리도그저께 소년이더니 백발되기 잠시로다

[사상구 민요 168]

### 양산도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양산도 물레방애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이 영감님 나를안고 도네

[사상구 민요 169]

### 신세 한탄 노래

김복님(여, 192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성아성아 사춘성아 쌀한되만 재졌으면  
성도먹고 나도먹고 누룽지는 개도주고

[사상구 민요 170]

### 화투 타령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버리고  
오월난초 앓으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맛이가세  
구월국진 굳으는절개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171]

### 진도아리랑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나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나리가 났네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이 되더나  
내눈이 어두워서 환장을 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나리가 났네

[사상구 민요 172]

### 노랫가락(1) [첩 노래]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해는져서 저무신날에 옷갓을 어데가요  
첩에집에 가실려거든 나죽는풀이나 보고가소  
첩의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  
연못의금붕어는 사시사철 꽃과나비는 한철이라

[사상구 민요 173]

### 노랫가락(2) [봄배추 노래]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사상구 민요 174]

### 방귀 타령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시아부지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방구는 잔소리방구  
시누애기방구는 여시방구  
서방님방구는 단방구고

[사상구 민요 175]

### 노랫가락(3)

신복달(여, 1939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저건너라 갈비봉에 조씨단말을 뿌렸더니  
쫓새가 다까묵고 빈쫓대만 할랑할랑한다

[사상구 민요 176]

### 파랑새요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른 청포장사 울고간다

[사상구 민요 177]

### 의암이 노래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진주기상 이애미는 우리조선 생기자고  
왜장장수 목을안고 진주남강에 뚝떨어졌네

[사상구 민요 178]

### 백발가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엇그짓기 소년이더마는 오늘날로 백발이다

[사상구 민요 179]

### 아리랑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우런님 고개는 한고개요

[사상구 민요 180]

### 저승 간 남편 노래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대밭에라 왕시길나무 담뱃에라 청시길나무  
꽃과같은 우런님은 세상갓을 새기시오  
저승길은 가시더만 가고다시 아니오네  
저승질이 질겅으른 오고가고 문혈쓴가  
저승행이 우렁뿌리겅으면 우리낭군 생기주소

[사상구 민요 181]

### 모심는 소리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동네마도 연기나고 우런님은 어데가고  
동자혈줄 모리는고

[사상구 민요 182]

### 노랫가락

유부순(여, 1928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한삼모시 진고름이 갈참낭군 은했더만  
모재기장수가 내낭군이라네

[사상구 민요 183]

### 모심는 소리

임일선(여, 1932년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삼락동 삼락강변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오데가나  
우리엄마 산소에 짓먹으러 내가간다

[사상구 민요 184]

### 모심는 소리(1)

김삼덕(여, 1923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란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그래 칠팔월에.) (조사자: 이 달 크고 저 달 크고.)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 [말을 바꾸어] 구시월에 열매열고  
(조사자: 열매 열래.) (그것뻘에 못하지.) (조사자: 못하고.)

[사상구 민요 185]

### 모심는 소리(2)

김삼덕(여, 1923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낭창낭창 베르끝에~ 무정하던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연자되여<sup>337</sup> 천세끝에 집을지어  
(조사자 : 나도 죽어 연자 되어 천세 끝에? 집을 지어?) (집을 지어. 그라고 또  
인자 그거.)

이논빼미다 모를숨겨 (아이고 마 바, 밤바.) (조사자: 이 논빼미 모를 숨가 금실금  
실 영화로다.) (야.)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여자

[사상구 민요 186]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춘하(여, 1959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두만두 두만두  
오리 종채 [말을 바꾸어] 오리 둥치 장두칼  
큰언님의 백구통

---

337) 연자(燕子) 되어. 즉, 제비 되어.

뽕 (청중: 이래 땅 이래고.)

[사상구 민요 187]

### 영감할멈 놀리는 노래

김춘하(여, 1959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이 빠진<sup>338</sup> 할마이  
사리마다<sup>339</sup> 벗어 (이카고.)  
이 잡아 주께 (이랬다 옛날에.)  
(조사자: 이 빠진 할마이.)

(우리 어릴 때 막- 우리 할아버지 하나 있었거든. 옷통 훌딱 벗고 마 마당에 풀  
뽑으만 우리가 아~이래 놓고.)

이 빠진 영감  
사리마다 벗어  
이 잡아 주께 (카모, 도망 가고.)

[사상구 민요 188]

### 배 아프면 부르는 노래

김춘하(여, 1959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세 번을.)  
아픈배는 니가지가고<sup>340</sup>  
안 아픈  
[말을 바꾸어 처음부터 다시]

---

338) 이 빠진.

339) 사리마다는 속옷이란 뜻의 일본어로 팬티를 말함.

340) 너 가져가고.

배야배야 아픈배는 니가져가고  
안아픈배는 날도<sup>341)</sup> (이라라 카고.)

[사상구 민요 189]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김춘하(여, 1959년 생), 이동연(여, 1936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이동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가매꼭지<sup>342)</sup> 물흐르면  
고운치마 얼른진다

[김춘하]

(우리는 그래 안 했어.)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갈때  
가매동동 떠내려간다 (이랬다.)  
(조사자: 아, 고개는 가매 동동 떠내려간다.) (물에, 물이 흐른게 비에 다시 내려  
간다.)

[사상구 민요 190]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동연(여, 1936년 생) 구술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본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

341) 나를 다오.

342) 가마 꼭대기.

진주맹근 또맹근  
짜바리 해양구  
도래뭉치 장독깡 (그러 카갓고.)  
땅 (하모 인자 나가모 또 노래 하고 그랬다. 옛날에.)

[사상구 민요 191]

### 노랫가락

김상순(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말큰<sup>343</sup> (박복덕: 잘한다.) 가자꼬 굽우를<sup>344</sup> 치는데  
저임은 날잡고 낙루하네 (박복덕: 맞다.)

[사상구 민요 192]

### 모심는 소리(1)

김상순(여, 1927년 생),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등님에다 첩을두고 첩의야집에 들어갔네

[사상구 민요 193]

### 모심는 소리(2)

김상순(여, 1927년 생),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김상순] 임이죽어서 (박복덕: 연자 되여.) 연자가되여~이

---

343) 말은.

344) 굽을.

[김상순, 박복덕] 춘색끝에다 집을짓네  
날면보고 들면봐도~오 임인줄로 내몰랐네

[사상구 민요 194]

### 모심는 소리(3)

김상순(여, 1927년 생),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김상순]

모시야적삼 안설편에~헤 분통같은 저젓보소

[김상순, 박복덕]

많이보면은 빙날끼고~이<sup>345)</sup>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조사자 웃음]

[사상구 민요 195]

### 모심는 소리(4)

김상순(여, 1927년 생),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오늘해가 다졌는데~에 산골마장 연개나네  
울언님은<sup>346)</sup>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루는고

[사상구 민요 196]

### 모심는 소리(1)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낭창낭창 베로끝에<sup>347)</sup> 무정하다 저오랍아

---

345) 병이 날 것이고.

346) 우리 님은.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속<sup>348)</sup> 싱길라요<sup>349)</sup>

[사상구 민요 197]

### 모심는 소리(2)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가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짓묵으로 나는가요

[사상구 민요 198]

### 모심는 소리(3)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너가뉘선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그래 했어요.)

[사상구 민요 199]

### 모심는 소리(4)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찔레꽃은 장개가고 석노꽃은 유곽가고<sup>350)</sup>  
만인간아 웃저마라<sup>351)</sup> 씨종자로 바래간다

---

347) 벼랑 끝애.

348) 처자 권속.

349) 섬길라요.

350) 석류꽃은 유곽 가고.

351) 웃지 마라.

[사상구 민요 200]

### 모심는 소리(5)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비물었네 비물었네 진주덕산 비물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यो

[사상구 민요 201]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잠도잔다  
뒷집개야 짓지마라  
앞집개야 짓지마라  
꼬꼬달아<sup>352)</sup> 울지마라  
우리애기 잠잘잔다

[사상구 민요 202]

### 이같이 노래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는 니하고

---

352) 꼬꼬달아.

새이는 내도고<sup>353</sup> (이러 캬다.)

[사상구 민요 203]

###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풀국새 노래]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뿌국뿌국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흔차 우째살꼬

[사상구 민요 204]

### 청춘가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청춘 하늘에~에<sup>354</sup> 잔별도<sup>355</sup> 많고요~오  
요내 가슴에는 좋~다 수심도 많구나- (이러 카지.)

[사상구 민요 205]

### 시집살이 노래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기 우떨더노

---

353) 새 이는 나를 다오.

354) 청천 하늘에.

355) 잔별도.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자놓기<sup>356)</sup> 애렵더라<sup>357)</sup>  
소박<sup>358)</sup> 동굴동굴 어깨위에  
밥담기도 애렵더라  
중우벗은<sup>359)</sup> 시아재비<sup>360)</sup>  
말하기도 애렵더라

[사상구 민요 206]

### 권주가

박복덕(여, 1931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천련만련 사오리다<sup>361)</sup>

[사상구 민요 207]

### 화투 타령

장월선(여, 192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일월송송 들고나봐라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놓고  
오월난초 노던나비

---

356) 수저 놓기.  
357) 어렵더라.  
358) 수박.  
359) 중의(中衣) 벗은. 중의는 남자의 흉바지.  
360) 시아주버니.  
361) 천년만년 살리다.

유월목단에 춤을치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구경가자  
오동설산 봉학이놓고  
봉황우에도 백학이노네

[사상구 민요 208]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황분희(여, 192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사맹근 도맹근  
도리짐치 장두간

[사상구 민요 209]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황분희(여, 192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sup>362)</sup>  
가매문에 비들치면<sup>363)</sup>  
다홍처매 어렁진다<sup>364)</sup>

[사상구 민요 210]

###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

362) 시집간다.

363) 가마 문에 바가 들치면.

364) 얼룩진다.

황분희(여, 192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연치<sup>365)</sup>야 연치야 방아찌라  
싸래기 받아 니주께

[사상구 민요 211]

### 객귀 물리는 소리

황분희(여, 192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엄궁동 엄궁지불경로당]

윗세- 이름도 뭐고, 이름도 알고 성도 아는데, 한 칼에 받아서 물밥 진밥 마른밥  
다 받아가 묵고 윗세- 떠나라 (카고.) (조사자: 오! 잘하시네.)

[사상구 민요 212]

### 사발가

김광식(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나온다

[사상구 민요 213]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시점(여, 1948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

365) 연치는 방아깨비의 방언.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망근 도망근  
짜발이 해양근  
도래춤치 사례육  
육도육도 칠도육

[또 뭐꼬? 요새 안하이 잇어 뿌렀다. 그 뒤에는 모르겠네.]

[사상구 민요 214]

### 본조아리랑

정명식(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3일 채록  
[주례1동 본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고개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상구 민요 215]

### 모심는 소리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는 반달마치 남았구나  
제가뵈신 반달이라 초생달이 반달이지  
초생달만 반달이가 그믐달도 반달이네  
(청중: 맞네, 그 말이.)

점심때가 다됐는가 골골마당 앵기나네<sup>366)</sup>  
울의님은 어데가고 첩의집에 가고없네

---

366) 연기 나네.

뭉신이런 첩이길래 낮에가고 밤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가네

해다지고 날저문데 옷갓을입고 어디가노  
첩의집은 꽃밭이오 요내집은 연못이라  
꽃고나비는<sup>367)</sup> 일시절이지만 요내집은 금뭇에붕어로다

다풀다풀 다풀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뒤에 짓먹으러 나는가네  
무신일이 밤이길래 밤에가고 낮에가노  
밤으로는 엄마절에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러간다  
(이라더란다.)

풍당풍당 밀수지비 사우상에 다올랐네  
노랑감투 재치쓰고<sup>368)</sup> 물국쓰기 밀이로다  
(저거 아버지 보고 그런다 카대.)

머리 좋고 날썸처녀 울뽕낭개 앓아우네  
울뽕갈뽕 내따춤세  
(저게 아 그것도 잊어뻘다.) (조사자: 내품안에 잠들어라.)  
내품안에 자고가게

해다지고 강전밭에 목화따는 저아가씨  
어찌저리 고을꺼나  
(그란께네.)  
이내나를 곱다카요 우리언니 더곱답니다  
너거언니 불러쿠면  
(어찌하면 보냐고 인자.)  
너거언니 볼수없나 우리언니 보실라문  
방청석에 복숭나무 오복등꽃을 보고가이소  
(그라대. 그것도 내나 모숨구는 노래다.)

---

367) 꽃과 나비는.

368) 제쳐 쓰고.

[사상구 민요 216]

### 사친가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요내머리 좋던머리 달비쳐서 설단머리  
정있고 새있어서 이승배를 나여갖고  
늦접시 담아이고<sup>369)</sup> 부모사러 나는가네  
(그란께, 그것도 잊어뻘다. 오래돼서 잊어뻘다 인자.)  
하늘천자 낭개올라 부모살때 어딴것나  
하늘천자 낭개올라 따지자를<sup>370)</sup> 후아잡고  
(아이고, 끄트머리 가서 모르겠다. 고마. 오래돼서 잊어 뻘어 안돼.)

[사상구 민요 217]

### 화투 타령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정월솔갱이 솔씨를빌어  
이월매주 맏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흑띠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싸리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져서  
동지오동 눈이와서

---

369) 담아 머리에 이고.

370) 땅 지(地)자를.

십일홍을 덮었구나.

[사상구 민요 218]

### 베 짜는 처녀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지베짜는 저처자야  
앞아짜나 서서짜나 어찌그리 잘도짜노  
그베짜서 뭇할라고 올의님의 도복하고  
임을찾아 갈라카른  
(아이고! 그 잊어뻘다 또.)

[사상구 민요 219]

### 사발가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는퐁퐁 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짐도 안나더라

[사상구 민요 220]

### 못 갈 장가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스물아홉 서른아홉 첫장개를 갈라칸께  
앞집에서 궁합보고 뒷집에서 책력보고  
책력에도 못갈장개 궁합에도 못갈장개

제가췌워 가는장개  
한모랭이 돌아간께 까막까치 진동하고  
두모랭이 돌아간께 여수새끼 책책울고  
세모랭이 돌아간께 재인장모 썩나섬서  
신부죽은 부고로다 신부죽은 부고로다  
부고받고 갔더만은 재인장모 썩나섬서  
기왕지라 온걸음에 하룻밤이라도 자고가게  
주인없는 방에 자고가면 뭐하겄노  
어디자고 가라고 발치잠이라도 자고가게  
(쿤다 카더라. 발치라도 자고 가라 카더라.)

[사상구 민요 221]

### 사위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진주당산 푸른낭개 이슬걸은 내사우야  
늦접시에 구슬담아 사랑하던 내사우야  
금옥걸이 키운딸을 백년이나 사랑하췌

[사상구 민요 222]

### 노랫가락[그네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 늘어진가지에 구네매여<sup>371)</sup>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매지마라 줄떨어지믄 정떨어진다

---

371) 그네를 매어.

[사상구 민요 223]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짜발이 헤양근  
도래좁치 사리육

[사상구 민요 224]

### 백발가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어제아래 소년이더만 백발보고 천하쉽다

[사상구 민요 225]

### 노랫가락(1)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안산밑에 소를비어 그솔비서 뭇할란고  
김목수를시키서 배를맞차 한강에 띄여놓고  
소주와맥주 갖다실고 기상집에 놀러가네  
무슨일에 기생이길래 배를타고 놀러가노  
한강에다 돌을떠지 너와나와 만날적에  
(뭘라카더라? 너와 나와 만날 적에 뭘라더만 잊어뻘다.)

[사상구 민요 226]

### 혼사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또 결혼하는 노래도 그런 거 있대.)  
너와나와 만날찍에 암탐수탸 마주놓고  
밤대추를 몰라놓고 북향자배를 세와놓고  
사모관대 세아놓고  
(뭘라 카던고 잊어뻘다 그것도. 뭘 함시로 뭘, 맞절하고 첫날밤에 아이고! 잊어  
뻘다 그것도.)

[사상구 민요 227]

### 청춘가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에 목칠년아  
어린자속 배골리고 성한가장 병들이고  
새벽바람 찬바람에 담보따리가 웬말이고

[사상구 민요 228]

### 양산도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함양산청 물레방에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의 울의님은 나를안고 돈다

[사상구 민요 229]

### 노랫가락(2)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함양 우숲이라 카거든. 우리 고향에.)  
함양우숲이 너르다해도 울어머니 속만치 안너르다  
저달이 밝다해도 올의님만치 안밝다  
(카더나 뭐라 카더노? 잊어뻘다 그것도 다.)

[사상구 민요 230]

### 며느리 한탄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시어마이 죽으라꼬 산지불공해논께  
친정엄마 죽었다꼬 부고왔다 [웃음]

시어마이 죽으라고 초혼을 했더만은  
보리박에 물부놓은께 또생각나더라

[사상구 민요 231]

### 신세한탄요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너거집에 가걸랑강  
나를팔시 하지마라

너거집은 잘살아서 누룩장으로 담을싸고  
(그 빗대기서 하는 소리 아이가.)  
우리집은 하도못살아 늦접시기 담을쌌다  
(그라더라.) [웃음]

[사상구 민요 232]

### 첩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남방유월 한더위에 첩을팔아 부채사고  
동지선달 긴긴밤에 첩의생각 절로나네

[사상구 민요 233]

### 나비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건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아리밭으로 날아드네

[사상구 민요 234]

### 시어머니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전라도 시어미나 경상도 시어미나  
각솔에 고와도 한맛이란다

[사상구 민요 235]

### 남녀연정요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지게진 저총각 휘파람소리  
물동이인 처녀 방긋이있네

[사상구 민요 236]

### 노랫가락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질가에 피는것도 꽃이라든 꽃인데  
하룻밤을 자고가도 입은 입이라고

[사상구 민요 237]

### 총각 노래

강심분(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구루마끄는 저총각아 황소를 어서몰아  
진주시장 쌀금 다올라간다  
(그런 노래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대.)

[사상구 민요 238]

### 모심는 소리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앞태전복 손에들고 첩의야집을 놀러갔네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사상구 민요 239]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 봄이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대령오도록만 기다린다

[사상구 민요 240]

### 시집살이 노래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실금실금 시누이야 시집살이 어떻더나  
올케올케 이올케야 니보다가 더하더라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제놓기도<sup>372)</sup>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주버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사상구 민요 241]

### 지신밟기 노래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

372) 수저 놓기도.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지신을 밟자  
주인주인 문여소 나그네손님 드가요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지신을 올리자  
이집에 성주야 성주본이 어드메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본이 본일세  
(아이, 가만 있어봐라 나도 또 생각이 안난다.) (조사자: 솔씨가 그지예?)  
솔씨하나를 물어다 근리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이 점점자라서 황장나무가 되었네  
박대목이 비어라 김대목이 비어라  
그솔이 점점비어다가 이집으로 씌웠네  
아들이나거든 효자가나고 딸이나거든 열녀가나고  
개가나면 삽살개나고 말이나거든 용마가나고

[사상구 민요 242]

### 뱃놀이 노래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어야어야누~야 어야디야 어야 뱃놀이 가잔다

[사상구 민요 243]

### 신고산타령

박복남(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에 띄울년아  
어린자식 잠들이놓고 병든가장 눕하놓고  
새벽바람 찬바람에 담뱃집이 웬일이요

[사상구 민요 244]

### 칩 노래

윤증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멀다멀다 먼양고개 (저.) 배가불러도 죽습니까  
(그.) 아식도 채칼이야 찢기도다

(칠기<sup>373</sup>)가 무슨 줄이라더라? 칠기지라던가 뚫은 캄서. 그래 배가 불러도 죽습니까 그런 노래 하더라 카이. 나 많은 날에, 배고플 적에.) (조사자: 아식도가 채칼이라고 합니까?) (채칼이라. 나무가 만든 칼인가봐요. 무슨 칼인가. 그때 칼이. 채칼이 칼이라 하는 거 보이. 채칼인가 모르겠지만, 클 적에 할매들 한 두 번 그런 얘기하는 거 그걸로 들어봤어.)

[사상구 민요 245]

### 진주난봉가

조경분(여, 1943년 생) 가창  
2016년 2월 4일 채록  
[주례2동 냉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너의낭군을 보려거든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라  
진주남강에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들도좋은듯  
들컹들컹 발자국소리 난데없는 발자국소리에  
힐쩍힐쩍 돌아보니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지나가네  
검은빨래는 검게빨고 흰빨래는 희게빨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의낭군을 불러거든

373) 칩을 말함.

아래채를 내려가라 아래채를 내려가니  
오색가지 상을놓고 기생첩을 옆에끼어  
못본듯이 그리나와 이세상을 하직을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기생첩은 삼년이고 본부정은 백년이다  
(뭐이 잘 모르겠네. 끝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상구 민요 246]

### 모심는 소리

김영순(여, 1927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같이 남은데  
(또 뭐야?) (조사자: 니가 무슨 반달이냐.)  
니가무슨 반달이냐 내가 초승달이다.  
(칭중: 초생달이 반달이지.)

[사상구 민요 247]

### 도라지 타령

김영순(여, 1927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만 반실만 되노라

[사상구 민요 248]

### 노랫가락(1) [봄배추 노래]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사상구 민요 249]

### 모심는 소리

신영둘(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낭창해창 저비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방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처자한쌍 섬길래라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던가

[사상구 민요 250]

### 화투 타령

신영둘(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에 앉았구나  
삼월사쿠라 필똥말똥  
사월흑싸리에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칠दै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고  
구월국화 필똥말똥  
시월단풍에 다떨어지고  
오동삼십과 비삼십은

꽃발이나는데 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251]

### 사발가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풍풍나고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사상구 민요 252]

### 노랫가락(2) [그네 노래]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수천당 세모지낭개 오색가지라 그네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진다면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253]

### 도라지 타령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그 또 뭐꼬?) (조사자: 대바구니.)  
대바구니  
(뭐꼬?) (청중: 다 녹는다.) (다 녹는다가? 모르겠다.)

[사상구 민요 254]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짱발이 세양근  
머구발에 찻싸리  
(또 똥고 모르겠다.)

[사상구 민요 256]

### 본조아리랑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상구 민요 257]

### 밀양아리랑

신영돌(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낭군님이 가라해도 갈똥말똥하는데  
되지못할 시어마씨 날가라하네  
삼동씨야 사동씨야 다모여들어라  
시어마시 잡아다가 단지구함하세

[사상구 민요 258]

### 양산도

신영둘(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함양산천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올은님은 나를안고 돈다  
예화 누워라 아니야 못노리라  
너능기를 하여도 나못노리

[사상구 민요 259]

### 너냥 나냥

신영둘(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입을그리워 운다

[사상구 민요 260]

### 모심는 소리

주광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모야모야 노락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청중: 노랑모지 뭐, 노락모는 또 와?) (노락모다. 노락모다.)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청중: 칠팔월에 열매 연다 캐.) (그래 그라지. 그뿐이지 뭐. 칠팔월에 열매 연다.)

[사상구 민요 261]

### 백발가

주광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엄광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청중: 너도 어제같이 소년이지 백발되기 잠시로다.)

소년이지 백발되기 잠깐이다

[사상구 민요 262]

### 모심는 소리

김경이(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맺지

[사상구 민요 263]

### 징거미 타령

김경이(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친구한테 돈을 삼 전을 빌렸는 가봐. 그래 친구가 돌려 카니, 갚을 길이 없으인  
께네 뭐.)

이내속곳을팔아서 속곳전에팔아서 친구돈석냥 내값으꾸마  
이내팔을비어서 까꼬리전에팔아서 친구돈석냥을 내값으꾸마  
이내발을비어서 곡괭이전에팔아서 친구돈석냥 내값으꾸마  
(청중: 창자빠가주고 빨래줄을해도 니돈석냥 내값구마.)  
(조사자: 징금이 타령이네예.) (청중: 응, 여봐라 징금아.)  
머리카락을비어서 달비전에팔아서 친구돈석냥 내값으꾸마

[사상구 민요 264]

### 화투 타령

오영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정월솔깨비 솔씨를받아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몸에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날아든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놀러가자 놀러가자  
오동동숲속을 놀러가자

[사상구 민요 265]

### 왕대 노래

오영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올어머니 날날을적에 죽순나무를 원하더니  
그대가커서 왕대가되고 왕대끝에는 화경점점

[사상구 민요 266]

### 본조아리랑

오영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상구 민요 267]

### 노랫가락

오영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으제  
쪼꼬만은 니내속이 좋다! 얼마나 깊을쏘나

[사상구 민요 268]

### 너냥 나냥

오영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 있고요  
사람은 늙으면 공동묘지로 간다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그래가 저거 신랑 죽고 안 오면, 살로 가면 좋다 아이가.)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그렇다 아이가.) (조사자: 아침에.)

앞집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조사자: 저녁에.)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사상구 민요 269]

### 진도아리랑

이숙임(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놀다가가소 놀다가가소 저달이 떴다지고로 놀다가가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만경창파에 동동동등대에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노를저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정이라는것은 아니주려고했는디 우연히 가는정은 어쩔수가없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사상구 민요 270]

### 태평가

이숙임(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이팔청춘은 소녀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써봅시다

[사상구 민요 271]

### 각설이 타령

이원경(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일자나 한장 들고나보니  
일선에가신 우리남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장 들고나보니  
이승만 대통령 아주산은 부통령  
삼자나 한장 들고나보니  
삼천만에 울음소리 이강산이 진동하네  
사자나 한장 들고보니  
사천만 우리동포 남한일대를 책립하네  
오자나 한장 들고나 보니  
오억만에 중공군이  
(중공군이, 그것도 다했는데 인자 안 되네.)  
육자나 한장 들고보니  
육이오사변에 집태우고 거지생활이 웬말인가  
칠자나 한장 들고보니  
칠십리에 박격포탄 부산일대로 물러간다  
팔자나 한장 들고보니  
판문전에 휴전회담 아주사가 들어가요  
구자나 한장 들고를보니  
국군간지 삼년만에 두동병이 웬말이요  
장자나 한잔 들고보니  
장개간지 첫날밤에 소집영장이 웬말이요

[사상구 민요 272]

### 못 갈 장가 노래

이원경(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그 누가, 사위가 자기 딸이 죽었거던. 죽고 난 뒤에, 그래 인자 죽고 난 뒤에 사  
위 와놓이)

왜왔던고 왜왔던고  
(아!)

내딸죽고 내사위야 울고갈걸 니왜왔노  
이왕지 왔거들랑 발치잠이나 자고가게

[사상구 민요 273]

### 돈 타령

이원경(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일전이라 하는것은 할아버지시대가 일전이오  
이전이라 하는것은 어제아래가 이전이오  
삼전이라 하는것은 미역전이 삼전이오  
사전이라 하는것은 죽기전예가 사전이오  
오전이라 하는것은 점심전이 오전이오  
육전이라 하는것은 소고기전이 육전이오  
칠전이라 하는것은 이레안이 칠전이오  
팔전이라 하는것은 점방이 팔전이오  
구전이라 하는것은 말전달하는게 구전이오  
십전이라 하는것은 요리집 문전이 십전이오

[사상구 민요 274]

### 구멍 타령

이원경(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저건너 딱따구리는 나무구멍을 뚫는데  
우리집 저문디는 뚫어진것도 문뚫는다

[사상구 민요 275]

### 진주난봉가

이원경(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올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모른다.) (조사자: 시어머니.) (아이고, 별 거 다 잘했는데 마 잇아뻘네.) (청중:  
시어머니 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  
시어마님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그래 앞뜰에 가가 빨래로 씻고 오니라 카거든. 근데 시어마이가 올도담도 없는  
집에 시집삼년을 살고, 빨래를 씻거가, 씻거가 오인께네.)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카면서, 그래 씻고 인자 그래 오이까네, 신랑이 과거를 해 가지고 와 가 사랑방  
에 있고, 그 또 시어마이가.)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을 불러커든  
아랫방문을 열어봐라  
(그래가 인자 가가 열어보이, 첩을 델고 와가주고 술로 먹었거든.)  
아흠가지 안주에다가 다섯가지 술에다가  
권주가를 부르고있네  
(이카이께네, 있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웃방에 올라가가 지는 마 '아이고 안  
되겠다.' 싫어가지고 마, 그 고생을 하고 그마이 살았는데, 기집질 하고 저런다  
싫어 가지고는.)  
명주석자 목을짚라 이세상을 떠나거이라  
서방님이 그말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보여보 일어나소 첩의사랑은 석달이고  
본처처는 백년인데 당신그리 갈줄몰랐소  
(카메 그리 울더란다.)

[사상구 민요 276]

### 청춘가

이태임(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5일 채록  
[주례3동 주례해락경로당]

청춘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이내가슴에 좋다 수심도 많고요

[사상구 민요 277]

### 모심는 소리

정정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승학경로당]

(조사자: 모시적삼 적삼안에 연적같은 저젓봐라 하고.)  
[말로 읊조리며]  
한산모시 적삼밑에 (조사자: 한산 모시. 한삼 모시?)  
한산모시 (조사자: 한산 모시 적삼 안에.) 적삼밑에 연자겉은 저젓봐라  
연자같은 젓을쥐고 한번쥐고 두번쥐고  
절때마다 짐이 (큰다 인자 이기지.) (조사자: 절 때마다. [웃음]) 짐이버네

[사상구 민요 278]

### 다리 세기 노래

최연이(여, 1932년 생) 구술  
2015년 2월 14일 채록  
[학장동 학장본동경로당]

하날똥 두알똥

삼사 네비

오도둑 빠두둑

제배살이 고사리

솜 매비 땅 (이래.)

(조사자: 어어, 솜 맹지 땅.)

송제비 갓 땅 (이란다.)

### 3. 사하구 민요

[사하구 민요 1]

#### 너냥 나냥

강선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너양나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기리워 운다  
너양나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이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양나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공동산천<sup>374</sup>)으로 간다

[사하구 민요 2]

#### 파랑새요

강선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두부장사 웃고간다

---

374) 공동묘지를 말함.

[사하구 민요 3]

### 밀양아리랑

강선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날쫓보소 날쫓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쫓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이송천 양지골에 비빔밥이좋아

[사하구 민요 4]

### 백발가

강선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절마라  
나도엿그제 소년이더니 오늘보니 백발이네

[사하구 민요 5]

### 청춘가

강선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우수경칩에 대동강풀리고  
정든님말씀에 내맘이풀리누나  
떴다보아라 완전한저비행기  
내다보아라 왕래를하는구나  
청춘하늘에 잔별도많고요  
요내가슴에 수심 많더라

[사하구 민요 6]

### 모심는 소리

김말순(여, 193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서마지기 이논빼미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사하구 민요 7]

### 양산도

김말순(여, 193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은안고 돌고  
뒷집에 큰애기는 나를안고 돈다

[사하구 민요 8]

### 쌍가락지 노래

김모연(여, 192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  
먼데보니 달이로세 짚에보니 처자로세  
그처자랑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이로세  
청도복숭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소  
깨꾸리라 기린방에 참새로 지내노소  
동남풍이 들이불어 풍지뜨는 소리로소

[사하구 민요 9]

### 죽은 낭군 그리는 노래

김응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님아님아 우리님아  
남한산성 집지을때  
우리님이 골로갔네  
밤새도록 울고울고 또울다가  
또해가가도 우리님은 안오시네  
남한산성 집지을 때  
님의등이 헐벗었네  
님아님아 우리님아  
우리님은 아니오시네

[사하구 민요 10]

### 빨래 노래

김응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청순옥수 흐르는물에 내빨래 씻어서  
푸른청강 바위우에 널부러시 널어놓고  
맑은햇빛 청강속에 내옷 말랐는데

무슨냄새 너거들이 나더노

[사하구 민요 11]

### 남녀연정요

김응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임다리는 oo다리 내다리는 o옥다리  
초저녁에 까만달이 날이새도 안풀릴것을  
님아님아 어디가고 내혼자만 외롭게  
이방에 문풍지가 내가슴을 울리네

[사하구 민요 12]

### 너냥 나냥

김응자(여, 194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너농나농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기러바 운다  
너는총각 나는처녀 저달이 질때까지 놀다가 가자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저달이 저리밝아도 구름속에 놀고요  
우리는 장애가도 사장구복판에서 논다

[사하구 민요 13]

### 화투 타령

김정자(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메주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아든나비  
유월목단에 앉았으니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사하구 민요 14]

### 권주가

김정자(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고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사하구 민요 15]

### 아리랑

백만녕(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별놓고 달놓고 호박수대기  
곤때도 아니문어서 사성이 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놓아라 놓아라 내팔을 놓아라  
하니갈래가 몽땅빠져도 내뭇놓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사하구 민요 16]

### 청춘가

백만녕(여,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날데려 가거라 날모셔 가거라  
돈있고 잘난놈 날데려 가거라

[사하구 민요 17]

### 모심는 소리(1)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낭창낭창 벼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흥개만남아 낭창끝에 만날리라  
오빠오빠 울오랍아 어데가서 문오는고

[사하구 민요 18]

### 시집살이 노래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성아성아 사춘성아 시집살이가 어뎡더노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제놓기나 어렵더라

[사하구 민요 19]

### 청춘가(1)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팔세를 말어라 팔세를 말어라  
네가 젊다고 내팔세 하지마라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 가슴에는 수심도 많더라

[사하구 민요 20]

### 사발가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퐁퐁 나건만은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나짐도 아니나네

[사하구 민요 21]

### 노랫가락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대장부 살림살이나 요만하면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만족하지

[사하구 민요 22]

### 청춘가(2)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청춘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산사람에는 좋다! 수심도 많구나  
네가 잘나서 천하일생 되나요  
네돈이 많아서 좋다! 천하일생 되논다

[사하구 민요 23]

### 모심는 소리(2)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물길마자 열어놓고 첩우야집에 놀러갔네

첩은첩첩 백년이걸래 본처간장은 녹이는고  
본처간장 녹일적에 첩우야 간장은 애절하니

[사하구 민요 24]

### 강피 훑는 처자 노래

송춘람(여, 194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저건네 저아가씨 갱피훑는 저아가씨  
금년에도 갱피훑고 후년에도 갱피훑네  
달마장<sup>375</sup>) 쟁피훑어 어데다가 써먹을꼬

[사하구 민요 25]

### 화투 타령

신갑연(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솔한마음  
이월메주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홀로앉아  
오월난초에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동지선달 긴긴밤에  
님없이는 못살겠다

[사하구 민요 26]

### 사발가

신갑연(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폭폭 나고요  
요내간장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에야라 디여라 무정한세월이 다떠간다

[사하구 민요 27]

### 진도아리랑

---

375) 달마다.

신갑연(여,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났네  
문경새재는 웬고쟁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사하구 민요 28]

### 화투 타령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정월솔솔 부는바람  
이월메주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리를안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친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출무너진다  
동지오동 오신손님  
석달비에 다떨어지구나

[사하구 민요 29]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수천당 세모순나무 오색당사 군위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30]

### 양산도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님은 나를안고 돌고

[사하구 민요 31]

### 노랫가락(2) [봄배추 노래]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우리집에 우리님은 날오기만 기다린다

[사하구 민요 32]

### 모심는 소리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환승혈래  
이달크고 세달크고 저훗달에 환승허리

[사하구 민요 33]

### 백발가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어제꺼진<sup>376)</sup> 소년인데 백발되기 천하쉽다

[사하구 민요 34]

### 진주난봉가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어마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 빨래가거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 검게씻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어마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한양낭군이 오셨단다  
시어마니 말씀듣고  
건네방 문열어보니  
한양낭군이 오셨구나

---

376) 어제까지는.

기상첩을 얹혀놓고  
아홉가지 술을 고  
열두가지 안주놓고  
권주가를 하는구나  
이내방에 들어가서 울며  
석자석지 목을매어서 죽고지야  
건네방에 한양낭군  
보순<sup>377</sup>발로 뛰어듬성  
첩우정<sup>378</sup>은 삼년이요  
본처정은 백년이라

[사하구 민요 35]

### 못 갈 장가 노래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큰집가서 공합보고 뒷집가서 책력보고  
사주팔자에 장가는 못가고

[사하구 민요 36]

### 청춘가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노래를 불러서 잡년이 되느냐  
제행실 나빠야 좋다! 잡년이 되지요

우수갱첩에 대동강 풀리고

---

377) 버전.

378) 첩의 정은.

정든님 한말씀에 좋다! 내가슴 풀린다

[사하구 민요 37]

### 다리 세기 노래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진도맹근 도맹근  
짹발로 이에승  
도리준치 장도갈

[사하구 민요 38]

### 강피 훑는 처자 노래

유계순(여, 1938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진개맹개 넓인들에 강피훑는 저처녀야  
너는어찌 간데죽죽 강피훑나

[사하구 민요 39]

### 모 찌는 소리

정인숙(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서마지기 요논빼미 반달만콤 남았구나  
우리님은 어데가고 반달짓는줄 왜모르나

[사하구 민요 40]

### 청춘가

정인숙(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노래를 불러서 잡년이 되느냐  
지행동이 글러야 잡년이 되는고나

[사하구 민요 41]

### 백발가

정인숙(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8일 채록  
[감천1동 감천할머니경로당]

이팔청춘 아이들아 백발을보고 반절마라  
어제아래 소년있는데 오늘날로는 백발이라  
얼씨구나 좋아 저절씨구  
조잡놈은 도망선다

[사하구 민요 42]

### 본조아리랑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하구 민요 43]

### 노랫가락[그네 노래]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 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나무 늘어진가지에 그네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님아님아 줄살살밀어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44]

### 모심는 소리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 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요  
우리엄마 산소앞에 짓먹으러 나는가요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사하구 민요 45]

### 사발가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 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뽕뽕 나건만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집도 아니나네

[사하구 민요 46]

### 화투 타령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썩인마음  
이월매주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부<sup>379)</sup>  
유월목단에 다떨어지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동지선달 서남풍에  
(하이고! 거기 빛이 하나도 모르겠다.)

[사하구 민요 47]

### 양산도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경로당]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아야라 뉘여라 아니못노리라  
너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로구나

[사하구 민요 48]

### 청춘가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

379) 나는 나비.

[감천2동 감천중앙경로당]

청춘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가슴에 수심도 많더라  
니가잘나서 일색이 되느냐  
내눈이어두워서 예헤 환장이되느냐

[사하구 민요 49]

### 너냥 나냥

양수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감천중앙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돌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댁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서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어서 맛이나 좋고요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사하구 민요 50]

### 회심곡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니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지전 뼈를빌고  
 어머니전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죄를몰라 부모은공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값아  
 어이없고 애닦고나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녕 절로난다  
 망녕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고달고 서런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어 흉안백발 늙어간다  
 인간의 이공도를 뉘가능하 막을쏘냐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지하면 삼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실날같은 이내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효험이 있을쏜가  
 반수불러 경을하니 경의덕을 입을쏘냐  
 무녀불러 굿을한들 굿덕인들 입을쏜가  
 재미쌀을 쏘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매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촛대한쌍 벌여놓고  
 향로향합 불갓추고 소지한장 더한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알음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냐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식사자 월식사자  
월식사자 손을빌어 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겁끼고 쇠사슬을 빗겨차고  
활등같이 굽은길을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성명삼자 불러내야  
어서가자 바빠가자

[사하구 민요 51]

### 상여소리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상여 앞에 하는 거는요. 상여하는 거는 또 이래요.)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요.)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게 늘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울거든요.) (조사자: 근데 아까  
가자가자 어서가자면 뒤에 또 뭐 형제들 잘 있으소. 이런 것도 하던데.) (그럼요.)  
(조사자: 한 잔 드시고, 뒤엿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가자가자 어서가자 북망산천 어서가자  
옛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드니  
오늘내게 당하여서 대문밖이 저승일세  
북망산천 돌아갈제 어이갈까 심산험로  
언제다시 만나리오 이세상은 하직일세

(조사자: 후렴은 어쩍니까? 어야 능차 어어야 이겁니까?) (아니요, 우리 충청도에  
는 그래요.)

어~허어어어하 예헤헤요~오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조사자: 아, 예. 한 대목씩 할 때마다 그지예?) (예, 원래 상여할 때. 저기 앞소리 하믄은 그리 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조사자: 할아버지,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명년 춘삼월에 꽃이 피면 다시 오고 이런. 형제들아 잘 있거라, 내 친구들 가족들도 잘 있어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영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만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그래 하잖아요.)

[사하구 민요 52]

### 노랫가락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갈테면 갈테면 혼자가지  
아까운 청춘을 왜데려가나

영감아흥감아 개똥먹게  
방아품 팔아서 개떡썰네

[사하구 민요 53]

### 노들강변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잇으리로다  
흐르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사하구 민요 54]

## 너냥 나냥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두리동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청중: 아침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울고요.)  
낮에낮에 우는새는 임그리워 운다 [웃음]

[사하구 민요 55]

## 권주가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오 먹고놀자는 경배주요

[사하구 민요 56]

## 백발가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너도이다음에 나이먹으면 백발이 온다

[사하구 민요 57]

### 밀양아리랑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날좁보소 날좁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좁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사하구 민요 58]

### 성주풀이

이광섭(남, 195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넘노나네 넘노나네 청룡인가 황룡인가  
굳실굳실 잘도노니 어찌아니 좋을손가  
세월이장차 여류하여 십오세가 되었구나  
청운처운 가리받아 장가날이나 받아보세  
장가가던 사흘만에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일가에게 우애없어 대동동원에 내여놓고  
귀향삼년 마련하니 어찌하면 좋을손가  
삼년먹을 양식신고 삼년입을 의복실어라  
가자가자 어서가자 황토성귀향살이 어서가자  
황토성에 당도하여 돌미륵을 집을삼고  
새집승을 벗을삼아 세월을장차 보낼적에  
하루가고 이틀가고 한달가고 두달가고  
한해가고 두해가고 삼년이장차 되었구나

천계에 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법시오  
인생은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중에 성주부친이 생기고  
성주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황제가 분명하고  
성주모친이 누구시면 옥진부인이 분명하다  
세월이여류하여 반년이지나도록 슬하에한점 혈육이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단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알읍시고 (아시고.) 자식을주라고 분부한다

[사하구 민요 59]

### 사랑가

최순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어여라 영차 신고자 어허둥둥 내사랑아

[사하구 민요 60]

### 첩 노래

최순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해는지고 저무신날에 옷갓을하고서 어딜가요  
첩의집에 가시거든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요  
첩의집은 꽃밭시오 나의집은 연못시오  
연못의금붕어는 사시사철 꽃과나비는 봄한철시오

[사하구 민요 61]

### 달 타령

최순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가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지어 양춘부모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보자

[사하구 민요 62]

### 사발가

최순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포볼포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난다  
에헤여 어야루난다 기어라 허송세월 가노라

[사하구 민요 63]

### 파랑새요

최순희(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감천2동 죽전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얼씨구 절씨구 좋다

[사하구 민요 64]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영기(여, 194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구맹군 도맹군  
짜발른 해양군  
오리삼춘 자리 육

[사하구 민요 65]

### 이같이 노래

강정자(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너는 헌이빨 가져가고  
나는 새이빨 도

[사하구 민요 66]

###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강정자(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연치야<sup>380)</sup> 연치야  
물방아를 짙자

[사하구 민요 67]

### 진도아리랑

강정자(여, 1934년 생) 가창

---

380) 연치는 방아깨비의 방언.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괴정1동할머니경로당]

아리아리롱 스리스리롱랑 아라리가 났네~에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십오야 밝은달 삼[가사를 바꾸어] 하늘에서 등글  
[가사를 더 기억하지 못해 중단]

[사하구 민요 68]

### 모심는 소리

김용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절에처는<sup>381)</sup> 밀어들고<sup>382)</sup> 먼데첩을 거머졌네  
우리오빠 거동보소 절에동서 밀치나놓고

[사하구 민요 69]

### 화투 타령

김용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솔개 앉아  
이월맺대 이상하다  
삼월사꾸라 살라던마음<sup>383)</sup>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아든 나비가  
유월목당에 꽃에앉아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

381) 옆에 처는.

382) 밀어 놓고.

383) 일반적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부르는데, 제보자는 '살라던마음'으로 불렀다.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에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동지선달 설한풍에  
눈비가 온다고 일어나나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70]

### 양산도

김용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에헤이히요~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서 지~나~  
나를두고 가는님이 가고싶어 가~나  
    아리아리 수아라 임은 놀것~네  
    바지갈래가 썩달라빠져도 나는 못놓것네

[사하구 민요 71]

### 노랫가락[나비 노래]

김용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범나비야 나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밭에라 자고가자  
꽃밭이 틀거들랑<sup>384)</sup> 내품에라도 자고가자

---

384) 틀어지면. 싫다는 뜻으로 외면하면의 뜻.

[사하구 민요 72]

### 청춘가

김용년(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어라~아  
아깝운 내청춘 좋~다 다늬어 가노라

청춘이 간다고~오 한탄을 말고요~오  
세상을 따라서~어 활동을 합시다 (그래.)

[사하구 민요 73]

### 모심는 소리

김용년(여, 1933년 생), 성봉이(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성봉이]

모시야적삼 안섞안에 연자겉은<sup>385</sup> 저젓봐라  
그젓하문 답삽쥐만<sup>386</sup> 영길영천 귀향갔다

[김용년]

많이보맨 병드난데 좁쌀만큼만 보고가소

[사하구 민요 74]

### 논매는 소리

김우래(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385) 연자(燕子)같은. 연자는 제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분통같은'이라 부르는데 기억을 잘못 하여 '연적같은'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386) 그 젓 한 번 덩석 쥐면.

이여여루 상사디여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같이 남었네

[사하구 민요 75]

###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장미(여, 자원봉사자)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빼꼭빼꼭 빼꼭새<sup>387</sup>야  
지집죽고 자식죽고 우찌살래  
빼꼭빼꼭 빼꼭새야

[사하구 민요 76]

### 아기 어르는 노래[등게요]

장미(여, 자원봉사자)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둥둥 등게야  
둥실둥실 등게야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금등인가 옥등인가  
천등인가 만등인가  
둥둥 등게야  
둥실둥실 등게야

[사하구 민요 7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

387) 가창자는 산비둘기 소리를 빼꾸기 소리로 잘못 알고 불렀다.

장명민(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근 또맹금  
짜바리 해서  
도루매춤치 짐치국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사하구 민요 78]

### 모심는 소리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노랑노랑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한달크고 두달크고 칠팔월에<sup>388)</sup> 열매연다

[사하구 민요 79]

### 모심는 소리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에 반날같이 매어간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초승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일세

[사하구 민요 80]

### 창부타령[남해 금산 뜯 구름아]

---

388) '칠팔월에'를 이렇게 불렀다.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남해금산 뜬구름아 비실었나 눈실었나  
비도눈도 아니실고 노래맹창<sup>389)</sup> 내실었다

[다시 부름]

남해금산 뜬구름아 비실었나 눈실었나  
비도눈도 내아니실고 노래맹창 날실었네  
우리맹창 니불러라 소구장단을<sup>390)</sup> 내쳐주마

[사하구 민요 81]

### 아이 어르는 노래[불매요]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니불매냐  
정상감상<sup>391)</sup> 대불매냐  
불매불매 불매야  
불어라 딱딱 불매야

[사하구 민요 82]

### 아이 재우는 노래[자장가]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

389) 노래 명창.

390) 소고 장단을.

391) 일반적으로 '경상도'라 하는데, 제보자는 분명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듯 '정상감상'이라 불렀다.

자장자장 자장가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사하구 민요 83]

### 파랑새요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sup>392)</sup>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사하구 민요 84]

### 사발가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구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난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허라 난다 디어라

[다시 부름]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누나  
요내가슴 타는데 짐도연기도 안나네  
에헤야 데헤야 어허야 어허야 디허야  
[옹조리듯이] 내간장을 스리살살 다눅힌다

---

392) 녹두나무에.

[사하구 민요 85]

### 다리 세기 노래(1)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이박저박 끈지박<sup>393</sup>  
정기문에<sup>394</sup> 나들박  
하늘밑에 두른박<sup>395</sup>  
재인장모<sup>396</sup> 이마빡  
박서방네 집앞에  
장댁이<sup>397</sup> 꼬꼬닭  
청주댁 개가 공공  
살밖에 할매가 삐쪽삐쪽

[사하구 민요 86]

### 다리 세기 노래(2)

하위맹(여, 192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괴정1동 협진태양경로당]

한다리 두다리  
골목 삐쪽  
뺨치 놓고  
노선에 올랐다 내렸다  
거 두

---

393) 끈지박.

394) 정기문에. 정지는 부역의 방언.

395) 뒤웅박.

396) 장인 장모.

397) 장닭이.

[사하구 민요 87]

### 모 찌는 소리

구영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쫄리자 쫄리자 이뭇자리로 쫄리자  
밀치라 닥치라 이뭇자리로 쫄리자

[사하구 민요 88]

### 물레 노래

구영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내물레야 줄사거라  
친구물레 병나거라

[사하구 민요 89]

### 모 찌는 소리

박부자(여, 194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밀어라 이뭇자리 밀어라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뭇자리 들어내자

[사하구 민요 90]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박부자(여, 194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걸이  
짜발이 해양건  
노르매 잠치  
(조사자: 장두칼.) 작두칼

[사하구 민요 91]

### 밀양아리랑

안금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날좁보소 날좁보소 날좁보소~오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좁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시어머니 죽고나니 방널러<sup>398</sup> 좋고~오  
보리방아를 찧자하니 생각이나네~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넘겨주소

[사하구 민요 92]

### 너냥 나냥

안금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너녕노눔 두리둥실 놀고요

---

398) 방이 넓어서.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오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너녕노농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93]

### 창부타령(1)

안금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아니~이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으신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사랑

당명화에 양귀비요<sup>399)</sup> 이도령에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일을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사하구 민요 94]

### 창부타령(2)

안금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님 다시 돌아온다  
공수래는 공수거니<sup>400)</sup>

399) 일반적으로 “당태종에 양귀비요”라고 한다.

400) 공수래(空手來)는 공수거(空手去)니.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돌아간다는 뜻임.

[사하구 민요 95]

### 사발가

안금자(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기는풀석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에 연기도수심도 만나구나  
에헤야 어여라 난다 지화자아 (또 뭐라 하노? 모르겠다.)

[사하구 민요 96]

### 모심는 소리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두석달이 잠깐가면 칠팔월에 열매여지<sup>401)</sup>

서월이라<sup>402)</sup> 남정자에 저슴참이<sup>403)</sup> 늦어오네  
삼대독자 외동아들 젓준다고 더디오나

서울이라 남정자에 저슴참이 늦어오네  
시금시금 미나리김치 맛본다고 더디오나

짚레야꽃은 장개를가고~오 석누야꽃은 요각가네<sup>404)</sup>  
많인간아 웃지를마소 씨종재바래<sup>405)</sup> 장개가네

---

401) 열매 열지.

402) 서울이라.

403) 점심참이.

404) 석류야 꽃은 유곽 가네.

405) 씨종자를 바라서.

능청능청 비루끝에<sup>406)</sup> 무정하다 울오라바  
나도죽어 후승가서 낭군님버텨<sup>407)</sup> 섬기볼래

해다졌네 해다졌네~에 산골마다 해다졌네  
우리야부모님 어디를가고~오 연기낼줄 모르시노

초롱아초롱아 청사초롱 임의님방에 불밝히라  
나도눕고 임도눕고 그초롱을 누가끄리<sup>408)</sup>

모시적삼 안섰안에~이 연자같은 저젓봐라  
많이보면 병날끼고~오<sup>409)</sup> 좁쌀만치만 보고가소

[사하구 민요 97]

### 쌍가락지 노래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을 닦아낼까  
먼데보니 처널랑가  
먼데보니 달일랑가  
절에보니 처녀로다  
그처녀라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랑강  
흥달복상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으소서  
쫓꼬마난 제피방에  
둘이잘데 어데있소

---

406) 벼랑 끝에.

407) 낭군님부터.

408) 누가 끌리.

409) 병이 날 것이고.

[사하구 민요 98]

## 댕기 타령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올아버님 뜨신댕기  
우리엄마가 접은댕기  
우리오빠 눈치댕기  
우리올키 입살댕기  
우리동생 개살댕기  
공초댕기를 드리고서  
진주야 남강 (뉘라 카는가 모르겠다.)  
요내댕기를 잃었구나  
댕기주소 댕기주소  
요내댕기를 주고가소  
못주겠네 못주겠네  
당신의댕기 못주겠네  
당신부모 우리부모  
사돈될 때 그때까지  
당신의 댕기를 못주겠소

[사하구 민요 99]

## 창부타령(1)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봉상을 입었던가  
속옷단장 곱기만하고 짱다리발으로<sup>410)</sup> 넘나드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410) 종다리 발으로.

아니~이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당명화에 양귀비요 이도령에는 춘향이라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 하루만 못봐도 내뭇살게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100]

### 청춘가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청청 하늘에이요 잔별도나 많구요  
요내야 가슴에 에~헤 잔수심이 많구나

나는 너보니~이요 꼭죽겠는데~에  
너는 나를보고~오 흑싸리 쪽지를 알았나

[사하구 민요 101]

### 창부타령(2)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나물을먹고 물마시고 대장부에 팔을베고서 누었으니  
대장부 살림살이는 이만하며는 만족할래  
얼씨구 좋다

[사하구 민요 102]

### 양산도

최미영(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2동 까치경로당]

에헤두여~어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오  
울의집에 울언님은 나를안고 돈~다~아  
에화라 둥게 디어라 아니 못노리

에헤두여~어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 하~아고  
큰아기 짓가슴은 몽실몽실 하~네

[사하구 민요 103]

### 모심는 소리(1)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여리<sup>411)</sup>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사하구 민요 104]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말고

---

411) 열매 열래.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사하구 민요 105]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 (그때 새이다.) 우리새이 시집가면  
가마끝에 비젓는다  
(뭐이) 비 젓으몬  
고운 분홍치마 얼룩진다.

[사하구 민요 106]

### 창부타령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달다가 서며든 밤은  
마음을 달래면 파고든 사랑  
사랑의 달빛이나 달빛이 사랑이나  
텅비인 니가슴속에 사랑사랑이 가득찼네  
사랑 한 사랑이랑게  
사랑이란 것이 그무엇이나  
알다가도 모를사랑  
얼씨구 좋고 지화자 좋네  
사랑사랑 참사랑아

[사하구 민요 107]

### 양산도

강숙자(여, 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에헤이여~  
양산도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서방님은 나를안고 도~온~다  
아서라 말어라 너거리 마라  
아까운 이내청춘 다늘어가네

[사하구 민요 108]

### 청춘가

강숙자(여, 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세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이내청춘 좋~다 다늘어 가노라

청춘- 하늘에~에 잔별도 많고요~오  
이내야 가슴에 얼~썩 희망도 많다오

[사하구 민요 109]

### 노랫가락[나비 노래]

강숙자(여, 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거든 꽃밭에서나 자고가자

그꽃이 푸대접하면 앞에서라도 자고가자

[사하구 민요 110]

### 권주가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이술한잔 권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권주라요

[사하구 민요 111]

### 모심는 소리(2)

강숙자(여,1946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영덩천 저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님을한번 섬기려나

[사하구 민요 112]

### 모심는 소리(1)

서경연(여,1932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말로 읊조리며]

낭창낭창 벼루끝에<sup>412)</sup> 시누올키<sup>413)</sup> 꽃꺼다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신질난간<sup>414)</sup> 떨어졌네

---

412) 벼랑 끝에.

413) 시누이 올케.

414) '신질'이 지명인지, '신질난간'이 '천 길 난간' 또는 '천 길 낭떠러지'의 뜻으로 말한 것

난데없는 울오래비<sup>415)</sup> 셋날러와서<sup>416)</sup>  
동상홀목을<sup>417)</sup> 밀어놓고 자기마누래 홀목부터 머이<sup>418)</sup> 잡는다고.

[사하구 민요 113]

### 모심는 소리(2)

서경연(여,1932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말로 읊조리며]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한량 어데갔노  
산넘에라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갔다  
(이러 카는데, 그래 첩으는.)  
첩의집은 꽃밭이요 본댁집은 연못이요  
(연못은 사시 주목 고기거나 물이 있다 아입니까. 그 첩집은 안 그렇거든예. 그  
래, 그래 부른다 아입니까 노래로.)

[사하구 민요 114]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서경연(여,1932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꿍디는 뺏겨서 애비주고  
보늬는 뺏겨서 애미주고  
살은 니강내강 갈라목자  
달공달공 (이래 하거든예.)

---

인지 불명확하다.

415) 우리 오라비.

416) 세계 날라와서. 여기서 세계는 재빨리의 뜻인 듯함.

417) 동생 손목을.

418) 먼저.

[사하구 민요 115]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서경연(여, 1932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웃니빠진 개오지  
새미걸에<sup>419)</sup> 가지마라  
빈대한테 뺨맞는다

[사하구 민요 116]

### 모심는 소리(3)

서경연(여, 1932년 생)  
2016년 2월 15일 채록  
[괴정2동 싸릿골경로당]

[조사자가 점심 참이 늦어온다고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제보자가  
말로 읊조리며]  
밭이 죽반에 긴나라꼬<sup>420)</sup> 더디더나 (이러 쿠고.)  
미나리 헛국에 맛본다고 더디더라 (쿠고.)  
뒷축없는 신발신고 끄나라고<sup>421)</sup> 더디더나 (쿠고.)  
손가락이 열두단에 세나라고 더디더나 (감시러 그래 부르는 소리라.)

[사하구 민요 11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노영자(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

419) 샘 근처에. 새미는 샘의 방언으로 우물을 말한다.

420) 건너느라고.

421) 끌면서 오느라고.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구 도맹구  
도리집치 장뚝간

[사하구 민요 118]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전경자(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걸이  
천사만사 국거리

[사하구 민요 119]

### 다리 세기 노래

최두리(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앵기 땡기  
다래끼 썰끼  
넘어 간다  
딸끼 동

[사하구 민요 120]

### 이갈이 노래

최두리(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솔밭경로당]

까치야 까치  
우리 아무거시

헌니 가가고  
새이 갖다주라

[사하구 민요 121]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최두리(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괴정3동 출발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가면  
가매문에 비들치서  
고운추마 얼룩진다<sup>422)</sup>

[사하구 민요 122]

### 흥부와 놀부<sup>423)</sup>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옛날옛날 한옛날에 흥부놀부가 살았대  
마음씨고운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하나 얻어서 울밑에 심었더니  
우렁주렁 열렸네 옥바가지 열렸네  
한개타면 금나오고 둘을타면 은나오네

(그리고 또 2절은.)

옛날옛날 한옛날에 흥부놀부가 살았대  
심술궂은 흥부는 제비다리 (곤치주가 아이라 그거는 뿔러주고.) 뿔러주고

422) 고운 치마 얼룩진다.

423) 이 노래는 나운영 작곡, 강소천 작사의 대중가요로,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전승민요는 아니지만, 전래동화를 민요 곡조로 작곡한 노래를 민요로 인식하여 불렀기 때문에 채록한 것이다.

박씨하나 얻어서 올밑에 심었더니  
우릉주릉 열렸네 흠바가치 열렸네

[사하구 민요 123]

### 객귀 물리는 소리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주문을 외우듯이]

해시사 해시사 동네방네 산심님을 물린 것도 아이고 앞 뒤 당산님을 물리는 것도  
아이고 잡구 잡신을 물리오니 이 칼 이 밥에 아니 나갔다가는 대천지 한 바다에  
무쇠감태로<sup>424</sup> 씌아서<sup>425</sup> 국내 장개도 못 가로<sup>426</sup> 할 테니 썩 물러가라. 앞도 뒤  
도 돌아보지고<sup>427</sup> 썩 물러가라. 해시사. (이라고 이래 떤지고.)

[사하구 민요 124]

### 모심는 소리(1)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하 반달겉이 되었구나  
(인제 내가 부르고 나몬, 못줄 냉기고 탄 사람이 불러. 또 인자 탄 사람이 또 불  
러.)

제가무슨 반달인가~아 초생달이 반달이지  
(또, 그기 끝이라.)

아래웃눈에 모꾼들아~하 춘삼월이 어느땀고  
(이라고 또 탄 사람이 불러.)

---

424) 무쇠감태로.

425) 씌워서.

426) 못 가도록.

427) 돌아보지 말고.

울언님이 질떠날 때~헤 춘삼월에 오신대요 (오신다 캬소 이런께네.)

풀꾹새야 우지마라~하 소년과보<sup>428)</sup> 심애난다<sup>429)</sup>  
심애날거시 거뭇신가 살로가면 그만이지

오늘해가 다졌는가~하 골골마다 연기나네  
(이랴모 또 받아서 해.)  
우리님은 어데가고~호 연기낼줄 모르는가 (죽었어. 그 사람 마누래가.)

다풀다풀 다박머리~이 해다진데 어데가노~오  
올어머니 산소등에~에 젓먹으로 나는가요~오

[사하구 민요 125]

### 제일 좋은 꽃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나비아 나비아 범나비아  
너는 돌면 보닌께  
머싯꽃이 젤 좋더노<sup>430)</sup>  
은다리 독다리 우수야꽃에  
질나 가다가 대치래꽃에  
동오야 외꽃에 까지야 박꽃에  
유자야 성노꽃에<sup>431)</sup> 나가지 상꽃에  
첩의야 꽃이 제일 좋다

[사하구 민요 126]

### 모심는 소리(2)

---

428) 소년 과부.  
429) 외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430) 무슨 꽃이 제일 좋더냐.  
431) 석류꽃에.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이물꼬 (물꼬가 있거든. 하마.) 저물꼬 헐어놓고~오 주인양반 어데갔노~  
문에전복을<sup>432)</sup> 애와들고~오 첩의야집에 놀러갔네~

[사하구 민요 127]

### 댕기 타령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옹듯이]

서울이라 뒷골목에  
처녀한쌍 놀러가네  
그댕기 끝만보고  
총각한쌍이 따라갔다  
주운댕기 나를주소  
오동나무 장롱짜서  
내옷영고 네옷영고  
진베개 마주베고  
잠잘제 너를주마

[끝 부분을 다시 옹조림]

오동나무 장롱짜서  
내옷영고 네옷영고  
그때 너를주마

[사하구 민요 128]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

432) 문어 전복을.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서울가서  
밤한대를 주워다가  
햇독안에 열었더니  
들랑날랑<sup>433)</sup> 새앙지가 다까묵고  
한토리가<sup>434)</sup> 남았는데  
껍질라큰<sup>435)</sup> 애비주고  
보니라큰<sup>436)</sup> 애미주고  
알래기는<sup>437)</sup> 너하고 나하고  
알공달공 갈라묵자

[사하구 민요 129]

### 진주난봉가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오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매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거라  
검은빨래는 검게씨고  
흰빨래는 희기씻고  
철석철석 빨래로하니

---

433) 들락날락.  
434) 한 톨이.  
435) 껍질은.  
436) 보늬는.  
437) 알맹이는.

난데없는 발자욱소리  
철컹철씩 들려오네  
구름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못본체로 지내가네  
검둥빨래는 껌계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오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매늘아가  
진주낭군을 불러거든  
아랫방에<sup>438</sup> 거가거라 (아랫방에 너 가봐라.)  
(조사자: 내려 가봐라. 그래 아랫방에 내려갔더니만.) (그래 누구더라. 기생첩을  
옆에놓고 권주가를 했어. 권주가를 그래 하네.)  
문본듯이 돌아와서  
(조사자: 명주수건.)  
명주수건을 목을잘라  
(죽어봤어. 어. 죽어뻘께네, 또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쿠노 할 것 같으면.  
저게.)  
너의사랑은 백년사랑이고  
첩으며정은<sup>439</sup> 석달정이고  
너의정은 백년정인데  
니그랄줄 내몰랐다

[사하구 민요 130]

## 의암이 노래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진주기생 이애미는<sup>440</sup> 우리조선 살릴라꼬

---

438) 아랫방에.  
439) 첩의 정은.

팔대장군 목을안고 진주남강에 떨어졌네

[사하구 민요 131]

### 시집살이 노래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sup>441</sup>)  
시집살이<sup>442</sup>) 어떻드뇨  
시집살이 좋지마는  
도래도래 두루판에<sup>443</sup>)  
수제 놓기도<sup>444</sup>) 어렵더라  
쫓고만은 시아재비  
하소쿨까 해라칼까<sup>445</sup>)  
말하기도 어렵더라  
꼬치거튼<sup>446</sup>) 뽕은치마  
(눈물담는 게 일이라 카더나 뭐라 쿠더노?)

[사하구 민요 132]

### 각설이타령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얼씨고씨고 씨고씨고 들어간다  
절씨고나 들어간다

---

440) 의암이는. 의암(義岩)은 논개를 말함.  
441) 형아 형아 사촌형아.  
442) 시집살이.  
443) 도래판. 둥글게 생긴 판.  
444) 수저 놓기도.  
445) 하소 할까 해라 할까.  
446) 고추 같은.

이각설이가 이래도  
하루장만 꼴리몬<sup>447)</sup>  
제집자석이 다끓는다<sup>448)</sup>  
어허 품마도 각설아  
얼씨고 각설아  
에~헤  
새끼살이나 먹었는가  
서럼서럼 잘나오네  
콩기름뚥으나 먹었는가  
녕쿨녕쿨 잘나온다  
어허 품마나 각설아  
지름뚥으나 먹었는가  
미끌미끌 잘나온다  
어허 품마나 각설아  
이각설이가 이래도  
정사감사<sup>449)</sup> 자제로서  
각설이타령으로 나간다

[사하구 민요 133]

## 너냥 나냥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종달새 울거든 봄이온줄 알고요  
하모니카 불거들랑 임이온줄 알려라  
네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

447) 하루 장만 빼면.

448) 자기 집 자식이 다 끓는다.

449) 경상감사.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저게가는 저아가씨 자빠지마 자빠져라  
일바시 주는듯이<sup>450)</sup> 보듬아나 보거로  
네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거기 첫째.)

오동나무 열매는 오질조질 열고요  
큰애기 젓탕이는 몽실몽실 하구나

[사하구 민요 134]

### 처녀총각 노래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처녀가 꽃밭을 매는데  
반달겉은 총각이 고~라 내훔목<sup>451)</sup> 잡노라  
얼씨고 절씨고

야야 총각아 내훔목 놓아라  
범같은 우리오빠 고~라 망보고 있노라  
얼씨고 절씨고

야야 처녀야 그말을 말어라  
범같은 너거오빠 고~라 내처남 되노라  
얼씨고 절씨고

[사하구 민요 135]

### 물레 노래

---

450) 일으켜 주는 뜻이.

451) 내 손목.

우재순(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8일 채록  
[괴정4동 괴정4동경로당]

물레야 뽕뽕뽕 내어서 돌아라  
뒷집에 김도령 밤이슬 맞는다

[사하구 민요 136]

### 창부타령

이순선(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노세 젊어서놀아 더늬어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며는 기우나니  
인생은 일자장춘몽에<sup>452)</sup> 아니노지를 못하리로다

[사하구 민요 137]

### 청춘가

이순선(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세월아 내월아~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요내청춘 다늬어 갔구요

[사하구 민요 138]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이순선(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

452) 일장춘몽에.

[조사자 가창(녹음 안됨)]

추천당 세모진낭계<sup>453)</sup> 오색당사실로 그네를매여

[이순선 가창]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39]

### 노랫가락(2)

이순선(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괴정4동 송곡경로당]

옥에갈인 춘향이는 이도롱오도록 기다리고

포름포름 봄배차는<sup>454)</sup>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우리집에 올언님은<sup>455)</sup> 나를오기만 기다린다

[사하구 민요 140]

### 사발가

박경순(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안나고 다타노라

[사하구 민요 141]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정말수(여, 1935년 생) 가창

453) 세모진 나무에.

454) 파르파릇 봄배추는.

455) 우리 님은.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사하구 민요 142]

### 첩 노래

정말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저녁애다 첩을두고 낮에가고 밤에가고  
엔간한기 보기싫어 첩의년을 직일라꼬  
칼한자리 품에품고 첩의집을 들어가이  
첩의년이 썩나섬서 큰어마시 오시는데  
무엇잡고 가실라요 우리목던 아주설대  
난방초나 잡고가라

(카면서 난방초라는 그런 담배가 있어. 우리 목던 아주설대 난방초나 잡고가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조사자: 아주설대가 뭔가요?) (아주설대라 카는 거는 그  
이런 설대. 응, 그거. 우리 목던 아주설대, 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기 아인데, 우리  
먹던 아주설대. 인자 그 큰 어마시 왔다고 인자 특별히 내 놓는 기라. 아주설대  
난방초나 잡고가라고, 그래 그래 대접을 하는 기라.)

[사하구 민요 143]

### 백발가

정말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절마라  
나도옛그제 소년이더니 오늘백발이 웬말이나

[사하구 민요 144]

### 파랑새요

정말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른 청포장시 올고간다

[사하구 민요 145]

### 사발가

정말수(여, 1935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구평본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나플쑥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더라

[사하구 민요 146]

### 밀양아리랑

강춘자(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설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처마 입에물고 입만빵긱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사하구 민요 147]

### 양산도

박덕희(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런님은 나를안고 돈다

[사하구 민요 148]

### 백발가

박덕희(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괘시마라  
우리도어제겘이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조순이

[사하구 민요 149]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박덕희(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 높고낮은데 군대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미네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50]

### 노랫가락(2)

박덕희(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나비야 청산가자 범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들랑 꽃밭수덕에 자고가세  
꽃이사 좋지만은 가지높아서 문자겠소

[사하구 민요 151]

### 노들강변

박덕희(여, 1929년 생), 정윤선(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정윤선]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나 매어나볼까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허리는<sup>456)</sup>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박덕희]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발간자죽  
만고풍산 비바람에 땃땃이나 찾아왔소  
에헤이요 밤사정도 못믿으리로다  
허리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사하구 민요 152]

### 파랑새요

박영도(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

456) 흐르는.

[구평동 성포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사하구 민요 153]

### 사발가

박영도(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는퐁퐁 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사하구 민요 154]

### 도라지 타령

박영도(여, 193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산천초목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금지방실이 되노라

[사하구 민요 155]

### 진주난봉가

송윤수(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가면  
(아, 낭군을 불러하면은 진주 남강에 빨래가라.)

하늘같은 갓을씩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듯이 지나간다

(청중: 그래가 인자 사랑방에서 술을 묵으이 머느리로 가 보라 하니 그리 기생을  
놔 놓고 술 묵는다고 쳐다보도 안해서, 지는 맹지 가지고 목을 메가 죽었더라 안  
하나. 그래 인자 신랑이 떡 기생을 다 보내 놓고, 기생은 그 노래가 있다.)

(조사자: 첩의 정은 삼년이고 본댁 정은 백년인데.) (청중: 첩은 삼년이고 본처는  
백년이라 카더라.)

[사하구 민요 156]

### 신고산타령

이하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단뽕짐만 싸노라  
에양에양 에여라 에야에양 디여라 모두가 내사랑이로다

[사하구 민요 157]

### 태평가

이하자(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리 닐리리아  
왜생겼노 왜생겼노 요다지곱게도 왜생겼나  
닐릴리 닐리리아  
왜왔던고 왜왔던고 울고야갈길을 왜왔던고  
이왕지사 올바에는 발치잠이나 자고가소  
저게도 대장분데 발치잠치 웬일이냐

[사하구 민요 158]

### 화투 타령

정윤선(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정월솔가지 솔씨를받아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졌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여  
팔월공산에 달솟았네  
동지선달 긴긴밤에  
임없어도 못살겠네

[사하구 민요 159]

### 너냥 나냥

정윤선(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너냥 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와 운다

너냥 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호박은 늙으면 맛이맛이나 있건만  
사람은 늙으면 쓸곳이<sup>457)</sup> 없네

새끼야 백발아 쓸곳이 있는데  
사람의 백발은 쓸곳이 없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정윤선]  
갈길이 멀어서 하이야를 탔더니  
운전수 할놈이 히야까시를 한다네

[이하자]  
전깃불 밝아서 님가기 좋고요  
신작로 넓어서 도망가기 좋다

[한금심]  
우리야 연애는 솔방울 연앤데  
바람이 불면은 똑 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60]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정윤선(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금 도맹금  
짹발이 헤양근  
도래줍치 사래육  
육도육도 전라육  
(그건가? 모르겠다.)

---

457) 쓸 곳이.

[사하구 민요 161]

## 진도아리랑

한금심(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로구나  
십오야 밝은달 구름속에 놓고  
명지명창 하중선이 장구품에 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로구나  
니가 잘나서 일색이되나  
내눈이 어둡어 환장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정윤선]

문경새재에 박달나무 홍두깨방망치로 다나간다

(그 좀 틀리네 또.) (청중: 뭇이 또 큰 애기 손질이 달는다고.) (정윤선: 홍두깨  
방망치로 나가갖고 뭇이 우째가꼬 큰 애기 손질을 놓는다 카는데 그게 모르겠어.  
다 잊어가 모르겠어.)

[사하구 민요 162]

## 아기 어르는 노래

한금심(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방ैया 방ैया

강태방우 이방강태방우

이방애가 누방애

강태공네 조작방애

방애야 방애야

(아들 놀리며 그랬다고. 아들 놀리고, 아들 데리고.) (청중: 우는 놈 재운다고 그래.)

[사하구 민요 163]

### 개 타령

한금심(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7일 채록

[구평동 성포경로당]

개야개야 짓지마라 밤중밤중 야밤중에

정든님이 오시거든 짓지말아

(한다대. 그래 그 말이 맞아.)

[사하구 민요 164]

### 사발가

이일화(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짐도연기도 안난다

[사하구 민요 165]

### 백발가

이일화(여, 192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요내말씀 들어보소  
나도엿그저께 청춘인데 오늘날은 백발됐네

[사하구 민요 166]

### 노랫가락[그네 노래]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계 가지가지에 그네를매어  
네가타면은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네가밀고  
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67]

### 사발가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가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사하구 민요 168]

### 화투 타령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메주에 맏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졌네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춤잘추네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밝고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사하구 민요 169]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태 맵근 도맵근  
도래 줌치 장도칼

[사하구 민요 170]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알강달강 서울양반  
밤한톨을 주워다가  
껍질은 아버지주고  
뽕지<sup>458)</sup>는 엄마주고  
알키는 내묵고

---

458) 밤 속껍질을 말함.

[사하구 민요 171]

### 노랫가락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백구야훤훤 날지를마라 너를쫓아 내안간다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배고 누워서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넉넉하니

[사하구 민요 172]

### 본조아리랑

조두리(여, 1937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하구 민요 173]

### 모심는 소리(1)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이논에다 모을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사하구 민요 174]

### 모심는 소리(2)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모야모야 이모등에 언제커서 열매열꼬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이면 열매연다

[사하구 민요 175]

### 모심는 소리(3)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이물길저물길 헐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디갔소  
문어야대전복 손에 들고 첩우 방에 놀러갔네

[사하구 민요 176]

### 모심는 소리(4)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남창남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방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부터 구할라네

[사하구 민요 177]

### 방아타령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오덜커덕 방아야

오덜커덕 방아야  
이방아는 누방아요  
오덜커덕 방아야  
강태공이 조작방아  
오덜커덕 방아야  
조상대대로 짚어오던방아  
오덜커덕 방아야  
우리도 한번짚어보세  
오덜커덕 방아야  
우리도 한번짚어보세  
오덜커덕 방아야  
쿵덕쿵덕 디딜방아  
오덜커덕 방아야  
덜커덕덜커덕 가래방아  
오덜커덕 방아야  
보리한삼 나락한삼  
오덜커덕 방아야  
밤새도록 짚고나니  
오덜커덕 방아야  
동지선달 긴긴밤을  
오덜커덕 방아야  
방아짚다가 지새웠네  
오덜커덕 방아야  
시누아씨머리댕기 공중에놀고  
오덜커덕 방아야  
올케년치맛자락은 나비춤춘다  
오덜커덕 방아야  
여자의몸맵씨 고와야좋고  
오덜커덕 방아야  
보리방아 방앗고는 〇이라야좋다  
오덜커덕 방아야  
박고 벌어진데  
오덜커덕 방아야  
오곡잡곡 먹고마는

오덜커덕 방아야  
가로세 새기는  
오덜커덕 방아야  
억울하게도 매만맛네  
오덜커덕 방아야  
영감아꽃감아 개떡잡좌  
오덜커덕 방아야  
부잣집에 밥상들어소  
오덜커덕 방아야  
영감님줄라고 밥상들어소  
오덜커덕 방아야  
열두번실근 곡식을  
오덜커덕 방아야  
나라생각 아니하고  
오덜커덕 방아야  
부모님공양을 안할손가  
오덜커덕 방아야  
오덜커덕 방아야  
오덜커덕 방아야  
다 찌소

[사하구 민요 178]

### 시집살이 노래

조연순(여, 1930년 생) 가창  
2015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

성아성아 올케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도 에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주바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사하구 민요 179]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포롱포롱

(그거는 그때 하는 게 아니거던.)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리네  
(조사자: 이거 모심기 아니지예?) (아이다.춘향전.)

[사하구 민요 180]

### 모심는 소리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꼬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꼬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아오나  
니가무신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연밥줄밥 내따주께 내와같이 놀아보자  
(이기 아인데, 뭐 있다.)

[사하구 민요 181]

### 사발가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온다

[사하구 민요 182]

### 권주가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잡으나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동주요

[사하구 민요 183]

### 구멍 타령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저건너 딱따구리는 생구녕도 잘뜯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뿔번구녕도 못뿔네

[사하구 민요 184]

### 청춘가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당신이 날만치 사랑을 한다면  
가시밭길 천리라도 밟고 가노라  
[청중이 뒤이어서]  
바람이불어서 옆걸음을 쳤느냐  
조그마한 큰애기눈을보고 좋다 옆걸음을 쳤노라

[사하구 민요 185]

### 화투 타령

김금만(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 마음  
이월매달이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꽃이  
사월흑싸리 흩어놓고  
오월난초 나비가날아  
유월목단에 똑떨어지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어난꽃이  
시월단풍에 똑떨어지네  
오동추야 달이밝아  
빛에따라서 도망가네  
(청중: 동짓달에 눈이와서 섬달비에 녹아나네.)

[사하구 민요 186]

### 진도아리랑

배연희(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서산연락에 해떨어지고 어리둥둥궁전에 달이나솟아온다  
아리알다공 씨알에조대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오동에시월도 잘도넘어간다  
가는님허리를 오도나단숙안고 직이라살리라 사상결단일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오동시월로 잘도넘어간다  
서울서내려온 꼬부랑나발 수많은군사가 발을맞차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조그만헌가마가 나를실다놓고 내고향시랑조수를 왜못잇는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산낙구백발은 썰데가있어도 사람의백발은 아이고 쓸데가 없더라

산신령 까마귀는 까옥까옥 우는데  
(모르겠다. 까옥까옥 우는데.)  
우리님 병세는 아이고 짚어만 가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영감아 꽃감아 개떡밥 잡쉬  
영감아 콧구녕에는 찬바람만 들락날락  
(조사자: 아~ 죽었던 거네요.)

[사하구 민요 187]

## 너냥 나냥

배연희(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쌍사둥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와 운다  
니냥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쌍사둥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188]

### 노랫가락

배연희(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어지럽은 사바세계 구제할곳이 가히없어  
모든시련을 다던지고 산간벽장을 찾아가니  
성주오빠를 쓸쓸한데 두런조차도 슬피울어  
비인쪽쪽 풀을베어 너도울고 나도울어  
심해상전 깊은밤을 같이나올어서 새워볼까  
열씨구절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189]

### 청춘가

배연희(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당신이 날만큼 샘기나 준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좋다 신벗고 가겠네요

[사하구 민요 190]

### 모심는 소리

이말순(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판에 다올랐네  
장모년은 어데가고 딸년을 맏깁는고  
(그저 그리 카더라. 그 소리만 하지, 내 모른다.)

냥창냥창 베리끝에 무정하는 울오랍아  
짚에있는 동생두고 먼데있는 처를잡아  
(카더라. 옛날에 한 기다.)

[사하구 민요 191]

### 모심는 소리

이순악(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타박타박 타박네야 해다지니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려 내가간다

깊은산정 고드름은 봄비찾아 녹아나고  
내품에 묵은말은 울의님이 풀어주네

[사하구 민요 192]

### 노랫가락(1) [그네 노래]

이순악(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 오색당사실 줄을매어  
님이타면은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님이민다  
님아님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93]

### 백발가

이순악(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율공단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반대마라  
우리도엿그지 청춘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더라

[사하구 민요 194]

### 노랫가락(2)

이순악(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창밖에 국화를심어 국화밑에다 술을묻어  
술익자 국화꽃피자 님이오시자 달떠오자  
님아님아

(청중: 가지를마라 저달이 떴다가 다시도록 놀다가세. 모르겠어. 지냈다.)

[사하구 민요 195]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순악(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5일 채록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대만대 또한대

착발리 헤양대

노루미줍치 당따꿈

놀부발에 덕서리

(조사자: 끝입니까?) (또 있는데 모르겠다.)

동지선달 대서리

(그러거던. 끝에는.)

[사하구 민요 196]

### 밀양아리랑

임영자(여, 1938년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방긋

[사하구 민요 197]

### 백발가

임영자(여, 1938년생) 가창  
2016년 2월 16일 채록  
[다대2동 두송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이 백발보고 반절마라  
나도옛그제 젊었었는데 오늘날에 백발이로다

[사하구 민요 198]

###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복순(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계 가지를골라 그네를매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199]

### 오빠 원망 노래

이복순(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줄밀다 연못으로 빠졌는데 올키는 건져내고  
이내몸은 안건지네 삼태같은 요내머리  
버들새로 다감기고 박속걸은 이내몸은  
붕어밥으로 다뜯겼네 나도죽어서 임될래라

[사하구 민요 200]

### 총각 희롱 노래

이복순(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장내라 산모랭이  
요리배틀 조리배틀  
돌아가는 남도령아  
박속같은 이불속에  
잠한숨만 자고가고  
자고나감사<sup>459)</sup> 좋지마는  
붕지붕지 피는꽃을  
붕오리를 꺾어노면  
봄나비 한쌍에 못들으니

[사하구 민요 201]

### 노랫가락[나비 노래]

정복수(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파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 내품안에만 잠들고가소

---

459) 자고나 가면.

[사하구 민요 202]

### 청춘가

정복수(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나비없는 청산에~에 꽃피면 무엇하나~아  
임없는 장판방에~에 좋~다 잠들면 무엇하나

[사하구 민요 203]

### 창부타령(1)

정복수(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아니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백설같은 흰나비아<sup>460)</sup> 부모님봉상을<sup>461)</sup> 입었더니  
소복단장을 곱게도하고 장다리발으로 날아든다 (좋다.)

[사하구 민요 204]

### 창부타령(2) [봄배추 노래]

정복수(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참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sup>462)</sup> 이대룡오기만<sup>463)</sup> 기다린다

---

460) 백설같은 흰나비아.  
461) 부모님 봉상을.  
462) 춘향이는.  
463) 이도령 오기만.

[사하구 민요 205]

### 노랫가락[그네 노래]

조영학(남,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아버지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오색당사실 군대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타며는 임이밀어

[사하구 민요 206]

### 권주가

조영학(남,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아버지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칠년대한 가물음에 이술받은 술이로다  
이술한잔 잡수며는 백수장수 하오리다

[사하구 민요 207]

### 청춘가(1)

최정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어~허  
이몸이 늙어서~어 어~허 백발이 되노라

세월아 네월아~아 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추~운 다늙어러 가는구나

[사하구 민요 208]

### 권주가

최정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요 먹고놀자는 동백주라

[사하구 민요 209]

### 청춘가(2)

최정자(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당리동 당리본동할머니경로당]

나비없는 동산에~에 꽃피서 무엇하나  
임없는 빈방안에~에 잠자서 무엇하나

당신이 날만크~음 사랑을 준다며~은  
가시밭이 천리라도 좋~다 밭벗고 가노라~아

[사하구 민요 210]

### 진도아리랑

고금단(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오늘갈지 내일갈지 모르난 내인생  
니가생기 후박년출이<sup>464</sup> 담장넘어 간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에

---

464) 호박 넝쿨이.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사하구 민요 211]

### 진도아리랑

김은래(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형님 오실까미<sup>465</sup>) 깨를볶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설사병이 났네

[사하구 민요 212]

### 아기 젖 떼는 소리

김정애(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파리매이로<sup>466</sup>) 날라댕기. 그라고.)

지성아 지성아  
어여 저 온다 쭈쭈 묵는다고 저 거 나비<sup>467</sup>) 온다  
나비가 저 물라고 너 놔  
지성이는 나비 온다 나비가 너 물라고 온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고, 하면은 애기가 젖 떨어지고 그랬당께.)

[사하구 민요 213]

### 진도아리랑(1)

---

465) 오실까 보아.

466) 파리처럼.

467) 여기서 나비는 고양이를 말한다.

문순진(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사하구 민요 214]

### 성주풀이<sup>468)</sup>

문순진(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낙양성 십리허에 솔솔기는 저포수야  
임을잃고 밤새도록 임을찾아서 헤맸노라  
에헤야 만수 에헤라 디시디어

[사하구 민요 215]

### 진도아리랑(2)

문순진(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저건네 저가스나<sup>469)</sup> 앞가슴을 보아라  
연줄없는 수박이 오두통 열렸다

[사하구 민요 216]

### 너냥 나냥

신정자(여, 194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

468) 김세레나가 취입한 신민요 성주풀이이다.

469) 저 가시나.

[신평1동 광명경로당]

산천에 풀잎은 풀어야 좋고요  
우리엄매 머리는 검어야 좋다

[사하구 민요 217]

### 논매는 소리

신정자(여, 194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저건네 갈미봉에 안개짓고 비뭍어온다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논에 찬이슬 매려 가세  
에헤라 만수~

[사하구 민요 218]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정금래(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정금래 가창]

달강달강 어멈은 구시가고<sup>470)</sup> (구시에 가고.)  
아범은 장개가고  
꽃감하나 사다가  
선박끝에 연적디<sup>471)</sup>  
머리카만 사양주가<sup>472)</sup>  
뚝딱 값아먹고  
빼딱은<sup>473)</sup> 아범주고

---

470) 화장실에 가고.

471) 었었더니.

472) 생쥐가.

가죽은

[청중 가창]

누집의 고양이

딱딱 굶어먹었네 (그래.) [일동 웃음]

[정금래가 말로 읊조리며]

빼딱은 남은께 아범주고

가죽은 어멈주고

멀국 쪼깐 남았응께

너하고 나하고 묵었다고 인자

[사하구 민요 219]

### 시집살이 노래

정금래(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묵기싫은 식은밥은 두었다가도 묵는디

살기싫은 시집살이는 말은못하고 살것네 (하고.)

[사하구 민요 220]

### 너냥 나냥

정금래(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광명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동실 너냥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 배가고파 울고요

야밤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

473) 뼈처럼 남은 가운데 부분.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고나  
흑사리 휘젓어 손들어 염전아  
큰아기 널보고 손들어 영젓대  
너냥 나냥 두리둥실 받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저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졌느냐  
나를두고 가신님이 가고싶어 갔냐  
너냥~ 나냥 두리둥실 너-냥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221]

### 모심는 소리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sup>474)</sup> 무정하는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여~어 처자한쌍<sup>475)</sup> 섬기볼까<sup>476)</sup>

유월달이 두달이라~아 첩을팔아서 부치사<sup>477)</sup>  
칠팔월이 돌아오니 첩의생각이 절로난다

아침이슬 채전밭에 불뚱꺾는 저큰아가  
(그라모 또 받는 거는.)  
그뚱불뚱 제쳐노코 고개나살푼<sup>478)</sup> 들어보소

---

474) 벼랑 끝에.

475) 일반적으로 “처자 한 번” 또는 “처자 권속”으로 부른다.

476) 섬겨볼까.

477) 부채 사(니).

478) 고개나 살짝.

[사하구 민요 222]

### 이갈이 노래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sup>479)</sup> 헌니 가가고  
새이 날도라

[사하구 민요 223]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말로 알고 있는 사설 일부만 부름]  
껍질랑 애비주고  
보닐랑 애미주고  
알킬랑 니강내강  
갈라묵자

[사하구 민요 224]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달이<sup>480)</sup> 울지마라

---

479) 헌 이(이빨).

(조사자: 울지 마라.) (몰라 그거 모르겠어예.) (조사자: 앞집 개도 짚지 말고.)  
뒷집개도 짚지 말고  
꼬꼬다라 울지마라

[사하구 민요 225]

### 물레 노래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물리야 물리야 억 억  
배배뱅 돌아라 (이러고서 또 '억' 해갖고.)  
시오마시 잔소리 (몰라 그래 그런 소리 하더라.) (조사자: 시어마시 잔소리에.)  
배뱅뱅 돌아라

[사하구 민요 226]

### 개 노래[개야 개야 검정개야]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개야개야 검정개야  
누른밥 깔거서<sup>481)</sup> 너줄적이<sup>482)</sup>  
먹기가 싫어서 너를주나  
(또.) 배가 불러서 너를주나  
뒷집에 김도령<sup>483)</sup> 담넘어 올적에  
짚지마라꼬 너를준다

---

480) 꼬꼬 닭아.

481) 굶어서.

482) 너 줄 적에.

483) 김도령.

[사하구 민요 227]

### 화투 타령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멧달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육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오동추야 (그거 뭐 뵈이고? 다 길었네.) 다길었네  
화투한몫을 다길었네 (이래 나오던데.)  
열씨구나 좋다 저절씨구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228]

### 청춘가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알뜰한 우리청춘 좋~다 다늙어가노라  
  
니가 잘났지 생각을 둔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 좋~다 밟벗고가노라

[사하구 민요 229]

### 양산도

김소석(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에헤~~이~~요~오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우~울~어서  
정기정<sup>484</sup>) 마당에 한강수 되~엔다  
에여라두어라 아니 못노리로~~다  
능기를 하여도 내는 못노리~이라

에헤헤이~~요  
세월이 가기는 바람길 같고~오  
우리청춘 늙기는 물길강 같~~다  
에여라 동계라 아니 못노리로~~다  
너능기를 하여도 내사 못노리~이라

[사하구 민요 230]

### 두꺼비집 짓기 노래

김정자(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두껍아 두껍아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사하구 민요 231]

### 청춘가

김정자(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

484) 정거장.

청춘 하늘에~에<sup>485</sup> 잔별도 많고요~오  
요내 가슴에는 좋~다 수심도 많구나

간다 못간다~아 얼마나 울었냐  
정그정<sup>486</sup> 마당이~이 좋~다 한강수 되었네

서산에 지는해느~은 지고싶어 지느냐~아  
날다리고 가신임은 좋~다 가고싶어 가노라

[사하구 민요 232]

### 사발가

김정자(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디는 연개도짐도 아니나고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란다

[사하구 민요 234]

### 논매는 소리

김정자(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야-야-야 야아로 상사디이여~어  
앞산은 점점 멀어를 가고  
야-야-야 야~아로 상사디이여  
뒷산은 점점 (안자 뒷산은 모로 심어간께 가까워 오거던.)<sup>487</sup> 가까워 간다

---

485) 하늘에.

486) 정거장.

487) 논매는 소리로 불렀는데, 모심는 일로 착각하여 말했다.

[사하구 민요 235]

### 본조아리랑

조한숙(여, 1942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1동 느티나무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난다<sup>488)</sup>

[사하구 민요 236]

### 모심는 소리

김귀남(여, 192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말로 읊조리며]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여노  
이달가고 저달가고 (뭘 [머뭇거리며] 어 인자.) (조사자: 칠팔월에 열매 맺지.) 칠  
월달에 열매맺어

[사하구 민요 237]

### 창부타령

노봉학(여, 1932년 생) 가창  
2016년 2월 19일 채록  
[신평1동 팔각정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병들면 못노나니  
하무령<sup>489)</sup> 십일홍이요 달도차며는 기우나니

---

488) 발병 난다.

489) 일반적으로 부르는 '화무(花舞)는'을 얼버무리듯 부른 것이다.

[사하구 민요 238]

### 모심는 소리(1)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모이야적삼 안섰안에~이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야보며는 병날끼고~이<sup>490)</sup>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배꽃일세 배꽃일세~이 처녀야수군이<sup>491)</sup> 배꽃일세  
배꽃같은 수건밑에~이 앵두같은 저입보소

석누야꽃은<sup>492)</sup> 장가가고~이 찔레야꽃은 요각간다<sup>493)</sup>  
만인간아~ 우지마라~이 씨종자볼라꼬 내가간다 이후후후후 (한다.)

서월이라<sup>494)</sup> (청중: 또 나온다.) 왕대밭에~이 금비들키<sup>495)</sup> 알을놓아  
그알한알을 조았으면~이<sup>496)</sup> 금년과개를<sup>497)</sup> 내할구로

[조사자의 요청에 조금 빠르고 경쾌하게 부름]  
풍당풍당 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년을 시켰던고

임이죽어서 연자가되어~이<sup>498)</sup> 처마끝에 집을지어  
날맨보고 들맨봐도~이<sup>499)</sup> 님오신줄 니모리네<sup>500)</sup>

---

490) 병이 날 것이고.

491) 처녀의 수건이. 처녀가 머리에 둘러쓴 수건이.

492) 석류꽃은.

493) 유곽 간다.

494) 서울이라.

495) 금비들기.

496) 주웠으면.

497) 금년 과거를.

498) 연자(燕子)가 되어. 연자는 제비를 말함.

[사하구 민요 239]

### 아기 어르는 노래(1) [불매요]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불어라 딱딱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불어라 딱딱 불매야

[사하구 민요 240]

### 아기 어르는 노래(2) [알강달강요]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알강달강 당강네야  
서월가서<sup>501)</sup> 밤을한대 좃어다가  
살강밑에<sup>502)</sup> 묻어놨더니  
껍디기는 애비주고  
부넨랑<sup>503)</sup> 애미주고  
알맹이는 니강내강 갈라목자  
알강달강 불매야

[사하구 민요 241]

### 아기 어르는 노래(3) [등게요]

---

499) 나오면 보고 들어오면 보아도.  
500) 님 오신 줄을 나 모르네.  
501) 서울 가서.  
502) 살강은 선반을 말함.  
503) 보늬랑. 보늬는 밤 껍질 안에 부드럽게 털로 감싸여 있는 부분을 말함.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등계등계 등계야  
열씨구 등계등계야  
[잠시 가사를 잊은 듯 멈춤] (조사자: 나라에는 충신동이.) (아, 가마 있어 봐요.)  
(청중: 불매야.) (조사자: 금자동아.)  
여중일색<sup>504</sup>은 여계<sup>505</sup> 있는데 (청중: 아니고.)  
남쪽호걸<sup>506</sup> 내사우는<sup>507</sup>  
어드메곳에서 계시는고  
통닥공 통닥공

[사하구 민요 242]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멍멍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자는데는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꼬꼬닭하 우지마라  
니가울면 날이샌다  
날이새면 나죽는다

[사하구 민요 243]

### 배추 씻는 처녀 노래

---

504) 여중일색(女中逸色). 여자들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  
505) 여기에.  
506) 남중호걸(男中豪傑).  
507) 내 사위는.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녹수방천 흐르난물에 배추씻는 저큰아가  
신던배추는 자치놓고<sup>508)</sup> 고개만살콤 들어보소

[사하구 민요 244]

### 댕기 타령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댕기댕기 흥초야댕기  
우리오빠 서월가서 사온댕기  
댕기디린 사흘만에  
담넘어로 떨어졌네  
허리굽혀 주안댕기  
공덕없이서 줄수있나  
하늘보고 땅을보고 (주운 댕기. [웃으면서] 아이구 까몹부고 몰라.)

[사하구 민요 245]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근 도맹근<sup>509)</sup>  
도래춤치<sup>510)</sup> 장두칼

---

508) 씻던 배추는 제쳐 놓고.

509) 동사 망건 도 망건.

510) 도래 주머니.

까마구 까우  
황새 범  
노랭이 뿔이가 빵 [웃음]

[사하구 민요 246]

### 모심는 소리(2)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서월갔던 선부님요~이 우리야선부 안오대요 (이러이 깨네.)  
오기사야 온다마는~이 칠성판에 실리오요

[사하구 민요 247]

###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옳듯이 가창]  
집이라고 찾어가니  
몸치에 붙이나서  
방문을 열고보니  
조리 (아.) [다시 말을 바꾸어] 방문을 열고보니  
맹지바지란놈이<sup>511)</sup> 춤을주고  
농 (아!) [다시 말을 바꾸어]  
농문을 열고보니  
명지바지란놈이 춤을주고  
논가라고 나가보니  
오골챙이란놈이<sup>512)</sup> 논을매고

---

511) 명지바지란 놈이.

512) '오골챙이'는 올챙이의 방언.

마구문을 열고보니  
몬매소안치란놈이<sup>513)</sup> 담배를뿜고<sup>514)</sup>  
논가라고 나가보니  
[웃으며 중단]

[사하구 민요 248]

###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야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고  
다홍치매 (이런 노래가 있어예.)

[사하구 민요 249]

### 창부타령(1)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눈비온다 칼바람분다 뒷동산 풀잎이 춤잘춘다  
니가잘나서 춤잘추나 하늘님 덕택으로 춤잘추지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아니 소지를 못하리로~이다

[사하구 민요 250]

### 청춘가(1)

---

513) '소안치'는 송아지의 방언. '몬매소안치'는 뜻이 불명하나,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514) 담배를 피우고.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일본아 동정이~이<sup>515</sup> 얼마나 좋아서~어  
꽃같은 나를두고 어~허이 일본동정을 가시나요

[사하구 민요 251]

### 노랫가락(1)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에헤~헤  
문밖에 인적이있어 님이오셨나 문열어보나~  
님은~ 간곳이없고 모진강풍이 날속인다~  
동자야 먹갈어올려라 님에게로 서신하자~

[사하구 민요 252]

### 창부타령(2)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들도산도 봄철이든강 칠기줄을<sup>516</sup> 등을덮고  
님도님도 밤중이든가 한삼사매루<sup>517</sup> 등을덮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아니 소지를 못하리로다

노자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

515) 동경이.

516) 칩 줄을.

517) 한삼(汗衫) 소매로.

화무령 십일홍이요<sup>518</sup> 달도차이면은 기우나니  
인생일자 춘몽인데<sup>519</sup> 아니놀지를 못하리로이다

[사하구 민요 253]

### 노랫가락(2) [나비 노래]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나비아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아 너도가자  
가다가 질저물거든<sup>520</sup> 꽃잎속에서 자고가세  
그꽃도 푸대집하거든<sup>521</sup> 앞에선따나<sup>522</sup> 자고가세

[사하구 민요 254]

### 청춘가(2)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세월아 네월아~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까운 내청춘 어~허이 다늠어 가는구나

일본아 동정이~이<sup>523</sup> 얼마나 좋아서~어  
꽃같은 나를두고 오~오 일본 동정을 가시나요

열두칸 기차야~아야 소리말고 가거라~아  
산란한 이내몸이~이 좋~다 더살랑 하는구나

---

518) 화무(花無)는 십일홍(十日紅)이요.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꽃은 없다는 뜻임.

519) 인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인데.

520) 길 저물거든.

521) 푸대접하거든.

522) 앞에서나마.

523) 동경이.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어서~어  
정거정 마당이 에~에 한강수 되노라

[사하구 민요 255]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아니 소지를 못하리로다

돈나온다 돈나온다 모빈단<sup>524</sup> 조끼에 돈나온다  
이자령네 춤안나오면은 (어떤 일이적 마 주우서 거먹거리고 올치고 마 이란다.)

춤나온다 춤나온다 꾀꼬리장단에 춤나온다  
이장단에 춤안나오면은 어떠한장단에<sup>525</sup> 춤나오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아니 소지를 못하리로다

[사하구 민요 256]

### 양산도

이어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에헤~히요  
양산없네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오  
우리집에 낭군님은 나를안고 방안에 뱅뱅돈다  
얼씨구 절씨구 아니 못노리~이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못노리~이

---

524) 모 비단.

525) 어떤 장단에.

[사하구 민요 257]

### 창부타령(3)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사발가로 시작했으나 후렴부터 창부타령으로 전환하여 가창함]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뽕뽕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청중 가창] 연기도집도 안난다 (뭉꼬 내는 모리겠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산도산도 봄철이든강 칠기줄을 등을덜고  
님도님도 밤중이든강 한삼사매루<sup>526)</sup> 등을덜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로다 (청중: 아이구 잘한다.)  
아니 소지를 못하리로다

[사하구 민요 258]

### 너냥 나냥

이여지(여, 1941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루어 운다  
나냥 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다

살구나무 열매는 울곡졸곡 하고요  
신작로 복판에는 택시가 놀고  
택시가 안에는 신랑신부 논다

---

526) 한삼 소매로.

[사하구 민요 259]

### 태평가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낭군님이  
내가들어간다  
닐닐리리 닐니리야 닐니리야~아  
닐니리야~아  
니나노 낭군님 내가들어간다  
닐닐리리 닐니리야

[사하구 민요 260]

### 아기 어르는 노래[등계요]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금자동아 옥자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게는 효자동아<sup>527)</sup>  
형제간에<sup>528)</sup> 화목동아  
동네방네는 귀염동아  
어허동실 동실동실네

[사하구 민요 261]

### 아기 재우는 노래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

527) 효자동아.

528) 형제간에.

자장자장 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자는데는  
엄마품에 잠을자고  
쥐는쥐는 궁계자고<sup>529)</sup>  
새는새는 숲에자고  
까막간치는 낭계자고<sup>530)</sup>  
어허둥실 내자석아

[사하구 민요 262]

### 끝말 노래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바다에는 갈매기야  
챙이<sup>531)</sup>끝에 싸래기야<sup>532)</sup>  
채전밭에는 시래기야  
보리밭에 봉순화야<sup>533)</sup>  
날라가는 학선이야  
구름속에는 신선이야

[사하구 민요 263]

### 이갈이 노래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

529) 구멍에.

530) 까막까치는 나무에 자고.

531) '키'의 방언.

532) 싸라기야.

533) 봉순화야.

앞니빠진 개오지  
고랑가<sup>534</sup> 가지마라  
빈대한테 뺨맞는다

[사하구 민요 264]

###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조복지(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익강변경로당]

콩닥콩 콩닥콩 방아야  
방아방아 짝는다<sup>535</sup>  
연지방아 짝는다

[사하구 민요 265]

### 모심는 소리

최학연(여, 1928년 생) 가창  
2016년 2월 21일 채록  
[신평2동 신평새동네경로당]

[메기는 소리만 부름]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들갔노<sup>536</sup>

[사하구 민요 266]

### 도라지 타령

김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

534) 개울가에.

535) 짝는다.

536) 어디로 갔노.

도라지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리 반만차거라

[사하구 민요 267]

### 사발가

김점순(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는퐁퐁 나고요  
이내가슴 다타도 연기도짐도 안난다

[사하구 민요 268]

### 아기 재우는 노래

장삼순(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자장자장 잘자라  
우리아기야 잘자라  
멍멍개야 짖지말고

[사하구 민요 269]

### 파랑새요

장삼순(여, 194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청포장사 울고간다

[사하구 민요 270]

### 노들강변

지순아(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이휘어진 가지에다가  
만구동산 비바람에 뭇맹이나 지나던고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사하구 민요 271]

### 본조아리랑

지순아(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동 장림서부경로당]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나를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못가서 발병난다

[사하구 민요 272]

### 본조아리랑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기주소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하구 민요 273]

### 도라지 타령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도라지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니반석만 대노라  
에헤이요 에헤이요 예야라 난다 디어라-아  
니가 내사랑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274]

###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주천당 세모진낭개 오색가지에 그네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사하구 민요 275]

### 청춘가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세월이 가면은 너혼자가지  
아까운 요내청춘 와데리고가노

[사하구 민요 276]

### 밀양아리랑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사하구 민요 277]

### 모심는 소리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사하구 민요 278]

### 백발가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청춘이디 오늘백발이 당도했다

[사하구 민요 279]

### 노랫가락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옛날옛적 과거지사는 모두다잊어라 꿈이로다  
잊어야만 오를줄은 차마 못잊겠네

[사하구 민요 280]

### 권주가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배주라

[사하구 민요 281]

###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김덕념(여, 1922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한되를 얻어다가  
쌀독안에 넣어놨디 생쥐가 다까묵고  
다만하나 남은것은 네랑내랑 갈라묵자

[사하구 민요 282]

### 노랫가락(1)

김홍문(남,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에-헤이 아니아니 노지를 못 하리라  
아니 노지를 못 하리라  
나도어제아래 청춘인데 오늘백발이 잠시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지쳐떠나간 서울역에 철루연기가 남아있고  
임떠나간 빈방안에 한서반눈물이 가득찼네  
얼씨구씨구 절씨구나 아니노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283]

### 노랫가락(2)

김홍문(남, 1933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백구야훅훅 날지마라 너를잡으러 내아니간다  
서산에 해가지어 너를쫓아 나여기 왔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지화자 좋을씨고  
얼씨구 절씨구

[사하구 민요 284]

### 창부타령

이종달(남,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낙양산 십리하에 높고낮은 저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나 절대가인이 그누구나  
우리네인생 한번가면 저게저무덤이 될지이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저건네 잔술밭에 설설기는 요포수야  
저산비둘기 잡지마라  
저비둘기 나와같이 밤새도록 입을얹고  
입을찾아 견디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사하구 민요 285]

### 쌍가락지 노래

이종달(남, 1936년 생) 가창  
2015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본동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늦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래라 짚에보니 처잘래라  
저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사하구 민요 286]

### 너냥 나냥

손여옥(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작로 넓어서 길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님보기 좋다

[사하구 민요 287]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손여옥(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서맹금 도맹금

연지탕개 열두양

가사머리

(뭘라 쿠는가 모르겠다. 용두사민가. 하, 모르겠네.)

[사하구 민요 288]

### 대추 노래

손여옥(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아야 저어라 어른아 맛봐라

(조사자: 뭐 할 때 부르는 건데예?) (바람 불고 대추 떨어질 때.)

[사하구 민요 289]

### 노랫가락[봄배추 노래]

손여옥(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포롬포롬 봄배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사하구 민요 290]

### 정 타령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영감할맘 정들적에는 등만꿨어도 정이들고  
과부홀애비 정들적에는 막걸리한잔에 정이들고  
신부신랑 정들적에는 목공단이불속에서 정이들고  
처녀총각 정들적에는 하숙집골방에서 정이들고  
어린아기 정들적에는 사탕눈깔에 정이들고  
여러분강 정들적에는 마주만봐와도 정이든다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291]

### 청춘가(1)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산천초목에 불질러놓고요  
진주야 남강에 좋다! 물실러 가구나  
우리가살더라 몇천년을 살겠나  
한번묵은 마음은 좋다! 백년이가도 안변하네  
세월이가기는 바람길 같고요  
요내청춘 늙기는 좋다! 물결같구나  
청춘하늘에 잔별도많고요  
요내야가슴에 수심도많구나 좋다!

[사하구 민요 292]

### 청춘가(2)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에헤~이여  
노자 좋기는 사장구 복판  
길가기 좋기는 신작로 복판  
에허라 노아라 아니고 못노리라  
열놈이 죽어도 나는안놀고 못하리라

우연히 싫더나 누구말을 들었나  
날만 보면은 생짜증을 내노나

(뿔이 많은데 모르겠다.)

니가 잘나서 일색이더나  
내눈이 어둡어 환장이되지요

올넘애 담넘애 골비는 총각아  
날만 보면은 싱글병글 하구나  
(모르겠다.)

돌살구 열매는 울통불통하고요  
처녀의 앞가슴은 두루뭉실한다

에허라 노어라 아니고 못노리로구나  
열사람이 몽탕죽어도 나는안놀고 몬사리로다  
(하이고! 잘한다.)

[사하구 민요 293]

## 밀양아리랑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사하구 민요 294]

### 청춘가(3)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늬어 가구나

[사하구 민요 295]

###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청중: 이다리 저다리 각서리, 뭇이라노?)  
천도망도 도맹도  
짹발이 헤맹도  
육대육대 전라도  
전라감사 대감사  
내가랭이 니가랭이  
(치고. 뭐라 카는고 모르겠네.)

[사하구 민요 296]

### 백발가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이팔청춘 소년들이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소년이다 백발되기가 잠시로다

[사하구 민요 297]

### 사발가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안나네  
에헤야 데헤야 에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사리살살 다 녹는다

[사하구 민요 298]

### 양산도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양산도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저문덩이는 나를안고 돈다  
에햐라 노워라 아니고 못노리로구나  
열사람이 몽땅죽어도 나는 안놀고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299]

### 권주가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귀한수요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지

[사하구 민요 300]

### 창부타령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저건너 잔술밭에 설설기는 저포수야  
금비둘기를 잡지마라  
나와같은 님을 잃고 임찾느라고 설설 긴다  
어라만수 어라 대신이야

[사하구 민요 301]

### 파랑새요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싸 울고간다

[사하구 민요 302]

### 뱃노래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어스렁 달밤에 개구리 울음소리  
시집못간 저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사하구 민요 303]

### 도라지 타령

송순덕(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도라지도라지 도라지 심심삼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 반소리만 되거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사리살실 다눅힌다

[사하구 민요 304]

### 모심는 소리

신성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한승할래  
좋다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옥에들은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네  
좋다

[사하구 민요 305]

### 시집살이 노래

신성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도리도리 도리판에 시집살이 맵다해도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맵더라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도 에렵더라  
중우벗은 시동생 말하기도 에렵더라

[사하구 민요 306]

### 노들강변

신성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노들강변 봄버들 휘익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놀이를 칭칭돌려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데헤요 봄버들도 못잊으리로구나  
저기 노여서 매어나볼까

[사하구 민요 307]

### 너냥 나냥

신성자(여, 1944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너냥 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와 운다  
나냥 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작로 널러서 질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가 좋다

[사하구 민요 308]

### 모심는 소리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겉이 떠나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낭창해창 벼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여자한번 생기볼래

풍당풍당 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요놈의 할마이어디가고 딸의동재 시깃더노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부모 산소등에 짓묵으러 나는가요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겉은 저젓보소  
그젓한번 답씩쥐만 서울과개 내할꺼로

[사하구 민요 309]

### 노랫가락[그네 노래]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수천당 세모지낭개 오색당사실 군데를매어  
임이밀면 내가나밀고 내가밀면은 임이민다

[사하구 민요 310]

### 화투 타령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정월속가지 속속한맘은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지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떨어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은정은  
시월단풍에 똑떨어졌다  
(인자 모르겠다.)

(청중: 동지선달 서담풍에는 임없이는 못살겠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그래 했다.)

[사하구 민요 311]

### 시집살이 노래(1)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얄듀크아파트노인정]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등글등글 수박괴로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버신<sup>537)</sup> 시동상은 말하기도 어렵더라

[사하구 민요 312]

### 시집살이 노래(2)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올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sup>538)</sup> 갔더만은  
시집가는 사흘만에 발매러 가라하네  
어덯살이 컴컴한밤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시세골 걸어매고  
집이라꼬 찾아오니 저녁이라<sup>539)</sup> 주는거는  
삼년묵은 꼬랑장을 접시끝에 발라주고  
삼년묵은 보리밥은 개뚝바리 나눠주고  
(그 다음은 뭐라카노. 다 잊아뻘다. 그 전에는 했는데.)

[사하구 민요 313]

### 첩 노래

육분늬(여, 193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3일 채록  
[장림1동 장림로알듀크아파트노인정]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갓이하고 어디가노  
첩의방에 갈라거든 내죽는꼴을 보고가소  
첩의방은 꽃밭이요 본처방은 연못이요

---

537) 중우 벗은,  
538) 시집살이.  
539) 저녁밥이라고.

[사하구 민요 314]

### 진도아리랑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늬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뒸다보아라 히꼬끼<sup>540)</sup> 아니냐  
콩에랑 칩의머리가 뱅뱅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315]

### 모 찌는 소리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여~~ 여~~ 여~~ 여어라 상사디여  
이대미꽃고 저대미꽃고 장수대미로 넘어가세  
어 여~~여~~ 여루 상사디여

[사하구 민요 316]

### 화투 타령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

540) 비행기.

정월솔가지 속삭인마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살자는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송하다  
오월난초 날아든나비  
유월흑싸리에 허송하다  
칠월홍돼지 홀로나앉어  
팔월공산에 달떠오고  
구월국진 굳은잎은  
시월단풍에 다떨어지요  
모아보세 모아보세  
화토향목을 모아보세

[사하구 민요 317]

### 각설이 타령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아니죽고 또왔어  
아주머니말씀이 고와서  
쌀한되만 주시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한장을 들고보니  
일선에게신 우리남편  
어느시절에 돌아올까  
이자한장을 들고보니  
이승만이 대통령이  
본관에사또가 부대통령  
삼자한잔을 들고보니

산에의한 김일성이가  
대독선을 무어타고  
김정일을 찾아간다  
열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놈만 해 인자.) (조사자: 오자나 한 자나.)  
오자한장을 들고보니  
오가리 천자가는자  
(그리고 헌디 잊었어.) (조사자: 잊어 버렸어요.)

[사하구 민요 318]

### 장타령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벌어졌다 벌교장 오그라졌다 옥계장  
(마 그런 거 췌어.) (조사자: 그 다음에 뭐고요? 벌교장, 옥계장, 그 다음에는 또  
뭐고?)  
벌어져서 못보고  
(조사자: 벌어져서 못 보고.)  
오그라졌다 옥계장 오그라져서 못보고  
(조사자: 오그라져서 못 보고.) (뿡이 또 키가 작아서 못 보고 그러거던. 그런 걸  
다 하제. 아제 고향이 어디여? 고흥.) (조사자: 그러면 어떻게? 고흥장은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 거 하면 재밌는데.)

[사하구 민요 319]

### 양산도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순천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도는데  
남안읍내 하중석이는 나를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사하구 민요 320]

### 상여소리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너화노~ 너화노~ 어와리 넘차 너화노  
(누가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해 줘야 하는디.) (조사자: 좀 해주이소.) (청중 : 아이고, 아이고.)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문턱밧이 저승이네  
(청중: 아이고, 어이고.)  
어~여 어~여 어화노 너화노 어야리 넘차 너화노  
(그러면 인자 옆에서 울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조사자: 내년 춘삼월에 다시 오라.) (명년춘삼월에 꽃피고 잎이필 때 온다하고 그런 거 하고.)

[사하구 민요 321]

### 지신밧기 노래

오월심(여, 1938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동장수경로당]

매구여 매구여  
잡구잡신은 쳐내고 명과복은 쳐들이라  
(그러고는 인자 또.)  
깨개갱깽깽 깽깽 깽개갱깽깽 깽깽  
(매구야~ 그러면 인자 그것도 마무리 짐서, 다른 소리는 안해, 매구야~ 그러면 인자 저기서 매구 치는 사람들이 “예~” 그러거던. 그러면 인자.)  
잡구잡신은 쳐내고 명가복은 쳐들이라  
깽지깽지 깽지장장  
(그거는 그뿐이고.)

[사하구 민요 322]

### 노랫가락[그네 노래]

강성분(여, 194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 돌이뛰자꼬 그네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아가동자야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323]

### 권주가

강성분(여, 1943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아닐라 칠년대왕 가문날에 이술받은 술입니더

[사하구 민요 324]

### 남녀연정요

이말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아실아실 चु겨든 내품들고  
(옛날에 그 카대.)  
비계돌돌 높으겨든 내팔을베라  
정단님정이 이렇게 좋구나  
(이개쌌고 그라대. 잊어뿌렸어.)

[사하구 민요 325]

### 백발가

이말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같이 소년이더니 백발되기 잠깐이다

[사하구 민요 326]

### 사발가

이말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는평씩 나는데  
이내가슴 다타도 연기도집도 안나네

[사하구 민요 327]

### 노랫가락

이말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술이라꼬 먹거들랑 치정을 말고  
임이라꼬 만나거던 이별을 말라

[사하구 민요 328]

### 화투 타령

정귀남(여, 1939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정월솔솔 부는바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날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 오신손님  
섣달장마에 다졌구나

[사하구 민요 329]

### 노랫가락[그네 노래]

조경이(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주천당 세모시낭개 가지가지를 그네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330]

### 화투 타령

조경이(여, 1931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색인<sup>541)</sup>마음

---

541) 속 썩인.

이월매주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날라  
유월목단 끝에앉네  
칠월홍돼지 홀로만누워  
팔월공산 달도나뵈다  
구월국화 굳었던나무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내 그것백이 모르겠다.)

[사하구 민요 331]

### 모심는 소리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에~~~에루 상사가 되어  
여여기도 심기고 저저기도 심기고  
어~~~~어루 상사되어  
다되었네 다되었어  
서마지기 논빼미가 다되었네

니가무신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제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허리라

[사하구 민요 332]

### 창부타령(1)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또랑또랑 객살또랑 연자골미를 심었더니

뿌리나뻗어 상관이되고 매두매두 꽃이피어  
저녁에라 뜨는별은 별을잡고 낙노한데  
우리오빠 어디가서 큰애기잡고 낙노하까  
얼씨구나좋네 기화자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333]

### 청춘가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날데려가거라~~ 날데려가거~라~~  
한양에 낭군아 좋다 날데려가거라

공산맹월아 말물어보잔다  
임죽고 사는사람 좋다 몇오몇명 되더나

[사하구 민요 334]

### 진도아리랑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날데려 가거라 날데려 가거라  
한양에 낭군아 날좀데려 가거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사하구 민요 335]

### 창부타령(2)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저건네라 자지봉에 좁씨서말을 흘렸더니  
봉알새가 다가묵고 빈죯대만 까딱까딱  
얼씨구나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336]

### 어랑타령

최채엽(여, 1940년 생) 가창  
2016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장림현대아파트경로당]

노고재비 서방님은 자동차운전을 하는데  
우리집의 저잡것은 십빠꾸운전도 못한다  
어랑어랑어랑어~여  
어랑타령을 다꼐아묵고 백주에 건달이되었네

[사하구 민요 337]

### 아리랑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호박은 늙으믄 단맛이 나고요  
사람은 늙으니 설곳이 없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정든임 고개는 당고갠가<sup>542)</sup>

---

542) 하나뿐인 고개를 뜻함.

[사하구 민요 338]

### 창부타령(1)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믄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년인데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바람불어 썰어진낭개<sup>543)</sup> 눈비온다꼬 일어나나  
병이들어 누워난님이 약을쓴다꼬 일어나나

[사하구 민요 339]

###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 오색당사로 군대를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 줄매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하구 민요 340]

### 백발가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두고서 갈새마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백발되기도 잠시로세

---

543) 쓰러진 나무.

[사하구 민요 341]

### 사발가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만 푼푼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한숨도 아니나네

[사하구 민요 342]

### 밀양아리랑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우리님도 오시는데 인사를 문해  
행주처매 입에물고 입만 방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넘어 간다  
아리랑고개는 열두고개 정든임고개는 당고갱가

[사하구 민요 343]

### 창부타령(2)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년인데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왔소 나여기에와소 천리타향아 나여기에왔소  
바람이불러 나여게왔나 입을찾아서 나여기왔지

[사하구 민요 344]

### 권주가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나시면 천년만년을 사오리다

[사하구 민요 345]

### 물 실러 가자

박대선(여, 1935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진주야 남강에 물실러 가자  
물신고 올때는 흰돛대 달고  
물실고는 간데는 검은돛대 다네

[사하구 민요 346]

### 본조아리랑

박양자(여, 1929년 생) 가창  
2015년 2월 14일 채록  
[장림2동 제일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개 고개고요  
정든님 고개는 된고개  
(된 고개인가 그래.)

[사하구 민요 347]

### 사발가

김수복(여, 1922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포볼쑥 나는구나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없이 타는구나  
아리아리롱 아리롱 고개로 넘어간다

[사하구 민요 348]

###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배분이(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조사자: 앞니 빠진 개오지.)  
새미질에<sup>544</sup> 가다가  
빈대한테 뺨맞는다<sup>545</sup>)

[사하구 민요 349]

### 잠자리 잡는 노래

배분이(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잘라바 잘라바  
그런데만가몬 죽는다 (이래.)  
(조사자: 붙은 자리 붙어라.)  
붙던자리 붙어라

---

544) 샘으로 가는 길에. '새미'는 샘, 즉 우물을 말함.

545) 뺨 맞는다.

[사하구 민요 350]

###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배분이(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연치.<sup>546</sup>)

콩닥콩닥 짙어라

아적밥<sup>547</sup> (아, 저녁밥을.)

아적밥을 해주꾸마 (그랬나?)

저녁밥을 해주꾸마 (그랬다.)

[사하구 민요 351]

### 모 찌는 소리

배분이(여, 1934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에우자 에우자 이논빼미를 에우자

서마지 논빼미 이논빼미를 에우자

(조사자: 어, 잘하시네. 또 쫄우자 한 번 더.)

쫄이자 쫄이자 이논빼미를 조리자

(그거는 모짚 때 하는 거.)

[사하구 민요 352]

### 화투 타령

예종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

546) 연치는 방아깨비의 방언.

547) 아침밥.

정월솔가지 속속이놓고  
이월매조 매조로다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sup>548)</sup> 춤을춘다  
칠월홍दै지 홀로누워  
팔월동산 달밤인다<sup>549)</sup>  
오동추야 (조사자: 구월 국화.)  
구월국화 굳었던내맘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오동추야 달밝은데  
우산씨고 유랑가자  
[조사자 가창] 얼씨구나 좋다 [제보자 가창] 지화자 좋다  
아니 놀고 무엇하리 (조사자: 아이구 잘하시네.)

[사하구 민요 353]

### 창부타령[봄배추 노래]

예종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봄은오고 임은가고 꽃만피어도 임의생각  
앞아생각 누워서생각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참이슬오기만 기다린다  
유곽간힌<sup>550)</sup> 춘향이는 이도롬오기만<sup>551)</sup>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548) 일반적으로 '유월 목단에'라 부른다.

549) 일반적으로 '달 밝은데'라고 부른다.

550) 일반적으로 '옥에 갇힌'으로 부른다.

551) 이도령 오기만.

[사하구 민요 354]

### 파랑새요

예종순(여, 1937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가락타운1단지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에<sup>552</sup>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만 팽포장사<sup>553</sup> 울고간다

[사하구 민요 355]

### 모심는 소리(1)

문순이(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아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오 칠팔월에 열매여지

[사하구 민요 356]

### 모심는 소리(2)

문순이(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아 반달걸이도 날아가네. (카이, 이제 받는 사람이.)  
너가무슨 반달이냐~아 초생달이 반달이지

[사하구 민요 357]

###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

552) 녹두나무에.

553) 일반적으로 '청포장사'라고 부른다.

김영순(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짓지마라  
멍멍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잔다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잔다 [웃음]

[사하구 민요 358]

### 파랑새요

정두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그라대.)

[사하구 민요 359]

### 달 타령[달아 달아 밝은 달아]

문순이(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뱃깃더니  
옥도끼를 집어내어 금도끼를 따듬어서  
초가상간 집을지어

[사하구 민요 360]

### 도라지 타령

문순이(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이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오  
대바구니 반심만 되노~라  
에에헤헤요 에에헤헤요 에헤헤요~오  
어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사하구 민요 361]

### 태평가

문순이(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널니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이리저리

[사하구 민요 362]

### 사발가

정두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조사자: 연기도 짐도.) 연기도짐도 만나네  
에헤야 에헤야 [웃음]

[사하구 민요 363]

### 너냥 나냥

정두련(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면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나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면 참사랑이로구나 (청중: 안자 됐지?)

[사하구 민요 364]

### 창부타령

박옥련(여, 192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아니~이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높은산에야 진산에 구원산밑에 살살기던 저포수야  
온갖짐승을 다잡아봐도 저처녀손목을 못잡었네  
얼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365]

### 화투 타령

김영순(여, 1936년 생) 가창  
2016년 3월 6일 채록  
[하단2동 학성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썩은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보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조사자: 오동추야.) (오동추야 캐나?)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님 (니 뭐? 님 없이는 못 산다꼬. 아이.)  
님이없어도 살아간다

##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 1.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 1) 복구 민요

[복구 민요 1]

#### 모심기소리1

T. 복구 1-앞.  
복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심필남(여 · 80세).

\* 처음 부른 노래는 민요가 아니라서 다른 소리를 해 달라고 하자 모심기소리를 불러 주었다.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

아침이슬	찬이슬에	부리통끓는	저처녀야
불뚱꺼커	옆에두고이	고개살푼	들어보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1쪽.

[복구 민요 2]

#### 모심기소리2

T. 복구 1-앞.  
복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주순덕(여 · 73세).

\*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전승의 폭이 좁아진 탓으로 대를 맞추어 불러줄 사람이 없어진 탓이다. \*

모시적삼	안씻안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	------	------	------

많이보면                      뱅날끼고                      쌀날만침                      보고가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2쪽.

[북구 민요 3]

### 모심기소리3 [C4]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주순덕(여 · 73세).

\* 원래는 여러 각편들을 이어서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이 각편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 \*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이                      전내양반                      어데갔소  
문에야전복                      손에들고이                      첩오집에                      놀러갔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2쪽.

[북구 민요 4]

### 저들에라 청수간에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놀면서 불렀다고 한다. 독창식, 육자배기가락으로 불렀는데 끝까지 잊지 못하는 듯하였다. \*

저들에라                      청수간에  
수영버들이                      춤출작에  
만사풀잎은                      좀만좋을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3쪽.

[북구 민요 5]

### 한산모수 처매밀에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이 노래 역시 놀면서 불렀던 것이라 한다. 독창식, 육자배기가락으로 불렀다. \*

한산모수	처매밀에
문전옥토	논있구나
문전옥토	논있걸랑
실한적에	날재우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3쪽.

[북구 민요 6]

### 곰방대노래 [C5]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주순덕(여 · 73세).

\* 모심기소리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노래를 시작하였다. 이 노래 역시 놀면서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늙고 나니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곰방대만 친구로 남았다는 내용이다. 독창으로 불렀다. \*

구중정지	귀한딸년은
사우가	앗아가고
애탕제탕	귀한아들정은
며늘아가기	앗아가고

몽실몽실           귀한손자는  
 머리크니           넘이되고  
 대야대야           곰방대야  
 내가너를           잡을께나  
 나죽어           대안미고  
 백년친구           다잡고           너찾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4쪽.

[북구 민요 7]

### 처녀총각노래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첫 행 둘째 음보 부분이 녹음에서 누락되었다. \*

구 중 정 지 귀 한 - 딸 년 은 사 우 가 - 앓 아 가 고 애 탕

제 탕 귀 한 - 아 들 정 은 며 늘 아 기 가 앓 아 가 고

저근네라           [녹음누락]  
 목화따는           저근아가  
 너그집이           어딴건데  
 해다진대도       목화따노  
 우리집은           찾을라면  
 이등넘고           저등넘어  
 삼사십이           열두등을넘어

삼칸에초당이	내집이요
오기는	오소마는
비오는날은	못오시오
우산갈모가	걸데가없소
총각이라	하는말씀
갈모라컨	배고자고
우산을랑	덮고자지
얼씨구절씨구	내사랑좋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5쪽.

[북구 민요 8]

### 방구타령

T. 북구 1-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조사자가 방구타령을 불러달라고 하자 한참 동안 사양하다가 주위의 권유로 시작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요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자 좌중은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시아베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매방구는	양살방구
서방님방구는	유독방구
며느리방구는	도둑방구
손자방구는	꼬신방구
딸방구는	연지방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6쪽.

[북구 민요 9]

### 베틀노래 [C6]

T. 북구 2-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양인화(여 · 74세).

\* 행실 나쁜 중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노래 실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독창으로 불렀다. 베틀의 얼굴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베틀노래와는 조금 다르다. \*



오늘 낮 에 하심심하 니 배 틀 노 래 나 불 러 나 볼 까



낮 에 짜 면 일 광 단 이 요 밤 에 짜 며 는 월 광 단 이 요

오늘낮에	하심심하니	
베틀노래나	불러나볼까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은	월광단이요	
일광단월광단	다짜놓고	
서방님	바지저고리나	해어나볼까
설창밖에	내리는비는	
서방님의	이별의	눈물인고
일본동경	가시는낭군님	
꽃피고잎피면	돌아오지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되노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6-77쪽.

[북구 민요 10]

### 반달노래

T, 북구 2-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자칭해서 ‘꽃피는 내 고향’을 부르겠다며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놀면서 부르는 것으로 독창으로 불렀다. 노래 이름은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명명했다. 사랑하는 이를 이불 밑의 반달에 비유한 묘사가 재미있다. \*

가을철도	봄철인가
등나무밑에도	꽃피었네
초승달도	반달인가
이불밑에도	반달뒀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7-78쪽.

[북구 민요 11]

### 처남노래

T, 북구 2-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9. 17.  
오세길, 김창일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제보자는 이 노래를 ‘신랑 기다리는 노래’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은 처남과 자형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해묵힘으로 장기간 신랑이 처가에 남겨 둔 신부의 안부가 궁금해서 처남을 통해 신부의 안부를 물어 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진주단성	안사랑에
장기도는	저한아가

꽃걸은	너거누우가
앉았더냐	누웠더냐
신던보선	볼걸더냐
입던적삼	등받더냐
등도볼도	아니들고
등도볼도	아니들고
연지분통	단장하고
자형오도룩만	기다리오
얼씨구절씨구	지화자좋다
아니놀지는	못하겄소

[조사자 : 이게 무슨 신랑 기다리는 노래입니까?] [제보자 : 하모 인자 신행 전에 있었거든. 대사를 치고 시집을 일 년 묵하가(묵혀서) 갔거든. 그러믄 인자 처남 남매한테만 내에 갔고 처갓집에 안 갔거든. 그래 처남을 보고 ‘저 꽃 걸은 신방에는 누가 앉았더냐? 누웠더냐?’ 이전에는 신던 것은 볼로 걸었다 아이가. ‘신던 보선 볼로, 거 내 입던 적삼 등 받더냐?’ 그래가 처남이 또 ‘등도 볼도 아니 걸고 연지 분통 단장하고 자형 오도룩만 기다리오.’] [조사자 : 누나가?] [제보자 : 응, 누나가.] [조사자 : 신랑만 기다리네.] [제보자 : 처냄(처남)이 자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제. 그래 등도 볼도 아니 걸고 연지 분통 단장하고 자형이 오도룩만 기다리오.] [조사자 : 웃음.] [제보자 : 좋은 노래 아이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78-79쪽.

[복구 민요 12]

#### 모심기소리4

T, 복구 3-앞.

복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앞의 노래들에 이어 제보자가 자칭하여 불렀다.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불렀으나 여기서는 혼자서 독창식으로 불렀다. 모처럼 두 각편을 이어 불렀다. \*

아래웃돌	모꾼들아	춘삼월이	어느달고
------	------	------	------

우른님이	가실적에	춘삼월로	가신다요
이논에다	모를심어	감실감실	영화로다
부모님	기론정성	가슴시라서	영화로세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0쪽.

[북구 민요 13]

### 모심기소리5

T, 북구 3-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하쌍선(여 · 81세).

\* 계속하여 제보자가 자청하여 불렀다. 제보자는 이 노래를 모심기소리로 인식하고 있으나 가락이나 요사의 내용으로 보아 단일기능요화해 가고 있는 민요인 것으로 판단된다. 놀 때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민요의 기능에 변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말로] ['모숨거로 가자']

지가무슨	반달이나
초성달이	반달이네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0-81쪽.

[북구 민요 14]

### 물레노래

T, 북구 3-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하쌍선(여 · 81세).

\* 조사자가 물레노래를 청하자 불러 주었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앞의 각편은 물레노래로 시작했으나 뒤의 각편은 모심기소리 요사를 가져와 불렀다. 민요의 기능이 변이되는 양상이 드러나는 각편이라 흥미롭다. \*

물레야빙빙빙	니돌아가는구나
뒷집에김도령이	밤이슬로맞네
에야뒤야	에헤에야
에야뒤여로	사랑이로구나

물길은철철철	헐어서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노
문에야전복을	애와서들고
첩우야방으로	놀러나갔네
에야뒤야	에헤에야
에야디여로	사랑이로구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1쪽.

[북구 민요 15]

### 모심기소리6

T, 북구 3-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손서운(여 · 83세).

\* 제보자가 자청하여 불렀다. 독창으로 불렀다. \*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커고	저달커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2쪽.

[북구 민요 16]

### 모심기소리7

T, 북구 3-앞.  
 북구 구포1동 대리 마을 구포 할머니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손서운(여 · 83세).

\* 계속하여 제보자가 자청하여 부른 것이다. \*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나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이러	내가가네
해다지고	날저문데	우앤행상이	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어	행상이	떠납니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2쪽.

[북구 민요 17]

### 해방가

T, 북구 3-앞.  
 북구 덕천2동 주공아파트 1단지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이옥선(여 · 66세).

\* 이 노래는 전승민요는 아니다. 그러나 광복을 전후한 시대상이 반영된 노래로 민요화 과정에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음영식, 독창식으로 불렀다. \*

해방이나달도	내다시는
못올줄을	알았는데
일천구백	사십오연에
팔월십오일	해방되어
한라선에	몸을실코
부산남문을	당도하니

문전문전	태극기를달고	
방방곡곡이	만세소리	
삼천만이	동포가	춤을춘다
서울운동장	태극기는	
바람에펼펼	휘날릴때	
원자폭탄을	맞았는지	
왜이다지도	소식이없나	
남에집	애기아버지	
다돌아	오는데	
우리집	애기아버지는	소식이없네
해방이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긋지긋한	미군은	웬말인고
어린자식을	등에다지고	
살아난자식은	손목잡고	
한강철교를	건너가서	
부산으로갈까	목포로갈까	
갈팡질팡	헤멜적에	
문경에는	폭격을하니	
이런답답이	또있는가	
이번폭격에	다쓰러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하는말이
충청도라	옥천땅에	
농부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문전옥답을	다팔아다가	
중학대학을	마쳐놓네	
즈그아부지	죽어도	동무라네
원수로구나	악마로구나	
김일성도당이	원수로다	
아리랑고개는	역마고개	
삼팔선고개는	악마고개	
악마공산당	강습을받아	
남북통일이	되여간다	
옛날옛적	김유신장군은	
삼국통일을	하었는데	

우리나라	육해공군은	
남북통일을	못할쏘냐	
대한민국	남과북은	
어서빨리	통일되어	
헤어졌던	부모형제	만나보세
얼씨구절씨구	지화자좋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3-85쪽.

[북구 민요 18]

### 해다지고 저문날에

T, 북구 3-앞.  
북구 덕천2동 주공아파트 1단지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이순조(여 · 74세).

\* 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며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혼자서 불렀다. \*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데가요

[제보자 : 휴~]

첩오야집에	가시거든
-------	------

[제보자 : 잊아뻘다. 이제 다 잊아뻘다.]

첩오야집은	꽃밭이요
너내집은	연못이요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5쪽.

[북구 민요 19]

### 춘향노래

T, 북구 3-앞.  
북구 덕천2동 주공아파트 1단지 경로당, 1999. 7. 17.  
정규식, 김대길, 김창일, 김보경 조사.  
이해순(여 · 79세).

\* 이 노래 역시 놀면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

파릇파릇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모지도다	독하도다
신관사또가	독하도다
송곳같이	굳은절개
매맞는다고	허락하리
어미는아무리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쏘냐
좋다좋다	지화자좋아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86쪽.

## 2) 사상구 민요

[사상구 민요 1]

### 베들노래

T. 사상구 1-앞.  
사상구 덕포동 신촌마을 경로회관, 1999. 10. 1.  
오세길, 김창일 조사.  
최석순(남 · 72세).

\* 처음엔 노래를 잘 하지 않으려 하다가 조사자들이 자꾸 권하자 수줍어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는 원래 단양 출신으로 이 노래 역시 부산 지역의 노래는 아닌 듯하다. 첫 부분은 담바귀타령으로 시작하다가 베들노래로 넘어 갔다. 장르 혼합 양상이 드러나는 각편이다. 혼자서 독창식으로 불렀다. 여성요인 베들노래를 남성이 부른다는 것도 특이한 양상이다. \*

기야기야	담바기야
베들노래나	지어보자
복넘에학이	알을낱아야
넘나드는	것더라
복바디	치는소리
학이우는	소리
이베를	짜가지고
어느누구	해줄꺼고
낭군님	바지저고리
지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서울과계	평양과계
진사급지	하도록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112쪽.

[사상구 민요 2]

### 운상소리

T. 사상구 1-앞.  
 사상구 덕포동 신촌마을 경로회관, 1999. 10. 1.  
 오세길, 김창일 조사.  
 최석순(남 · 72세).

\* 힘이 들어 노래로 부르지 않고 말로 구술하였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우리인생	낱을적에	어머니공덕으로	아버지덕택으로
이내일신	생겨나니	이날까지	살아오고
내낱을적에	너도나고	너낱을적에	나도나고
삼육십팔	열덜에	중신아비	중신하고
일관이	낱을반아	일년하고	열두달에

과년하고	열석달에	좋은날	받아가지고
열두폭	처마밑에	열두폭	병풍둘러
동백나무	마주꼬아	청실홍실	인연맺어
백년살자	계약했디	이만살고	이별이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113-114쪽.

[사상구 민요 3]

### 모심기소리

T. 사상구 1-뒤.  
 사상구 덕포1동 노인분회 경로당, 1999. 10. 1.  
 오세길, 김창일 조사.  
 김봉기(여 · 80세).

\* 첫 각편은 소리로 부르다가 나머지는 말로써 구연했다. 혼자서 불렀으나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는 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

한강에다이	모를심어	그모찌기	난감하네
하늘에다이	목화심어	목화따기	난감하네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여
그알한개	주왔어머	금년과계	내할꾸로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114쪽.

[사상구 민요 4]

### 쌍금쌍금 쌍가락지

T. 사상구 1-뒤.  
 사상구 덕포1동 노인분회 경로당, 1999. 10. 1.  
 오세길, 김창일, 김진희, 윤연정, 박승배 조사.

김봉기(여 · 80세).

\* 요사를 많이 잊고 있는 듯했다. 혼자서 말하듯이 불렀다. \*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늦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래라
잣테보이	처잘래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115쪽.

[사상구 민요 5]

### 진도아리랑

T. 사상구 2-뒤.

사상구 덕포동 대아아파트 임시천막무허가경로당, 1999. 10. 2.

오세길, 김창일 조사.

백일순(여 · 76세).

\* 자청하여 불렀다. 제보자는 그냥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진도아리랑 곡으로 불렀다.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제보자가 모두 불렀으나 두 번째 각편에서는 받는 소리를 부르지 않았다. \*

공동모지에	층계층계	질댕아놓고
우리도	죽어지믄	저질로가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났네
이러다가	저러다가	꽃속에들믄
어느야	친구가	나를찾아오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115-116쪽.

### 3) 사하구 민요

[사하구 민요 1]

#### 아기어르는소리

T. 사하구 1-앞~1뒤.

사하구 다대동 다대 서부 경로당, 1999. 9. 3.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손복덕(여 · 75세).

\* 임말순 할머니에게 민요를 청했으나 거절하였다. 이때 손복덕 할머니가 자청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 \*

[제보자 : 자장 자장 뭐 자... 그뿌이지 뭐.] [조사자 : 거 툭툭 두드리면서 하는

거지 예?!] [제보자 : 글치.] [조사자 : 어떻게 합니까? 박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보자 : 자장자장 자장자장 등다리(등허리) 두드리 두달면서 뭐...]

우리애기            뭐

금자동아            옥자동아 뭐

칠기칭송            보배동아

[제보자 : 옛날에 다 이라면 뭐 그라면서 어른다 아이가.] [조사자 : 칠기 뭐예?

금자동아 옥자동아 칠기칭송 뭐...] [제보자 : 보배동아.] [조사자 : 칠기칭송?!]

[제보자 : 보배동아 어.]

우리애기            잔다잔다

[조사자 : 우리애기 잔다잔다 그렇니까? 그러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케겍” 카고 웃고 그러지예?]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늘에서            널짚나

땅에서             숫았나

니가어데서         요래날노

[제보자 : 요래고 그래, 그래 인자 그거는 어루는 기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37-38쪽.

[사하구 민요 2]

### 아기재우는소리

T. 사하구 1-뒤.

사하구 다대동 다대 서부 경로당, 1999. 9. 3.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임말순(여 · 73세).

\* 손복덕 할머니가 노래를 하자 제보자도 이 노래를 기억해 내어 불러 주었다. \*

[제보자 : 자장자장 하는 거는 인자 자장개 하는 기고.] [조사자 : 요렇게 안아가  
지고 자장자장 빠르기는 얼마쯤 합니까?]

자장자장	자장개야
뒷집개도	짓지말고
앞집개도	짓지말고
꼬꼬닭아	잘가거라
공공개야	잘자거라

[제보자 : 이라지.] [조사자 : 꼬꼬닭아 잘 가거라 그 다음에 뭐예?] [청중1 : 꼬꼬  
닭아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공공개야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청중1 : 개가 짖으면 애기 깨거든. 그러이까네 짓지마라.] [청중2 : 별 거를 다  
적을라 캐쌍고 별 거를 할라 캐쌍는다.] [조사자 :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제보자  
: 어진 아들은 그러면 잔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38-39쪽.

[사하구 민요 3]

## 방구노래

T. 사하구 2-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본도 할머니 노인정, 1999. 9. 3.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한수봉(여 · 85세).

\*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면서 일어서는 할머니에게 우스운 노래를 부탁하자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정확히 다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이런 방구노래는 할머니들 끼리 놀면서 우스개 이야기를 할 때 부른다고 하였다. \*

시아바이방구는	우둑방구 [웃음]
시아바이방구는	유둑방구
시할머니	양살방구
신랑방구	단방구
시누부방구는	연지방구
며느리방구는	숨은방구
시누이방구는	양살방구
신랑방구	무슨 [웃음]
며느리방구는	도둑방구
몰래이긴다고	도둑방구 [웃음]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0쪽.

[사하구 민요 4]

## 모심기소리1 [C1]

T. 사하구 3-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김덕염(여 · 80세).

\* 조사자가 모심기소리를 청하였으나 다대동에서는 원래 모를 많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부르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였다. 할머니들이 사상에서 시집온 할머니를 부추겨 노래를 시켰는데, 계속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다. \*

이논에라어이      모를숨아              이모찌기              난감하네  
 맹훤대를어이      끈커들고              이실털러              가자시라  
 [청중 : 박수]

[제보자는 모찌기소리를 마친 후 청중들이 박수를 치자 부끄러워하며 모심기소리를 자청해서 불렀다.]

이논에는어이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어이      산소등에이              [청중 : 이 후 후 후~]  
 모를숨거              영화로다  
 [청중 : 잘 한다.]

[조사자 : 잠이 올 때쯤 되면 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고 왜 참 안 가져오나 그런 것도 하지요?]

짐숨아참아              솔래에여어이              어데짬에              오시는공  
 이등저등              건너등에에              찰이야걸리서              더디던가  
 짐숨아참아              솔래여어이              어데짬에              오시는고  
 시금추야              미나리를              맛본다꼬              더디던가

[제보자 : 그것밖에 모르겠다.] [청중 : 박수] [옆의 할머니가 “이런 노래도 안 있나?” 하면서 요사 앞부분을 부르자 기억이 다시 나는지 이어서 불렀다.]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으야집을              놀러갔네

[조사자 : 참 서글프다. 서글퍼!]

풍당풍당              찰수제비              할망은              어데가고

딸이동자를      시갔더니  
흙~칸            피뎀아씩고      멀국마시기      더욱설네

사공아여이      배돌리라      우리동성      함보러갈래  
너거동성이      어이무슨죄로      절도섬에      귀양갔노

[제보자 : 이것밖에 모르겠다.]

낭창낭창            어이배룩끝에      무정하는      울오라배

[제보자 : 고오는 또 뒤에 사람이 받거든.]

나도죽어            어이하성해야      낭군부텅      정할라네

[제보자 : 뒤에 사람이 받고 거라거든. 앞에 이래 동성(동생)하고 인자 저거하고  
올케하고 떠내리 가는데 그래 머시매가 즈그 오감사(아내)부터 건지거든. 그래 인  
자 즈그 동생이 하는 말이 “나도 죽어 하성해야 낭군부터 저 머…” 낭군부터 저  
먼지로 건져주겠거든. 이제 그기 그래 낫는 기라.]

서월(서울)이라    어이왕대밭에      금삐둘께      알을날아  
그알하나            어이조았으며      금년과게      내할꾸러

[제보자 : 이 또 뒤에 받는 사람이 되야 되거든.]

서울이라            어이왕대밭에      금삐들게      알을날아  
그알보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1-43쪽.

[사하구 민요 5]

## 다리헤아리는소리

T. 사하구 3-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강순남(여 · 74세).

\* 조사자가 치마소리를 들려달라고 했으나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를 흥얼거리며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부르기 시작하였다. \*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동산	맹근	도맹근
추무리	받고	돌받고
연지창	빨래통	

[제보자 : 이라거든.]

[조사자 :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총산맹근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총산	맹근	주맹근
추무리	받고	돌받고

[조사자 : 주거니 받고 돌받고예?]

연지탕에 빨래탕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3-44쪽.

[사하구 민요 6]

### 모찌기소리

T. 사하구 3-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이용희(여 · 77세), 김덕임(여 · 80세).

\* 주위의 할머니들이 제보자에게 노래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제보자는 목이 뻣뻣해서 못 하겠다고 하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와 같이 하자고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였다. \*

이용희 : 한강에다                      어흐모로부아                      그모찌기                      난감하네  
                   하늘에다                      어흐목화숨가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들끼리 요사가 들렸느니 맞느니 하며 실랑이가 한참 벌어졌다. 잠시 후 제보자가 새참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계속하였다.]

울어머니에	어흐산소등에	술을숨가	영화로제
서월이라	어으남정자야	점슴제비가	늦어가네
아랫도장	어흠내리가서	찹쌀닷말	멧쌀닷말
밥한다고	늦어지네		
서월이라	어으남정자야	점슴제비	늦어가네
미나리를	어으시금추야	맛본다고	더디더네
서월이라	어으왕대밭에	금비들께	알을나야
그알하나	어으주왔으며	금년과게	내할꾸로
서월이라	어으남기없다	죽질비네	다리나야
그다리를	어으넘자하니	쿵쿵절사	소리나네
담장밖에	어흐휘날리는		

[제보자가 김덕염 할머니에게 요사를 물어 보자, 김덕염 할머니가 이어서 불렀다. 그러나 제보자가 요사를 잊어버려 주위에 있는 청중을 향해 ‘세이야(형아), 담장 밖에 휘날리는 그라고 머꼬?’ 라고 질문을 한 뒤에 이어 불렀다.]

김덕염 : 담장안에                      어이심은화초                      담장밖을                      후아잡네  
                   질로가는                      여울양반                      그꽃보고                      지낭가네

이용희 : 녁청녕청                      오응베록끝에                      무정하는                      울오빠야  
                   날또죽어                      어으낭군되어                      여자부터                      구할라네

뱃사공아	어으배둘러라	우리동생	보러갈래
너거동생	어으머순죄로	절도섬에	귀양갔노

[제보자의 노래를 듣고 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노래에 참여하다가, 곧 제창으로 노래를 불렀다.]

물기야청청	혈어놓고어	주인내양반	어-어딜갔소
문어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으야방에	놀러갔네

[제창이 계속되자 제보자는 잠시 노래를 그친 후 본래이 이별하고 떠나가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제보자가 먼저 선창을 하자 몇몇 할머니들이 중간 중간에 낮은 소리로 거들었다.]

이용희 : 해다지고	어흐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네
그게가는	어흐그행상은		

[이 부분 이하는 말로 설명했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멈은	어데가고	딸년동자를	시기노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4-47쪽.

[사하구 민요 7]

### 장가타령

T. 사하구 3-뒤.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김윤조(남 · 81세)

\* 제보자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계속해서 부추기자 거의 억지로 노래를 불렀다. \*

만고청산앞에는	사꾸라피고
오는나비	끝없이많고 [청중 : 좋다.]
찬소리어깨	생긴마음은
어느누구가	알아주나 [청중 : 좋고.]
친구라도	기별이네
낭군기별로	오시던데
앞집처자는	시집을가는데
뒷집총각은	목메어죽고 [청중 : 좋다.]
사랑사랑	내사랑이여
사랑이도	그뿐인데
젊을시절에	사랑이지
나가 많으면	그뿐이라
얼씨고절씨고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7-48쪽.

[사하구 민요 8]

## 댕기노래 [C2]

T. 사하구 3-뒤.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김윤조(남 · 81세).

\* 앞의 노래에 이어 제보자가 “황갑사 댕기 두댕기는 처자 앞에 노리개고 유장삿갓 곤방대는 남자앞에 노리개다.” 라고 중얼거렸다. 이에 조사자가 노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자 곧 바로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제보자가 학교 다니기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제보자 : 우리가 이 노래를 이전에 할 짝에 내 한번 몽땅 짜리게 하고 이거로 우리가 흔히 학교 이런 데서는 노래를 기르게(길게) 이래 길게 배워가 할 수 있지 만... 어득(얼핏) 남의 노래가 되는데 그래 되는 긴데] [조사자 : 갑사댕기 그거 한번만 해 보이쇼.] [청중 : 금방 갑사댕기 한 거 그게 옛날노래라. 그 노래 학교 댕기기 전에 부른 노래거든. 갑사댕기 뭐.] [조사자 : 그거 어째 어떻게 합니까?]

[제보자 : 그림 또 해야 되겠네.] [청중 : 박수]

아니 - - - - 아 - 니 노 지 는 - - - - 못 하 리 라

황 갑 사 땡 기 두 땡 기 는 - - - 처 자 어 께 도 - - 노 루 개 고

유 장 샷 - 갓 - - 품 방 대 - 는 남 - 자 어 께 도 노 르 개 라

아니아니	노지는못하리라
황갑사땡기	두땡기는
처자어깨도	노루개고
유장샷갓	곰방대는
남자어깨도	노르개라
장류칠월	십오일에
흰갈매기가	날려드니
날이들면은	어이하나
칭송매로	기울이고
낭주치마	옥중아씨
혹시라도	뒤헛건마는
죽은낭군	타박하면
다시오실줄을	누가아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48-50쪽.

[사하구 민요 9]

### 허랑타령

T. 사하구 3-뒤.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김윤조(남 · 81세)

\* 제보자가 자청하여 부른 것이다. 땡기노래를 마친 제보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먼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후 노래를 불렀다. 강원도식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곡조를 길게 빼면서 불렀다. 제보자는 이 노래를 허랑타령이라 했으나 음곡은 강원도아리랑에 가까웠다. 독창식으로 불렀다. \*

[제보자 : 아, 그 먼... 내 허랑타령 그거 아십니까? 허랑타령 그긴데, 참 그거는 할라카모 허랑타령 그거는 장부타령이 아니거든요. 허랑타령 내가 인자 그 노래를 할라 카모 강원도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 강원도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 말이 있구마는, 편지는 왔건마는, 편지는 왔고, 이제는 진보는 왔건마는, 오세사(요즘에야) 서방님이고 뭐 어떤 사람이래도 왔다 카모 서리 만날라꼬 영 달독을 하는데, 이전에는 참 서방님이 와도 서로 부모 눈이 무서워 과연 그 장소로 못 가거든, 세사(세상에) 서방님이 돈벌어가 오모 오직 좋다 카나. 그냥 따(달려) 가서 만나가고 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그래쌍는데, 이전엔 그라질 못해요.]

내사랑	눈이	떨어지면은
낭군님은	오신다고	전편지로왔건마는
제부모	눈이두려워서	전송을몬가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절씨구	나를넘기만주소

정든님만날적에는	어떻게해야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에만난 것은	꿈인지생시인지	나는몰라주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전기불뵈아서	신작질즐겁기도	[불명]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절시고	나를넘기만주소

네각시	오빠씨는	자동차운전하건마는
우리집	저남편은	제바쿠운전도못하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몽땅넘기주소
즐겁게도	지언마는	오빠씨요
나를고이곶기	길러서러	이렇기좋은
영화시킬라고	그렸는강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네
우리야	신랑은	강원도금강아
강원도	속초로	명태잡이를갔건마는
갈바람	영도야	석달열흘만불어주소
아리랑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0-52쪽.

[사하구 민요 10]

### 멸치터는소리

T. 사하구 4-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김윤조(남 · 81세).

\* 조사자가 멸치 잡을 때 부르는 노래를 들려 달라고 하였다. 제보자는 오래 전의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불러 주었다. \*

[제보자 :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마 우리 멸치배는 마 ‘우여썩 우여썩’ 하는 거 그 뿐이라예.]

우여썩           우여썩  
 털어라         털어라  
 우여썩

[조사자 : 그거 실제처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제보자 : 그거 간단하게 한 곡조가 안 나오는데, 우째 멀리서 배에서 한 배 잡아오면 다 같이 그물 땡기

가 ‘우여쑈 우여쑈.’ 하는 거뿐인데, 며르치가 노란 며르치가 털리거든. 그라먼 ‘우여쑈 우여쑈’ 하는 거뿐이라 하이. 그거는 ‘우여소타’ 이라는데 ‘털어라.’ 이 말 이거든, ‘우여소타 우여소타’ 이긴데 그를(그것을) 따라 갈라모 노래를 해야 하는데 털 새가 없으니 거기 없는 기라. 안 맞는 기라. 같이 힘을 써가 그물을 꺼떡 들어가 툅툅 가면서 툅 터면서 ‘우여쑈 우여쑈자 우여쑈자’ 이거뿐이라요. 매(세계) 털수록 착 털수록 멀치가 착 쏟아지거든. 이라이 ‘니 매 매 털어라 매. 니 매 털어라.’ 이기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2-53쪽.

[사하구 민요 11]

### 방아소리1 [C3]

T. 사하구 4-앞.  
 사하구 다대동 다대서부 경로당, 1999. 9. 10.  
 오세길, 김상용, 백경숙, 김창일 조사.  
 최동수(남 · 69세)

\* 이 지역은 원래 방아소리가 유명하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의 방아소리를 지방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소리는 제보자가 메기고 뒷소리는 좌중의 청중들이 받아 주었다. 메기고받기식(선후창)으로 불렸다. \*

(메) 어 허쿵떡방아야 - 어 허쿵떡방아야 방아방아 - 누방 - 안 - 고

(받) 어 허쿵떡방아야 조상 - 대대로 파방 - 방아 -

(메) 어 허어여방아야 혼자 짙는 - 득구나방 - 아 어 허어여방아야

우리 방아를 함 잘 짙어 봅시다 [청중 : 예.]  
 여러분네 [청중 : 예.]  
 우리 방아를 함 잘 짙어 봅시다 [청중 : 예.]

어허쿵덕 방아야  
어허쿵덕 방아야

[제보자 : 따라 해야지! 어허 쿵떡 방아야 캐야 내가 하지. '어허 쿵떡 방아야'  
'어허 쿵덕 방아야' 따라 해.]

방아방아 누방안고  
어허쿵덕 방아야  
조상대대로 파방방야

[제보자 : 이거 방아가 이래 안 찢어진다야.]

어허이여 방아야  
혼자짚는 독구나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둘이짚는 디들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셋이짚는 먹가레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부마로짚는 돌구나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매로치는 떡돌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물로짚는 물레방아야  
어허이여 방아야  
시오마니 물레짚는  
어허이여 방아야  
처마밑에 엉덩이방아  
어허이여 방아야  
이방아로 짚는곡식  
어허이여 방아야  
그방아를 찢어서

[제보자 : 아이고, 나 못하겠다.] [청중 : 서이 찢었으이 너이도 찢어야 될 거 아  
이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3-55쪽.

[사하구 민요 12]

## 모심기소리2

T. 사하구 5-앞.

사하구 다대동 소방서 옆 경로당, 1999. 7. 18.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조사.

이용희(여 · 77세).

\*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식으로 불렀다. 전승의 폭이 좁아진 탓으로 대를 맞추어 불러 줄 사람이 없어진 탓이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노래의 내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

[제보자 : 옛날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렸는데 그래 여동생은 놔 놓고 지 기집만 데리고 나룻배를 건너더란다. 그래가 인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낭창낭창어	베로 끝에	무정하는	우리오빠
날도죽어	남군대여	여자부터	구할라네
사공은	배돌리라	우리동생	보러가자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귀양가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5-56쪽.

[사하구 민요 13]

## 모심기소리3

T. 사하구 5-앞.

사하구 다대동 소방서 옆 경로당, 1999. 7. 18.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조사.

조연순(여 · 70세).

\* 계속하여 단편적인 모심기소리를 불렀다. 이 역시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

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불렀다. \*

이논에다허이~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모를심어	영화로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6쪽.

[사하구 민요 14]

### 모심기소리4

T. 사하구 5-앞.  
 사하구 다대동 소방서 옆 경로당, 1999. 7. 18.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조사.  
 이용희(여 · 77세).

\* 계속하여 모심기소리를 불렀다. 이 역시 원래는 주고받기식으로 부르던 것인데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불렀다. 요사가 잘 기억나지 않는지 부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였다. \*

임을잃은 그알하나	어왕대발에 조았으며	금비들기 금년과계	알을날여 내할구로
어허~ 미나리여	왕정자야 어허국자야	점슴채비 맛본다고	늦어가네 드디드네
쭈쭈비네 궁궁절사	다리나여 소리나네	저다리를	넘자니
이궁전에허이~ 그비가	비모다네 이비아니라	진주덕산 억만군사	비모드네 눈물이오
이논에라 하늘에는어~	모를심어 목화심어	모찌내기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제보자 : 잘 모르겠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7쪽.

[사하구 민요 15]

## 방아소리2

T. 사하구 5-앞.  
사하구 다대동 소방서 옆 경로당, 1999. 7. 18.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조사.  
조연순(여 · 70세).

\* 자칭하여 불러 주었다. 후렴은 청중들이 받았다. 모두들 흥겨워하며 불렀다. \*

어허덜거덕 방아야  
어허덜거덕 방아야  
이방아는 니방아여  
어허덜거덕 방아야  
강태공이 조저방아  
어허덜거덕 방아야  
조상대대로 짚어오던방아  
어허덜거덕 방아야  
방아방아 무슨방아  
어허덜거덕 방아야  
보리한섬 나락한섬  
어허덜거덕 방아야  
밤새도록 짚고나니  
어허덜거덕 방아야  
동지선달 긴긴밤을  
어허덜거덕 방아야  
방아짚다가 지새왔네  
어허덜거덕 방아야  
쿵덕쿵덕 방아소리는  
어허덜거덕 방아야  
울담밖으로 다넘어가고  
어허덜거덕 방아야  
아낙네들 말소리는  
어허덜거덕 방아야

입술안에서 뱅뱅돈다  
 어허덜거덕 방아야  
 시누씨머리댕기 공중에놓고  
 어허덜거덕 방아야  
 시누올케 치마바람  
 어허덜거덕 방아야  
 여자에몸맵시 고와야좋고  
 어허덜거덕 방아야  
 보리방아밭골은 거칠어야좋다  
 어허덜거덕 방아야  
 박꽃 별어진데는  
 어허덜거덕 방아야  
 오곡잡곡을 담았던방아는  
 어허덜거덕 방아야  
 다보세 새해에는  
 어허덜거덕 방아야  
 억울하게도 매만맞네  
 어허덜거덕 방아야  
 영감아꼬깎아 베틀짜서  
 어허덜거덕 방아야  
 부자집에 밥품대사  
 어허덜거덕 방아야  
 영감님줄라꼬 베틀짜서  
 어허덜거덕 방아야  
 개떡을찌면은 작게나졌나  
 어허덜거덕 방아야  
 서말치솔에다 솔반을찌서  
 어허덜거덕 방아야  
 열두번 찢던곡식을  
 어허덜거덕 방아야  
 나라상단 한입하고  
 어허덜거덕 방아야  
 부모님공양을 한입할까  
 어허덜거덕 방아야

어허덜거덕 방아야  
어허덜거덕 방아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58-60쪽.

[사하구 민요 16]

### 방아소리3

T. 사하구 5-앞.

사하구 다대동 소방서 옆 경로당, 1999. 7. 18.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조사.

방덕용(남 · 73세).

\* 앞의 노래에 이어 자청하여 불렀다. 원래는 메기고받기식으로 부르는 것이나  
여기서는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

어여라 방아야  
이방아는 언제라서  
실농시에 농사지어  
어구로 덜게지어  
이방아로 목메타서  
열두번 실고실어  
오곡잡곡 방아짚어  
상이상품 모아서야  
나라님전에 상납하고  
중리중품 모아다가  
조상부모 고양하고  
제일 끝에 바락바락  
바락바락 밥을짓고  
긴긴바닥 개떡찌서  
처자식을 먹였다네  
보릿고개 삼사월은  
양지쪽에 썩을뜬어  
썩덩이라 별미삼아  
온식구가 오순도순

너먹어라	내먹어라
화목하게	살았다고
병자년	원수풀어
정축년에	값았다고
풍년이다	풍년이다
어와좋다	풍년이세
년년세세	풍년드니
만백성이	품을춘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 부산편』, 민속원, 2010, 60-62쪽.

## 2.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 1) 복구 민요

[복구 민요 1]

#### 양산도(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1 : 김수연, 여, 82세

제보자 2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김수연 제보자가 장구를 잡고 치면서 노래를 구연하였다. 노래 중간에 힘들어서 못 부르겠다고 하면서 쉬었다가 구연하기도 하였다. 중간에 정제임 제보자가 노래를 이어서 구연하였다. 중간에 이야기판이 있다가 다시 제보자가 <양산도>를 불렀다. 이때는 일어나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가창했다. 장구 소리 때문에 가사를 정확히 알아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제보자 1 에헤에헤이요~~

남산봉황이 죽지를 물~고  
저건너 수풀로 돌아든~다  
에어라 디여라

에헤에헤이요~~

천백성 잘나가비 논밭을 사아니~  
신작로야 복판에 다들어 가안~다

아이구! 안 되겠다. 땀이 나서 숨을 못 쉬겠다. 나만 자꾸 시키지 말고 딴 사람도 시켜.

제보자 2 에헤에헤이요~~

노자는 친구는 수만명되~고  
잡자자 친구가 하나로~다

이야라 놓어라 아니나 못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다

(청중 : 좋다.)

시구야 뺏어도 막걸 리가 좋고  
몽딩이를 맞아도 낭군이 좋~다  
이야라 당당당 둥게 두어라  
그래도 못노니~라  
죽었다 캐사도 나는 못놓니라

제보자 1 에헤헤이요~~

가는님 허리를 휘여잡고 가~고  
가느니 못가느니 낙루를 한~다  
에여라 둥게둥게 둥게 디어라  
너는 못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놓으리로다

바람이 불어서 씨러진 나무  
눈비가 온다고 일어나~나  
에여라 디어라 내가 못노리로구나  
능지를 하여도 내가 못놓으노나

바람이 불어도 바람분다는데  
동남풍 디리야불어 바람 많이 불어서  
에여라 둥게 디어라  
아니나 못놓으리겠~네~

장구열쇠 건드리면 군소리가 나~고  
시어마니 건드리면 잔소리가 난~다  
나가 놀아라 어니 못놓겠네  
쥐었던 흘목을 내가벌써 잇겠~나  
에여라 당당 둥게 디어라  
그대로 못놓겠~네

[복구 민요 2]

### 노랫가락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노랫가락 곡조로 분위기를 바꾸어 계속해서 구연하였다. 여전히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구연하였다.

배고파 주는밥상 돌도많고 닉도많고  
니많고 돌많은밥은 임이없는 탓이로다  
임아임아 무정한임아

[복구 민요 3]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청춘가 곡조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장구치기를 잠시 멈춘 후 자리에 앉아서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췄다.

신작로 복판에~ 솔떼우는 영감아~  
정떨어진거~ 못떼워 주느냐  
솔떨어진 것은 기와로 떼우고~  
정떨어진것은 좋~다 솔떨어진 것은 무쇠로 떼운다

[복구 민요 4]

### 큰애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창부타령 곡조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췄다.

배꽃일레 배꽃일레 큰아기야 손수건이 배꽃일레  
배꽃같은 손수건밑에 거울같은동 눈매보소  
누구간장 녹히야자고 저리도 곱기나 치장한다

[북구 민요 5]

###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구연하였다. 조사자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었지만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구연하였다.

역수장마 비끓는날에 우비없이도 살았건만  
이팔청춘 젊은몸이 낭군이없다고 못살겄나  
얼씨구나~ 저얼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북구 민요 6]

### 양산도(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가 다시 장구를 잡고 <양산도>를 불렀다. 장구를 서서 치지는 않고 앉아서 쳤다.

에에~~이여~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어

연지등 ○○○ ○○○ 했~나  
에헤라~~ 등계등계라 아니나놓지 못놀겼네  
연기를 하여도 아니나 못놓으리라

담장은 높아서 좋~고  
술집에 아주머니 고와서 좋~다

징글장글 징글장글 복장구 소리  
어데어데 울대각시 어깨춤을 춘다  
에헤야 놀어라 아니나 못놀겼네  
쥐었던 흘목은 놓을수가 있~나

[복구 민요 7]

###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Y\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수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다시 창부타령 곡조로 바꾸어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계속 앉아서 장구를 치고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배꽃같은 흰나비는 부모님의모상을 입었든가  
소복단장 곱기야하고 장다리발로 날아든다

[복구 민요 8]

### 달 노래 / 달아달아 밝은 달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S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수정,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니 그런 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의 구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기억하며 불렀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토박이(이태백이) 노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히소다  
옥토그로(옥도끼로) 짝어서러  
금도끼로 따듬아서  
초이산가(초가삼칸)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싶네

[복구 민요 9]

### 베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S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수정,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연세가 많아 구연을 하던 중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여 멈추기도 하고, 노래 중간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쉬기도 하였다. 가사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하며 더듬거렸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가사를 정확히 알아 듣기가 힘들었다. 노래의 끝부분에서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연을 마무리하였다.

물레야 돌아가라~  
바랑바랑 잣다가~  
바랑바랑 잣다가~  
구울이를 내다지고~  
도토마리 응애하고~  
얼경절경 이래해가지고~  
도토머리 올리놓고  
허리띠를 매가지고~  
허리띠를 베를탈까  
이리짤가 저리짤가  
덜컹덜컹 짜가지고~

잉애들은 태각태각 돌아가고  
잉엣대는 빼각빼각 소리를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복구 민요 10]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S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수정,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수정 제보자가 갑자기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모심기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불렀으나 가사의 토막토막을 기억한 것에 제보자가 가사를 지어 불렀다. 실제 부르는 <모심기 노래>와 거리가 있다.

우리군사들 일잘한다 여게꽃고 저게꽃고  
우리군사들 잘도한다 얼싸좋다

여게꽃고 저게꽃고 우리양반 눈에도꽃고  
여게꽃고 저게꽃고 우리양반 눈에도꽃고  
우리군사들 잘도한다 얼싸좋다

[복구 민요 11]

### 백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S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수정,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가 끝나자 이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와 청중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다른 노래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구연을 멈추었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지날로 이팔이지  
오는날로 백발됐네  
한심하고 어이없다

[복구 민요 12]

###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영숙, 여,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도라지 타령>을 구연하였다. 다른 청중들과 어깨춤을 추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반실만 넘노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살살 다녹힌다.

[복구 민요 13]

###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Y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영숙, 여,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도라지 타령의 구연이 끝나자 연이어 밀양 아리랑을 불렀다. 제보자는 장구 치고 북도 치면서 덩실덩실 춤도 추었다.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바람이 불어서 씨러진나무  
눈비가 온다고 일어나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넘기주소

와이리좋노 와이리좋노 와이리좋노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넘겨주소

[북구 민요 14]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C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춘자,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등도 좋다고 하니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의 음성이 아주 고왔으며 청중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제보자는 <청춘가>를 부르다가 가사를 더 기억하지 못해서 그만두고, 새로 노랫가락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높이뜬 히꼬끼<sup>554</sup>~ 우런님 실고서  
경선아<sup>555</sup> 시나루 좋~다 유람을 갑시다

---

554) ひこうき. 비행기

555) 경성(京成)아.

칠선 바다에~ 윤선이 실고서~  
울언님 술잔에 좋~다 옥동자도

이 꺼꼐로 갓빔다. (청중 : 새로 해봐라.)

가던 범나비아 조선땅에다 꽃을두고  
들들이나 못오실망정 일년에 한번씩 다녀가소~

[북구 민요 15]

###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C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춘자,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 등도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함께 노래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날이겨주소

무정 세월아 오고가지마라

아까운 내청춘 다늠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네야 가슴에 불씨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넘어간다

[복구 민요 16]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M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화명그린아파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문정선,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주고받기식의 노래인데 혼자서 구연하였다. 가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제보자는 예전에는 아주 길게 구연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 노래 부를 일이 없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모심기 노래>를 박수를 치면서 여러 편을 연이어 불렀다. 청중들이 잘 부른다며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어 주었다.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또 받는 노래는.

울언님에가   어디를가고   동자할줄   모르이르고

다풀다풀   다박머리에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어머니야   산소등에   젓먹으로   내가가요

이논에다가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이로다  
어린자식을   갓을씨와서   부귀영화   볼것이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네언제커서 열매열래  
구세월이라 닥쳐오면 나락열고 쌀될라네

아래웃눈에 모꾼들아 춘삼월이 어느때고  
울언넌네가 길떠나갈때 춘삼월로 오마이더라

글쿠고 가더마 다시 안 온다.

이고개저고개 양산고개 점심고리 넘나드네

안자 점심 이고 간다.

야야이동무야 한양가자 나도야점심 다되었네

오늘낮에야 점심반찬에 무슨고기 올랐는고  
삼천포야도 판장안에 독조구<sup>556)</sup>가 올라있다네

[복구 민요 17]

###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M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화명그린아파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문정선,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한 후, 청중들과 조사자가 박수를 치면서 잘 한다고 하자 제보자는  
“모 찌까 또”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모판을 들어내세  
에와이내세도 에와서내세 이모판을 에와이내세

[복구 민요 18]

###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

556) ‘조기’의 의미인 듯.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MJ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화명그린아파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문정선,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다 구연 한 후, 조사자가 다른 노래들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이제 없다고 하였다. 다시 제보자가 예전에 아기 어를 때 불렀던 노래를 아는지 묻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가사의 내용 일부를 정확히 구연하지 못해 말로 설명을 해 주기도 했다.

어디갔다 네왔더네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불매불매 불매야  
서울갔다 오맨서  
밤한톨이 주어갖고  
새앙쥐가 다까먹고  
한톨이가 남았구나  
껍질라큰 애비주고  
보니라큰 애미주고  
알을라큰 니랑내랑 갈라묵자

[북구 민요 19]

###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MJ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화명그린아파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문정선,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불매소리>를 구연한 후, 조사자가 예전에 불렀던 <자장가>도 좋으니 불러 달라고 했다. 제보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야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북구 민요 20]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PJ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박지조,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다른 청중들이 권유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와 청중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면 흥겹게 <모심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산저산 양산중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우리집은 어데두고 양산중에 슬피우노

[북구 민요 21]

###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PJ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박지조,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하고 난 뒤 조사자가 다른 노래도 불러달라고 하자 이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요즘엔 <모심기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중간에 양인화 제보자가 잘 부른다고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다른 청중은 빈 그릇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기도 하였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한상할래(환생할래)  
이달커고 저달커고 구시월에만 (한승할래)<sup>557)</sup>

[북구 민요 22]

### 도라지 타령

557)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서인숙,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도 좋으니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를 중심으로 다른 청중들과 함께 구연하였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리 반찬만 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헤용~  
어이야 난다 지화자가 좋다  
내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북구 민요 23]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I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서인숙,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도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노래의 앞부분이 녹음되지 않았다.

( )<sup>558</sup> 동창에~ 굶은비 오고서  
예배당 동창에~ 임의생각 나는구나

[북구 민요 24]

###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IS\_0003

---

558)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서인숙,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제보자에게 자장가 가운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하자 모른다고 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뒷집개야 짓지마라  
앞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북구 민요 25]

###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S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심순남,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청춘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가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노래를 마친 뒤, 예전에는 잘 불렀는데 요즘엔 안 불러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노세 놀아 늙어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일장 춘망(춘몽)인데 아니나 노지를 못하리다

좋다.

[북구 민요 26]

### 달 노래 / 달아달아 밝은달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S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심순남, 여, 78세

구연상황 : 다른 청중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제보자가 자진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타백이 노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백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따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시다가  
철년말년 살고지아

[북구 민요 27]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S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심순남,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는데 구연 중에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구연을 멈춰서 가사를 다시 기억하다가 노래를 이어 불렀다. 제보자는 구연 중에 가사를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낭창낭창)<sup>559</sup>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서 처자근석을 걸리보자

옛날소리 다 잊어뻘다. 또 뭣이 있노?

저청마리 끝에 무정하다 울오바야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근석을 섬기보자

---

559)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자가 유추하여 작성한 부분임.

[북구 민요 28]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와 청중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오늘날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더노  
전라도라 독산조기 마리마리가 올랐더라

[북구 민요 29]

### 쾌지나 칭칭나네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구연한 뒤 조사자가 다른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쾌지나 칭칭나네>를 짧게 구연한 후 다시 처음부터 불러야 하겠다고 했다. 제보자가 흥이 나서 어깨춤을 추면서 즐겁게 구연하였다.

쾌지나 칭칭나네  
이산저산 넘어가네  
    쾌지나 칭칭나네  
꽃이피면 화천이고  
잎이피면 청산리라  
    치지나 칭칭나네  
알가는데 워낭소리  
우리형님은 어데가고  
고초당초를 모르당가

치지나 칭칭나네  
포름포름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꽤지나 칭칭나네  
옥에갈힌 춘향이는  
날오기만 기다린다  
이산저산 넘어가네  
우리부모 늙어마는  
꽤지나 콩콩나네

[북구 민요 30]

###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꽤지나 칭칭나네>가 끝나자 <창부타령>을 이어서 불렀다. 빈 그릇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면서 신나게 구연하였다.

아니노지를 못하리로다  
해다지고 저무신날에 옷갓을입어서나 어데가요  
침의집은 꽃밭이되고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무어신고 모르겠구나<sup>560)</sup>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북구 민요 31]

###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

560)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말을 얼버무리며 이렇게 불렀다.

제 보 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을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니가 잘나서 일색이더나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를 돌려나보자

[복구 민요 32]

###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화투 타령을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빈 그릇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었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정월솔가지 속석인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똑떨어진다  
팔월이라 한가윗날  
달도 좋고 물도 좋더라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북구 민요 33]

### 달 노래 / 달아달아 밝은 달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화투타령>을 부른 후에 이어서 <달 노래>를 구연하였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힌달아  
옥도끼를 찍어내고  
금도끼를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천년만년 살고싶어  
천년만년 살고싶다

[북구 민요 34]

### 아기 어르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을한되 얻어다가  
챗독안에 열어나니  
머리깎은 새양쥐가  
나미들미 다까묵어  
다문하나 남은거로

껍데기는 애비주고  
고늬는 에미주고  
알키는 니강내강 갈라먹자

[복구 민요 35]

### 아기 재우는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아기 어루는 노래>가 끝난 뒤 조사자가 예전에 아기 재울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빈 그릇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우리애기 잘도잔다  
꺼둥개야 짓지마라  
니가올면 내가올고  
내가올면 니가운다

[복구 민요 36]

### 파랑새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구연을 유도하자 청중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꽃에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푸장사가 올고간다

[복구 민요 37]

### 아기 재우는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IH\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양인화, 여, 85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조사자가 구연을 계속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른 청중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

쥐는쥐는 궁계자고  
새는새는 낭계자고  
우리같은 아야들은  
엄마품에 잠을잔다  
어제왔던 새악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그란다.

[북구 민요 38]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LB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복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이야기 외에 <모심기 노래>도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기억나는 대로 부른 것이다.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를 잊어버려 제대로 구연하지 못했다.

모야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땀박땀박 수접이는(수제비는) 사오상에(사위 상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딸에동자로 시깁는가

낭청낭청 벼락 끝에(벼랑 끝에) 무정하던 울오랍아

우리 또 하모 남자가 되어, 안 된다. 군자 해야 말이 안 된다.

[북구 민요 39]

### 닐리리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LB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복순, 여, 79세

구연상황 : <모심기 노래>의 구연이 끝난 뒤, 조사자가 부를 수 있는 다른 노래는 없느냐고 묻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다른 청중들과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얼싸 좋고 얼씨구나 좋다  
범나비는 이리저리 폴폴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북구 민요 40]

###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LB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복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먼저 이 노래를 부르자 다른 청중들도 함께 불렀다. 제보자는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구연하였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입을잃어 운다  
너냥내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복구 민요 41]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I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화명그린아파트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임필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농사지을 때 불렀던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것이라 잘 기억 했는데 지금은 다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다른 노래도 부르고 싶은 듯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서마지기 논빼미에 반달걸이 내나가네<sup>561)</sup>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도 반달이지

[복구 민요 42]

###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불렀던 전통 민요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박수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구연하였다.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죽어지면은 허사되고  
만구호걸 진씨왕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이팔청춘 젊었을덕에 근심걱정 다버리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자

[복구 민요 43]

### 창부타령(2)

---

561) '남아가네'의 의미인 듯.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 한 뒤, 장구를 한 번 쳐보겠다고 하면서 장구를 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장구 소리 때문에 노래의 가사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장지장지 사장개야 너를 찾아서 사장개야  
너와나와 만났더니 장다리 발으로 날라가네

[북구 민요 44]

### 양산도(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장구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장구 소리 때문에 가사를 알기 어려웠다.

에헤에헤~요  
시고뎀어도 막걸리가 좋~고  
언니가 좋고 ○○○○ 좋~다

[북구 민요 45]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장구를 치면서 계속 구연하다가 힘이 들어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하면서 자리에 이 노래를 앉아서 구연을 하였다.

우리집 몽당이<sup>562</sup>여~ 거물장 하여도~  
나오는 신명을 좋~다 가둘수 없구나~

놀다가 갑시다~ 놀다가나 갑시다~  
이만이나 모았일 때 좋~다 놀다가나 갑시다~

우리가야 놀면은~ 장년이 노나요~  
가랑앞에 이슬같이 좋~다 잠깐이로다~

[북구 민요 46]

### 창부타령(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한 후, 다시 장구를 치면서 흥겹게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구연하였다.

백옥같은 흰나부는 부모님의 몽상을 입었든가  
소복단장 곱기야하고 장다리 발으로 날아든다

[북구 민요 47]

### 양산도(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이 노래를 계속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여전히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구연하였다. 장구 소리 때문에 가사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에헤헤이요~

---

562) '몽둥이'의 의미인 듯.

청치매 밑에다 소주병을달 고~  
○○문 밤 한철로 가노라

[복구 민요 48]

### 뱃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JI\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한 후, 다시 장구를 치면서 흥겹게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이 서로 다른 가사들을 섞어가면서 불러 가사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어야라나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죽고 네가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나 죽거나  
우리집에 ○○○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를 가잔다

[복구 민요 49]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HM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함민자, 여, 80세

구연상황 : 박지희 제보자의 <모심기 노래>가 끝나자 함민자 제보자가 연이어 다시 같은 노래를 불렀다.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구시월에 환승할래

[북구 민요 50]

###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HM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함민자, 여, 80세

구연상황 : <모심기 노래>의 구연을 마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는 어릴 적 아기를 볼 때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엔 부르지 않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정상도 대불매다  
부르락 딱딱 불매야  
부르락 딱딱 불매야

[북구 민요 51]

###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HM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1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함민자,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불매 노래>를 마친 뒤 다시 <모심기 노래>가 기억이 난 듯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빈 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구연하였다. 중간에 옆에 있던 청중 한 분도 함께 불렀다.

남창남창 베루끝에 무정하는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곤석 섬길레라

[북구 민요 52]

### 뽕 따러 가세

자료코드 : 04\_21\_MFS\_20100123\_PKS\_S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서인숙, 여, 76세

구연상황: 제보자가 다른 청중들과 한참 담소 나누다 갑자기 자진해서 이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과 제보자가 함께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이 노래는 이른바 '중년 소리'로 신민요 가락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뽕따러가세 뽕따러가요  
무주화산으로 뽕따러가세  
뽕도나따고 님도나보고  
검사검사로 뽕따러가세

[복구 민요 53]

### 가을바람 찬바람에

자료코드: 04\_21\_MFS\_20100121\_PKS\_JJI\_0001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구포당산경로당

조사일시: 2010.1.21

조 사 자: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정제임, 여, 87세

구연상황: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구연한 뒤 장구를 내려놓고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가을바람<sup>563)</sup>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뚝아○를 가거들랑  
안맹하신 적에부적  
편지일장을 전해주오  
심청이 창문열고 들어가서  
편지한장을 쓰가지고  
창문밖에 내다보니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09-345쪽.

563)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임.

## 2) 사상구 민요

[사상구 민요 1]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경옥선,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리 세기 노래>를 어떻게 불렀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어렸을 때 놀면서 불렀던 것이라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만주 도만주  
짜발로 해양근  
유다유다 전라도  
경상이 먹어서  
하늘에 온다 제비콩

[사상구 민요 2]

### 주추 캐는 처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O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경옥선,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먼저 <다리 세기 노래>를 부른 뒤, 젊었을 때 친척 아저씨에게 배운 노래라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강원도라 금강산밑에 주추캐는 처녀-녀야  
너거집은 어디다두고 해가져도 주추만캐나  
울의집은 심심산천 안개나속에 삼간초간에 집이오  
오실라면은 오십시오 가실라면은 가십시오  
우리집이는 못살아도 나는좋아

[사상구 민요 3]

### 노랫가락(1)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BL\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김복림, 여, 83세

구연상황 : 손순자 제보자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제보자가 바로 이 노래를 시작했다. 노랫가락으로 부르는 일명 '그네 노래'였다. 노래 중간에 청중도 "좋다"라며 추임새를 넣고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수천당 세모야저낭개 가지가지다 추천을메여 (청중 : 좋다.)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임야타면은 임이민다  
저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사상구 민요 4]

###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BL\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김복림,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화투 타령>의 앞부분 사설을 조금 부르면서 제보자에게 노래를 청하자, 제보자는 천천히 기억을 하며 읊조리듯이 구송했다. 그러나 끝부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정월솔가지<sup>564</sup> 솔솔한마음  
이월매자에<sup>565</sup> 맺아놓고  
삼월사꾸라에 산란한 마음  
사월흑사리에 흠어지고  
오월난초에 날라온나비

564) 이 부분은 녹음이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이다.

565) '이월 매조에'의 뜻임.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나비가 날라와서 춤 잘추고, 칠월,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서  
팔월동산에 달이뜨고  
구월국화 굳었던마을  
시월단풍에 흠어지고  
동지설달 서남풍에<sup>566)</sup>

뿔이라 카고 기 있는데.

[사상구 민요 5]

### 노랫가락(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BL\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김복림,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가사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하면서 한번 불러 보겠다고 한 뒤 바로 다음 노래를 역시 읊조리듯이 불렀다. 노랫가락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리

어디 빌려 안 가고 나물 묵고 물 마시고, 부부간에 팔 비고 눕우(누워) 있으니  
꺼네 그 이상 더 좋은 기 없다고.

[사상구 민요 6]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S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

566) '동지설달 설한풍에'의 뜻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김성훈,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리를 세며 부르는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그 노래를 안다고 하면서 다리를 펴서 다리 세기 놀이를 하는 흥내를 내며 다음 노래를 했다. 노래 중간에 청중이 끼어들어 같이 하기도 했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근 도맹근  
도래김치 장두칼<sup>567)</sup>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선달 대서리

[사상구 민요 7]

### 신세타령 / 나무하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D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삼락동강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박대근, 남,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모를 심거나 나무를 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느냐고 하며 제보자에게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했다.

추강월백<sup>568)</sup> 달밝은밤에 벗없는 이내몸은  
어덯침침 빈방안에 외로이도 홀로누어  
밤은척척 야심투룩 침불언석<sup>569)</sup> 잠못들고  
몸부림에 시달리어 꼬꼬닭을 울렸구나  
오늘밤도 뜬눈으로 새벽맛이를 하였구나

[사상구 민요 8]

### 나물 캐는 노래

567) ‘도래주머니에 있는 장도 칼’의 뜻임.

568) 이 부분은 제보자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569) 침불안석(寢不安席), 즉 걱정이 많아서 편안(便安)히 자지 못함의 뜻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M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박만년, 여, 88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노래를 끝내자마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바로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던 중에 조사자들이 어려서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부르기를 꺼려하다가 뒷부분을 조금 더 불렀으나 결국 마지막 부분은 부르지 않았다.

남산밑에 남대롱아(남도령아)  
서산밑에 서처자야  
나물하러 가자시나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라오는 늦고사리  
시복보에 [말로 빠르게] 귀로 맞차 놓고  
저거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이거는 아들한테 이바구를 해가 안 되는데. (조사자 : 아유,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아도 아니고, 우리가.)

여덟폭치매는 이불로삼고  
허리띠는 벗어(벗어) 두통비개<sup>570</sup>삼고  
단속곳 벗어 요로삼아  
저거들이 [말로 빠르게] 사랑을 하는구나

[옹조리듯이 빠르게]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려오는 늦고사리  
시복보에 귀로맞차

그 끝에는 잡소리라. 너거인테 돈 갈차 준다.

---

570) 두통베개. 둘이 벨 수 있는 긴 베개.

[사상구 민요 9]

### 베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M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박만년,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부른 후, 조사자가 옛날에 베 짜거나 길쌈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사설이 잘 기억나지 않는지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베틀농자 베틀농자  
베틀다리는 니다리요  
선녀다리는 두다리  
안치널을 걸안치나  
지름대로(지렛대로) 지른  
눌림대는 호불애비  
잉엣대는 삼형제  
그베채를 사흘만에  
마쳐(마저, 모두)씻거  
옥돌에서 두드려서  
처당씨게 한당씨  
개당씨게 한당씨  
임의웃을 비고나이  
쭈치한갑 내었구나  
그쭈치를 지어  
허리휘청 지어다  
올라가는 행상놈아  
내라오는 행상놈아  
그쭈치 귀경할라고  
서른냥이

그 전에 서른냥이 되게 돈 많았거든.

서른냥이 지값이다

그 끝에 있구만. 다 내뺐렸다.

그베채를 사흘만에  
맞찮도다 맞찮도다  
옥돌에다 뚜드려서  
임의웃을 비어보자  
처당씨게 한당씨게  
대당씨게 한당씨게  
줍치한갑 남았든가  
줍치를 지어  
허리휘청 꾸어달고  
올라가는 행상놈아  
내라가는 행상놈아  
허리거꾸로 열고  
삼천냥이 지값이다.

그거 마이 있구만, 다 잇아뺐다.

[사상구 민요 10]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M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박만년,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 노래도 해 보겠다며 부른 것이다. 가사를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자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모심기 노래>로 부른 것인데, 사설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한 듯하다.

이모야뱀이야<sup>571)</sup> 모로숨겨 장잎이혈피도<sup>572)</sup> 장개로다

---

571) '이 모야 논뺨미야.'의 뜻임.

572) '아무렇게나 피어도'의 뜻임.

우리야아부지 산소끝에 솔나무로숨가 장잎이허벌피도장이라

이모야뱀이야 모로숨거 장잎이혈피도 장개로다

진네양반 어디갔는고 첩의야방에서 놀러가네

[사상구 민요 11]

### 칭칭이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MN\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박만년,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칭칭나네”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부르겠다며 이 노래를 불렀다. 혼자서 메기고 받는 소리를 모두 불렀으며, 앞에서 불렀던 <나물 캐는 노래>와 <베를 노래>를 다시 칭칭이 소리 장단에 맞추어 불렀다. 그러다 다 불렀다고 하며 잠시 쉬고는 다시 노래를 기억하여 부르는 등 몇 차례 반복했다. 청중들이 계속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어 주었다.

첫달(첫닭)올어 밥을해

아가 칭칭나네

두희올어 밥을묵고

아가 칭칭나네

등을가면은 바람이치고

아가 칭칭나네

앞울(옆울)가면은 사태가진다

아가 칭칭나네

고실가몬 물이있다

아가 칭칭

이것 봐라. 이것밖에 모르네 봐라.

서산밑에 서쳐자야

아가 칭칭나네

나물하러 가자시나

아가 칭칭나네  
올라가는 올고사리  
아가 칭칭나네  
너라오는(내려오는) 늦고사리  
아가 칭칭나네  
시복보에 귀로맞차놓고  
아가 칭칭나네  
저거들이 사랑하네  
아가 칭칭나네  
여덟폭치매는 이불로삼고  
아가 칭칭나네  
허리띠는버자 두통비계(베개)에 삼고  
아가 칭칭나네  
단속곳버자 요로삼고  
아가 칭칭나네  
저거들이 사랑을해서  
아가 칭칭나네  
첫달울어 밥을해야  
아가 칭칭나네  
두회울어 밥을먹고  
아가 칭칭나네  
시회울아<sup>573)</sup> 짐떠난다  
아가 칭칭나네  
등을가몬 바람이치고  
아가 칭칭나네  
앞을가몬 사태가진다  
아가 칭칭나네  
고실가몬 물이있다  
아가 칭칭나네  
올라가는 올고사리  
아가 칭칭나네  
내라오는 늦고사리

---

573) '세 번 회를 울어'의 뜻임.

아가 칭칭나네  
저거들이 십억보에  
귀로맞차 놓고  
여덟쪽치매는 이불로삼고  
단속곳벗아(벗어) 요로삼고  
허리띠는접아(벗어) 두통베개삼고  
저거들이 사랑을한단다 [웃음] [청중 박수]

베틀농자 베틀농자  
아가 칭칭나네  
앞다리는 낮이낭상 낮게놓고  
아가 칭칭나네  
뒷다리는 도디동산 높게놓고  
아가 칭칭나네  
지렛대로 지른양은  
아가 칭칭나네  
놀림대는 호불애비  
아가 칭칭나네  
잉엣대는 삼형제라  
아가 칭칭나네  
용두마리 우는소리  
어제아래 시집온  
[말로 읊조리며] 새각시 노래하는 형객이라  
베틀농자 베틀농자  
사흘만에 맞췄던가  
그베한틀 재여보니  
오십다재가 짜졌는가  
찝어가지고  
옥돌에서 뚜드려  
임의웃을 기워보자  
처당씨게 한당씨게  
개당씨게 한당씨기  
쭈치한갑 남안  
저쭈치를 끼어

허리휘청 끼어놓고  
올라가는 행상놈아  
내라오는 행상놈아  
그줌치 귀경할라카모  
삼천냥이 지값이다

그 끝엔 다 잊자뻘다. 뻘다. 그 끝엔 …….

첫달울어 밥을했다  
아가 칭칭나네  
두희울어 심발한다  
아가 칭칭나네  
시희울어 짐떠난다  
아가 칭칭나네  
앞으로가며는 사태가진다  
아가 칭칭나네  
고실가몬 물이있 [숨이 차서 중단 후 웃음]

고실 가모 있다. 그거 마 참 몬 한다.

[사상구 민요 12]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SS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손순자, 여, 71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다리 세기 노래를 하고 나자, 조사자가 제보자에게도 한 번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다리를 툭툭 치면서 다음 노래를 불렀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서맹근 두맹근  
짹바리 희양발  
도래짐치(도래주머니) 장두칼

[사상구 민요 13]

### 베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OK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오경임, 여, 95세

구연상황 : 조사자와 청중이 제보자에게 <베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노래로 부르지 않고 사설을 빠르게 읊조리듯이 구연했다. 중간에 청중이 노래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말을 매우 빨리 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오늘도 할일없어  
 옥난간에 베틀놓고  
 금사나 짜라하고  
 분틀에 두른양은  
 천영에 부재한듯  
 어뿔싸 흥나들이  
 행이가 알을안고  
 패운강에 나대는듯  
 포대주 치는양은  
 북만산천 좁은골에  
 벽력치듯 울리는듯  
 옛대세 ○○<sup>574</sup>)  
 피나지나 가는질에  
 은하수를 빗기는듯  
 첫발이라 영긴양은  
 동에서서 무시갠가  
 폭으로도 앵긴난듯  
 누깃대 잼긴양은  
 태공방 낙숫댄가  
 우수강에 잼긴난듯  
 누깃대 쟁긴양은  
 태공방 낙숫댄가

574) 얼버무리듯 말을 하여 알아듣기 힘들다.

우수강에 잦긴난듯

거시기 저 뭐냐.

병은사침<sup>575</sup> 채선양은  
이천자 향장군  
침중에 달라들어  
만군사로 해치난 듯

그 다 남자들이 진 노래다.

도투마리 휘놓는양  
구시구시<sup>576</sup> 단풍에  
바람지어 휘놓는달  
한낫백대 드는양은  
이남시 저남시  
시인정 굶어모실때  
만군사로 훌치난듯  
그물개 끈끈해야  
오색물을 갖춰들어  
우리님의 창해를 지어보까  
올아바니<sup>577</sup> 창해를 지어보까  
우리님의 창해나 지어보세

그리고 불렀다.

[사상구 민요 14]

## 아기 어르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OK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

575)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

576) '구월시월 구월시월'을 줄여서 표현한 말.

577) '우리 오라버니'의 뜻임.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오경임, 여, 9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알면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는 잘 모르고 아기 어르는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읊조리듯이 구연한 것이다.

어허둥둥 내아들아  
어허둥둥 내아들아  
얇은산에 도토리  
짙은산에 밤탱인가  
어화둥둥 내아들아

또 뭐이냐. 또, [먼저 읊조렸던 사설을 다시 읊으며 생각한 후에]

동개동개 내아들아  
모래밭에 수박둥이  
둥글둥글 잘크더라  
어허둥둥 내아들아

[사상구 민요 15]

## 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OK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오경임, 여, 9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먼저 웃으며 “이 노래 한 자리 불러주까? 이 노래지 이 노래.”하며 다음 노래를 읊조리듯이 구연했다. 쉽게 들을 수 없는 해학적인 노래인데, 노래로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이야이야 갈강니야  
니주댕이 쫓긋해도  
말한자리 해봤느냐  
이야이야 갈강니야  
니등어리 납작해도  
남의힘성 천살적에<sup>578)</sup>

돌한덩이 저봤느냐  
이야이야 갈강니야  
니발이 여덟이래도  
수곶포시<sup>579)</sup> 걸었느냐  
이야이야 갈강니야  
좋게놀자 좋게놀자  
행제간에 좋게살고  
친구간에 좋게살자  
이야이야 갈강니야  
어디가서 만나꺼나 (만났거나)  
한번불에 타지몬 그만이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사상구 민요 16]

### 물레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OK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오경임, 여, 9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물레 노래나 한 번 불러보겠다며 하면서 다음 노래를 불렀다. 약한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물레야 자세야  
어리빙빙 돌아라  
넘의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사상구 민요 17]

### 아기 어르는 노래 / 알강달강요

---

578)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웠다.

579) '살포시'의 뜻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S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이상순, 여, 85세

구연상황 : 김성훈 제보자가 아기 어르는 노래로 '불매소리'를 다 부르지 못하고 끝내자, 제보자가 이런 노래가 있다며 읊조리듯이 했다.

밤을한되 고아다가  
살강밑에 열어났다  
머리카만 새양쥐가  
오민가민<sup>580)</sup> 다까묵고  
다모한개<sup>581)</sup> 남은거로

그래 하고 이랬다 우리.

[사상구 민요 18]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J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우성아파트노인회 사랑방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정일선,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다리 세기 노래를 한 번 불러보라고 청하자, 제보자는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이렇게 불렀다.”고 한 후에 다음 노래를 불렀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도맹근 도맹근  
도래줍치 장독칼  
섬안에 등같이 꼬빱

580) '오며가며'의 뜻임.

581) '다만 한 개'의 뜻임.

[사상구 민요 191]

###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HS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한석옥, 여, 81세

구연상황 : 청중 사이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자 제보자가 처음부터 불렀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만포복썩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난다

[사상구 민요 20]

### 정선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HSO\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한석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를 부른 후 바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노래 중간에 청중이 잠시 같이 부르기도 했다. 정선아리랑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사설만 부르고 여음은 부르지 않았다.

물레야 물레야방아는 물살을안고서 비빙글배뱅글 도는데~  
우리집의 저멍텅구리 날안고돌줄 모르나-

한치뒗산에 곤드레딱죽이 낮에님맘만<sup>582)</sup> 갈아도  
고곳만 뜯어나 먹어도 봄살어난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건네 주게  
앞남산 사래꽃 검은동박이 다쏟어진다

[사상구 민요 21]

### 노랫가락

---

582) 낮에 님 마음만.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HSO\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고동바위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사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보자 : 한석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그네 노래도 부른 적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노랫가락으로 부른 것이다.

수천당 세모진낭게 높다랗게나 추천을메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나밀어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77-397쪽.

### 3) 사하구 민요

[사하구 민요 1]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K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강기점,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였다.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구연 상황은 양호했으며 제보자는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울울아바  
나도죽어 균자되어 처자곤석만 섬길란다

[사하구 민요 2]

###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K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강기점,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의 구연을 마친 뒤, 조사자가 <화투타령>을 부를 줄 아느냐고 하자 이 노래를 불렀다. 다른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세여볼까 세어나볼까  
화토로한모 세여볼까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단이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될동말동  
사월흑사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십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 달이둥실밝아  
님에생각 꿈이더나  
앉아서니 님이오나  
누워서니 잠이오나  
님도잠도 아니나오고  
모진강풍이 날속인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3]

###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K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강기점,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창부타령> 곡으로 부른 <화투타령>에 이어서 계속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의 끝부분에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연을 마쳤다.

남산밑에 남도령아  
오만잣나무 다비나따나 오죽대한쌍만 비지마오  
오월좋아 풍년을좋아 낚싯대를 후아놓고  
창밖에라 불들거들랑 어떠한처녀를 낚을란다  
잘나가면 열녀가되고 못나가면 상사되고  
열녀상사로 고맏어놓고 옷풀림고름만 살아간다

앞동산은 청춘가요 뒷동산천에 푸른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굽이굽이는 봄춘자라  
꺾어내라 영화가열어 일월이한강 인물이났다  
일월이거든 깨지를말고 맹월이거든 두지마오

아 대서 못하겠다.

[사하구 민요 4]

###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KN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김남순,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는지 박수를 치면서 이 노래를 구연했다.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야 달도차면 기우나니  
인상(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사하구 민요 5]

### 청춘가(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KN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김남순,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불렀다.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으나 청춘가이다.

뭇땀에 늙었나~ 뭇땀에 늙었나 ~  
팔십이 되도록 좋~다 뭇땀에 늙었나~

싫컬랑 고만두라~  
산넘어 산있고~ 좋~다 물넘어 물있더라

니가 잘나서~ 천하의 일색이나  
내가 못나서~ 좋~다 바보가 되더냐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나 있것만은  
인간의 늙은거는 쓸곳이 없더라

좋~다 탐내지마라 모진손으로 꺾들마라  
꺾을라거든 버리지말고 버릴라거든 꺾들마라

나비는~ 봄한철이고  
금붕어 연못은 좋~다 산상이로다

[사하구 민요 6]

###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KN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김남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니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는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배고파서 받은밥상은 닢도많고 돌도많네  
 닢많고 돌많은것은 임없는 탓이로다  
 우리는 언제나 유정님 만나서  
 닢없고 돌없는밥을 먹어나보나 좋~다

춤나온다 춤나온다 굿거리장단에 춤나온다  
 이장단에 춤못추면 어느냐장단에 춤을추나

[사하구 민요 7]

### 청춘가(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KN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김남순,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자연스럽게 구연하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저산에)<sup>583</sup> 지는해가 지고짚어 지느냐  
 날두고 가는님이 으~응 가고짚어(가고 싶어) 가졌나

왜또왔나 왜또왔나 울고나 갈때를 왜또왔나

○○ 담배는 내심중 알아주는데  
 한품에 든님은 어~언 내속을 모르더라

술도 술도리 잘넘어 가졌만은  
 찬물에 냉수는 시끝에<sup>584</sup> 두는구나

[사하구 민요 8]

### 화투타령

583)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584) '혀끝에'의 의미인 듯.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KS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김상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화투타령>을 부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가사를 읊조려 본 다음 이 노래를 불렀다. 평소 화투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모서보세 모서보세<sup>585)</sup>~  
화토탄뭇을(화투 한 모를) 모서보세  
정월솔가지 속속이던져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흐리양반  
오월난초 노자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정든님 하나를 맺어두고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독떨어졌네  
오동추야 달밝은데  
정든님 하나를 맺어두고

[사하구 민요 9]

## 태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태평가> 한 소절을 부탁하자 씩스러워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

585) '모셔 보세'의 의미인 듯.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간증을 부리서 무엇하나~  
인생~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노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10]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어릴 적 하던 <다리 세기 노래>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직접 다리 세는 행동을 취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맹근 또맹근  
짹바리 해양근  
도루매 줌치 장독간

[사하구 민요 11]

###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의 <다리 세기 노래>가 끝난 뒤, 조사자가 다른 노래를 더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오늘보면 초맹인데(초면인데) 내일보메는 구맹이라(구면이라)  
구맹초맹 다꽃이나놓고 재미있기를 놀아보소  
꽃은꺾어서 머리에꺾고 잎은훔쳐서 입에물고  
산에올라 들질을가니 가는햇님이 내엄보고 넘어가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다 저절시고

[사하구 민요 12]

###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 등도 좋으니 아는 노래는 다 해달라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고개  
정단이 고개는 한고개요  
얼씨구나 저절씨구나 지화자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할까야

[사하구 민요 13]

###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청중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보자가 갑자기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제보자는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추천당<sup>586)</sup> 세모시낭게 돌이비자고 그네를매와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얼씨구나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586)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사하구 민요 14]

###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MH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문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도 좋다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리 반손만 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에헤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시리살살 다독히네

[사하구 민요 15]

###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P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박영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쌍금쌍금'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구연하였다. 주위가 산만하였으나 제보자는 끝까지 진지하게 다음 노래를 불렀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멘데보이 달일래라  
잘해보이 처잘래라  
저처자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가질세  
천두복시 오라부니  
그짓말씀 말아주소  
나함풍이(남풍이) 디리부니  
풍지우는 소릴래라  
맹지수건 목에걸고  
따개칼로 품에안고  
자는듯이 죽고지라

[사하구 민요 16]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SMK1\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서말금,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소리>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다른 제보자에게 조사를 하던 중 제보자가 자신이 해 보겠다고 하면서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자 청중들이 '모노래'라고 했다.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사하구 민요 17]

###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SMK1\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서말금,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옛날에는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모를 심지 않아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연을 거부하더니 혼자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곧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원래 앞소리와 뒷소리로 구성되어 있던 노래인데 혼자서 구연하였다.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솔을심아 영화로다

[사하구 민요 18]

###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SS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송순찬, 여, 78세

구연상황 : 청중들이 모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보자가 불쑥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구연하던 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힘들게 구연하였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울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입을찾아서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19]

### 아기 어르는 노래(1) / 금자동아 옥자동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아기를 어를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흥겹게 구연하였다. 청중들도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추임새를 넣어 주었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니어디 갔다가 인자와~  
노란나비를 건내다가  
속곳밀을 적시가지고~

우리나라 모구단지가  
노란다리서 다되갔네~  
어허둥둥 어데서왔나  
니어디갔다 어데서왔나  
니얼굴을 내가보니  
눈은뽕뽕 새별눈이요  
코를보니 유자코요  
얼굴을보니 뽕뽕뽕뽕  
입을보니 앵두입슬  
귀를보니 꺾꺾귀요  
손을보니 꼬스락손이라  
니어데 갔다가 인자왔나

어찌나 좋은지 할무이가 이래 한다. 어른다 손지를.

[사하구 민요 20]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구연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기억하여 불렀다.

물고철철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에야전복을 손에들고 첩의야방으로 놀러갔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마이는 어데가고 딸을동자를 왜시깃노

[사하구 민요 21]

### 아기 어르는 노래(2)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모든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맨고  
불어라 딱딱불어라~  
전라도에 불매든가  
강상도라 불매든가  
불어라 딱딱불어라~  
어디서 니가낳노  
누가누가 너를낳노  
어데사 니가 인자왔나  
첩첩산중에서 니가왔나  
침기녕쿨 머레녕쿨(머루녕쿨)  
칭칭걸려서 니가왔나  
앞을봐도 만냥이고  
뒤를봐도 만냥인데  
누가너를 나영논고(낳았는가)  
불매불매 이불매야  
어디서왔길래 이렇기좋아  
앞을봐도 만냥이요  
뒤를봐도 만냥인데  
불매불매 내불매야  
이렇기좋은 불매가왔어

[사하구 민요 22]

##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도 좋다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시작하였다. 제보자가 구연 도중 다 같이 하자고 말하자 청중들이 모두 박수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를 못가서 발병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요네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요네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찰밥에 꽃꼽아놓고~  
두레난실 두레난실 날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사하구 민요 23]

##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노래가 끝나자 제보자가 자진해서 바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오늘해가)<sup>587</sup> 다졌는데 우연(원)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댁이를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사하구 민요 24]

###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SDN\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두남, 여, 9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 혹은 <청춘가> 등도 좋다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다른 청중들도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아주 흥겹게 구연하였다.

에헤아~야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노자놀아 젊어서놀아 늙어야지면은 못노느니 (청중 : 얼씨구.)  
봄이왔어 봄이왔네 이강산삼천리 봄이왔어  
남원복청 보리타작은 방방곡곡 농부간데 (청중 : 좋다.)  
송백수야 푸른초가집 높다랗게 분배를놓고  
오고가는 지인들이 오락가락을 부쳐날때  
걸어온다 걸어온다 남한에광한로<sup>588</sup> 춘향이가  
열섬같은 버선발로 살끔살끔 걸어온다  
니가무슨 반달이라고 고통계도 살끔걸어나  
초생달이 반달이고 보름에 저달이 온달이다  
얼씨구나 절씨구 정말로 좋다  
요렇게나 좋다가는 논팔아영겠다

[사하구 민요 25]

###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587)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588) '남원의 광한루'의 뜻임.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도 좋다고 하면서 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노세 놀아라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자춘몽인데 아니노지를 못하리까

[사하구 민요 26]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와 청중이 이야기를 하던 중 제보자가 이 노래를 해보겠다고 먼저 나서서 노래를 불렀다. 옆에 있던 청중도 함께 불렀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가고 저달가고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사하구 민요 27]

### 방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방귀타령> 같은 종류의 노래는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가사로만 전해 주었다. 소리로는 할 수 없느냐고 하자 이것을 노래로는 불러 보지 않았다고 했다.

시아버지 방구는 두둑방구  
딸애 방구는 연지방구

메늘(머느리) 방구는 도둑방구

[사하구 민요 28]

음담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음담요나 외설요 같은 노래도 부를 수 있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한참을 이야기 하던 중에 박수를 치면서 창부타령 곡조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이 듣고는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시베리아 만주벌판에  
좁쌀섬말을 뿌렸더니  
썩새란놈이 다까먹고  
빈쫂대만 갖다놨다

[사하구 민요 29]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등의 노래도 구연해 주면 좋다고 하자 제보자가 다른 사람과 말씀 하던 중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자진해서 이 노래를 시작하였다. 노래의 끝부분에서는 가사만을 제시하고 웃음으로 마무리하였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몽상을 입었든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다리발으로 넘어가네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요러치 좋다가는 딸놓겠네 [웃음]

[사하구 민요 30]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창부타령>에 이어 <청춘가>를 불렀다. 노래를 끝낸 후 노래의 가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청중들이 이진옥 제보자는 노래를 잘 한다고 말했다.

우수경첩에이요 대동강이 풀리고~  
당신의 말한마디 좋~다 내맘이 다풀리네

[사하구 민요 31]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 보 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리 세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조사자와 함께 다리를 세는 놀이 동작을 취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몇 번 반복해서 구연했으나 결국 노래 전체를 구연하지는 못했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주맨경 또맨경  
웃도웃도 전라도

모르겠다. 아까 했는데. (청중 : 그래 안 칸다.)

[사하구 민요 32]

### 창부타령(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른 노래를 계속 하던 중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노래를 많이 구연하였기 때문에 다소 지쳐 보였다.

잊어라 잊어라 꿈이로구나  
모두가 잊어라 꿈이더라  
잊어야만 옳은줄 알면  
나도 버연히 알건마는  
어리숙은 미련이 남아  
이래도 못잊어 한이로구나

[사하구 민요 33]

### 성주풀이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정초에 지신밝기 할 때 불렀던 노래를 아시는 것이 없다고 하자 제보자가 성주풀이 일부를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는 악기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내면서 구연했다. 조사자도 팽과리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내면서 제보자의구연을 보조했다. 노래하다 중간 중간 내용을 말로 설명해 주었다.

자자자자 자자자자<sup>589)</sup>  
어헤야 성주님아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성주님을 모시다가  
이집성주님은 어데갔노

다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인자 쌀하고 술하고 우라가지고,

어허어허 성주님아

589) 팽과리 소리를 구음으로 한 것이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성조님을 모시고와서

캐가지고…….

[사하구 민요 34]

###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시작했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맘은 어디가고~ 딸을동재 시깃든고~

[사하구 민요 35]

### 창부타령(4)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LJO\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이진옥, 여, 7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구여하였다.

황해도라 긴골목에 처녀야총각이 악수하네  
처녀뒤에는 총각이딸코 총각뒤에는 처녀딸네  
금가락지를 후여잡고 밀어라닥치라 남이볼라  
죽어서면은 정주껏지요 쥐어던 손목은 못놓겠네  
엘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함경남도 행수기생 꽃가지를 꺾어안고  
임아임아 정든님아 꽃이좋나 내가좋나

꽃이있어 좋지마는 너한테다가 비할소냐  
엘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사하구 민요 36]

###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JY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전연옥,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들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가사를 되새긴 후 구연했다. 조사자가 노래 제목이 뭐냐고 하자 제보자는 그냥 <아리랑>이라고만 했지만, <청춘가>로 부르는 노래였다.

높은은 상산에이요 외로야 선나무 ~  
날강같이도 좋다 외로이 섰구나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우지  
조그만한 여자속이 좋~다 깊은~들 얼마나 깊을소냐~

간다 못간다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거정 마당에 좋~다 한강수로다

니가 잘나서 천하의 일색이나 ~  
내눈이 어두워서 좋~다 한정이더냐 ~

[사하구 민요 37]

###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J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정영순,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하고 중간에 다른 분이 이어서 노래를 하였다.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 높은사람 하해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한 가물음에 빗방울같이도 반견사람  
엘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도 못하리라

저녁밥을 먹고서요 휘양을 써고서 어디가요  
첩의집을 갈러거들랑 나죽눔꼴이나 보고가소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인데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 금붕어는 사철이요

[사하구 민요 38]

###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JY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정영순, 여, 81세

구연상황 : 앞서 부른 창부타령이 마음에 덜지 않는다며 옆에 있던 청중이 다른 것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구연 중에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말로 설명하다가 마무리하였다.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 높은사람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람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방울같이도 반긴사람

강주하에 양귀비요 이대롱에는 춘향이요  
일년삼백 육십일에 아니 놀고는 못하다리

봄들었네 봄들었네 이강산 삼천리 봄들었네  
푸른것은 버들이요 붉은것은 누름인교

[사하구 민요 39]

###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5\_PKS\_JY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2층 학성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황영태

제보자 : 정영순, 여, 81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다리 세기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조사자가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조사자와 다리 세기 행동을 취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청사맹건 도맹건

도래중지 청두칼

이거 뭐꼬? [웃음] (조사자 : 짝발이 희양갓.)

딱발이 희양갓

(청중 : 웃도 웃도 전라도.)

[사하구 민요 40]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조연순,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시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는 모심기 노래를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청중들은 모두 조용히 집중하여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논에다이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어이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사하구 민요 41]

### 방아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Y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서부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6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조연순,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한 후 노래를 시작하였다. 제보자가 노래하고 청중은 다 같이 박수치며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함께 노래를 하였다. 제보자는 원래 이 노래를 부산광역시 문화제로 출품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했다. 이 노래는 사하방아소리로 다대포문화보존회에서 별도의 보존회를 만들어 2010년 현재 14회째 공연을 이어온 것이다.

어허 덜커덕 방아야	어허 덜커덕 방아야
이방아는 이방아요	어허 덜커덕 방아야
강태공이 조작방아	어허 덜커덕 방아야
조상대대로 짚어오던방아	어허 덜커덕 방아야
우리도한번 짚어보세	어허 덜커덕 방아야
쿵덕쿵덕 디딜방아	어허 덜커덕 방아야
철커덕철커덕 가래방아야	어허 덜커덕 방아야
방아방아 무슨방아	어허 덜커덕 방아야
보리한섬 나락한섬	어허 덜커덕 방아야
밤새도록 짝고나니	어허 덜커덕 방아야
동지선달 긴긴밤을	어허 덜커덕 방아야
방아짚다가 짝새왔네	어허 덜커덕 방아야
쿵덕쿵덕 방아소리는	어허 덜커덕 방아야
울담너머로 다넘어가고	어허 덜커덕 방아야
아낙네들 말소리는	어허 덜커덕 방아야
입술안에서 뱅뱅돈다	어허 덜커덕 방아야
신화씨몸뎡이 공중에두고	어허 덜커덕 방아야
처자야몸맵시 곱아야좋고	어허 덜커덕 방아야
보리방아받고는 걸치레야좋다	어허 덜커덕 방아야
안~고는 무르진데는	어허 덜커덕 방아야
오곡잡곡을 떠먹거마는	어허 덜커덕 방아야
아아요세에 새애기는	어허 덜커덕 방아야
억울하게도 매만맞네	어허 덜커덕 방아야
영감아곶감아 개떡잡쉬	어허 덜커덕 방아야
부자집에 밥핥두소	어허 덜커덕 방아야

영감님줄라고 개떡을찌서 어허 덜커덕 방아야  
 개떡을찌거든 작게나졌나 어허 덜커덕 방아야  
 섬말치술에 석반을짜서 어허 덜커덕 방아야  
 열두번짚는 곡식을 어허 덜커덕 방아야  
 나라상반 아니하고 어허 덜커덕 방아야  
 부모님봉양을 안할손가 어허 덜커덕 방아야  
 어허 덜커덕 방아야 어허 덜커덕 방아야

[사하구 민요 42]

### 노들강변

자료코드 : 04\_21\_MFS\_20100125\_PKS\_CG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5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황영태, 박지희

제보자 : 최계수,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같은 노래도 좋다고 하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는 박수를 치고 장단을 맞춰 가면서 구연하였다. <노들강변>은 본래 문호월 작곡 신불출 작사의 신민요 유형가이지만, 전통 경기민요의 음계를 이어받은 노래로 이후 대중적인 민요로 인식되어 널리 불리게 되었다.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돌려서 매어나볼까  
 예헤~요~  
 봄버들도 못민~오리로다  
 푸르러진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452-481쪽.



## Ⅲ. 문헌 소재 민요

1. 북구 민요
2. 사상구 민요
3. 사하구 민요



## 1. 복구 민요

[복구 민요 1]

### 새는 새는

새는새는 남게자고  
쥐는쥐는 궁게자고  
나는나는 울어마니폼에자고

미꾸랭이 썰에놀고  
송어색기 물에놀고  
나는나는 울어마니폼에노네

註. 남게(나무에)、궁게(구멍에)、울어마니(우리 어머니)、미꾸랭이(鰍)、썰, 감탕、溝泥)。

\*『금성』 제2호(1924.1), 92쪽.

[복구 민요 2]

### 아해 재우는 노래

옹야옹야  
우리애기 잠잘잔다  
우리애기 잠자는데  
앞집개도 짓지마소  
뒤스집개도 짓지마소

\*『금성』 제2호(1924.1), 92쪽.

[복구 민요 3]

### 비야 비야

비야비야 오지말아  
우리성이 식집간다  
가마문에 비들친다  
당홍치마 어룡진다  
註 성(兄),

(東萊 孫重子 寄)

\*『금성』 제2호(1924. 1), 92쪽.

\*\*이상 [복구 민요 1]부터 [복구 민요3]까지 '동요'로 동래 손중자(孫重子)가 기고한 것. 손중자는 손진태(孫晉泰)의 아명이며, 당시 동래는 동래군으로 손진태가 소년시절 거주했던 구포에서 조사한 민요로 파악됨.

[복구 민요 4]

## 식집사리

성아성아 四寸성아  
식집살이 엇더트노  
애야애야 그말마라  
중우버슨 식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드라  
쏘고마한 도리관에  
수저늦기도 어렵더라  
쏘고마한 수박계우  
밥담기도 어렵더라

註. 성(兄)、중우(單襪)、도리판(圓形의 小食床)、수박계우(西瓜形의 食器)。

톡톡치는 저날개는  
우리식아바니 주고지고  
꼭꼭꼭는 재주둥이는  
우리식누의 주고지고  
싹싹해비는 저발톱은  
우리식어머니 주고지고

註. 이것은 매(鴈)를 보고 식집살이를 노래한 것、媳父는 每事에 덤혀주는 것이 만타 함이오、식누이는 쏘집어 말을 하고、식어머니는 過失을 잘 파내인단 말.

(東萊 孫重子 寄)

\*『금성』 제2호(1924. 1), 93쪽.

\*\*이상은 '동요'로 동래 손중자(孫重子)가 기고한 것. 손중자는 손진태(孫晉泰)의 아명이며, 당시 동래는 동래군으로 손진태가 소년시절 거주했던 구포에서 조사한 민요로 파악됨.

[복구 민요 5]

### 등지 (插秧歌)

노래의 一節一節은 서로 獨立하여 있고, 한 節 가운데. 첫재들은 「주는 노래」이요, 둘째재들은 「받는 노래」이올시다. 이 노래는 男女를 勿論하고, 함씩 부르는 노래입니다.

물길랑청청허러눅코 主人兩班어디갓소.

문어야전복손에들고 畝의방에놀너갓소.

○

서울이라왕대밭해 금비들기알을나아

그알한개내주엇든들 금년과거내가할걸.

○

나뉘야한쌍가는길에 이슬이자저못가갓네

매화야대를씩겨주고 이슬털너가자시야.

○

서울갓든우리선배 어디만치오시는고

오기야오지마는 칠성판에실녀온다.

○

아가아가우지마라 죽은어미젓이나나나

씩구야씩구야쫓지마라 죽은남게물이나나.

(註) 씩구 啄木鳥, 남게=나무에.

○

님이야죽어서연자되여 충실싯혜집을지어

날면보고들면보아도 님인줄은내몰낫네.

(註) 충실=침하

○

곽안에들은娘子시야 이러케가면언제올고

초록에이슬은 해만지면오것마는.

○

저귀가는저구름아 엇더나神仙타고가노  
대국이라턴자봉에 노든神仙타고가네.

(註) 엇더나=엇더한

○

ैयाैया쳐자야 너를보니 금음밤에 달본듯다  
ैयाैया총각아 너를보니 오동지섯달에솟본듯다.

(註) 듯다=듯하다

(東萊 孫重子 寄)

\*『금성』 제3호(1924. 2), 73쪽.

\*\*이상은 '민요'로 동래 손중자(孫重子)가 기고한 것. 손중자는 손진태(孫晉泰)의 아명이며, 당시 동래는 동래군으로 손진태가 소년시절 거주했던 구포에서 조사한 민요로 파악됨.

[복구 민요 6]

### 오록쫄록 一篇

[八八九]

아자바싸자바 어대가노

새자부러 간다

한마리자바 꾸바묵자

두마리자바 썰지묵자

썰지낭게 불이부터

오록쫄록 박쫄록

오즘이쌀금 방구 탕

\*애기를 어루면서.

꾸바=구어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3쪽.

[복구 민요 7]

### 치위 一篇

[八九〇]

치바라치바라 칩도당

건넛도당 냇도당

아아하나는 씨색기

어른하나는 쌍나구

\*추울 때 골목으로 다라나면서.

치바라=추어라, 아아=아이, 씨=쥐, 쌍나구=당나귀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3쪽.

[복구 민요 8]

### 遊戲 二篇

[八九一]

오-해침々 달넘에

이영사 저영사

쌍금사주지를 넘-자

\*여러 아희가 二隊를 지어서 對立하여 손을 이어 잡고 番갈나 代便 아이들의 팔을 넘는 遊戲.

[八九二]

싸래기바다 달(닭)주고

딩기바다 개주고

온쌀바다 니캉내캉

갈나무고 통

\*널 찢새 것해서 차례 기다리며 어서 失足하라고 쫓는 처녀의 치마스자락이 날리는 것을 簸米의 形狀에 빗쳐서

니캉내캉=너와 나와, 통은 통 찢러져 달나는 뜻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3-254쪽.

[복구 민요 9]

### 諷笑 二篇

[八九三]

부앗네 부앗네  
東쪽조지 부앗네  
달앗네 달앗네  
西쪽십이 달앗네

\*줄다리기 시작 前에 兩便 아이들이 서로 놀리며  
東쪽=東쪽

[八九四]

가자가자 감나무야  
오자오자 옷나무야  
시리미테 곰백이야  
가장없서 몬살겘나  
내엘모래 장애가자  
돌문둥이하나 어더쫓게

\*갓치 놀다가 한 아이가 「가자」고 하면 미워서 놀려주노라고.  
시리=시루, 곰백이=곰팡이.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4쪽.

[복구 민요 10]

### 數謠 三篇

[八九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청사 맹건 도맹건  
도리 줌치 장독간  
서울 양반 두양반  
진주스댁이 열석냥  
싸무구 싸우 양지 버리  
범 사지  
노랭이 조치 쌍

\*二十九數. 편 가를 새와 씹을 새 갓치 놀 아희들을 一列로 세워 두고 兩便 장수가 차례로

첫 아희부터 시작하야 「이거리 저거리」로 헤여(머리나 가슴을 집흐면서) 「쌍」에 當하는 아이를 제 군사로 뽑는다. 군사가 數에 모자랄 때는 쫓 아희에서 다시 첫 아이로 도라오되 쫓 아희는 곱해이지 아니 하며 𨮒은 「장독간」으로 쫓치기도 함.

[八九六]

쫓개 망개  
시드리 호망개  
개 아 들  
\*七數.

[八九七]

한등거리 두등거리  
쫓록쫓록 감씨  
능금 다래  
아이 어른

\*八數. 다리 헤일 𨮒여려 다리를 이러케 외이며 하낫식 헤여 「어른」에 當한 다리는 쫓고 쫓 쫓고 하야 맨 나종에 남은 다리 임자에게는 「붓두막에 안진 소금장사 양쌀은 이놈일세」하며 그 다리를 𨮒려주면 다린 아희들은 拍掌大笑. 이것을 「수박장사노리」라 함.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4-255쪽.

[복구 민요 11]

### 꼬리짜기 一篇

[八九八]

아리고 배야  
무슨배 자래배  
무슨자래 갑-자래  
무슨갑 연지갑  
무슨연지 호랑연지  
무슨호랑 씨치호랑  
무슨씨치 하도씨치  
무슨하도 들-하도  
무슨들 내아-들

\*갓치 놀든 아이가 배 아프다 핑계하고 싸지려 하면.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5쪽.

[복구 민요 12]

### 장타령 一篇

[八九九]

셋바람반지 下端장  
너무칩어서 몬보고  
나리건너 鳴湖장  
船價가업서 몬보고  
골목골목 釜山장  
질문차자 몬보고  
구벽구벽 龜浦장  
허리가압파 몬보고  
미지기짰다 密陽장  
싸개를묵어서 몬보고  
고개넘어 東萊장  
다리가압파 몬보고  
아가리크다 大邱장  
너무널너서 몬보고  
이산저山 梁山장  
山이만아서 몬보고  
코푸럿다 興海장  
밧거러버서 몬보고  
똥샷다 求禮장  
냄세가나서 몬보고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5-256쪽.

[복구 민요 13]

### 각설이타령 六篇

[九〇〇]

어-허리고 정조타  
허리고허리고 정조타  
품바품바 각설아

작년에왔든 각설이  
아니죽고 쏘왓소  
품 품 각설아  
저리고 저리고 정쫓네  
이놈의각설이 이래도  
돈이나돈스도 버리면  
어허친구 내하세

이놈의각설이 이래도  
한 장쫄만 몬보면  
지집자식 굶긴다  
품바품바 각설아

[九〇一]

총각죽은 구신은  
처자방으로 달나들고  
처자죽은 구신은  
총각방으로 차자든다

[九〇二]

一字나한장 들고바-  
일이나송々 야송송  
밤스중샛별이 완연하다  
二스字나한장 들고바-  
晉州妓生 義岩언  
倭將清正 목을안고  
晉州南江 찌러젓다  
三스字한장 들고바-

三月이라 三辰날  
제비쌍々 나라들고  
使臣行次 밥분길  
點心참에 중애로다  
五ノ字한장 들고바－  
五關斬將 關雲將  
赤兔馬를 빗겨타고  
화룡道로 다려든다  
六字한장 들고바－  
六觀大師 性眞이  
八神仙덕고 戲弄한다  
七字한장 들고바  
七月七夕 牽牛織女  
烏鵲橋로 만낸다  
八字한장 들고바－  
八月이라 秋夕날  
울긁쓸긁 조흘시고  
九字한장 들고바－  
구월이라 菊花꽃  
花中君子 일너잇고  
十字한장 들고바－  
식거럽다 각설아  
한푼밧고 물너가러라  
\*덕고=더리고

[九〇三]

一字나한장 들고바－  
正月이라 大보름  
온갖世上 맛나보고  
二ノ字한장 들고바－  
二月이라 梅花꽃  
각씨태룡(타령) 하기조타  
三ノ字나한장 들고바－  
三月이라 櫻桃꽃

處子각씨 맛보네  
四八字한장 들고바－  
四月이라 初八日  
觀燈하기도 조흥시고  
五字나한장 들고바－  
五月이라 端午날  
處子각씨 나라든다  
六字한장 들고보니  
각설이時代가 이째요  
七字한장 들고보니  
沐浴하는 處子몸  
이레도저레도 조쿠나  
八字한장 들고바－  
八月이라 팔자타령  
어이할고 이자식  
九字한장 들고바－  
處子생각 절로난다  
十字한장 들고바－  
十月이라 각설이  
요리조리 다라났다

[九〇四]

東萊釜山 처자는  
작으나크나 알배기  
機張蔚山 처자는  
매옥장사로 다나가고  
多大影島 처자는  
갈파래장사로 다나가고  
○○○○ 처자는  
개십풀장사로 다나가고

[九〇五]

개대라리는 송철이  
소대가리는 죽철이

머정스방木枕이버러진대는  
빈대배록이 지책이요  
할마니밧강이 버러진대는  
영감봉알이 지책이라

\*대가리=頭, 배록=벼룩, 지책=제 格, 밧강이=밧구멍.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6-258쪽.

[복구 민요 14]

## 방구 二篇

[九〇六]

시어마니방구는 양쌀방구  
시아바니방구는 유독방구  
시하래비방구는 호령방구  
시누부방구는 개살방구  
쌀애기방구는 臙脂방구  
새실랑방구는 風月방구  
사우방구는 영통방구

\*시누부=식누의.

[九〇七]

질로질로 가다가  
돈을한푼 주앗네  
그돈한푼 가지고  
씩을한나 사가아고  
묵고나니 쫓이네  
도라보니 친구네  
씨고보니 방구네

\*以上是 東萊釜山地方 民謠 中 特히 釜山에서 만히 부르는 것.

於 東萊  
孫 晉 泰 採集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8-259쪽.

\*\*이상 [八八九]부터 [九〇七]까지의 민요는 손진태(孫晉泰)가 동래에서 채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동래는 당시의 행정구역인 동래군을 뜻하는 것으로, 손진태가 동래군 구포지역에서 채록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록했다.

[복구 민요 15]

### 아리랑 十一篇

[九〇八]

담넘어갈때는 큰마음묵고  
門소리잡고는 발々씨네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九〇九]

靑天하늘에 별도만코  
호래비살님에 말도만타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九十〇]

閨慶새재 박달나무  
흥독개방맹이로 다나간다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九一一]

노다가소 노다가소  
저달이지도록 노다가소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췌여라 노다가세

[九一二]

靑絲초롱에 불발켜라  
죽엇든郎君이 도라오리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九一三]

북곰새울거든 봄온줄알고  
하모니카 불거든 날온줄아소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얼시고 노다가세

[九一四]

시어만이죽으라고 축사했드니  
보리방아물부아노코 생각난다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九一五]

시어만이죽어서 新作路복판대고  
이내몸죽어서 自動車대세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쭈여라 노다가세

[九一六]

문풍紙써러진데는 풀스비가지작이요  
우리님달개는데는 金錢이지작이라(916)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달개는=달래는

[九一七]

하가씨한장에 一錢고厘해도  
님의야소식이 無消息이로세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얼시고 노다가세

[九一八]

無情有情은 錦繡야江山  
돈씨다가돈씨러지면 寂寞江山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

\*이상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9-260쪽.

[복구 민요 16]

### 俗謠 一篇

[九一九]

왜왓드냐 왜왓드냐  
울고갈 것을 왜왓드냐  
이왕지사 왓거들낭  
하룻밤이나 쉬여가소

東萊郡 龜浦  
李庚得 報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1쪽.

\*\*이상 [九〇八]부터 [九一九]까지의 민요는 ‘부산’ 민요로 동래군 구포 거주 이경득(李庚得)이 제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구 민요 17]

### 개지랑이 七篇

[九三四]

하늘에는 별도만코  
개지랑칭々 나-내  
시내강변에 자갈스도만타  
개지랑칭々 나-내

[九三五]

상어개기 개길는가  
불침자식 자식일는가  
    캐지랑칭々 나-내

[九三六]

의부스애비 애빌는가  
다신애미 애밀는가  
    캐지랑칭々 나-내

[九三七]

헌두디기 이도만코  
흠아비살남에 탈도만타  
    캐지랑칭々 나-내

[九三八]

적어나크나 동무네야  
오늘저녁에 노라보세  
    캐지랑칭々 나-내

[九三九]

이기주소 이기주소  
우리東쪽 이기주소  
    캐지랑칭々 나-내  
\*이기=이겨

[九四〇]

이기주소 이기주소  
우리西쪽 이기주소  
    캐지랑칭々 나-내

東萊郡 龜浦  
李庚得 報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5쪽.

\*\*이상 [九三四]부터 [九四〇]까지의 민요는 ‘동래’ 민요로 동래군 구포 거주 이경득(李庚得)이 제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구 민요 18]

農謠 二十篇

[九四四]

압집에 동무네야  
뒷집에 동무네야  
梅花스대 썩거지(쥐)고  
日光이 도닷시(스)니  
이실털너 양(안)갈낭가

[九四五]

漢江에 모를부어  
그모씨기 낭감하다  
하늘에 木花를심어  
그木花짜기도 낭감하다

[九四六]

이논뽕이에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父母 산수스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九四七]

단장에에 씬은하초  
단장박글 후아님네  
질로가는 호걸양반  
그쫓보고 질문간다

[九四八]

서울이라 왕대바테  
금씨들키 알을노아  
그알하나 주앗더면

금년과거 내할쑤로

[九四九]

서울양반 洋皮나배자  
금강처녀 솜씨로다  
유리야장판 도벽방에  
굳실굳실 노라난다

[九五〇]

점심아 식이든술이  
어대만춤 오는고야  
나-南山 모래이  
도니라고 더딤도다

[九五一]

여게꽃고 저게꽃고  
主人네마느래 거게꽃고  
솝기는 솝아시나  
陰달이저서 뎡똥말똥  
\*뎡똥말똥=뉘지 말지

[九五二]

모시야적삼 안섭안에  
연적가튼 저젓보고  
담배씨만치만 보고가소  
만이보면 병남니더(다)

[九五三]

侍女야고름 안스고름은  
고름숫마중 좃내난다  
酒泉洞압흘 지내가니  
안이묵어도 술내난다

[九五四]

尙州야陝川 흥골못에  
蓮쌈짜는 저처자야  
蓮쌈줄쌈 다짜주께  
이내품에 情들거라

[九五五]

총각아총각아 손목놋케  
길상紗저구리 등갈나진다  
길상紗저구리 등갈나지면  
애이紗바다서 등바다주마

[九五六]

사공아 배씩여라  
우리동생 보러갈네  
느그동생 무삼죄로  
影島섬에 귀양갓노  
\*느그=너의

[九五七]

찢내야꽃흙 대치내여  
임의보선에불을거러  
임보고 보선보니  
보선줄뜻이 가망업네

[九五八]

저건너라 노양江에  
개기낙는 침지들아  
이내일신 썬지다가  
陸地박게 노아주소  
\*썬지=건져

[九五九]

화룡道라 썬은질에  
曹孟德이 사라나고

임당수라 집푼물에  
沈淸이가 사라난다

[九六〇]

울몽窓박게 저창깨굴아  
오든질을 행해가라  
자든龍이 구부를치면  
너목심이 업시리라

\*자든龍=本男便을 가르쳐, 울몽窓=月驟窓인가.

[九六一]

저게가는 저處子야  
속곳가래 늦코가소  
늦코가나 들고가나  
秀才거게 계관이요

\*終句는 「무슨 相關이나」란 뜻.

[九六二]

난들산이는 오를썩가  
매-자구 잠잘썩가  
이- 후々々々

\*난들산이는 저녁에 나무에 오르는 새 일흠. 매-자구=매-자구 하고 우는 새.

[九六三]

씨-르씨리 어데갓노  
씨-르씨리 산어에갓소  
오거들낭 보고가소

\*以上是 二十餘年 前부터 불너오는 모숨기 노래. 終末 二篇은 破場에 부름.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6-269쪽.

[북구 민요 19]

## 옛날옛적 一篇

[九六四]

옛날옛적 간날갓적  
나무접시 소년스직에  
특수바리 영감스직에  
무자수 골농(勸農)스직에  
너불미기 살두스직에  
아々 어른스직에  
어른 아々스직에  
그럴스직에 한사람이잇섯거든—  
\*이야기 시작할 初頭에.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9-270쪽.

[복구 민요 20]

### 遁辭 一篇

[九六五]

이바금지가 저바금지를지고  
베렁박에 올라가다가  
포리뒀다리에 채이서  
너을씨드란다  
\*이야기 하랄 때.  
베렁박=壁, 포리=파리, 너을썸다=씨러진다.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70쪽.

[복구 민요 21]

### 이(風) 一篇

[九六六]

옷에이는 白당춘이  
머리이는 감々춘이  
춘아춘아 감々춘아

니(너)발이 六발인들  
 남애성상 지을썩에  
 사새팔방 도랏너냐  
 니등어리 납닥하니  
 돌한등이 저왓너냐  
 니조딩이 쫓빃하니  
 죽은낭게 玉笛한曲 불넛너냐  
 너이름이 싹금이니  
 잔말업시 싹죽어라  
 \*이를 잡아죽일 썰.  
 조딩이=嘴.

東萊郡 龜浦  
 李必南 報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70쪽.

\*\*이상 [九四四]부터 [九六六]까지의 민요는 ‘동래’ 민요로 동래군 구포 거주 이필남(李必南)이 제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구 민요 22]

## 구포 대리 지신놀이

### 당산지신 놀이

어리여루 지신아 지신지신 울리자  
 울리자 울리자 당신지신을 울리자  
 대법천하 당산신님 제사천하 당산신님  
 삼십삼차 당산신님 이십팔차 당산신님  
 어지지하 당산신님 후투지신 당산신님  
 동방청제 당산신님 남방적제 당산신님  
 서방백제 당산신님 북방흑제 당산신님  
 중앙황제 당산신님 하해지신 당산신님  
 남방대장군 당산신님 서방대장군 당산신님

동서남북 당산신님 묘진진사 당산신님  
 오미신방술 당산신님 유술해방 당산신님  
 모신신왕 당산신님 당선선왕 당산신님  
 병당곳꾼 당산신님 청룡백호 당산신님  
 주자현무 당산신님 산신굿노 당산신님  
 일백이회 당산신님 삼백사또 당산신님  
 오황육백 당산신님 칠천팔백 당산신님  
 이당산에 왕래한자 재수점지 하여주소  
 당신님의 은덕으로 안가태평 하여주고  
 가는곳마다 정기받아 부귀공명 하여주고  
 조선팔도 다맹겨도 소원성취 이루소서  
 일년이라 열두달에 하루같이 넘어가소

## 가정방문 지신풀이

### 1) 성주풀이

어이여루 지신아 성주지신을 울리자  
 세상천지 개벽후에 태고천지 돌아올때  
 유유피창 하늘천자 지방지시 열려있고  
 전치오행 따지자 축방축시 별을얻어  
 우리인생 나타날때 임방임시로 나타나고  
 바위틈에 잠을자고 덩풀밑에 잠을잘때  
 나무열매 밥을삼고 나뭇잎을 옷을삼아  
 동지선달 엄동설한 눈비맞고 살아갈때  
 신농씨는 나와서 농사법을 내여놓고  
 여화씨는 나타나서 길삼질을 가르쳐서  
 좋은포목 많이짜서 옷을입게 하여주고  
 주창시는 불을빌려 화식을 마련하면  
 삼시세끼 밥을지어 처음으로 먹게하고  
 성주님은 나타나서 집짓기를 마련한다  
 성주본이 어디메요 성주본이 어디메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래라

제비봉에 솔씨를받아 소평대평을 뿌렸더니  
 낮으로는 햇별보고 밤으로는 이슬맞아  
 타박솔이 되었네 잔솔밭이 되었네  
 소부동이 점점자라 황장목이 되었구나  
 가자스라 가자스라 나무비러 가자스라  
 강원도라 강대목아 둥글박자 박대목아  
 시렁시렁 톱이야 뚜걱뚜걱 짜구야  
 양어깨 올려매고 소평산을 찾아가자  
 소평산을 찾아가니 심목밭은 우거지고  
 둘러보소 둘러보소 좌우나 한번 둘러보소  
 한나무를 잡았더니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그집승도 내물이라 성주기둥을 못실래라  
 한나무를 잡았더니 황새득새가 새끼를쳐서  
 그집승도 미물이라 성주기둥을 못실래라  
 소평산을 버려두고 대평산을 찾아간다  
 대평산을 찾아가니 시목밭은 우거지고  
 황금같은 피꼬리는 양루청산은 날아들고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지신 성주님아  
 등을넘고 재를넘어 한곳에 당도하니  
 그중에 한나무를 절공고 곧았네  
 하탕에 수족씻고 중탕에 목욕하고  
 상탕물에 메를짓고<sup>590)</sup> 촛대한쌍에 불을켜고  
 삼소지에다 불을붙여 북향재배 올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에 비나이다  
 황장목을 모셔다가 성주기둥 되게하소  
 갓은벗어 등에지고 옷은벗어 남개걸고  
 섯초담배 피워물고 그나무에 톱을걸어  
 밀어라 팽겨라 시렁시렁 톱질이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낙락장송이 넘어간다  
 낙락장송이 넘어가니 천지가 진동하네  
 곧은남근 곧개잡고 굽은남근 굽게잡아  
 나여주소 나여주소 먹줄한대 나여주소

590) 메밥을 짓고.

먹줄놓은 그자리에 소뿔대뿔을 걸었네  
 밀어라 땡겨라 시렁시렁 톱질이야  
 깨었네 깨었네 황장목도 깨었네  
 어이어루 지신아 지신지신 올려주소

이집집터 잡으려고 조선팔도로 다맹긴다  
 계룡산을 밟아보니 유점사가 좌정하고  
 지리산을 밟아보니 해인사가 좌정하고  
 무릉산을 밟아보니 미륵사가 좌정하고  
 토함산을 밟아보니 불국사가 좌정하고  
 금정산을 밟아보니 만덕사가 좌정하고  
 주지봉을 내려오니 구포대리가 생겼구나  
 말등고래를 주름잡고 음정골에 집터답아  
 집모는 양모요 양모에 쥐치박아  
 동네야 뒤민애야 동네야 초군들아  
 올려주소 올려주소 성주임주 올려주소  
 올려왔네 올려왔네 이집성주 올려왔네  
 어리어루 지신아 지신지신 성주님아  
 세웠네 세웠네 사가팔착 세웠네  
 한칸은 옥녀주고 또한칸은 선녀주고  
 옥녀야 잠들어라 옥녀방에 찾아가자  
 선녀야 잠들어라 옥녀방에 찾아가자  
 옥녀선녀를 잠들어놓고 첩의방에 찾아가자  
 첩의방에 찾아가니 방치장이 어떻더노  
 큰방문앞에 썩들어서니 입춘대길 떡붙었네  
 천정세월은 인정숙 춘만건곤은 복만가라  
 춘만건곤은 뚝떨어지고 복만가만 남았네  
 고대광실 높은집에 각지장판 소로되고  
 청노네는 태백사 백로에 띠를둘러  
 사모에 풍경달아 동남풍이 볼때마다  
 풍경소리 요란하다  
 일렀네 일렀네 방치장도 일렀네  
 오동장농 객개수 자기한농은 반다지  
 화초한편 이불병풍 보기 좋게 돌려놓고

두자두치 두통비계 유자이불 비둘리고  
반달같은 새발요강은 발채마춤 밀쳐주소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지신을 개주소  
일렸네 일렸네 성주치장도 일렸네  
구름같이 허른머리 열개설설 갈아뺏겨  
금강을 넓게떠서 금초댕기 끝물려  
보래비단 접저고리 보래비단 접치마야  
검은갑사 걸쾌자는 미로단추 달아입고  
앞으로보니 금봉채요 뒤로보니 축철리랴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지신 올려주소  
난데없는 봉황새가 노죽배가래 새끼를쳐서  
한마리 새끼를치거던 일천석을 하옵시고  
두마리 새끼를치거던 이천석을 하옵시고  
세마리 새끼거들칠 때 이집자손 점지하소  
이집세운 삼년만에 아들애기 놓거들랑  
서당글 잘가르쳐 진사급제 하옵시고  
이집세운 삼년안에 딸애기를 놓거들랑  
길쌈바느질 가르쳐서 요조숙녀 되어주소  
이집대주가 나가시면 남의눈에 꽃이되고  
남의눈에 꽃이되고 남의눈에 잎이되어  
조선팔도를 다댕겨도 소원성취 하여주고  
나갈때는 빈손이요 들올때는 알손이요  
동서남북을 다댕겨도 들올때는 알손이요  
일년이라 열두달에 과년하고도 열석달  
삼백이라 육십일에 안가태평 하옵시고  
삼백이라 육십일 하루아직같이 넘어가소  
잡구잡신 실어모아 자래등에 실어주소  
던져주소 던져주소 낙동강물에 던져주소  
잡구잡신은 물알로 만복을 이리로  
만복은 이리로 이집성주를 올려주소

## 2) 조왕 지신풀이

여이여루 지신아 조왕지신을 울리자  
울리자 울리자 조왕님도 울리자

여기가도 조왕신 저기가도 조왕신  
 이집조왕은 대조왕 팔만대조왕 올리자  
 큰술은 서말지요 동술은 두말지  
 두말지서말지 안친밥 사시장천 먹어도  
 먹고시고도 남고 시고먹어도 남아주소  
 어이여루 지신아 조왕지신 올려주소  
 이집술은 한단술 나간술은 채워주고  
 나갈때는 맨손이요 들올때는 알손이요  
 금년한해가 다가도록 안가태평 하옵시고  
 금년한해가 다가도록 소원성취 이루소서  
 잡구잡신을 실어담아 자래등에 실어주소  
 던져주소 던져주소 낙동강물에 던져주소  
 잡구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일년이라 열두달 과년하고도 열석달  
 삼백이라 육십일 하루아직<sup>591)</sup>같이 넘어가소

### 3) 우물 지신놀이

어이여루 지신아 용왕지신을 올리자  
 여기가서도 용왕님 저기가서도 용왕님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남해바다 용왕님 북해바다 용왕님  
 첩첩산중에 개골물 이가운데 흘러서  
 물좋다 물좋아 어화 그샘이 물좋다  
 물좋다 물좋아 주인양반 잡주소  
 칠년대한 왕가물에 변함없이 나오소  
 오뉴월 한더위에 설미같이 차아조고  
 동지선달 설한풍에는 더운물이 되어주소  
 일년이라 열두달에 변함없이 솟아주고  
 이샘물을 마시면 천년약수가 되어주소  
 어이여루 지신아 용왕지신을 올려주소  
 잡구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  
 만복인 이리로 주인양반 잡주소

591) 하루 아침.

#### 4) 소마굿간 지신풀이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지신 울리자  
우마대마를 울리자 청초말을 울리자  
철리말을 울려라 말리말을 울려라  
나갈때는 빈발이요 들을때는 참발이요  
소라고 태어나면 악대소가 되어주고  
말이라고 태어나면 비룡말이 되어주고  
닭이라고 태어나면 봉황닭이 되어주고  
개라고 먹이며는 청잡쌀이 되어주소  
금년농사를 지으면 날만석 실어오고  
날만석을 실어오고 날천석을 실어주소  
일년이라 열두달 삼백이라 육십일에  
하루같이 넘어가고 재수대통 하옵소서  
잡구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로  
만복은 이리로 우마대마를 울리자

#### 5) 장독 지신풀이

어이여루 지신아 장독지신을 울리자  
흰통으로 만든메주 한해된장 담귀놓고  
붉은콩으로 만든메주 꼬추장을 담아보자  
이집장을 담으면 꿀맛같이 달아주고  
사사장천 날이갓도 변함없이 달아주소  
된장은 금빛되고 꼬추장은 꽃빛되어  
금년한해가 다가도록 꼬까지도 막아주고  
이집장은 맛이잡혀 동네방네 소문나서  
일년치고도 열두달에 장맛좋다고 소문나소  
잡구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로  
만복은 이리로 이집장맛 변치마소

#### 6) 칩간 지신풀이

여루여루 칩간야 칩간지신을 울리자  
구린내도 막아주소 이질도 막아주소  
설사도 막아주소 광란도 막아주소

오뉴월 변소에 구린내도 막아주소  
잡구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다오소

7) 대문 지신풀이(나갈 때)

여루여루 대문아 대문지신을 올리자  
키큰도둑 막아주소 손큰도둑 막아주소  
고무도두은 막아주소 원갓도둑 다막아주소  
잡구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다오소

[낙동문화원, 구포대리지신밧기, 1993]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270-278쪽.

[복구 민요 23]

### 대리천 제방쌓기 노동요

(1) 어사용 소리

제방을 쌓기 위하여 준비 작업이 진행된다. 힘들고 고된 작업 속에 저절로 어  
사용 노동요가 흘러나온다. 고된 작업으로 힘이 드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여 진행  
된다.

에-이 금정산 정기 받고 자라난 우리 백성들, 옛날 옛적 과거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말 못할 사연들이 태산도 부족하고 황해수도  
부족하오 양산국 좌이면 대리천 큰 도랑물이 비만 좀 많이 오면  
범람하여 온 동네가 물에 잠겨 생사가 두려웠고, 논밭천지 떠내려 가니  
살길이 막막한데 이유하 군수님의 은덕으로 주민들과 합심하여 제방을  
쌓아올려 물난리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 올 수 있었고 해마다 군수님  
공덕을 기려 축제를 지낸다오.

세상살이 살자 살림 넘날적에 나도나고 내날적에 넘도 나고 다같이라  
태어나서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다 풍경달고  
동남풍이 따라볼면 풍경소리 요란한데 우리청춘 무슨일로 제방쌓는  
작업을 하게 되노 불쌍하고 가련하다 일생 일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는다 천하지영 광동국과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아하 영역 반주 국가  
무산선녀 놀던곳에 만고 절색 고운얼굴 우민이가 낮단 말가 유공자의

따님이요 초패왕에 부인이라 부인 얼굴 고을시고 미인태도가 비상하다  
 단청으로 그려낸 듯 백옥으로 깎아 낸 듯 팔자아미 고운양은 원천 궁궐  
 분명하고 옥빈 흥안 고운양은 추강산에 가린이라 십오십육 이팔시에  
 초패왕을 만났으니 장할시고 우리대왕 팔척장검 손에들고 우중간에  
 횡행할 때 어느 장부 앞에서려 대장단에 높이 앉아 천하지장 호령할제  
 평생도 오백리요, 그리그리 복벽이라 고을마다 매복이요 목이마른  
 이자건을 초패왕을 인도하고 수잘 놓는 장자방은 기명산 추야월에  
 옥통수를 슬피불어 구추야 깊은 밤에 하늘 놓고 달밝은데 울고 가는  
 저기러기 개개수심 돌아나고 병방갱기 사지중에 정벌하는 저군사야  
 너의패왕 쓰고 나사 전쟁하면 죽을 때라 철갑은 굳어있고 날랜칼을  
 빼어들고 천금같이 중한 목숨 전쟁 검흔 대리로다 처자의 손을 놓고  
 만단 설화 다 못하고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간이 걸려 있고 부르는 이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2) 가래질 가래 소리

제방을 쌓기 위해 사방에 있는 흙을 가래로 끌어 모우면서 매김소리에 뒷소리를 맞추어 협동하면서 부르는 소리

(매김소리)	(뒷소리)
허이 여차 가래여	허이여차 가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허이여차 가래여
이내한말을 들어보소	허이여차 가래여
가래질을 하는 것은	허이여차 가래여
흙을 모을 때 하는소리	허이여차 가래여
우리모두 힘을 모아	허이여차 가래여
가래질을 많이 하여	이산모아 태산이요
저산모아 태산이요	이산모아 태산이요
앞산모아 태산이요	이산모아 태산이요
이산저산 모두모아	이산모아 태산이요
제방 쌓아 홍수막고	제방 쌓아 바람막고
어이여차 가래여	어이여차 가래여
티끌모아 태산이라	어이여차 가래여
홍수막을 제방이로다	어이여차 가래여
물을 막을 제방이로다	어이여차 가래여

여러분드 힘을 모아	어이여차 가래여
매김소리는 못하더라도	어이여차 가래여
뒷소리는 크게하소	어이여차 가래여
공든탑이 무너질가	어이여차 가래여
우리모두 합심하여	어이여차 가래여
가래질을 잘도한다	어이여차 가래여
한이많은 우리인생	어이여차 가래여
가래소리를 크게하소	어이여차 가래여
아기자기 모이며는	태산이라 못넘을까
오늘날에 모이는 친구	애...이 여루가래여
이내한말을 들어보소	애...이 여루가래여
가래질이라 하는 것은	애...이 여루가래여
제방을 쌓는데 하는거요	애...이 여루가래여
못하나 떠나	애...이 앞소리는
뒷소리나 잘하여 주소	애...이 여루가래여
이팔 청춘 소년들아	애...이 여루가래여
백발노인 보고 하시마소	애...이 여루가래여
이제그제 청춘몸이	애...이 여루가래여
병이 나면	애...이 저녁 낮을
섬섬약질가는 몸에	애...이 여루가래여
태산같은 병이 들면	애...이 여루가래여
부르는 것이 어머니요	애...이 여루가래여
찾는 것이 냉수로다	애...이 여루가래여
이 세상에 나온사람	애...이 여루가래여
누 덕으로 나왔든가	애...이 여루가래여
석가여래 공덕으로	애...이 여루가래여
칠성님전에 명을 빌고	애...이 여루가래여
죄성님전에 복을 빌어	애...이 여루가래여
아버님전에 뼈를 빌고	애...이 여루가래여
어머님전에 살을 빌고	애...이 여루가래여
이 내몸이 태어나니	애...이 여루가래여
한두살에 철을 몰라	애...이 여루가래여
부모은덕 알을 손가	애...이 여루가래여
이삼십을 당하여도	애...이 여루가래여

부모은공 못다 갚아	애…이 여루가래여
어이없고 애닦고나	애…이 여루가래여
명사십리 해당화야	애…이 여루가래여
꽃진다고 서뤄마라	애…이 여루가래여
명년 삼월 봄이 오면	애…이 여루가래여
너는 다시 피건만은	애…이 여루가래여
우리인생 한번가면	애…이 여루가래여
다시오기 어렵더라	애…이 여루가래여
내가 사는 해동 조선	애…이 여루가래여
세상천지에서 제일가는	애…이 여루가래여
복된나라를 만듭시다.	애…이 여루가래여

(3) 땅다지기 망깨소리

제방 쌓는 과정에서 땅다지기를 한다. 웅작목의 밑둥을 잘라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여러 사람 힘을 모아서 공중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매김소리에 뒷소리를 맞추어 하는 것을 망깨소리라 한다.

(매김소리)	(뒷소리)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 쳐차 망깨야
다져주소 다져주소	어이 쳐차 망깨야
망깨지신 다져모져	어이 쳐차 망깨야
오늘오신 여러분들	어이 쳐차 망깨야
망깨소리를 크게하소	어이 쳐차 망깨야
천근의 망깨를 높이들어	천근망깨는 공중에 놓고
열두자 말목은 땅속에 놓고	천근망깨는 공중에 놓고
오방에 망깨를 높이들어	어이여차 망깨야
북방이라 혁제 망깨	어이여차 망깨야
남방에는 적제 망깨	어이여차 망깨야
동방에는 청제 망깨	어이여차 망깨야
서방에는 백제 망깨	어이여차 망깨야
중앙에는 황제 망깨	어이여차 망깨야
천근에 망깨 높이들어	어이여차 망깨야
다져보세 다져보세	어이여차 망깨야
황금에 황토를 다져보세	어이여차 망깨야

티끌모아 태산이요	어이여차 망깨야
흙을모아 태산이요	어이여차 망깨야
이산모아 저산이요	어이여차 망깨야
저산모아 이산이요	어이여차 망깨야
다져주소 다져주소	어이여차 망깨야
이산저산 모두 모아서	어이여차 망깨야
다져주소 다져주소	어이여차 망깨야
천근에 망개를 가볍게 드소	어이여차 망깨야
우리네 인생은 한이나 많소	어이여차 망깨야
망개소리 크게나 하소	어이여차 망깨야
천근에 망개는 공중에 놓고	어이여차 망깨야
우리네 인생은 여기서 놓고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여차 망깨야
벗님내들 들어보소	어이여차 망깨야
허리를 펴서 들어보소	어이여차 망깨야
일이라고 치지말고	어이여차 망깨야
놀이라고 생각하소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여차 망깨야
어이여차 망깨야	그만하자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24-928쪽.

[북구 민요 24]

### 이유하 군수 공덕비 입석과정과 <목도소리>, <오방지신밟기>

#### (1) 비석 입석지 선정

제방을 쌓아준 이유하 군수의 공덕비를 만들어 먼저 입석지를 선정한다. 이때 지관은 사방팔방으로 석지를 찾아서 동분서주한다. 비석을 세울 자리를 발견하고 폐찰 놓고 지팡이로 석지를 정한다.

왈 “백두대간 금정산맥 주지봉 아래 여기가 좌청룡 우백호 낙동강 김해들이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여기에다 세워라.”

#### (2) 개토제

비석을 세우기 전에 개토제를 지낸다.

“유세차 계사년 3월 간지삭 3일 삼가 토지신님께 감소고우 백두대간 끝자락 금정산맥 이루어 내려 빠친 주지봉 아래 범방산 한 자락이 좌정된 비석골에 오늘 축은 제비를 입석하고자 개토를 하오니 토지신님은 놀라지 마시고 음우하시와 세세 무궁한 번영과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가 간략한 제물을 받쳐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상 향’

개토제 제관은 제물을 차리고 축과 잔을 올린다.

### (3) 목도소리

개토제가 끝이 나면 자리를 잘 정리하고 풍물패와 목도꾼은 비석이 제작된 목도장으로 간다. 행렬을 가다듬어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비석을 목도에 메고 앞으로 나아간다. 줄잡이는 앞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한다.

(목도소리)	(받는소리)		
어이영차	어이영차	어이영차	어이영차(들고)
어이영차	어이영차	어이영차	어이영차(가자)
조심조심	어이영차	앞은땡기고	어이영차
살짝살짝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흔들린다	어이영차	발맞추고	어이영차
비탈길이다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오솔길이다	어이영차	발모우자	어이영차
힘모우자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돌아간다	어이영차	돌고돌고	어이영차
평지길이다	어이영차	안심하고	어이영차
힘써라 힘써	어이영차	잘한다 잘해	어이영차
허리펴라	어이영차	허리펴라	어이영차
후딱후딱	어이영차	발맞추고	어이영차
허이영차	어이영차	허이영차	어이영차
앞에가는	어이영차	처자땨에	어이영차
우리장정	어이영차	힘뭏쓴다	어이영차
돌아가는	어이영차	저모통이	어이영차
조심해서	어이영차	돌아가자	어이영차
다와간다	어이영차	다와간다	어이영차

다왔다	어이영차	다왔다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조심조심	어이영차	어놓고	어놓고

목도소리를 마치고 입석 좌정한 후 자리를 정돈하고 제관은 제물과 잔을 준비한다.

**(4) 입석제**

“유세차 계사 3월 간지삭 3일 해동조선 경상도 영산군 좌이면 사랑리 비석골 배산임수 좋은자리 이 좋은 명당에 이유하군수 축은제비를 입석좌정 하였으니 놀라지 마시고 마을의 단결과 협동과 건강과 번영을 비옵나니 신령님께선 음우하사 흠량하옵소서.”

“상 향”

**(5) 평토제**

입석제를 마쳤으니 여기 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땅고루기를 한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

**(6) 오방지신밧기**

비석을 세운 후 땅 지신밧기를 시작한다. 지신이란 즉 땅의 신이다. 오방지신을 밧으면서 달래는 것이다.

어이여루 지신아	지신지신을 놀려주자
세상천지 개벽후에	태고천지 돌아올 때
유유피창 하늘천자	자방자시 열려있고
천지오행 타짓자	축방축시 벌어졌어
우리인생 나타날 때	임방임시로 나타나고
바위틈에 잠을 자고	듬풀밑에 의지할 때
나무열매 밥을삼고	나뭇잎을 옷을삼아
동지섯달 설한풍에	눈비맞고 살아갈 때
신농씨는 나와서	농사법을 내어놓고
여와씨는 나타나서	길쌈질을 가르쳐서
좋은포목 많이짜서	옷을지어 입게하고
수찬씨는 나타나서	불을빌려 화식할 때

삼시세끼 밥을지어	처음으로 먹게하고
오방지신 불러찾아	터지신을 올려주소
북방이라 흑제지신	오방이라 오제지신
동방이라 청제지신	남방이라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청룡지신 백호지신
중앙이라 황제지신	사방팔방 오대지신
오늘같이도 좋은날에	오방지신 올려주소
토목지신 수목지신	중앙지신 올려주소
잡구잡신은 물러가고	만복소복은 이리주소

## (7) 마당놀이

### 1) 한마당놀이

참석한 모든사람이 흥겹게 한판 걸판지게 노는 것이다.

“자! 이제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마쳤으니 한마당 노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놀아봅시다.”

### 2) 인사굿

현 위치 그대로 쇠소리 맞춰 관중석을 향해 인사한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같이 퇴장한다.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28-931쪽.

[북구 민요 25]

## 구포선창 노래

### [1]

구포의 나루터는 감동포(甘同浦), 구법진(仇法津)으로 불리어졌는데 조선시대 구포에 남창(南倉)이 설치되면서 남창 나루터라고 불려졌다.

이것을 구포사람들은 구포를 남창(南倉)의 ‘倉’을 ‘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남창은 삼세조창(三稅漕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 가지 중요한 세(稅)인 삼세(三稅)로 받은 곡물(穀物)과 포목(布木)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구포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 창고에 반입(般入)되고 반출(般出)되는 곡물 등을 배에 싣고 내리는 역부(役夫)들이 가장 필요했다.

그리고 구한말(舊韓末) 구포에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한 정미업이 번창했는데 배에서 나락을 내리고, 정미소에서 나온 쌀을 일본배에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배와 육지 사이에 배다리를 걸쳐놓고 짐을 메고 오르내리던 노역자(勞役者)들이 부르던 노래로 전해오던 구포선창 노래는 낙동강 수운(水運)의 쇠퇴(衰滅)과 함께 사라져간 옛 노래이다.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에는 나루터가 있는 강변에서부터 남창 근처 일대에는 3일, 8일 장인 구포장이 열려 구포가 더욱 번창할 수 있었는데 구포장터는 지금 구포 안쪽 시장으로 옮겨갔다.

구포선창 노래는 2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민영인씨(구포동 거주)의 구술로 1절만 전해지고 있다.

낙동강 칠백리에 배다리 놓아 놓고  
물결 따라 흐르는 행렬진 돛단배에  
봄바람 살랑살랑 휘날리는 옷자락  
구포창 선창가에 갈매기도 춤추네

\*낙동향토문화원,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405쪽.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북구 향토지』, 도서출판 가람, 1998, 214쪽.

[2]

낙동강 칠백리에 배다리 놓아 놓고  
물결 따라 흐르는 행렬진 돛단배에  
봄바람 살랑살랑 휘날리는 옷자락  
구포창 선창가에 갈매기도 춤추네.

-채록·소리 : 구포 출신 민영인 선생(1985년)

구포의 나루터는 감동포(甘同浦), 구복포(龜伏浦)로 불렸는데 조선시대 구포에 감동창(甘同倉)과 남창(南倉)이 설치되면서 남창나루라고도 불렸다.

감동창은 삼세조창(三稅漕倉)으로서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 가지 중요한 세인 삼세로 받은 곡물과 포목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구포에 설치되어 이곳에 반입되고 반출되는 곡물 등을 배에 싣고 내리는 역부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동요(勞動謠)였다.

구포 선창노래는 그대로 전승되어 구한말 구포에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한 정미업이 번창했을 때 배에서 나락을 내리고, 정미소에서 나온 쌀을 큰 선박에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배와 육지 사이에 나무다리(배다리)를 걸쳐놓고 짐을 메고 오르내리던 노역자들이 불렀는데, 그 중 1절만 전해 온다.

낙동강에 제방을 쌓기 전에는 나루터가 있는 강변에서부터 감동창 근처 일대에는 3일, 8일 장인 구포장이 열려 구포가 더욱 번창할 수 있었는데, 낙동강 수운(水運)의 쇠퇴와 함께 장터는 구포 안쪽 새 시장으로 옮겨가고 구포 선창노래도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이 노래는 훨씬 긴 가락이었다고 하는데, 구포에 살고 있던 민영인 선생이 광복 이후 구포장터에서 장사를 하면서 주워들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1985년 이 지역에서 개최된 낙동민속예술제에서 발표하여 그 명맥이나마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북구, 2014, 957-958쪽.

[북구 민요 26]

### 구포장터놀이(장타령)

각설이들은 밥을 빌어 먹으면서 장바닥을 돌며 타령을 한다.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되어 문전걸식(門前乞食)을 하는데 그냥 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각설이타령 합창을 한다.

곡(曲)이 경쾌하여 듣기에 좋고 흥이 나며 가사도 멋진 데가 있다.

각설이들이 시장의 점포를 돌며 문전에서 타령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인은 돈을 준다. 그러면 각설이들은 노래를 그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음 집으로 찾아간다.

이 각설이들의 행렬은 6·25동란을 전후하여 없어졌다고 하는데 구포장날 장터에도 각설이들이 찾아왔다.

이것을 1985년 구포에 있는 낙동강청년회의소가 민속예술제를 개최했을 때 덕포동의 북구노인학교에서 「구포장터놀이」라는 제명으로 참여 우승을 차지, MBC-TV에 특집 「구포장터놀이」가 소개되었고 장타령의 박복명 할머니(구포동 거주)는 장타령의 전수자로서 KBS, MBC 등에 출연해 오고 있다.

### 장타령(場打令)

샛바람 반지 하단(下端)장

너무 칩어서 몬뽀고

※ 반지(바람받이) 칩어서(추워서)  
몬뽀고(못 보고)

나리 건너 명호(鳴湖)장

선개 없어 몬뽀고

※ 나리(나루) 명호(명지) 선개(선가船價  
-배삯)

골목골목 부산(釜山)장

질 못 찾아 몬뽀고

※ 질(길)

별판겘은 김해(金海)장

여빋돈이 없어 몬뽀고

※ 겘은(같은)

강건너 떡돌장

나릿배가 없어 몬뽀고

※ 떡돌(떡두) 나릿배(나룻배)

남실남실 남창(南昌)장

물이 짚어 몬뽀고

※ 짚어서(깊어서)

꾸벅꾸벅 구포(龜捕)장

허리가 아파 몬뽀고

들락날락 입실(入室)장

문이 달혀 몬뽀고

고개 너머 동래(東萊)장

다리가 아파 몬뽀고

코 풀었다 흥해(興海)장

미끄럽어서 몬뽀고

※ 미끄럽어서(미끄러워서)

미지기 째다 밀양(密陽)장

싸게를 묵어서 몬뽀고

※ 미지기 째다(몸으로 밀어붙임)

똥 샐다 구례(求禮)장

냄시가 나서 몬뽀고

※ 냄시(냄새)

아가리 크다 대구(大邱)장

너무 널버서 몬뽀고

※ 널버서(넓어서)

깍아 말린 감포(甘浦)장

딱딱해서 몬뽀고

이산 저산 양산(梁山)장

산이 많아서 몬뽀고

이리저리 몬뽀고

장꾼 신세가 말 아니네

울루루 갔다 울산(蔚山)장

하도 바빠 몬뽀고

이장 저장 몬뽀고

장타령만 하는구나

언제 볼까 언양(彦陽)장  
어정어정 몬뽀고

이장 저장 다 다녀도  
우리 구포장이 제일 일세

\*낙동향토문화원,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401-402쪽.

[북구 민요 27]

### 구포장타령(場打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구포(龜捕)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받아들인 조세, 곡물 등을 쌓아두는 감동창이 설치되어 공물선(貢物船), 상선(商船), 어선(漁船)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감동창 근처의 강변 일대에서 3일, 8일 닷새만에 섰던 감동장은 낙동강 유역의 생활물자를 집산하는 교역지로서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

장이 서게 된 것은 17세기 초반으로서 농어민들의 생산물인 곡물이나 가축, 생선, 소금, 수공업제품 등을 가지고 와서 물물교환이나 또는 미포(米布), 전화(錢貨)를 매개(媒介)로 하여 필요한 물자를 살 수 있었다.

장은 지방민이 하루 일을 쉬면서 물자 조달을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기능, 장날에 서로 만나 정보를 입수 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 원천으로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구포장은 현재 시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감동창이 있던 강변에서 철도건널목이 있는 구포1치안센터 앞의 마당에서 장이 섰고, 부근의 골목마다 시장이 벌어졌다고 한다.

강변 쪽의 나루터에서 생선전, 젓갈전이 섰고, 안쪽에서 짚신전, 포목전, 잡화점 등 상품을 진열하여 매매하였으며, 중국상인 골목도 있었고 쇠전(牛廐), 나무전 등이 있었다.

장날이 되면 상품을 가지고 장터를 돌면서 행상을 했던 등짐, 봇짐장수들이 찾아왔고, 또 밥을 빌어먹으면서 장바닥을 누비던 각설이들이 찾아와서 장타령을 부르면서 문전걸식(門前乞食)을 하였다. 각설이들은 시장의 점포를 돌면서 노래를 불러서 문안 인사를 하면 주인은 무엇이든 조금씩 베풀어 주었고 그러면 각설이들은 다음 집으로 찾아 나선다.

각설이타령은 서두에 ‘얼씨구씨구 들어간다’는 가사를 반복하면서 갖가지 타령을 부르는데, 전국에 찾아다닌 장(場) 이름을 붙여 재미있는 사설들을 늘어 놓는 장타령을 부르게 된다. 장타령은 서북지방, 강원도, 충청도 등지의 장타령이 있는데 구포장이 나오는 장타령에는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재미있는 내용이

답겨 있다.

－ 자료 채록 및 편찬 : 백이성(낙동문화원 원장)

### 1) 구포장타령 내용

#### • 문안인사와 신세타령

어허허리고 들어간다 품바 좋다 각설아  
아래장에는 눈이 오고 어제장에는 비 오고  
오늘 장에는 내가 왔소  
먼저번의 고령(高靈)장 고뿔 풀어 못 보고  
다음날의 현풍(玄風)장 바람 불어 못 보고  
아랫날 야로(冶爐)장 야단 맞아 못 보고  
어제날 성주(星州)장 성이 나서 못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못 보고 오늘 구포장을 찾아왔소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이렇게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어디를 들렀다가 오늘 여기 찾아왔노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어서 각설이가 된 신세타령을 늘어놓는다.

우리야 부모님이 날 낳어(아)서 어이 고이나 길렀네  
독서감내 앗하(혀)서 공자맹자 다 늘쳐  
물려줄 것이 없어서 튀전 한 벌을 물렸네  
품바나 얼시구 좋훗네 거들거리게도 생겼다.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 • 각설이 숫자풀이

1자, 2자, 3자 …… 9자, 10자까지 들먹이며 숫자에 맞는 사설을 늘어놓는다.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일월이 송송 해송송  
밤중에 샛별이 완연하네.  
하늘 빠딱(번쩍) 쳐다보니 복두칠성이 돌아갔네  
(후렴) 어절시구 잘한다 품바나 품바나 자리한다

이자 한 자 들고보니 진주기생 의암이는

우리나라를 섬길라꼬 왜장청청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네  
(후렴)

삼자 한 자 들고보니 삼동가리 늘어졌는데  
팔도어사 오신다고 등축 밝히기가 바빴네  
(후렴)

사자 한 자 들고보니 사시청풍 가는 길에  
외나무 다리 친구만나 인사하기 바빴네  
(후렴)

오자 한 자 들고보니 오관참장 관운장은  
적토마를 집어 타고 제갈 선생을 찾아간다  
(후렴)

육자 한 자 들고보니 육지장지는 대장지  
대국서 나왔다 집사장 대국사신 드나들 때  
편지 전하기 바빴네  
(후렴)

칠자 한 자 들고보니 칠년대한 가뭄날에  
앞뒤뜰에 비가 묻어 방울방울 빗방울  
줄기줄기 빗줄기 만인간이 춤을 춘다  
(후렴)

팔자 한 자 들고보니 아들형제 팔형제  
한서당에 글을 읽고 경주 서울 첫 서울  
과거하기를 힘쓰다  
(후렴)

구자 한 자 들고보니 구실구실 늙은중  
백팔염주 목에 걸고 마을 동냥 하느라고  
밥술 놓기가 바빴네

(후렴)

장자 한 자 들고보니 서울이라 장안에  
범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범한마리 잡으려고  
일등포수가 다모여 그 범한마리 못잡고  
제물에 살کم 넘겼네

(후렴)

• 신세타령과 고리타령

우리 부모가 날 길러 영화도 보렸더니  
전생의 팔자가 기 막혀  
몹실(쓸)년이 병이 들어  
요러나(이러한) 종사를 하고 있네  
품바나 얼시구 좋훗네 거들거리게도 생겼다  
생겼다가 병 나면 곁에 약국은 판 나고  
먼데 약국은 씨(쓰)러 진다.  
오르릉 부르릉 물레질 청사도복에 바느질  
뒷집 큰애기 노루개라.  
이어 품바 좋 -- 다

품바품바 각설이 고자나 한 장 들고 보니  
골골에서 모인 장꾼 나의 행색 거동 바라본다  
입는 고리는 저고리 나는고리는 피꼬리  
뛰는 고리는 개고리 여는 고리는 문고리  
거는 고리는 귀고리 골골마다 다녀도  
우리 구포장이 제일일세

이렇게 슬쩍 찾아간 고장을 인심이 좋다고 찬사를 늘어놓는다.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 전국 장타령

뚝뚝돌 돌아 왔소 각설이라 먹서리라  
동서리를 짚어지고 뚝뚝 몰아 장타령  
서서 본다 서울장 다리가 아파 못보고

앉아 본다 안성장 궁댕이 아파 못보고  
설설긴다 기계장 무릎 아파 못보고  
황금빛에 구리장은 눈이 비치어 못보고  
해 넘어간다 서산장 어둠침침 못보고  
술 취한다 청주장 어지러버 못보고  
예산없는 예산장 너무 비싸서 못보고  
경충뵈다 제천장 신발없어 못보고  
바람분다 청풍장 선선해서 못본다  
열었다 녹았다 논산장 나막신이 없어 못보고  
마음순한 순천장 너무 히퍼서 못보고  
거래 짙긴 여수장 인정이 없어 못보고  
동서남북 사방장 왔다 갔다 못본다

화강장을 보자드니 영감 많아 못보고  
온양장을 보자드니 건달 많아 못보고  
아산에는 둔포장 큰 애기술장사 제일이라  
보은청산 대추장은 처녀장꾼 제일이요  
엄병주천 충주장은 황색연초 제일이요  
천안이라 옛장터는 능수버들 척늘어졌다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 강원도 장타령

춘천이라 샘밭장 신발이젖어 못보고  
흥천이라 구만리장 길이멀어 못보고  
이귀저귀 양귀장 당귀 많아 못보고  
한자두자 삼척장 배가 많아 못보고  
명주바뀌 원주장 값이비싸 못보고  
횡설횡설 횡성장 에누리 많아 못보고  
값많은 강릉장 값이비싸 못보고  
이통저통 통천장 알것 많아 못보고  
영성듬웁 고성장 심심해서 못보고  
이천저천 이천장 개천 많아 못보고  
철턱철턱 철원장 길이질어 못보고  
영넘어라 영월장 담배 많아 못보고

어화저화 금화장 놀기좋아 못보고  
희희층층 희양장 길이험해 못보고  
이강저강 평강장 강물없어 못보고  
정들었다 정선장 갈보 많아 못보고  
화목많은 화천장 길이막혀 못보고  
양식팔아라 양양장 쌀이 많아 못보고  
즉금왔다 인제장 일이바빠 못보고  
울통불통 울진장 울화나서 못보고  
안창곱창 평창장 술국좋아 못보고  
태산같은 태백장 너무 높아서 못보고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 **각설이 서리타령 - 먹자타령**

어절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7.8월에는 흥서리 타작 마당은 콩서리  
빌어먹을 서리는 각설이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비록 거지 행세는 하지만 나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말이 많다고 늘어놓는다.

이놈의 각설이 이래도 정승판서 자제로서  
팔도 감사 마다하고 노랑이 돈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 한다  
찬물동이나 먹었는지 시원시원 잘 한다  
기름동이나 먹었는지 미끈미끈 잘 한다  
뜨물동이나 먹었는지 걸직걸직 잘 한다  
새끼사리나 먹었는지 설 - 설이 잘 한다  
논어맹자를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잘 한다  
사서삼경을 읽었는지 대문대문 잘 한다  
네 선생이 누구인지 날보다도 잘 한다

이처럼 각설이들은 걸식을 하면서도 애교가 있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들인다.

• **바지 각설이**

내리(려)가면 이바지 올라가면 막바지  
여름바지는 홉바지 겨울바지는 합바지  
얼시구나 들어간다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여름바지는 홉지고 겨울바지는 특지고  
이바지 저바지 막바지 진짜바지는 아바(버)지  
얼시구나 들어간다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 **낙동강 하류지역 장타령**

장터를 따라 돌며 구걸을 하였던 각설이들의 장타령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낙동강 최남단 부산의 낙동강변에서 1985년 개최한 낙동민속예술제에 참가했던 <구포장타령>은 좋은 자료로 보존되면서 노래를 불렀던 박봉명 할머니는 예능보유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라디오, TV 등에 자주 출연해 왔다.

셋바람 반지 하단(下端)장 영덩이가 시러버(워)서 못 보고  
골목골목 부산(釜山)장 질(길) 못 찾아 못 보고  
나리(루) 건너 멩호(鳴湖-명지)장 선개(船價-뱃삿) 없어 못 보고  
별판같은 김해(金海)장 여빃돈이 없어 못 보고  
강건너 떡돌(德斗)장 나릿(룻)배가 없어 못 보고  
꾸벅꾸벅 구포(舊浦)장 허리가 아파 못 보고  
고개 너머 동래(東萊)장 다리가 아파 못 보고  
미지기 째다 밀양(密陽)장 싸계를 목(먹)어서 못 보고  
아가라 크다 대구(大邱)장 너무 넓어서 못 보고  
이산 저산 양산(梁山)장 산이 가리어서 못 보고  
울루루 갔다 울산(蔚山)장 하도 바빠 못 보고  
언제 볼까 언양(彦陽)장 어정어정 못 보고  
남실남실 남창(南昌)장 물이 짚(깊)어서 못 보고  
들락날락 입실(入室)장 문이 닫혀 못보고  
코 풀었다 흥해(興海)장 미끄럽어서(러워서) 못 보고  
똥 쏘다 구례(求禮)장 구린내가 나서 못 보고  
깍아 말린 감포(甘浦)장 딱딱해서 못 보고

이리저리 못 보고 장꾼 신세가 말 아니네  
 이장 저장 못 보고 장타령만 하는구나  
 품 - 품 - 각설아 이장 저장 다 다녀도  
 우리 구포장이 제일일세  
 가시나 머슴아 합천(陝川)장 노인들의 잔치 고령(高靈)장  
 바람이 세어 풍기(豊基)장 먼지가 날려 못 보고  
 초상났다 상주(尙州)장 눈물이 가리워 못 보고  
 눈 빠졌다 명태(明太)장 어두워서 못 본다  
 희떡퍼떡 갈치장 눈이 부셔 못 본다  
 서가 봐도 좌천장 아이고 추워서 못 보겠다

(소리) 구포동, 박복명(1985년 채록)

• 각설이 <길타령>

길로 길로 가다가 동전한뉘주웠네  
 주운 동전 남을 줄까 남을 주느니 내가 하지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혼자가면 심심길 둘이가면 담뱃길  
 셋이가면 가레길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넷이가면 투전길 투전 끝에는 웃통길  
 돈없는 놈은 짜증길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옆에 놈은 개평길 주먹 큰 놈은 무법길  
 돈 짤 놈은 도망길 어절시구나 잘도한다  
 저절시구나 잘도한다 품바나 품바나 잘도간다

• 잡각설이 타령

잡놈 한번 섬겨보자 물밑에 잡놈은 뱀장어  
 땅밑에 잡놈은 뉘지기 어절시구 들어간다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지상잡놈은 개자식 하늘의 잡놈은 조물성  
 인간의 잡놈은 각설이 어절시구 들어간다  
 품바나 품바나 들어간다

이처럼 온갖 타령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동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내 차지 타령

국전으로 찾아(아)가면 국물 차지는 내 차지  
떡전으로 찾아 가면 고물 차지는 내 차지  
담배전에 찾아 가면 뿌스레기 담배는 내 차지  
고기전에 찾아 가면 비늘 차지는 내 차지  
옷전으로 찾아 가면 헌두디기 차지는 내 차지  
쇠전(牛塵)으로 찾아 가면 소똥 차지는 내 차지  
이장 저장 다 다녀도 우리 구포장(舊浦場)이 제일일세.

(소리) 구포동, 박복명(1985년 채록)

• 구걸

그리고는 한 푼 달라고 본격적인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머니 보기는 반갑고 술단지 보기 즐겁고  
소꿉미를 보니 정 떨어진다

(후렴)

왔소 왔소 내가 왔소 내가 왔어도 싫어하고  
술달라 해도 싫어하고 만장판에 장꾼들요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허 품바 각설이 온 장꾼이 몰려온다 아지매 한푼 주이소 아제도 한푼 주이소  
오라는데는 없어도 볼 곳도 많으니 날 좀 보내 주이소  
나는 이 짓이 농사이니 이 타령을 놓으면 기집자숙(계집자식) 다 굶기고  
하리(루)장만 빠지면 할애비 손자 다 죽으니 다음 장에 또 오겠소

(소리) 구포시장, 손운택(1993년 채록)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북구 향토지』, 도서출판 가람, 1998, 205-214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34-942쪽. \*의 문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보자를 별도로 기록함.

[북구 민요 28]

## 구포 재첩잡이 노래

〈구포 재첩잡이〉 재현

1) 구포재첩잡이 재현의 취지

21세기 도시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버린 구포지역의 재첩잡이를 민속어로  
 요로 부활시켜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첩잡이를 통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로요를 상상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  
 지하고 나아가 시민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 (2012년 재현됨)

2) 구성 개요

1. 우리 낙동강
2. 재첩잡이 준비
3. 배를 저어라
4. 배타고 재첩잡기
5. 강변에서 재첩잡기
6. 재첩을 이고지고
7. 재첩국 끓이기
8. 재첩국 사이소
9. 뒤풀이

<장면별 진행>

1. 사회자 : “구포재첩잡이 재현이 있겠습니다.” 하면
2. 풍물반 : 풍물을 치면서 출전 준비
3. 선창자의 “쳐라” 소리하면
4. 민요반 :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① 우리낙동강~ ② 재첩잡이 준비 민요를 함.
5. ③ “배를 저어라”라는 선창자의 소리 시작으로 “어서바빠 나가보세”까지 풍물  
 반 악사는 자진모리장단을 친다.
6. ④ 느린타령은 굿거리로 민요반 소리 시작 ⑤ 배타고 재첩잡기까지 함
7. 풍물반 선창 ⑥ 강변 재첩잡기부터 ⑦ 재첩을 이고 지고(부귀영화 누리보세)까지
8. ⑧ 재첩국 끓이기(세마치) 민요반 민요 ⑨ “재첩국 사이소”는(시랑골 예술단) 7명.
9. 뒤풀이 (전원)

3) 장면별 진행 개요

① 우리 낙동강

선창 : 여보시오 동네사람들-

후창 : 예-

선창 : 굽이굽이 1300리 낙동강 옥수 속에 황금같은 보배음식이 있었으니 그  
것이 재첩이라.

후창 : 열씨구- 그래서?

선창 : 우리 모두 흥겨운 목청으로 재첩타령을 엮어보세

후창 : 거 좋은 소리로다

선창 : 처라! (세마치 장단)

(민요반 민요 시작)

재첩일세 재첩일세 낙동강의 재첩일세  
태백에서 상주까지 두 갈래길 600리요  
상주부터 구포까지 700리길 옥수로다  
1300리 낙동강물 유유자적 흘러가고  
우리인생 살림살이 복이되고 행운오네  
님아님아 우리님아 재첩잡아 살림하세  
알콩달콩 세상살이 재미나게 살아보세

② 재첩잡이 준비

님아님아 우리님아 재첩잡는 도구찾소  
재첩담는 대소쿠리 올망졸망 실어주소  
강바닥을 굽어 줄 갈쿠리를 실어주소  
갈쿠리그물 터졌는지 구석구석 살펴주소  
촘촘한 갈쿠리에 이물질이 끼어들면  
대바늘로 구석구석 이쑤시듯 없애주소  
이 물통과 저 물통을 모두모두 모아주소  
재첩도구 챙겼으면 우리서방 도시락도 실어주소  
햇살이 뜨거우면 밀짚모자 씌워주소  
흐르는 땀 닦아줄 수건 한 장 준비하소

목마를 때 마시라고 시원한 물 준비하소

선창 : 자, 이제 배를 타고 나갑시다.

사람들 : 갑시다(자진모리 장단을 흥겹게 울린다)

③ 배를 저어라(자진모리)

선소리

설렁설렁 배 저어라 재첩잡이 나가보세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낙동강에 배띄워라

순풍에 돛달아라 재첩잡이 나가보세

낭군님아 낭군님아 거센바람 조심하소

어기영차 노저어라 아침햇살 빛이난다

황금같은 햇살따라 어서바빠 나가보세

민요반 민요(느린 타령)

어기영차 노저어라 어기영차 노저어라

사람이 살며는 천년을 사나 (후렴) 어기영차 노저어라

백년도 못사는 인생인데 (후렴) 어기영차 노저어라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후렴) 어기영차 노저어라

둥글둥글 살아나 보세 (후렴) 어기영차 노저어라

④ 배타고 재첩잡기

선창 : 벗님네들

후창 : 예-

선창 : 재첩을 잡아봅시다

후창 : 예

민요반 민요(느린 타령)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어기영차 당겨보세

강 바람은 살랑살랑 님의 소리는 울렁울렁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높은 데는 힘을 주고 낮은 데는 슬슬하소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바닥바닥을 훑어주소 저 물새도 나를 보고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날개짓하며 웃고있네 재첩을 잡아서 무엇을 할까나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부모님들 용돈을 드리고 예쁜 딸아이 꽃신도 사주고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우리 마누라 옷도 사주고 알뜰살뜰 저금도 하세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재첩잡아 만선되면 우리님과 오순도순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천년만년 살고지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님소식이 온다던가 강바닥의 재첩들아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님을보러 올라오게 낙동강의 재첩들아 (후렴) 당겨보세 당겨보세

⑤ 강변에서 재첩잡기

선창 : 여보게들

후창 : 그래.

선창 : 슬슬 강바닥을 문질러 볼까나?

후창 : 그래(느린타령 전주 2장단)

선창 : 재첩들아 재첩들아 내 발밑의 재첩들아  
(2장단)

너의 자태를 보이거라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일년 삼백 육십오일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너의 모습을 보여다오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낙동강의 정기더냐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미끈미끈 잘생겼다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천년정기 서렸더냐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영양보고 재첩일세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월궁항아 닮았더냐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자태 한번 오염하다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대합조개 견주어도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어허라 재첩들아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이내 품에 안겨오소 (후렴) 재첩들아 재첩들아

⑥ 재첩을 이고 지고(양동이를 이고 지고)

(느린 타령) 풍물반 선창

어허얼썩 사람들아(1장단 춤) 이내말좀 들어보소(이하 반복)

뛰약벌에서 일한 댓가 동우속에는 재첩 가득

조심조심 발을 딛고 재첩 삶으러 어서 가세

구포떡이는 솔 준비 하고 만덕이네는 땀감준비

고운 물에 재첩을 씻어 모래뽕을 씻어내고  
 한 개 한 개 정성을 들여 우리 모두 씻어 보세  
 여보시오 해 넘어가요 어서 빨리 갑시다  
 (이고 진 재첩을 씻어 솔에다 붓는 장면)  
 (자진모리로)  
 남아남아 어서 가자(자진모리 1장단)  
 재첩 삶으러 어서가자 더운 김에 푹 삶아서  
 몸에 좋은 진국 만들어 조상님전 진상하고  
 부모님께 우선공양 자식남매 고루먹여  
 부귀영화 누리보세

⑦ 재첩국 끓이기(세마치) 민요반 민요

여보시오 화부님네 잔솔가지 불을 붙여  
 따끈따끈 데워주소 가마솔을 데워주소  
 어서어서 재첩삶아 동네방네 고지하고  
 우리님을 앞장세워 재첩팔러 나가보세  
 화부공덕 쌓이려는 가마솔에 김이나고  
 재첩국은 펄펄끓여 맛난내음 진동하네  
 남아남아 춤을추며 재첩익기를 기다리소  
 푸른국물 진국나면 서방님께 진상하여  
 알뜰살뜰 살림살이 귀한보배 대접일세

⑧ 재첩국 사이소

선창 : 여보시오 동네사람들  
 후창 : 예-  
 선창 : 재첩국이 다 되었으니 어서어서 팔러들 갑시다  
 후창 : 예-  
 (선창) 현장감 있게  
 (대사로)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자진모리)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싱싱하고 맛이 있는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재첩국이 제일이요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어화세상 벗님들아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싱싱한 재첩국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입맛 돋우는 재첩국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영양만점 재첩국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간에 좋은 재첩국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해장국으로 으뜸이라 (후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⑨ 뒤풀이(다 함께)

구성 : 김경화(연극연출가, 희곡작가 /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예능보유자)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43-948쪽.

[북구 민요 29]

구포 달집노래

- |                                |         |
|--------------------------------|---------|
| 1. 달이 뜬다 달이 뜬다 금정산에 달이 뜬다 (후렴) | 호호호 방개야 |
| 2. 어서가자 달집으로 어서오라 달집으로         | 호호호 방개야 |
| 3. 동실동실 모여들자 어깨 동무 하고지고        | 호호호 방개야 |
| 4. 달이 떴다 달이 떴다 대보름날 달이 떴다      | 호호호 방개야 |
| 5. 우리들이 만든 달집 고개들어 반기구나        | 호호호 방개야 |
| 6. 모두모두 모여들어 달집에 다 불지퍼라        | 호호호 방개야 |
| 7. 아주머니 소원풀게 정화수를 받쳐들자         | 호호호 방개야 |
| 8. 손에 손을 마주잡고 너도 나도 춤을 추자      | 호호호 방개야 |
| 9. 흥겨워라 보름달아 달집들이 재미있네         | 호호호 방개야 |
| 10. 어린아기 젓잘먹고 나많은이 몸성하게        | 호호호 방개야 |
| 11. 저달속의 토끼에게 근심실은 연떠난다        | 호호호 방개야 |
| 12. 할아버지 어깨춤에 덩달아서 즐거워라        | 호호호 방개야 |
| 13. 달집꺼리 맛도 좋고 밝은달 밤님도 좋네      | 호호호 방개야 |
| 14. 올해농사 풍년되게 우리달집 잘도탄다        | 호호호 방개야 |
| 15. 집집마다 행복하고 우리마을 액때우게        | 호호호 방개야 |
| 16. 반가와라 밝은달아 좋은 소식 전해다오       | 호호호 방개야 |
| 17. 아름답이 밝음으로 모든바람 이룩하게        | 호호호 방개야 |



아리아리 동동 아라리오 아리랑 풍정에 어우러지세  
두리둥실 흥겨움에 춤을 이끄는 입맞춤에 감미로움 녹아들나네

아리아리 동동 아라리오 아리랑 허전함이 눈을 붉히네  
나를 두고 허둥지둥 떠나는 그에게 재 너머 돌너미님 미운털 깔아주오

아리아리 동동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들 가네  
열두폭 주단 치마 다 퍼어서 님네 마음 두루뭉술 감싸고 싶네

\*엄용운, 「구포지역의 전래민요」, 『낙동강사람들』 제14호(2002,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 96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49-950쪽.

[북구 민요 31]

## 구포 회향가

1. 낮은 자락 깊은골에 운수사의 법당마다  
아낙네가 모여들어 아들점지 해달라고  
부처님께 성화일세
2. 금정산정 금생물을 일구월심 날라다가  
님에게로 봉양하며 몸성하게 해달라고  
칠성님께 생떼이네
3. 구포장터 각설이들 눈비비며 나타나서  
고태풍각 엮어내어 일장각설 털어내니  
옛생각이 절로나네
4. 대보름날 구포마을 다리밟는 처녀총각  
님을찾아 어우러져 밝은달빛 건넘어서  
사랑질을 하고지고
5. 소당골에 새벽일면 마을사람 모여들어  
날써몸짓 고향치고 세수하며 마시던물  
마음속에 얼렁이네
6. 얼마간의 장삿감을 이고넘던 만덕고개  
동래온천 가는길에 숲이좋아 모인새들

- 님의생각 일깨우네
7. 강배실린 비가마들 태산같은 수박덩이  
주린배로 흘겨보던 쓰린마음 사공노래  
언제이나 되살리네
  8. 호호호오 방개야- 우리달집 잘도탄다  
님에얼굴 가슴에도 보름달이 안겨지는  
동네잔치 흥겨워라  
(후렴)  
에헤야 좋구나 좋아 우리 마을 좋을시고  
정이 남아 돌아 드네  
※회향(懷鄉) : 고향을 회고함.

\*엄용운, 「구포지역의 전래민요」, 『낙동강사람들』 제14호(2002,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 97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49-951쪽.

[북구 민요 32]

### 청실홍실

1. 샘물푸는 저아가씨 물한모금 퍼어주오  
목마르고 입말라서 마음마저 타고있소
2. 물이라면 주려마는 마음이야 어찌하오  
생전부지 도령님을 무얼믿고 주오리까
3. 내친마음 물에띄어 다정이는 문을열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마음을 채워주오
4. 제아무리 옥당수도 그대마음 어이식혀  
글줄속의 참두움에 돌아가세 하오리오
5. 그대주는 물이라면 어이식지 않으리오  
이내마음 열어내어 님에게로 건넸는데
6. 언제뵈운 님이신데 이리저리 하지마오  
물드시면 어서가오 동네사람 눈에나니
7. 그아가씨 양살곳네 그를수가 있으시오  
옷깃만이 스쳐서도 백년지간 인연인데
8. 그대마음 알았으니 어서들고 떠나시오

- 이러다간 소문나서 혼사길이 막혀져요  
9. 물적선을 하고서도 그렇게나 매몰차오  
남네마음 찾으려고 수삼년이 걸렸는데  
10. 불문곡절 우겨말고 매파시켜 찾아주오  
그래야만 양반제면 서로찾아 좋으려니  
11. 사람들의 인연이란 오고가다 만나는법  
이제야 찾아내어 혼인경사 이뤄지네  
12. 어서가서 아뢰시어 좋은혼물 보내오면  
남네따라 가오리니 걱정말고 돌아가오  
13. 열러러리 좋을시고 이내마음 담아주니  
호사풀어 등실이며 천년만년 살고 싶네  
14. 청실홍실 다홍치마 열두대문 열어놓고  
남네마음 받아들일 사랑결이 꾸미려니

편찬 : 엄용운 선생(문인, 언론인, 구포 출신)

\*엄용운, 「구포지역의 전래민요」, 『낙동강사람들』 제14호(2002,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 98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51-952쪽.

[북구 민요 33]

## 보리타작 소리

- 화명 대천마을의 민요

4월 하순께부터는 못자리 일도 다 끝나고 보리타작이 시작된다. 아래 · 뒷들 개밭들이 금빛으로 성숙된 보리를 모심기 전에 다 거뒷들여야 하니 일손이 바쁘다. 타작일꾼을 손모아 무리무리 타작마당에서 들려오는 타작타령 소리는 피로도 있게 하고, 힘을 돋우기 위해 목도리깨잡이의 앞소리는 끊임이 없다. 한나절이 되어 가면 짹짹 찢는 별살 아래 팔죽땀이 전신에 타고내린다.

〈보리타작 소리〉

멀치 콩치 오-해야

솔뚜껑에 김 난다 오-해야

기장 미역 후려넣고 오-해야

송정 청각 빨아 넣고 오-해야

물외(오이) 따다 쓸어 넣고 오-해야

밧국 메워 한 버지기 오-해야

땀을 빼니 갈증이 난다. 이렇게 고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잇달아 모심기가 시작된다. 일손이 모자랄 때는 품삯 일손을 대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양뺨이꾼’이라 한다. 하루 품삯이 한 양(兩)이란 말이다. 대개는 품앗이를 한다.

서로 낱자를 골라잡아 일손을 모은다. 한밤 중에는 밥 짓는 젊은 새댁만 남겨 놓고 온 마을이 총동원이다. 점심 때가 되면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들이 일하는 논을 찾아온다. 젓먹이를 업고 젓도 얻어먹이고 점심밥도 얻어먹으려고 제각기 숟가락을 가지고 나와있다.

아침부터 모찌는 모판(묘판)에서 등지(모노래)소리가 시작된다. 모노래는 그 시각을 따라 가사가 바뀐다. 모노래는 선창 후창 두 패로 나뉘어 부른다.

-채록 편찬 : 윤은호 선생(대천마을 향토사학자)

\*윤은호,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도서출판 강나루, 2007, 29-30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53쪽.

[북구 민요 34]

모심기 노래

- 화명 대천마을의 민요

〈모 찢 때〉

선창 :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 찢기도 난감하다.

후창 : 하늘에다 목화 심어 목화 따기도 난감하다.

선창 : 바대전 같은 이 못자리 장기판 만치 남았구나.

후창 : 쫓루자 쫓루자 호미손으로 쫓루자.

〈모 심을 때〉

(아침나절)

선창 : 물길낭 처지령청 혈어 놓고 주인네 영감 어디갔소.

후창 : 문어야 전복을 손에 들고 첩의 방에 놀러 갔소.

선창 : 이 논백이 모를 심어 금실금실 영화로세.

후창 : 우리야 부모님 산소 등에 솔을 심어 영화로세.

(한나절 때)

선창 :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 늦어 간다.  
후창 : 미나리아 소금채라 맛 본다고 드디더라.  
선창 : 오늘 낮에 점심 반찬 무슨 고기 올랐는고.  
후창 : 전라도라 고슴청어 마리만이 올랐더라.

(저녁 나절)

선창 : 저기 가는 저 구름은 어느 신선 타고 가노?  
후창 : 웅천 하구 천자봉에 놀던 신선 타고 간다.  
선창 :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 낳아  
후창 : 그 알 한 개 주었으면 금년 과거 내 할꾸로  
선창 : 찔레꽃은 장가 가고 석류꽃은 유학 가네  
후창 : 만인간아 웃지 마라. 씨종자를 바라가네  
선창 : 알금삼삼 고운 독에 눌러 떴다 금청주야  
후창 :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 한쌍 권주하네.  
선창 : 배꽃일레 배꽃일레 처녀 수건이 배꽃일레  
후창 : 배꽃 같은 수건 밑에 거울 같은 눈매 보소  
선창 :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분통 같은 저 젓 보소.  
후창 : 많이 보면 병 날꺼고 담배씨만치 보고 가소.  
선창 : 저녁 먹고 썩 나서니 월명당안에서 손을 치네.  
후창 : 손 치는 델랑 밤에 가고, 주보야 집에는 낮에 가네.  
선창 : 찔레꽃을 살끔 데쳐 녀의 버선 볼을 걸어  
후창 : 버선 보고 녀를 보니 임 줄 뜻이 전혀 없네.  
선창 : 알송달송 무자 줌치 대팔성 끈을 달아  
후창 : 이제나 줄까 저제나 줄까 닭이 울어도 아니 주네.  
선창 : 해 다지고 저문 날에 우안 행상 떠나가노  
후창 : 이태백이 본처 죽어 인물 행상 떠나가네  
선창 : 유자랑 감자랑 의논이 좋아 한꼭지에 둘이 열고  
후창 : 처녀 총각 의논이 좋아 한베개에 둘이 베네  
선창 : 녀이 죽어 연자(제비)가 되어 처마 끝에 집을 지어  
후창 : 나면 보고 들면 봐도 녀인 줄을 내 몰랐네  
선창 : 초롱아 초롱아 영사 초롱 녀의 방에 불 밝혀라.  
후창 : 녀도 눕고 나도 눕고 저 초롱불을 누가 끌고

하루해가 기울도록 끊임없이 부른 노랫소리는 그 가사만도 가지각색으로 수없

이 많다. 이 철에는 하루에 여섯끼를 먹는다고 한다. 모내기를 마치고 초벌 논매기 전에 산답논에는 논두름(논두렁콩)을 심는다. 이 콩을 수확하면 밭에서 얻은 콩보다 더 귀하게 쓰인다.

논매기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한낮 더운 날에 기심은 자라고 손을 넘기면 안된다. 그러기에 두레 논매기를 한다. 짹짹 찌는 햇볕 아래 진종일 무논에 옆드려 벼 포기를 가리다 보면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어도 콧등에 땀이 타내려 숨이 막힌다.

-채록 편찬 : 윤은호 선생(대천마을 향토사학자)

\*윤은호,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도서출판 강나루, 2007, 30-32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53-955쪽.

[북구 민요 35]

### 논매기 노래

- 화명 대천마을의 민요

금정산 산턱으로 몰려오네 소낙비가  
안개인 듯 구름인 듯 장쾌히도 몰려오네  
어서 와 날 뿌려 주소 땀 젖은 몸 씻어주오.

이 들판 농부들아 허리 펴고 일어나보오.  
푸른 동산 안개 속에 그림같이 어렸는데,  
동천에 우뚝 솟은 무지개빛 장쾌하오.

우리네 농부들은 논 매기에 바빴는데  
저 다리 누굴 위해 찬란히도 놓았는고  
오라 참 하느님이 금년 농아 구경온지

두벌 논매기 때면 용신을 먹인다. 용신이란 각기 자기 논밭 머리에 막대기를 꽃아 명태와 떡을 매어놓고 용신과 쥐와 벌레들에게 고사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게 고사를 하는 것이다. 이때쯤 마을 아동들은 무리무리 쏘다니며 떡을 따먹기도 한다.

-채록 편찬 : 윤은호 선생(대천마을 향토사학자)

\*윤은호,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도서출판 강나루, 2007, 32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55-956쪽.

[북구 민요 36]

## 꼼배기 먹기와 노래

- 화명 대천마을의 민요

### • 꼼배기 먹기(農宴)

망시(끝논매기)논매기가 끝나면 이제야 한숨 돌리고 그 동안 피로한 몸을 풀기 위하여 꼼배기를 먹는다. 이날은 온 마을 남정들이 총동원된다. 마을 위 대천 냇가 중섬 솔밭에는 놀이터가 마련되고 소 한 마리를 잡아 큰 잔치가 벌어진다.

세벌 논매기가 끝난 뒤  
중섬(中島) 솔밭에는  
드높은 차일이 치어졌다.  
오늘이 꼼배기 먹는 날

누르고 푸른 영기(永旗)는  
한 줄기 푸른 연기와 하늘 끝에 휘날리고  
풍물 질탕한 음양 산성골이 찰 때  
위-이 흥 돋는 외침 천지를 울려라

한낮도 겨워 저녁 무렵  
숫총각 김도령 날렵한 몸맵씨  
한참 거더림 바쁘더니  
군중은 정제하고

좌상님 박생원 곱슬나룻은  
도롱이 갑옷에 더욱 위엄 뻗고  
서서히 소 등에 오를 때  
긴 나팔을 울려라.

영기를 앞세우고

좌상(座上)이 하(下)를 태운 두쇠바리 소는 따르고  
풍물쟁이는 행진곡을 울려  
농부들은 뒤따른다.  
우리의 일터 논둑길을 휘돌 때  
포기포기 자라는 벼도 너흠너흠 춤추어라

저녁 짓던 아낙네도 방석 엮던 노인들도  
소 먹이던 소년들도 모두 나와 춤추어라  
오-흥겨웁던 농부의 이 날이여

-채록 편찬 : 윤은호 선생(대전마을 향토사학자)

\*윤은호, 『화명 대전마을의 정담』, 도서출판 강나루, 2007, 33-34쪽.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향토지』, 가람기획, 2014, 956-957쪽.

## 2. 사상구 민요

[사상구 민요 1]

### 성주풀이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 감전1동)

성주풀이는 일명 성조풀이라고도 불리는데, 집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성주신(혹은 成造神)과 성주부인(혹은 成造夫人)에게 성줏제를 지낼 때 무당이나 판수가 굿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성주풀이는 각 지방마다 가사와 곡이 다르지만 그 근본(根本)은 같은 것이다. 성주풀이 첫 머릿소리에 성주님 근본이 나오는데 대개가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本)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고장의 서편(西便), 즉 감전1동 성주풀이는 서천국(西天國)이 근본으로 나오는 것이 색다른 성주풀이다.

성주님이 탄생하여 어떻게 귀향을 3년 살고 왔으며,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여루 성주님아 성주님을 모셔보자  
성주근본이 어뒤메요 서천국이 근본이다  
성주부친 누시든고 청궁황제가 분명하다  
성주모친 누시든고 옥절부인이 분명하다  
세월이 여루하여 영광삼십 되었으되  
일천효력 전혀없어 주야부부 한탄한다  
무주야남산 치치달려 철성당을 모아놓고  
백일불공 더러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태기있어 온갖음식 맛이없어  
열손가락 매콤하고 열발가락 매콤하네  
시부모보기 피병같고 이내일신 고달프다  
한달가고 두달가고 칠팔씩이 되었구나  
넘도난다 넘도난다 청룡인가 황룡인가  
금실금실 잘도논다 어찌아니 좋은손가  
십씩이 장차 되었으니 일등귀공자 탄생하니  
한 살먹어 흥진하고 두 살에 소임하고

세 살에 걸음 배워 네 살에 말 배우고  
 다섯 살에 입학하여 여섯 살에 무법통치  
 한해가고 두해가고 십오세가 되었구나  
 모년모월 모일이라 허흔청흔 가례받아  
 장가가던 삼년만에 나라님께 불충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일가친척 화목없고  
 주색잡기 방탕하여 나라님께 상소하여  
 대전통편 내어놓고 귀향삼년 마른할 때  
 무주남산 치치달려 남걸비여 배를모아  
 서천강에 띄워놓고 삼년먹을 양도실고  
 삼년입을 의복실고 부모처자 하직하고  
 간다간다 나는간다 황토섬 귀향을 나는간다  
 황토섬을 당도하니 어찌아니 슬플소냐  
 남걸휘여 집을 삼고 돌비석을 벗을삼아  
 세월을 보낼때에 한해가고 두해가고  
 먹든양도 떨어지고 입든의복 떨어져서  
 북풍한철 찬바람은 살핀 듯이 부르오고  
 아이구 답답 내팔자야 아이구 답답 내신세야  
 산체혜체 먹고가니 온만신이 털이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불별할 수 전혀 없다  
 이때가 어느땀가 춘삼월 묘춘이라  
 날아든아 날아든다 청조새 한 마리 날아든다  
 새야새야 청조새야 전해주소 전해주소  
 성주님 소식 전해주소 성주님 말 부탁 전해주소  
 먹이 있어 글을 쓸까 붓이 있어 글을 쓸까  
 성주님 손가락 깨어 물어 혈서 한 장 써서내며  
 청조새 입에 물려주니 청조새 거동보소  
 그 편지 입에 물고 천장만장 높이 날아  
 성주님 댁을 찾아가네 성주님 본가를 찾아가네  
 성주님 모친 거동보소 자식을 이별하고  
 골수에 점점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로다  
 이때가 어느땀가 춘삼월 묘춘이다  
 청조새 거동보소 그 편지 물어다가  
 성주님 모친께 전해주니 그 편지 읽어보니

성주님 글씨가 분명하고 성주님 혈서가 분명하다  
나라님께 상소하여 다시 그 배 내어타고  
인삼녹용 가득 싣고 성주님 모시러 어서가자  
황토섬을 당도하니 성주님은 간곳없고  
외연한 짐승이 앓았구나 그 짐승 높이실어  
인삼녹용 먹었더니 온 만신에 털을 벗어  
성주님 일신이 분명하니 어찌 아니 좋을손가  
황토섬아 잘 있거라 돌비석아 잘있거라  
간다간다 나는간다 우리의 고국으로 나는 간다  
꿈마깨끔 하는 소리 성주해상 더 높게!!

\*『사상문화』 제16호(2004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4, 31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60-962쪽.

[사상구 민요 2]

## 보리타작 소리

손복동 (무형문화재 · 감전동)

서편 부락에 최덕우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보리타작 앞소리를 잘 하셨다. 입담이 좋아 무슨 말이든 말을 만들어 타작소리 하는 데는 뛰어난 어르신이었다. 일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 무슨 쌍소리든 해서 일꾼들 입에 웃음이 절로 나게 하고 팔에 힘이 나게 했다. 왼발로 보릿짚을 꾸득 들고 여기 있다 때리라고 소리하면 일꾼들이 힘차게 때리면서 큰소리로 뒷소리를 한다. 종일 보리타작 소리에 지루함이 없었다.

(선) 여보시오 (후렴) 오~헤야 (선) 농부님네<sup>593</sup> (후) 오~헤야  
(선) 이내한말 (후렴) 오~헤야 (선) 들어보소 (후) 오~헤야  
(선) 이집양반 (후렴) 오~헤야 (선) 보리농사 (후) 오~헤야  
(선) 잘지으소 (후렴) 오~헤야 (선) 보리타작 (후) 오~헤야  
(선) 얼른하고 (후렴) 오~헤야 (선) 너도한말 (후) 오~헤야  
(선) 나도한말 (후렴) 오~헤야 (선) 품씩받아 (후) 오~헤야  
(선) 처자식을 (후렴) 오~헤야 (선) 먹여보세 (후) 오~헤야

593) 원문에는 '농부심네'로 되어 있으나, '농부님네'의 오자로 보아 수정함.

(선) 잘도한다 (후렴) 오~헤야 (선) 일꾼들아 (후) 오~헤야  
 (선) 힘을내소 (후렴) 오~헤야 (선) 보리알만 (후) 오~헤야  
 (선) 때려주소 (후렴) 오~헤야 (선) 앞집에 (후) 오~헤야  
 (선) 청산과부 (후렴) 오~헤야 (선) 내손만 (후) 오~헤야  
 (선) 바래구나 (후렴) 오~헤야 (선) 여기도있다 (후) 오~헤야  
 (선) 저기도있다 (후렴) 오~헤야 (선) 보리알만 (후) 오~헤야  
 (선) 때려주소 (후렴) 오~헤야 (선) 합바지야 (후) 오~헤야  
 (선) 곳바지야 (후렴) 오~헤야 (선) 잘도한다 (후) 오~헤야  
 (선) 힘을내소 (후렴) 오~헤야 (선) 보리고개 (후) 오~헤야  
 (선) 넘어간다 (후렴) 오~헤야 (선) 늦어온다 (후) 오~헤야  
 (선) 점심차지<sup>594)</sup> (후렴) 오~헤야 (선) 늦어온다 (후) 오~헤야  
 (선) 배가고파 (후렴) 오~헤야 (선) 못하겠네 (후) 오~헤야  
 (선) 힘을내소 (후렴) 오~헤야 (선) 해다진다 (후) 오~헤야  
 (선) 얼른하고 (후렴) 오~헤야 (선) 우리모두 (후) 오~헤야  
 (선) 한잔먹고 (후렴) 오~헤야 (선) 놀아보세 (후) 오~헤야

\*『사상문화』 제19호(2005년 신년호), 사상문화원, 2005, 44-45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2-953쪽.

[사상구 민요 3]

### 고깃줄꾼의 노래

<앞소리>	<받는소리>
어기엿차 어기야	어기엿차 어기야
가자가자 어서가자	어기엿차 어기야
남지들을 찾아간다	어기엿차 어기야
언제갈꼬 저남지를	어기엿차 어기야
남지들을 들어서면	어기엿차 어기야
우리들 목적지	어기엿차 어기야
콩팔러 어서가자	어기엿차 어기야
북풍한설 찬바람에	어기엿차 어기야
언제갈꼬 저남지를	어기엿차 어기야

594) ‘점심차이’의 오자로 보임.

발은얼어 빠지는듯	어기엿차 어기야
조사공아 닷을잡고	어기엿차 어기야
동풍오기를 기다리자	어기엿차 어기야
어기엿차 어기야	어기엿차 어기야

<손복동, 사상구 감전1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사상문화 200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40쪽.

[사상구 민요 4]

### 사상(沙上) 낙동강 뱃노래

“낙동강(洛東江)을 끼고 있는 감전동(甘田洞), 장인도(長仁島), 엄궁동(嚴弓洞) 3개 부락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생활이 어려워 낙동강에 생계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고기 잡는 사람, 조개 잡는 사람, 기(게) 잡아 파는 사람, 특히 엄궁동에는 꼬시라기를 많이 잡았다. 엄궁 꼬시라기는 횡감으로 맛이 좋아 부산사람들에게 횡감으로 (인기)이름이 나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조개잡이를 나갈 때 힘든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름을 달래 왔다. 지역에 따라 그 지방 노래가 전래되는데 우리 고장 사상은 뱃노래가 없는 것이 민속인의 한 사람으로 아쉬운 마음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지게 지면서 농사일은 물론 민속놀이와 민요 노래를 좋아했기에 소리도 잘한 사람이다. 이 뱃노래는 1947년도 봄에 감전동 거주 김용순, 손복동 두 사람이 조개잡이 배를 같이 타면서부터 낙동강 조개잡이를 내용으로 한 가사를 지어 불렀던 뱃노래이다. 김용순 씨는 젊었을 때 일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는 사람으로 부락에서 소문난 사람이다 (지금은 고인이 됨).”(손복동씨의 수기노트 중에서 발췌)

(선) 낙동강 칠백리에 배를 띄워라 술이며 안주가득실고 뱃놀이 가잔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선) 낙동강 푸른물에 배 띄어놓고 너와나와 단두리 사랑을 하잔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선) 세월아 내월아 가지마러라 낙동강 총각처녀 다늘어간다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봄바람이 살람불며는 엄궁처녀 앞가슴이 불러온다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조개알은 맛도 좋터라 저기가는 저 처녀 가슴도 좋구나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조개팔아 장가를 못가면 엄궁처녀 시집못가 안달이난다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오늘도 동강에 배를타고서 조개잡이 내신세 언제면할고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강바람이 불어온다네 어기야디야 돛을달고 하단을가잔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달밤에 꾀꾀리우는소리 시집못간 저처녀가 한숨만쉬구나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나 낙동강 흐른물이 눈물이라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서쪽마을 해가 지구나 설렁설렁 노를 저어 집으로가잔다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 (선) 낙동강 흐른물은 맑고 좋건만 조개잡는 내손은 검어지구나  
(후렴)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야 이기여차 뱃놀이 잔다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40-942쪽.

[사상구 민요 5]

### 상여소리(輓歌)

“상여소리는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죽음을 달래왔던 민중의 슬픈 노래다. 사랑하는 처자식과 일가친척을 두고 혼자 영영 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가슴이 메이고 목이 막혀 할 말 다 못하니 이 아니 슬프리오. 죽은 사람의 천도와 명복을 빌고 살아있는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상여소리는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난다. 만가(輓歌)는 축원(祝願)만가, 출상(出喪)만가, 성분(成墳)만가로 분류된다. 축원(祝願)만가는 출상하기 전에 축원소리 염불, 경, 관음소리 등을 축원만가라 부른다. 스님이 목탁 치고 염불하는 것도 축원만가이다. 출상(出喪)만가는 발인제를 지낸 후 장지까지 행상을 출상만가라한다. 성분(成墳)만가는 하관을 하고 흙을 넣고 다질 때 하는 달구질소리, 회다지소리, 가래질소리를 성분만가라 부른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사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회심곡에 나오는 슬픈 노래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다시 가는 것이다. 죽고 나고 나고 죽고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제일 슬픈 것이 있다면 죽어 칠성판, 즉 관 속에 들어갈 때가 제일 슬픈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같이 슬픈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나 죽은 망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픈 슬픔이다. 상여소리는 바로 죽은 망자를 대신하여 부르는 노래다. 만가는 죽음의 노래다. 축원과 발인제가 끝나면 출상을 한다. 안마당에서 상여를 메고 상여 어르는 소리(생이 어룬다 함) 망자의 작별 인사 노래를 구슬프게 부른다. 마지막 가는 길 상주 가족 그 일가친척 눈물로 하직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여소리는 행상할 때와 높은 언덕 산을 올라갈 때 하는 소리가 구별되어 있다.”

“감전2동 부락에 거주하는 구씨 가문의 구문태 씨의 선친이 상여소리를 잘하신 어른이다. 상여소리는 명창이다. 사상에서는 상여소리라면 구문태 어른을 손꼽는다. 이 분의 상여소리는 맑은 목소리 구슬픈 노래가 듣는 이도 감탄사를 자아낸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눈물과 슬픔으로 듣는 조객들도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옛말에 무당이 자기 굿 못하고 봉사가 자기 점 못 친다는 속담처럼 어른 부인이 돌아가시자 상여앞소리 할 사람이 없어 저에게 사람을 보내왔다. 당시 저는 신라고무 공장에 다니고 있을 때다. 어른 부탁 말씀을 듣고 제가 가서 상여앞소리 한 날이 마지막 상여소리였다. 농촌이나 도시나 상여소리 만가가



- (선) 나간다고 설워말고 살았다고 좋아마소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만고제왕 후비들도 영이길 가고마네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연화대로 간다더니 화장장이 웬말이오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명당찾아 간다더니 공동묘지 기증인가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명년삼칠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렸마는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우리인생 한번가면 언제다시 돌아오리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피눈물 반죽되니 아왕영영슬픔이요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우산에 지는해는 제견공의 슬픔이요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부모동생 외장하든 위암부인 슬픔이요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못다살고 돌아간니 이한몸 슬픔이요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가봅시다 가봅시다 좋은 국토를 가봅시다(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청산인간 두어두고 극락으로 가봅시다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극락이라 하는 곳은 온갖고통 전혀없고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황금으로 땅이되고 연꽃으로 대를지어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아미타불 주인되고 관음세지 부처되야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사십팔일 세우시고 구품연대 버리시고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반야용선 내려보네 염불중생 접인할제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팔보살이 호이하고 인로왕보살 노를저어(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제천음악 가진풍류 천동처녀 춤을추며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오색광명 어린곳에 생사대에 건너가서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연대중에 왕생하고 무랑복락 수용하면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너도나도 작별없이 필경서불 하고마네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청산인간 세계중에 극락세계 제일일세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저세계를 들어가면 청춘백발 도시없고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생노병사 끊어지고 장생불사 하신다니 (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선) 어서가세 어서가세 극락세계를 어서가소(후렴) 어-어-어화호 어화늬차 어화호

<산과 언덕을 오를 때 상여소리>

1번

<앞소리>            <뒷소리>  
 가고지고            애화늬차  
 가고지고            애화늬차  
 극락세계            애화늬차

2번

<앞소리>            <뒷소리>  
 가고지고            애화늬차  
 안양국에            애화늬차  
 어서가서            애화늬차

어서가서	애화능차	장생불사	애화능차
아미타불	애화능차	하고지고	애화능차
친견하고	애화능차	높은대는	애화능차
마정수기	애화능차	낮아지고	애화능차
받고지고	애화능차	좁은대는	애화능차
가고지고	애화능차	넓어지네	애화능차
가고지고	애화능차	태산이	애화능차
아미타불	애화능차	평로되고	애화능차
계신곳에	애화능차	대동강이	애화능차
나도자리	애화능차	육로로다	애화능차
같이하여	애화능차	앵모야	애화능차
향화공양	애화능차	공작새는	애화능차
받치지고	애화능차	화초밭을	애화능차
가고지고	애화능차	넘나들고	애화능차
가고지고	애화능차	이리날라	애화능차
연꽃나라	애화능차	저리가고	애화능차
어서가서	애화능차	저리날라	애화능차
너도나도	애화능차	이리오고	애화능차
차별없이	애화능차	부처님	애화능차
함께성불	애화능차	고향으로	애화능차
하고지고	애화능차	왕생극락	애화능차
가고지고	애화능차	하옵소서	애화능차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42-945쪽.

[사상구 민요 6]

### 모심기 노래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철 따라 많은 노래와 소리가 불려오고 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둬들일 때까지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나가 해가 저물 때까지 종일토록 허리 굽혀가면서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오뉴월 띄약별 아래서 힘든 농사일 지루한 하루해를 노래하면서 시

름을 달래온 것이 모심기 노래 유래라 생각된다. 모심기 노래(등계), 여기서는 등계라고 한다. 모 찢 때 하는 노래, 모심을 때 하는 노래, 점심 때 하는 노래, 오후 해질 무렵에 하는 노래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모심기 노래다. 등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주고 받아가면서 부르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기도 한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예 한숨에 모즘지고 한손으로 모 한포기 한포기 심으면서  
요눔아 모는 수눔이고 논 바닥은 암눔이네  
여기뽑고 저기뽑고 시아비등에 뽑아 보고  
여기도 뽑고 저기 뽑고 시어미 복판에 뽑아보자. (우스개 노래가 나온다)

<모 찢 때 하는 노래>

(앞노래) 한강수에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답노래) 하늘에다 목화 심어 목화따기 거북하네

(선) 일월이 돌아와도 이슬털줄 모르논고  
(답) 매화대 깬커들고 이슬털러 가자시라

(선) 동창이 밝아와도 이슬털줄 모르논고  
(답) 주인양반 어디가고 이슬털줄 왜 모르노

(선)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모자리 들어내자  
(답)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모판을 들어내세

<모심을 때>

(선) 이논에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세  
(답) 우리부모님 산소등에 소를심어 영화로세

(선) 이논에다 모를심어 반달같이 돌아오네  
(답) 니가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선) 이물기저물기 흐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답)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처부방에 놀러갔네

(선)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래

(답) 이달가고 저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선) 찔래꽃은 장가가고 성노꽃은 상각(상객)가네

(답) 만인가나 웃지마소 씨종자바래 내가보라

(선) 모시적삼 안서반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답)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난만치 보고가소

(선) 유월달은 두달인데 처부팔아 부체사지

(답) 구십월이 도라오니 처부생각 절로나네

(선) 저기가는 저구름은 오든신선 타고가요?

(답) 웅천하고 천자봉에 놀든신선 타고가요?

<점심 때>

(선) 늦어노네 늦어노네 점심차지 늦어오네

(답) 이등저등 건너등에 칠기걸려 늦어오네

(선) 오늘납에 점심반찬 무슨고기 올라등고

(답) 전라도라 고심청어 많이많이 올랐드라

(선) 오늘낮에 고기반찬 무슨고기 나왔든가

(답) 명태대가리 대구대가리 쌀난만친 나왔드라

<오후>

(선) 저기가는 저구름은 어든신선 타고가요?

(답) 웅천하고 천자봉에 놀든신선 타고가요?

(선) 저기가는 저스님아 우리님이 오시든가

(답) 오기야 오것만은 칠성판에 언저오네

(선) 남창남창 벼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비

(답) 나도죽어 남자되여 처자권속 넘길라네!!

(선) 진주당산 안사랑에 장구두는 처남손아  
(답) 너겨누부 여중호걸 남중호걸 나를주오!!

(선) 밀양삼당 활기처녀 전옥간에 가졌다네  
(답) 옥사정사 문여려라 처녀화상 보고간다!!

(선) 서울이다 왕대밭에 금비들기 알을 낳아  
(답) 그알한개 내어주면서 금년과거 내갈 것을!!

(선) 양산읍내 물레방은 물을안고 들것마는  
(답) 우리집에 요문둥은 나를 앓고 돌아간다

<해질 무렵>

(선)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답) 우리부모님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선)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답) 방실방실 고운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선)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행상 떠나가나?  
(답)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가요?

(선)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월명당 안에서 손을치네  
(답) 손치는대는 밤에가고 동무집에 낮에가자

(선) 초롱초롱 영사초롱 님에방에 불밝히라  
(답) 님도눕고 나도눕고 저불은 누가결고!!

<수제비 노래>

풍당풍당 살수지비(수제비) 사우(사위) 판에다 올랐네  
시어미 메느리 어디가고 딸을 동자시켰등고  
작다소리는 못하고 그릇만 푹딱두드리고  
뜨겁다 소리는 못해도 아가리만 딱딱 벌린다!!

요놈의 모는 수놈이고 (수컷) 논바닥은 암놈이다 (암컷)  
여기뽑고 저기뽑고 시아비 등에 꼽아보고 시어미 복판에 꼽아보고  
시누이 양달에 꼽아놓고 밤새도록 놀아보자!!

<양 탈>

(선) 저게가는 저처녀야 너나이 몇 살인가

(답) 내나이 열일곱살 왜그리 무르시나

(선) 열일곱 가시네가 야밤중에 어디가나

(답) 저건너 김대감님 등밀러 간다구요

(선) 바람났네 바람났네 거가시네 바람났네

(답) 양탈이네 양탈이네 저늬은이 양탈났네

(선) 알고보니 저가시네 영감집에 자러가네

(답) 왜그리 양탈인가 어제밤은 너거영감 같이자고 오늘밤도 너거영감 보러가  
네

(선) 아이구 못살겠다 요놈의 영감쟁이야 내것은 어찌하려고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다리 노래>

다리다리 무슨다리 총각처녀 놀든다리

처녀다리 백옥다리 총각다리 검둥다리

보름달은 온달이요 초생달은 반달이네

니다리도 내다리고 내다리도 내다리다

안고지고 놀든다리 여섯달만에 낳은다리!!

“이 노래는 쌍소리노래다. 일을 할 때 일꾼들 입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는 노래  
로 제일 기분이 좋고 지루함이 없는 것이 쌍소리 노래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방 귀>

저개가는 저가시네(처녀)방구(방귀)탱탱 끼지마라  
너저실랑 첫날밤에 방구바람에 도망간다  
한 번끼면 이불이떨석  
두 번끼면 대문이흔들  
세 번끼면 집따까리 다날라간다!!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45-949쪽.

[사상구 민요 기]

### 논매기소리

“논매기는 모심은 날로부터 한달 안으로 아시논을 맨다. 첫 논매기를 아시논매기라 한다. 두벌논매기 망시논매기라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논매기도 망시논매기라 한다. 음력 6월달 안으로 논매기를 마쳐야 한다. 농사일 중에 논매기가 제일 힘든 일이다. 종일 논에서 허리 굽혀 엎드려 논을 매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손톱이 닳아 손 끝에 피가 나올 지경이다. 벼 앞에 눈을 찢려 눈병까지 난다. 얼굴이 통통 붓고 숨도 차고 목이 마른다. 그러면 냉수에 간장을 타서 마시기도 한다. 쇠파리가 날아들어 등에서부터 피를 빨다. 거머리까지 다리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니 짜증이 나고 일할 맛이 없다. 농사일치고 논매는 일이 가장 하기 싫고 힘든 일이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앞소리>

얼~널~려 상사디~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사람이 태어날 때  
누덕으로 나왔는고  
부모님의 은덕으로  
넘날 때 나도나고  
내날 때 넘도나고  
다 같은 사람인데

<뒷소리>

얼~널~려 상사디~여  
얼~널~려 상사디~여

어떤사람 팔자좋아	얼~널~려 상사디~여
고대광실 넓은집에	얼~널~려 상사디~여
기생첩을 옆에두고	얼~널~려 상사디~여
놀고먹고 하건마는	얼~널~려 상사디~여
우리부모님 나를낳아	얼~널~려 상사디~여
요놈의 고생시키는고	얼~널~려 상사디~여
못할네라 못할네라	얼~널~려 상사디~여
농사일을 못하네라	얼~널~려 상사디~여
오뉴월 삼복더위	얼~널~려 상사디~여
숨도차고 목마른데	얼~널~려 상사디~여
얼른매고 한잔하세	얼~널~려 상사디~여
얼~널~려 상사디~여	얼~널~려 상사디~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얼~널~려 상사디~여
또한말씀 들어보소	얼~널~려 상사디~여
바다같이 넓은눈에	얼~널~려 상사디~여
아시매고 두볼매고	얼~널~려 상사디~여
망시매고 손을놓고	얼~널~려 상사디~여
7월백중 머슴날에	얼~널~려 상사디~여
우리함께 노라보세	얼~널~려 상사디~여
풍년일세 풍년일세	얼~널~려 상사디~여
우리농사 풍년일세	얼~널~려 상사디~여
올해도 풍년이되고	얼~널~려 상사디~여
내년에도 풍년이되고	얼~널~려 상사디~여
년년이 풍년되어	얼~널~려 상사디~여
우리모두 잘살아보세	얼~널~려 상사디~여
금년농사 잘지어서	얼~널~려 상사디~여
구시월 거두어서	얼~널~려 상사디~여
추수동장 쌓아놓고	얼~널~려 상사디~여
양친부모 모시면서	얼~널~려 상사디~여
나라에 충성하고	얼~널~려 상사디~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얼~널~려 상사디~여
일가친척 화목하고	얼~널~려 상사디~여
형제간에 우애하고	얼~널~려 상사디~여



[사상구 민요 9]

### 보리타작소리

“서편 부락에 최덕우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보리타작 앞소리를 잘 하셨다. 입담이 좋아 무슨 말이든 말을 만들어 타작소리 하는 데는 뛰어난 어르신이였다. 일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 무슨 쌍소리든 해서 일꾼들 입에 웃음이 절로 나게 하고 팔에 힘이 나게 했다. 왼발로 보릿짚을 꾸뚝 들고 여기 있다 때리라고 소리 하면 일꾼들이 힘차게 때리면서 큰소리로 뒷소리를 한다. 종일 보리타작 소리에 지루함이 없었다.”(조정래씨의 수기노트 중에서 발췌)

(선)여보시오	(후렴)오~헤야	(선)농부님네	(후렴)오~헤야
(선)이내한말	(후렴)오~헤야	(선)들어보소	(후렴)오~헤야
(선)이집양반	(후렴)오~헤야	(선)보리농사	(후렴)오~헤야
(선)잘지으소	(후렴)오~헤야	(선)보리타작	(후렴)오~헤야
(선)얼른하고	(후렴)오~헤야	(선)너도한말	(후렴)오~헤야
(선)나도한말	(후렴)오~헤야	(선)품씩받아	(후렴)오~헤야
(선)처자식을	(후렴)오~헤야	(선)먹여보세	(후렴)오~헤야
(선)잘도한다	(후렴)오~헤야	(선)일꾼들아	(후렴)오~헤야
(선)힘을내소	(후렴)오~헤야	(선)보리알만	(후렴)오~헤야
(선)때려주소	(후렴)오~헤야	(선)앞집에	(후렴)오~헤야
(선)청산과부	(후렴)오~헤야	(선)내손만	(후렴)오~헤야
(선)바래구나	(후렴)오~헤야	(선)여기도있다	(후렴)오~헤야
(선)저기도있다	(후렴)오~헤야	(선)보리알만	(후렴)오~헤야
(선)때려주소	(후렴)오~헤야	(선)합바지야	(후렴)오~헤야
(선)꿇바지야	(후렴)오~헤야	(선)잘도한다	(후렴)오~헤야
(선)힘을내소	(후렴)오~헤야	(선)보리고개	(후렴)오~헤야
(선)넘어간다	(후렴)오~헤야	(선)늦어온다	(후렴)오~헤야
(선)점심차지	(후렴)오~헤야	(선)늦어온다	(후렴)오~헤야
(선)배가고파	(후렴)오~헤야	(선)못하겠네	(후렴)오~헤야
(선)힘을내소	(후렴)오~헤야	(선)해다진다	(후렴)오~헤야
(선)얼른하고	(후렴)오~헤야	(선)우리모두	(후렴)오~헤야
(선)한잔먹고	(후렴)오~헤야	(선)놀아보세	(후렴)오~헤야 <sup>595)</sup>

595) 이상, 『사상문화』 제19호(2005년 신년호), 사상문화원, 2005, 44-45쪽.

<타작소리>

(앞소리)	(후렴)	(앞소리)	(후렴)
여보시오	오~혜야	농부님네	오~혜야
이내한말	오~혜야	들어보소	오~혜야
이집양반	오~혜야	닷마지기	오~혜야
보리농사	오~혜야	잘지으소	오~혜야
이집보리	오~혜야	알도좋다	오~혜야
천석이요	오~혜야	만석이다	오~혜야
여보시오	오~혜야	일꾼님네	오~혜야
보리알만	오~혜야	때려주소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보리타작	오~혜야
얼능하고	오~혜야	너도한말	오~혜야
나도한말	오~혜야	품씩받아	오~혜야
처자식을	오~혜야	먹고보세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목이탄다	오~혜야
일꾼들아	오~혜야	힘을내소	오~혜야
앞집에	오~혜야	청산과부	오~혜야
내손만	오~혜야	바라구나	오~혜야
뒷집에	오~혜야	청춘과택	오~혜야
나오도록	오~혜야	눈빠진다	오~혜야
얼능하자	오~혜야	여기있다	오~혜야
저기도있다	오~혜야	보리알만	오~혜야
때려주소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합바지야	오~혜야	곶바지야	오~혜야
흡바지야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소리마차	오~혜야	때려주소	오~혜야
보리고개	오~혜야	넘어간다	오~혜야
목이말라	오~혜야	도리깨질	오~혜야
못하겠네	오~혜야	힘을내소	오~혜야
늦어온다	오~혜야	늦어온다	오~혜야
점심차지	오~혜야	늦어온다	오~혜야
배가고파	오~혜야	못하겠네	오~혜야
일꾼들아	오~혜야	점심온다	오~혜야

힘을내소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얼시구좋다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절시구좋다	오~혜야	잘도한다	오~혜야
해다진다	오~혜야	얼능하고	오~혜야
오늘밤에	오~혜야	처부방에	오~혜야
놀러가자	오~혜야	우리모두	오~혜야
한잔먹고	오~혜야	노라보세	오~혜야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2-954쪽.

[사상구 민요 10]

### 시집살이 노래

비야비야 오지마래 우리생이(언니) 시집가는데  
 가마문에 비들친다  
 우리집이 그립거든 서산해를 바라보고  
 부모가 그립거든 시부모를 바라보고  
 형제가 그립거든 시동생 바라보고  
 아들딸 곱게 길러 가마타고 찾아오소

<손복동, 사상구 감전1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사상문화 200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4쪽.

[사상구 민요 11]

### 영감노래

아이구 아이구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병자년 흉년에 콩비지죽 아홉그릇 먹고  
 뒷눈에 새보러 가서 메뚜기 뒷다리에 채이죽은  
 우리 영감아 미련한 이 영감아  
 세상사람 들어보소  
 사람이 메뚜기 뒷다리에 채이죽은 사람 어디 있소

불쌍한 우리 영감아  
내 요놈의 메뚜기 잡아서 볶아먹고  
영감의 원수 갚으리다 잘가소~

<손복동, 사상구 감전1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사상문화 200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4쪽.

[사상구 민요 12]

### 제목 없는 노래

뽕뽕도는 장돌뽕이 굶지푸다 엄광동네  
평실대다 주례동네 뒤도리다 모래두리  
파동대다 감동동네 수풀수풀 창날동네  
배실배실 모라동네 남창북창 더러가니  
노죽장이 중어로다 거미같은 우리메야<sup>596</sup>  
명도같은 나를잃고 자미나마<sup>597</sup> 올라보나  
나래마나 듯치시면 훌훌나라 가고 싶고

<조정래, 사상구 감전2동, 사상문화 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5쪽.

\*\*『사상문화』 통권26호(2006년 가을호), 사상문화원, 2006, 42쪽.

[사상구 민요 13]

### 망개소리

망개소리는 앞소리가 끝나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 하는 것이다.

<앞소리>	<뒷소리>
어야디야 망개로다	(후렴) 어이여-라차~
천근만깨는 공중에놓고	어이여-라차~
열두자발목은 용왕국가네	어이여-라차~

596) 올어매야(『사상문화』 통권 26호).

597) 잠이나마(『사상문화』 통권 26호).

다져주소 다져주소	어이여-라차~
야무지게 다져주소	어이여-라차~
이집터를 꿩꿩다져	어이여-라차~
하거등에다 터를 닦아	어이여-라차~
용이머리 집을지어	어이여-라차~
조상영전에 공양하고	어이여-라차~
양친부모님 모시면서	어이여-라차~
오순도순 사라가세	어이여-라차~
일년삼백 육십오일	어이여-라차~
안락태평 하옵소서	어이여-라차~
늙은부모님 만수무강	어이여-라차~
어린자녀 수명장수	어이여-라차~
남의눈에는 꽃이되고	어이여-라차~
웃는얼굴에 향내로다	어이여-라차~
이집짓던 삼년만에	어이여-라차~
아들이 낳으면 효자가나고	어이여-라차~
딸이 낳으면 열녀가나소	어이여-라차~
말이나거든 용마가 나소	어이여-라차~
소가나거든 왓대가 나소	어이여-라차~
개가나거든 복개가 나소	어이여-라차~
닭이나거든 봉학이 나소	어이여-라차~
이루어주소 이루어주소	어이여-라차~
천석만석을 이루어주소	어이여-라차~
이루어주자 이루어주자	어이여-라차~
만만석을 이루어주자	어이여-라차~
일년 삼백육십오일	어이여-라차~
온갖질병 막아주소	어이여-라차~
놀리주자 놀리주자	어이여-라차~
천년만년 놀리주자	어이여-라차~
자손대대 영화로다	어이여-라차~
어이여-라차	어이여-라차~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6쪽.

[사상구 민요 14]

## 망깨소리

담장이나 집을 지을 때 구덩이를 파서 사토를 넣어 물을 붓고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망깨라 한다. 영호남 지방에서는 달구를 망깨라 하는데 망깨로 터를 다지는 일을 망깨질 또는 달구질이라 하며 각 지방마다 망깨소리는 일정하지 않다. 우리 고장은 집터와 관련된 소리 즉 축원소리로 망깨를 한다.

<소리>	<후렴>
어이여라~차	어이여라~차
천세망깨는 공중에 놓고	어이여라차
열 두자 말목은 용왕국가네	어이여라차
남산은 봉이로다	어이여라차
주산은 당산이다	어이여라차
천년지둥 만년가옥	어이여라차
주춧돌에 땀이 나고	어이여라차
말목기둥에 쏘이 나네	어이여라차
하거등에다 터를 닦아	어이여라차
좌청룡 우백호라	어이여라차
전우좌로 둘러서니	어이여라차
천하명당 이집터라	어이여라차
금정산에 정기받아	어이여라차
이집짓든 삼년만에	어이여라차
아들이 낳으면 효자나고	어이여라차
딸이 낳으면 열녀가 나소	어이여라차
말이 낳으면 용마가 나소	어이여라차
소가 낳으면 왓태가 나소	어이여라차
개가 낳으면 복개가 나고	어이여라차
닭이 낳으면 봉학이 나고	어이여라차
만인간에 소원성취	어이여라차
부귀영화 마른하소	어이여라차

이루주소 이루주소	어이여라차
천석만석 이루주소	어이여라차
이루주소 이루주소	어이여라차
만만석을 이루주소	어이여라차
이집터를 다저주소	어이여라차
천하제일 이집터에	어이여라차
산칸녹칸 집을 지여	어이여라차
양친부모 모시면서	어이여라차
천년만년 사라가소	어이여라차
놀러주소 줄러주소	어이여라차
천년만년 놀러주소	어이여라차
잡귀귀신은 물로가고	어이여라차
만복수복은 이리로오소	어이여라차
이어여라차	

\*『사상문화』 통권28호(2007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7, 30쪽.

[사상구 민요 15]

### 소 노래

(1)	(2)
일년농사 지어놓고	이내쌀을 잘라내여
정월이라 대보름날	만인간이 갈라먹고
나물한그릇 밥한그릇	뽕이나 버릴까하였드니
탁주한잔 바다먹고	양반놈들 안경집드가고
함심잘라 누워뜨니	대가리나 버릴까하였드니
왕백지 배달군이	양반놈들 보신에 다드러가네
긴칼허리차고 양어깨	뼈다귀나 버릴까하였드니
토끼매고 부실부실	고음솔에 다드러가고
날잡으러 내려오네	껍데기나 버릴까하였드니
한번때려 아니죽고	활양놈들 복장구에 들어가고
두 번때려도아니죽고	꿈지나 버릴까 하였드니
세번을 내리치니	장동뱅이모팅 파리체드러가고

왜애라고 자빠지네      똥오줌이나 버릴까하였드니  
이내목에 피를내어      보리논밭 그림에 다드러간다네  
만인간이 맛을 보고      남은것은 눈물뿐이로다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6쪽.

[사상구 민요 16]

### 올아베

수수개야 수망개야 만리동동 올아배야  
천부에 자식두고 구실장가 가지마소  
애라야야 그말마라 창맨수전에 목매운다  
이내나는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대밑에 묻어주소  
연꽃이나 피거들랑 눈물항상 지어주소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6쪽.

\*\*『사상문화』 통권26호(2006년 가을호), 사상문화원, 2006, 43쪽.

[사상구 민요 17]

### 중 노래

중아중아 니칸네칸 뱀잡아 횃치고 개구리잡아 짱치고  
목탁염주 집어던져좋고 술이나먹고 노래하고 춤이나추고  
놀아보자 열시구좋다 술맛도좋다 절시구좋다 노래도좋다  
중아중아 땡땡이중아 목탁치고 놀아보자구나!!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7쪽.

중아중아 니칸네칸 뱀잡아 횃치고 개구리잡아 짱치고

목탁염주 집어던져놓고 술이나먹고 노래하고  
춤이나추고 놀아보자  
얼시구좋다 술맛도좋다 절시구좋다 노래도좋다  
중아중아 땡땡이중아 목탁치고 놀아보자구나!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사상문화』 통권26호(2006년 가을호), 사상문화원, 2006, 42쪽.

[사상구 민요 18]

### 다래

모래야 다래야 누로보고 열렸노 아개창자개창 밍창봉창  
맞다지기 너를보고 열렸네!!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7쪽.

\*\*『사상문화』 통권26호(2006년 가을호), 사상문화원, 2006, 42쪽.

[사상구 민요 19]

### 시집가는 날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언니) 시집가는데  
가마문이 비들친다 생이생이 우리생이  
맷고매운 시집살이 낭군님을 생각하고  
부모가 그립거든 시부모님 바라보소  
형제가 그립거든 시동생들 쳐다보소  
친정이 그립거든 보름달을 쳐다보소  
고향산천이 그립거든 아들딸 손을잡고  
꽃가마타고 찾아오소 생이생이 우리생이  
뒤돌아 보지말고 모두 다 잊고가소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7쪽.

[사상구 민요 20]

### 쌍가락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작실로 녹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래라  
자태보니 처자네라 그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릴네라  
청도바시 오라바시 거짓말 마라주소 남풍이 부르오니  
풍지떠는 소릴네라 거짓말 마라주소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8쪽.

쌍가락지 노래는 주로 여인네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다. 조금 슬픈 곡으로 노래를 부른다. 여러 사람이 방안에 둘러앉아 겨울밤에 김발을 치면서 지루한 밤을 새우면서 부르는 쌍가락지 노래다.

쌍금 쌍금 쌍가락지 주작실로 녹가락지  
먼 데 보니 달일네라 자태보니 처자네라  
그 처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들일세라  
홍달바시 오라바이 거짓말 말아주소  
남풍이 부르오니 풍지 떠는 소릴레라  
그 소리가 외로와서 자는 듯이 죽고 싶네  
이내 나는 죽어 덜랑 앞산에도 묻지 말고  
뒷산에도 묻지 말고 연대 밑에 묻어주소  
연꽃이 피거들랑 눈물 항상 지어주소

\*『사상문화』 통권28호(2007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7, 31쪽.

[사상구 민요 21]

### 짱금이 노래

이 노래는 두 사람이 주고 받으며 노래를 한다. 빠른 곡으로 불러야 재미가 있다.

(선) 아-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애요눔어 찡금아 내머리를 잘라서 달비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 갚겠나

(선) 아-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애요눔어 찡금아 내눈을 뽑아서 겨울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갚겠나

(선) 야-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애요눔어 찡금아 내코를 끈어서 굴뚝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갚겠나

(선) 야-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애요눔어 찡금아 내팔을 잘라서 까꾸리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갚겠나

(선) 야-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애요눔어 찡금아 내부알을 잘라서 요랑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갚겠나

(선) 야-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야요눔어 찡금아 내다리를 잘라서 깽이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못갚겠나

(선) 야-요눔어 찡금아 내돈석냥 내어라  
(답) 야요눔어 찡금아 내몸뚱아리 다팔아도 니돈석냥 주고도 남는다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8쪽.

[사상구 민요 22]

## 장 노래

셋바람 반지 하단장  
너무 추어서 못보고  
꼰목꼰목 부산장  
길 못찾아 못보고  
꾸벅꾸벅 남창장  
허리가 아파 못보고

고개넘어 동래장  
다리가 아파 못보고  
넘기싫다 배고개야

<조정래, 사상구 감전2동, 사상문화, 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9쪽.

[사상구 민요 23]

## 지신밟기 / 성주풀이

### (1) 서감(감전1동)의 지신밟기

“西便버구농악은 지난날 사상면 대표로 동래군 관내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구포읍과 동점 점수로 공동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우승기는 구포읍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관리 잘못으로 좀 먹어서 못쓰게 되었다. 그밖에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 농악경연대회에 참가 부산진구 대표로 3등 수상,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시 농악경연대회에 참가 3등 수상, 1971년 2월 14일 구포 제1회 청구예술경연대회 참가하여 경연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地神밟기로 전포동에서 7년을 하였고 국제시장 용두산 밑 미화당백화점-동광동, 사상에서 괘법동과 덕포동, 구포1, 2동… 이와 같이 西便地神밟기는 사상에서 손꼽는 地神밟기다!! 감전2동에서 성주풀이를 잘하신 돌아가신 어르신인 현 구청장 윤덕진 부친이 살아계실 때 성주풀이를 아주 잘 하였는데 보존을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이다. 감전1동에서는 성주풀이를 잘하신 한재문씨. 이 분의 성주풀이는 목소리가 아주 좋아 명창 중 명창이다. 돌아가신 한재문씨는 사상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민속놀이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다. 사상 토박이라면 이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행히 이 분의 성주풀이를 제가 전수받아 제자로서 그 맥을 이어오면서 보존을 하고 있다. 西便버구농악은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 민속 버구농악이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 (2) 성주풀이

“성주풀이 根本 : 성주풀이는 각 지방마다 가사와 곡이 다르지만 그 根本은 같은 것이다. 성주풀이 첫 머릿소리에 성주님 根本이 나오는데 대개가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이라고 나오지만 西便(甘田一洞) 성주풀이는 西天國이 根本으로 나오는 것이 색다른 성주풀이이다. 성주님이 탄생하여 어떻게 하여 귀양 3년을

살고 나왔으며,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기 원>

올 한해도 이집 가정에 대주부친  
대주모친 대주양반 대주부인  
그 자녀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동서남북 다 다녀도 나의 눈에 꽃이 피고  
자죽자죽이 쌓내나고 웃는 얼굴에 향내가나소  
마음과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건강한  
가정에 안락태평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사 설>

천기(天氣)는 子하니 하늘은 (자)  
子時에 열려 있고  
지백(地伯)은 丑하니 땅은 (축)  
丑時에 생겨 있고  
인생(人生)은 寅하니 모든사람은 (인)  
人時에 생겨났고  
귀신(鬼神)은 卯하니 귀신은 (묘)  
卯時에 생겨있노라

<성주풀이>598)

여여루 성주님아 성주님을 모시보자  
성주근본이 어뒤메요 서천국이 근본이다  
성주부친 누시든고 청궁황제가 분명하다  
성주모친 누시든고 옥절부인이 분명하다  
세월이 여루하여 영광삼십 되었으되  
일천효력 전혀없어 주야부부 한탄한다  
무주야남산 치치달려 철성당을 모아놓고  
백일불공 더러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태기있어 온갖음식 맛이없어  
열손가락 매콤하고 열발가락 매콤하네

598) 『사상문화』 2004년 봄호(사상문화원, 2004), 31쪽. 「사상구 민요 I」로 별도 게재함.

시부모보기 피병같고 이내일신 고달프다  
 한달가고 두달가고 칠팔씩이 되었구나  
 녀도난다 녀도난다 청룡인가 황룡인가  
 금실금실 잘도논다 어찌아니 좋은손가  
 십씩이 장차 되었으니 일등귀공자 탄생하니  
 한살먹어 흥진하고 두 살에 소임하고  
 세 살에 걸음 배워 네 살에 말 배우고  
 다섯 살에 입학하여 여섯 살에 무법통치  
 한해가고 두해가고 십오세가 되었구나  
 모년모월 모일이라 허흔청흔 가례받아  
 장가가던 삼년만에 나라님께 불충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일가친척 화목없고  
 주색잡기 방탕하여 나라님께 상소하여  
 대전통편 내여놓고 귀향삼년 마른할 때  
 무주남산 치치달려 남걸비여 배를모아  
 서천강에 띄워놓고 삼년먹을 양도실고  
 삼년입을 의복실고 부모처자 하직하고  
 간다간다 나는간다 황토섬 귀향을 나는 간다  
 황토섬을 당도하니 어찌아니 슬플소냐  
 남걸휘여 집을 삼고 돌비석을 벗을삼아  
 세월을 보낼때에 한해가고 두해가고  
 먹든양도 떨어지고 입든의복 떨어져서  
 북풍한철 찬바람은 살핀 듯이 부르오고  
 아이구 답답 내팔자야 아이구 답답 내신세야  
 산체혜체 먹고가니 온만신이 털이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할 수 전혀 없다  
 이때가 어느땀가 춘삼월 묘춘이라  
 날아든아 날아든다 청조새 한 마리 날아든다  
 새야 새야 청조새야 전해주소 전해주소  
 성주님 소식 전해주소 성주님 말 부탁 전해주소  
 먹이 있어 글을 쓸까 붓이 있어 글을 쓸까  
 성주님 손가락 깨어 물어 혈서 한 장 써서내며  
 청조새 입에 물려주니 청조새 거동보소  
 그 편지 입에 물고 천장만장 높이 날아

성주님 모친 거동보소 자식을 이별하고  
 골수에 점점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로다  
 이 때가 어느때가 춘삼월 모춘이다  
 청조새 거동보소 그 편지 물려다가  
 성주님 모친께 전해주니 그 편지 읽어보니  
 성주님 글씨가 분명하고 성주님 혈서가 분명하다  
 나라님께 상소하여 다시 그 배 내어 타고  
 인삼녹용 가득 싣고 성주님 모시러 어서가자  
 황토섬을 당도하니 성주님은 간곳없고  
 외연한 짐승이 앉았구나 그 짐승 높이실어  
 인삼녹용 먹었더니 온 만신에 털을 벗어  
 성주님 일신이 분명하니 어찌 아니 좋을 손가  
 황토섬아 잘있거라 돌비석아 잘있거라  
 간다간다 나는 간다 우리의 고국으로 나는 간다  
 [꿈마깽깽 하는 소리 성주해상 더 높게!!]

☞해설

성주님이 탄생하여 나라님께 불충하고 부모님께 불효하여 대전통편 내어 놓고 저 멀고 먼 황토섬 귀향삼년을 살고 돌아와 옳은 인간이 되어 백성들에게 도덕을 닦기 위하여 나라님께 상소하여 속씨 서말 서대 서흡을 얻어다가!!

<솔씨 뿌리는 풀이>

떠졌네 떠졌네 무주야 남산에 떠졌네  
 그 솔이 점점 자라서 한창목이 되었고  
 한창목이 자라서 천장목이 되었고  
 천장목이 자라서 돌의 기둥이 되었네  
 앞집에 김대목 뒷집에 박대목 옥도끼 둘러메고  
 무주야 남산을 치치달려 한남걸 바라보니  
 까막까치 집을 지어 그것도 양대라  
 또 한가지 바라보니 황새, 들새가 집을 지어 그것도 양대라  
 또한 남걸 바라보니 온갖 산천 칠기능굴 휘휘 칭칭 감겼네  
 그 중에 한가지 잘라내어 이 집에 상냥을 장만하고  
 또 한가지 잘라내어 이 집에 대들보 장만하고  
 또 한가지 잘라내어 이 집에 남도리 장만하고

또 한가지 잘라내어 이 집에 기둥을 장만하고  
또 한가지 잘라주어 추연목을 장만해~

☞ 해설

앞집에 김대목, 뒷집에 박대목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첩첩산중 명산을 찾아 집을 지으려 하였다. 집을 지으려면 예나 지금이나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집은 대한민국 제일가는 집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러자면 풍수를 청하여 좋은 집터를 잡아야 하니 풍수를 불러 집터를 보러 갑시다.

<풍수가 집터를 보러 가는 풀이>

풍수가 두룬다 풍수가 두룬다  
전남산 도을새 옷고름에 늘어차고 이리저리 두룬다  
동쪽에 두루고 남쪽에서도 두루고  
서쪽에서도 두루고 북쪽에서도 두룬다  
부산역을 치치달려 급행열차를 잡아타고  
서울이라 당도하니 서울 뒷산은 삼각산.  
서울 앞산은 종남산 황해도 구월산  
충청도 계룡산 전라도 지리산 경상도 태백산  
김해하고 무척산 동래부산 금정산  
금정산 줄기가 뚝 떨어져서 이 동네 당산이 생겼고  
당산줄기 받아서 이 집터가 되었네

☞ 해설

조선팔도 일류 가는 집터를 잡았으니 일꾼을 불러다가 집터를 잘 고릅시다.

<집터 닦는 풀이>

(앞소리)

일꾼이 두룬다 일꾼이 두룬다  
석자수건 목에 걸고 이리저리 두룬다  
가례줄을 걸어라 (뒷소리) 얼널려 상사뒤야  
이집터를 딱아서 (뒷소리) 얼널려 상사뒤야  
아들 삼형제 점지하고 (뒷소리) 얼널려 상사뒤야  
이집터를 딱아서 (뒷소리) 얼널려 상사뒤야

딸 열녀 낳으시고	(뒷소리) 열널려 상사뒤야
이집터를 짝아서	(뒷소리) 열널려 상사뒤야
소원성취 하오리다	(뒷소리) 열널려 상사뒤야
이집터를 짝아서	(뒷소리) 열널려 상사뒤야
천석만석 이루리다	(뒷소리) 열널려 상사뒤야

☞ 해설

일꾼들이 집터를 잘 고르고 닦아 놓았으니 이 집터를 팡팡 야무지게 다져 봅시다.

<망개풀이>

(앞소리) 어야뒤야 찬이로다	(뒷소리)어히여~라~차아~
천세만개는 공중에 놓고	(뒷소리)어히여~라~차아~
열두자 말목은 용왕국 가노라	(뒷소리)어히여~라~차아~
다져주소 다져주소	(뒷소리)어히여~라~차아~
이집터를 다져주소	(뒷소리)어히여~라~차아~
부귀영화 하오리다	(뒷소리)어히여~라~차아~
이집 짓던 삼년만에	(뒷소리)어히여~라~차아~
소원성취 하오리다	(뒷소리)어히여~라~차아~

☞ 해설

나무도 장만하고 좋은 집터도 마련하였으니 대목을 불러 집을 지어 봅시다.

<대목이 집을 짓는 풀이>

대목이 두룬다 대목이 두룬다  
 가진 연장을 둘러매고 이리저리 두룬다  
 하거등에다 터를 닦아 용의머리 집을 짓고  
 옷기화를 답씩 넣어 일일이 산지없고  
 백마추자 백마추자 효자춘색을 백마추자  
 이류수 이칠화는 사면을 둘러 있고  
 삼팔목이 동문이 되고 사구검이 거문이오  
 일류수가 북문이요 이칠화가 남문이라

사모에 필경 달아 동남풍이 불어 오니  
풍경소리가 요란해~

☞ 해설

학의 등에다 터를 닦아서 용의머리 집을 지어 동남풍이 불어오니 풍경소리 요란하니 이 아니 좋은 집인가. 집 잘 지었노라. 집을 지었으면 반드시 성주님을 모시는 것이다(조상님도 모심). 그리해야만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 많이 받고 소원 성취하느니라.

<성주님 모시는 풀이>

모시자 모시자 성주님을 모시자  
모시자 모시자 세조님도 모시보자  
右靑龍 左伯虎 右靑龍 左伯虎  
右靑龍 左伯虎 右靑龍 左伯虎

<성주님 축문>

성주 택자왈 불응귀신 지수나 영히나 상하계신 지중에 성주님은  
친히 명침이요 여-불모 빈주지제에 공자대성인도 화이명제라  
가촌천조 지제에 능손 만사지 통하고 와가는 효방성주요 초가는  
무신 성주라 인인가가에 의주성주하니 일자천작에 좌정하옵소서!!

☞ 해설

성주님이 귀향 삼년을 살고 돌아올 때 묻어온 귀신 따라온 귀신 온갖 잡귀신이 다 따라왔다. 이 못된 잡귀를 몽땅 잡아다 절벽에 던져 버리자!!

<모든 잡귀신을 쫓는 살풀이>

살풀자 살풀자 쳐다봐라 천암살  
내려다 보아라 지암살 나무에 떨어져 목살이다  
돌에 받쳐 석살이다 불에 타서 화살이다  
물에 빠져 수살이다 제물에는 존제살  
남에게는 악한살 대문간에 숨은살  
마구간에 우마살 앞마당에 번개살  
뒷마당에 벼락살 천살만살 귀신살  
정월십오일 망월살 이월이라 한식날

삼월삼진날 연자살 사월이라 광등살  
 오월이라 단오날 유월이라 유두살  
 칠월이라 칠성살 오동지 육석살  
 온갖 살을 다 풀자 잡귀잡신은 물러가고  
 만복은 이리로 놀리자 놀리자 천년만년 놀리자

☞ 해설

올 한해도 이집 가문에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마음과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건강한 가정에 안락태평 하시기를 다 같이 축원을 합니다.

<가정축원>

성주님의 본을 받아 이 집에 계시는 대주부친  
 성주님의 본을 받아 이 집에 계시는 대주모친  
 성주님의 본을 받아 이 집에 계시는 대주양반  
 성주님의 본을 받아 이 집에 계시는 대주부인  
 성주님의 본을 받아 이 집에 계시는 대주자녀들  
 대한민국 다 다녀도 남의 눈에는 꽃이 되고  
 자죽자죽 쌓내나고 웃는 얼굴에 향내가 나서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을 나면 열녀가 나소  
 말이 나면 용마가 나고 소가 나면 약대가 나소  
 개가 나면 복개가 나고 닭이 나면 봉학이 나소  
 이루자 이루자 천석만석을 이뤄주자  
 이루자 이루자 만만석을 이뤄주자  
 일년삼백육십오일 만수무강 하옵소서  
 일년삼백육십오일 소원성취 하옵소서  
 일년삼백육십오일 한희보행 하옵소서  
 잡귀신은 물러가고 만복은 이리로 오소  
 놀리자 놀리자 천년만년을 놀려주자

<당산풀이>

대법천왕 당산신  
 제석천왕 당산신  
 삼십삼천 당산신  
 이십팔수 당산신

오악지신 당산신  
후토지신 당산신  
동방청제 당산신  
남방적제 당산신  
서방백제 당산신  
북방흑제 당산신  
중앙황제 당산신  
사해지신 당산신  
용왕지신 당산신  
동방대장군 당산신  
남방대장군 당산신  
서방대장군 당산신  
북방대장군 당산신  
중앙대장군 당산신  
갑을병정 당산신  
자축인묘 당산신  
모진사방 당산신  
당선선왕 당산지신  
명당구진 당산지신  
청룡백호 당산지신  
주작현무 당산지신  
산신국내 당산지신  
이당산을 왕래한자  
재수대통 하옵시고  
일년삼백육십오일 한회봉행 하옵소서  
놀이자 놀리자 당산지신을 놀리자

<조왕풀이>

여~여루 조왕아 조왕신을 올리자  
조왕본이 어뒤메요 이 입 여기가 본이로다  
하늘에 옥황상제 점지하는 조왕이라  
경주말치 서말치 석계말치 닷말치  
여기저지 걸어놓고 국끓이고 밥하세  
은조록 녹조록 네모반듯 지질이라

삼삼은 불효초 이부엌 안으로 다 들어가소  
 이리가도 조왕님네 저리가도 조왕님네  
 일년삼백육십오일 화재도난을 막아주소  
 일년삼백육십오일 밥이나 잘 되어 주소  
 일년삼백육십오일 온갖벌레 다 막아주소  
 잡귀잡신은 물러가고 만복은 이리로오소  
 놀리자 놀리자 조왕신을 놀리자

<마구간풀이>

여~여루 지신아 마구간 지신을 울리자  
 마구간 본이 어뒤메요 이집여기 본이로다  
 하늘에 옥황상제 점지하는 마구간에  
 막아주소 막아주소 온갖질병을 막아주소  
 말이나면 용모가 나고 소가나면 악대가 나소  
 개가나면 복개가 나고 닭이나면 봉학이 나소  
 온갖질병 물러가고 맑은바람 이리로 오소  
 놀리자 놀리자 마구간 지신을 놀리자

<우물풀이>

여~여루 샘이야 용왕신을 울리자  
 샘의 본이 어뒤메요 이 샘이 여기 본이로다  
 하늘에 옥황상제 점지하는 이 샘이라  
 동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칠년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줄줄 나와주소  
 이 샘을 왕래한자 이 물 먹고 장수하네  
 여름에는 천년수요 겨울에는 온천수라  
 물맛 좋은 이 샘이 천년만년 놀리자  
 놀리자 놀리자 용왕신을 놀리자

<장독풀이>

여~여루 장독아 장독신을 울리자  
 장독본이 어뒤메요 이 집 여기 본이로다  
 하늘에 옥황상제 점지하는 장독이라

멋더렸네 멋더렸네 이 집 장독이 멋더렸네  
콩대자 멋더른되 소금염자 없을소나  
콩콩찌은 된장이 콩콩찌은 막장에다  
꿀치자 꿀치자 되기장 위에도 꿀치자  
꼬장은 메박사 박장은 달아사  
막아주자 막아주자 온갖 벌레 다 막아주자  
놀이자 놀리자 장독신을 놀리자 (끝)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59-968쪽.

[사상구 민요 24]

### 칭칭이 소리

“치기나칭칭나네(쾌지나칭칭나네). 여기서는 ‘치기나칭칭나네’라고 부른다. 칭칭이 소리는 방방곡곡 어디서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노래다. 칭칭이 소리는 농민들이 협동심과 단결심, 삶의 힘을 내는 흥겨운 노래다.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빈 속에 시원한 막걸리 한잔 마시면 속이 시원하듯이, 경상도 덧뵈기춤 장단에 어깨춤이 덩실덩실 절로 나는 칭칭이 소리에 모두가 한마당 놓고 나면 피로가 싹 풀어지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진다.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로회복용 약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웃음을 안겨주는 중요한 노동요다. 다른 소리는 작업을 하면서 시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하지만 이 칭칭이 소리는 작업하면서도 부르지 않는다. 일이 끝난 후 즐겁게 노는 판에서 칭칭이 소리를 하는 것이 특이한 노동요라 할 수 있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선) 칭칭칭나-네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억조창생 만민들아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이내한말씀 들어보소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이세상에 태어날 때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늬덕으로 나왔는가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부모님의 음덕으로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이내몸이 태어나서	(후렴) 치기나칭칭나네-네-

(선) 무슨공덕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부모님께 효도하여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가내규범 세웠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배고픈이 밥을주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아사구제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헐벗은이 옷을주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구난공덕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깊은물에 다리놓아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월천공덕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목마른이 물을주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급수공덕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병든사람 약을주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활인공덕 하였는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억조창생 만민들아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또한말씀 들어보소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우리부모 잘섬기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착한자식 이어지고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부모를 천대하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악한자식 이어지네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부모보양 못하면은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돌아간후 눈물되고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후회한들 쓸데없네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부디부디 명심하여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부모보양 하여보세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오늘같이 성한몸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하루아침 병이들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팔진미도 쓸데없고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흐르나니 눈물이네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억조창생 만민들아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또한말씀 들어보소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풍년일세 풍년일세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금년에도 풍년되고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내년에도 풍년되고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선) 년년이 풍년되어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                 |
|----------------|-----------------|
| (선) 우리모두 잘살아보세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금년농사 잘지어서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구시월 거두어서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추추동장 쌓아놓고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부모님 모시면서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나라에 충성하고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부모님께 효도하고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일가친척 화목하고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동지석달 긴긴밤에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오순도순 우리가족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동창하 빛은술로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너도한잔 나도한잔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밤새도록 놀아보세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만세만세 만만세라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우리농부 만만세라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만세만세 만만세는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 (선) 우리가족 만만세요  | (후렴) 치가나칭칭나네-네- |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68-970쪽.

[사상구 민요 25]

## 두견새 소리

“산에 가면 산새들 울음소리 들에 가면 들새들이 우는소리. 울음인지 노래 소린지 잘은 모른다. 다만 새들이 울 때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는 소린지 노래하는 소린지 알 수가 있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들판에서 우는 뜰새가 울음소리. 이 뜰새가 울음소리를 사람이 흉을 내면 뜰새이이란 놈이 자기 우는소리 흉내낸다고 분풀이를 하는 새다. 눈에 들어가서 벼를 못 쓰게 벼이삭을 비틀어버린다. 새들의 노래 중에서도 구공새는 우리 인간의 애달픈 사연의 노래와 닮은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구공새는 두견새를 의미하며 꼭 밤에만 울기 때문에 예부터 애간장을 다 녹인다는 사연이 깃들어진 새이다. 이처럼 하찮은 새도 부모가 그리워 이절한 울음을 노래로 부르니 듣는 사람

의 마음을 애달프게 한다. 구공새의 노래를 소개한다.”

<손복동씨의 수기노트에서 발췌>

구공구공 구공새야 무엇이 그리워 슬피우나  
옷이그리워 슬피우나 밥이그리워 슬피우나  
무엇이그리워 슬피우나 옷도밥도 안그럽고  
부모님그리워 슬피운다 우리아버지 제비든가  
집만짓고 간곳없고 우리어머니 나부든가  
말만싫고 간곳없고 우리생이 여치든가  
배안짜고 간곳없고 저승길이 길갈으면  
가며오며 보련마는 저승문이 문갈으면  
열고달고 보련마는 구공구공 구공새야  
무엇이 그리워 슬피우나 옷도밥도 안그럽고  
부모님 그리워 슬피운다네 !!

<손복동, 무형문화재 제11호, 수기노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971쪽.

[사상구 민요 26]

### 고동바위골 민요

왜놈아 잡놈아  
고동바위 물 간다  
편지 한 장 써 주소

<1979년 6월 모라동 거주 향토사학자 김기환씨로부터 채집>

\*『사상문화』 제24호(2006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6, 31쪽.

### 3. 사하구 민요

[사하구 민요 1]

#### 부산 배내리기 소리



①김임록. 남. 64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②최종민. 84. 11. 20.  
같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49쪽.

[사하구 민요 2]

#### 부산 그물 당기기 소리 (I)

J. = 92  
실음은 완전 4도 낮음

①김임록. 남. 64세.  
임봉희. 남. 80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②최종민. 84. 11. 20.  
같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05쪽.

[사하구 민요 3]

부산 그물 당기기 소리 (2)

①김임록. 남. 64세.  
 임봉희. 남. 80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②최중민. 84. 11. 20.  
 같음.

♩ = 160  
 실음은 완전 4도 낮음

〈메〉 〈받〉 † † 〈메〉 〈받〉 〈메〉 〈받〉 〈메〉 〈받〉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야찬데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05쪽.

[사하구 민요 4]

부산 그물 당기기 소리 (3)

①김임록. 남. 64세.  
 임봉희. 남. 80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②최중민. 84. 11. 20.  
 같음.

♩ = 138  
 실음은 장 3도 낮음

〈메〉 〈받〉 〈메〉 〈받〉 〈메〉 〈받〉 〈메〉 〈받〉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예 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05쪽.

[사하구 민요 5]

부산 그물 당기기 소리 (4)

①김임록. 남. 64세.  
 임봉석. 남. 80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②최종민. 84. 11. 20.  
 같음.

♩ = 160  
 실음은 단 3도 낮음

(메) (받) (메) (받)

에 산 자 에 산 자 산 자로 다 에 산 자  
 에 산 자 에 산 자 에 산 이 야 에 사 나 자  
 에 산 자 에 사 나 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 -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06쪽.

[사하구 민요 6]

사하 방아소리<sup>599)</sup>

1) 제분·정미소리

어허쿵덕 방아야	(뒷소리)	어허쿵덕 방아야	
이방아는 뉘방안고	(뒷소리)	조상대대 짚은방아	(뒷소리)
혼자짚는 독구방아	(뒷소리)	둘이짚는 디딜방아	(뒷소리)
셋이짚는 목가래방아	(뒷소리)	우마로짚는 돌구방아	(뒷소리)
매로치는 떡돌방아	(뒷소리)	물로짚는 물레방아	(뒷소리)
시어머님 몰래짚는	(뒷소리)	치마밑에 엉덩방아	(뒷소리)
이방아로 짚는곡식	(뒷소리)	한섬짚어 술쌀하고	(뒷소리)
두섬짚어 떡쌀하고	(뒷소리)	석섬짚어 밥쌀하고	(뒷소리)

599) 1996년 10월 4일 제2회 사하방아소리발표회.

만반진수 장을보아	(뒷소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뒷소리)
우리집에 아버님의	(뒷소리)	생신잔치 하올적에	(뒷소리)
일가친척 모셔놓고	(뒷소리)	술밥간에 나누시며	(뒷소리)
생신축하 하옵건만	(뒷소리)	우리님은 어딜가고	(뒷소리)
생신축하 못하시나	(뒷소리)		
옛노인네 하신말씀	(뒷소리)	황천길이 멀다하되	(뒷소리)
그리먼줄 내몰랐네	(뒷소리)		
어화세상 벗님네요	(뒷소리)	이내말씀 들어보소	(뒷소리)
지극정성 짙은곡식	(뒷소리)	나라상납 아니하고	(뒷소리)
부모봉양 안할소냐	(뒷소리)		
그달그믐 다지나고	(뒷소리)	새달초승 돌아오니	(뒷소리)
정월이라 대보름날	(뒷소리)	망월하는 소년들아	(뒷소리)
망월도 좋지마는	(뒷소리)	충효사상 잇을소냐	(뒷소리)

2) 물레방아 · 연자방아소리

오호 좋구나 방아야	(뒷소리)	오호 좋구나 방아야	
이방아는 뉘방안고	(뒷소리)	강태공에 조작방아	(뒷소리)
첩첩산골 물레방아	(뒷소리)	야산번지 돌구방아	(뒷소리)
빙글빙글 뗏돌방아	(뒷소리)	집집마다 디딜방아	(뒷소리)
부자부춘 목매방아	(뒷소리)	삼사월에 떡보리방아	(뒷소리)
칠팔월에 송편방아	(뒷소리)	구시월에 찢쌀방아	(뒷소리)
동지설달 가래떡방아	(뒷소리)		
이방아로 짙은쌀은	(뒷소리)	한섬짚어 술쌀하고	(뒷소리)
두섬짚어 떡쌀하고	(뒷소리)	석섬짚어 밥쌀하고	(뒷소리)
삼탄갓춘 장을보아	(뒷소리)	지극정성 제물차려	(뒷소리)
일년중에 대명절은	(뒷소리)	설명절이 제일이라	(뒷소리)
만반진수 차린제물	(뒷소리)	조상님전 차려놓고	(뒷소리)
은잔눛잔 술을부어	(뒷소리)	무릎꿇고 잔올린후	(뒷소리)
온가족이 모여앉아	(뒷소리)	음복주를 나누시며	(뒷소리)
명절축하 하시오니	(뒷소리)	그보다 더 좋을쏘냐	(뒷소리)
어화세상 벗님네야	(뒷소리)	이내말씀 들어보소	(뒷소리)
삼천갑자 동방삭도	(뒷소리)	삼천갑을 살았건만	(뒷소리)
염라대황 못친해서	(뒷소리)	한번죽음 못면하고	(뒷소리)
천하일색 황진이도	(뒷소리)	인물자랑 하였지만	(뒷소리)

염라대왕 못친해서 (뒷소리)	한번죽음 못면한데 (뒷소리)
하물며 우리인생 (뒷소리)	염라대왕 친할소냐 (뒷소리)

3) 디딜방아소리

어허 들크등 방아야 (뒷소리)	어허 들크등 방아야	
이방아는 뉘방ாய요 (뒷소리)	강태공의 조조방아	(뒷소리)
조상대대 짚어온방아 (뒷소리)	우리한번 짚어나보세	(뒷소리)
공덕공덕 디딜방아 (뒷소리)	빠그덕빠그덕 가래방아	(뒷소리)
방아방아 무슨방아 (뒷소리)	보리한섬 나락한섬	(뒷소리)
밤새도록 짚고나니 (뒷소리)	동지선달 긴긴밤을	(뒷소리)
방아짚다 지새웠네 (뒷소리)	쿵덕쿵덕 방아소리	(뒷소리)
울담너머로 다넘어가고 (뒷소리)	아낙네들 말소리는	(뒷소리)
입술안에 뱅뱅돈다 (뒷소리)		
시누아씨 머리맹기 (뒷소리)	공중에 놀고	(뒷소리)
올개년 치맛자락 (뒷소리)	나비 춤추네	(뒷소리)
여자 몸맵시는 (뒷소리)	고와야 좋고	(뒷소리)
보리방아 방앗고는 (뒷소리)	거칠어야 좋다	(뒷소리)
방앗고 벌어진데는 (뒷소리)	오곡잡곡을 다먹건만	(뒷소리)
가로새 썩기는 (뒷소리)	억울하게 매만맛네	(뒷소리)
영감아 곱감아 (뒷소리)	개떡잡소	(뒷소리)
부자집에 방아품들어 (뒷소리)	영감줄라고 개떡꿨소	(뒷소리)
개떡을 꿨으면 (뒷소리)	작게나 꿨나	(뒷소리)
서말치 솔에단 (뒷소리)	솔반을 꿨소	(뒷소리)
열두번 실은곡식 (뒷소리)	나라상납 아니하고	(뒷소리)
부모님봉양 아니할까 (뒷소리)		

4) 목매방아소리

어여라 방아야 (뒷소리)	어여라 방아야	
이방아는 언제날소 (뒷소리)	신농씨에 농사지어	(뒷소리)
그후로 날겠지요 (뒷소리)	이방아로 목매타서	(뒷소리)
열두번 신고싶어 (뒷소리)	오곡잡곡 방아짚어	(뒷소리)
상미상품 모아사야 (뒷소리)	나라님전 상납하고	(뒷소리)
중미중품 모아다가 (뒷소리)	조상부모 봉양하고	(뒷소리)
채이끝에 싸락받아 (뒷소리)	싸락받아 밥을짓고	(뒷소리)

당기받아 개떡져서	(뒤틀소리)	처자식구 먹었다오	(뒤틀소리)
보리고개 삼사월은	(뒤틀소리)	양지쪽에 보리심어	(뒤틀소리)
먹기전에 뜯어다가	(뒤틀소리)	심금짜다 떡비리방아	(뒤틀소리)
삼동시에 시켰더니	(뒤틀소리)	짚자마자 다먹었네	(뒤틀소리)
옛날옛적 조상님은	(뒤틀소리)	비산비암 논밭이라	(뒤틀소리)
오곡잡곡 심었더니	(뒤틀소리)	칠년대한 가뭄들어	(뒤틀소리)
씨도없이 다말랐네	(뒤틀소리)	구시월 가을 드니	(뒤틀소리)
추수할것 전혀없어	(뒤틀소리)	먹고살길 막막하여	(뒤틀소리)
뒤틀동산에 올라가서	(뒤틀소리)	송기벗겨 칩을캐서	(뒤틀소리)
이방아로 짘어다가	(뒤틀소리)	겨울삼동 먹었다오	(뒤틀소리)
양지쪽에 썩을뜯어	(뒤틀소리)	썩버무리 별미삼아	(뒤틀소리)
온식구가 오순도순	(뒤틀소리)	너먹어라 네먹어라	(뒤틀소리)
화목하게 살았더니	(뒤틀소리)	병자년 원수품어	(뒤틀소리)
정축년에 갓았다오	(뒤틀소리)		
풍년이다 풍년이다	(뒤틀소리)	어화종다 풍년이다	(뒤틀소리)
년년세세 풍년드니	(뒤틀소리)	만백성이 춤을추네	(뒤틀소리)

5) 방아타령

오호호 방아야	(뒤틀소리)	오호호 방아야	
참깨들깨 노는데는	(뒤틀소리)	황새역새 노는데는	(뒤틀소리)
까막까치는 못노는가	(뒤틀소리)	젊은청춘 노는데는	(뒤틀소리)
늪은백발은 왜못놀까	(뒤틀소리)	늪은것도 억울한데	(뒤틀소리)
노소분별은 왜하느냐	(뒤틀소리)	세월이 멀다하고	(뒤틀소리)
지나간세월 멀다해도	(뒤틀소리)	지나간세월 꿈길같고	(뒤틀소리)
청춘세월 멀다해도	(뒤틀소리)	어느사이 백발이요	(뒤틀소리)
백발만 오고말지	(뒤틀소리)	망녕조차 왜오느냐	(뒤틀소리)
망녕만 오고말지	(뒤틀소리)	영결종전은 웬말이요	(뒤틀소리)
여보시오 그말마소	(뒤틀소리)	우리인생 태어날 때	(뒤틀소리)
일생일사 한번죽음	(뒤틀소리)	어느누가 안당하리	(뒤틀소리)
현과선을 많이짜서	(뒤틀소리)	부처님의 도를뒹아	(뒤틀소리)
왕생극락을 가옵니다	(뒤틀소리)		
어화세상 사람들어	(뒤틀소리)	이내말씀 들어보소	(뒤틀소리)
나라에는 충성하고	(뒤틀소리)	부모님전 효도하고	(뒤틀소리)
형제간에 우애있고	(뒤틀소리)	이웃간에 친절하며	(뒤틀소리)

한평생 살아보세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99-103쪽.

[사하구 민요 7]

### 다대포 후리소리<sup>600)</sup>

\* 옛 다대포는 멸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멸치잡이와 관련한 어로요가 자연스럽게 형성·전승되어 왔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수영구의 어방놀이, 기장군의 멸치 후리소리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어로요라 할 수 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풍어를 기원하는 비나리 사설에서부터 멸치잡이의 전 노동과정을 담아내는 사설 그리고 풍어의 기쁨을 노래한 사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덟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당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앞터당산 서낭님요 뒷터당산 서낭님요  
두골목에 서낭대신 그물걸리 좋은시에  
기도발원을 드리오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위해  
조그만한 배를모아 그물한채를 배에신고  
부모형제 처자들을 손을들어 작별한후  
파도속으로 헤쳐가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풀어주소 풀오주소 모신악살을 풀어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이별살도 풀어주소 수재살도 풀어주소  
풍랑살도 막아주고 화재살도 막아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도 풍년들고 바다에도 풍년들어  
양풍년이 겹쳐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반백성이 풍년만나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

600)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1987년 7월 2일 지정.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 용왕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서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북해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황실 용왕제를 지극정성 드리오니  
 사해바다 용왕님요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위해  
 조그마한 조각배에 그물한채를 내어신고  
 오색가지 서낭기와 용왕깃발을 달은후에  
 돛대한쌍 높이달고 닻줄은거뒀 실은후에  
 부모형제 처자들을 손흔들어 작별한후  
 풍악울려 배를띄우고 만경창파로 들어가니  
 간데마다 순풍만나 무사태평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는 풍년들고 바다에는 풍어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 그물 신는 소리

(앞소리)에-헤이 사리야 (뒷소리)에-헤이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시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사려보세 에-헤이 사리야  
 이그물을 널적에는 에-헤이 사리야 어이하여 내었는고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를 가려하니 에-헤이 사리야 그물이없어 못가겠에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내자하니 에-헤이 사리야 명주실이 어디있소 에-헤이 사리야  
 뒷동산에 뽕을 심어 에-헤이 사리야 앞동산에 잠실을 지어에-헤이 사리야  
 뽕잎으로 밥을주니 에-헤이 사리야 무럭무럭 자라나서 에-헤이 사리야  
 한잠두잠 석잠한후 에-헤이 사리야 구슬같은 고치를쳤네 에-헤이 사리야  
 그고치를 따가지고 에-헤이 사리야 돌고물레 실을뽑아 에-헤이 사리야  
 가랑물레 실을жат아 에-헤이 사리야 큰아기 손끝으로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내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옷시울에 우끼를달고 에-헤이 사리야

아래시울에 못을달아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 꾸며다가 에-헤이 사리야  
 고깃배에 사려실어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 떠납시더 에-헤이 사리야  
 삼치꽂치 칼치를두고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아 무엇하리 에-헤이 사리야  
 열두독 젓을달아 에-헤이 사리야 황금빛에 맛들거든 에-헤이 사리야  
 첫째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나라에다 상납하고 에-헤이 사리야  
 둘째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부모님전에 봉양하고 에-헤이 사리야  
 셋째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형제간에 갈라먹고 에-헤이 사리야  
 네째동근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이웃간에 노뉘먹지 에-헤이 사리야  
 남은독은 팡아다가 에-헤이 사리야 논밭전지를 많이사서 에-헤이 사리야  
 부귀영화를 누리보세 에-헤이 사리야

**고기 잡으러가는 소리**

(앞소리) 어여사 (뒷소리) 어여사

달도밭고 어여사 고요한데 어여사 메레치생각 어여사  
 절로난다 어여사 동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서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남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북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사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용왕님의 어여사 은덕으로 어여사 이그물을 어여사  
 놓거들랄 어여사 재수소망 어여사 점지나하소 어여사  
 메레치만선 어여사 시켜나주소 어여사 물색좋다 어여사  
 도미등아 어여사 팔팔뛰는 어여사 승어등아 어여사  
 반짝이는 어여사 메레치등아 어여사 넓적하다 어여사  
 광어등아 어여사 우리후리에 어여사 다들어오소 어여사  
 화조월석 어여사 오는순풍 어여사 누힘으로 어여사  
 막을소냐 어여사 바람아동풍아 어여사 불지를말아가 어여사  
 오느메레치 어여사 되돌아간다 어여사 뒷동산에 어여사  
 진달래는 어여사 만발하고 어여사 다대포라 어여사  
 앞바다에 어여사 메레치가 어여사 풍년일세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화조월석 어여사  
 오는춘풍 어여사 누힘으로 어여사 막을소냐 어여사  
 객사지동 어여사 찍벌어진데는 어여사 왕거미줄이 어여사  
 제격이요 어여사 선주선원들 어여사 벌어진데는 어여사  
 메레치가제격이다 어여사 우리어부들 어여사 벌어진데는 어여사

술과담배가 어여사 제격이요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노를저어가 어여사 여보시오 어여사 선원들아 어여사  
 힘을주고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메레치가 어여사  
 많이있소 어여사 빨리가서 어여사 땅겨나주소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그물 당기는 소리**

(앞소리) 어기영차 당겨주소 (뒷소리) 어기영차 당겨주소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풍년이 돌아왔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산은척척 천봉이요 어기영차 당겨주소 물은잔잔 백옥인데 어기영차 당겨주소  
 우리다대포 꽃이피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꽃피고 봄이오니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풍년이 아닐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십오야 둥근달이 어기영차 당겨주소  
 삼경인들 변할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툄똥똥친 우리어부 어기영차 당겨주소  
 일구월심 변할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만경창파 푸른물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떼가 몰려오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철따라서오는 메레치를 어기영차 당겨주소  
 항구인들 막을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춘하추동 사시절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봄가늘이 제일일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푸룻푸룻 봄배추는 어기영차 당겨주소  
 판이슬오기마 기다리고 어기영차 당겨주소 남원옥중 춘향이는 어기영차 당겨주소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강동장비 유현덕은 어기영차 당겨주소  
 조자룡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다대포라 어부들은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어젯날에없던 메레치가 어기영차 당겨주소  
 오늘날에 풍년일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여보시오 어부네들 어기영차 당겨주소  
 부귀영화를 탐치마소 어기영차 당겨주소 고대광실 부러마소 어기영차 당겨주소  
 오막살이 단칸이라도 어기영차 당겨주소 태평성대가 비친다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부지런히 일을해서 어기영차 당겨주소 나라상납 하연후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나라부강 하연후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태평성대를 누리보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어기영차 당겨나주소

**그물 터는 소리**

(앞소리) 에-산자 (뒷소리)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많이도들었구나 에-산자  
 오뉴월 에-산자 삼복더위에 에-산자  
 황소불알같이 에-산자 늘어졌구나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고리등같이 에-산자

동등뻘다 에-산자 녹산이방우같이 에-산자  
 꺾벌어졌구나 에-산자 산이야 에-산자  
 반갑도다 에-산자 이메레치야 에-산자  
 어디서놀다가 에-산자 이제사왔나 에-산자  
 기장바다에서 에-산자 놀다왔나 에-산자  
 대마도바다에서 에-산자 놀다왔나 에-산자  
 학수고대 에-산자 기다린메레치 에-산자  
 오늘날에 에-산자 당도하였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무쇠같은 에-산자  
 내동무들아 에-산자 팔다리에 에-산자  
 힘을주어서 에-산자 그물을많이잡고 에-산자  
 앞을숙였다 에-산자 뒤로넘어가면 에-산자  
 쫓아나주소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이산자가 에-산자 누산자고 에-산자  
 강원도바다에 에-산자 명태어장에 에-산자  
 산자도아니요 에-산자 포항바다 에-산자  
 청어어장에 에-산자 산자도아니요 에-산자  
 물맑고 에-산자 인심좋은 에-산자  
 우리다대포 에-산자 우리어장에 에-산자  
 메레치를 에-산자 많이잡아 에-산자  
 불통쫓으는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너무나쫓으다가 에-산자  
 불통이터지면 에-산자 고생한것이 에-산자  
 허사가돼요 에-산자 그만쫓으고 에-산자  
 메레체를핍시다 에-산자

### 가래소리

(앞소리) 어-녕청 가래로다 (뒷소리) 어-녕청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랸고 어-녕청 가래로다 다대포척사의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랸고 어-녕청 가래로다 한선주의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녕청 가래로다 메레치풍년이 되었구나 어-녕청 가래로다  
 십오야 둥근달은 어-녕청 가래로다 삼경인들 변할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푹푹몽친 우리어부 어-녕청 가래로다 일구월심 변할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천만사인데 어-녕청 가래로다 오는춘풍을 막을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사사룩하니 어-녕청 가래로다 오류촌이 다대포요 어-녕청 가래로다  
 무정세월 한허리를 어-녕청 가래로다 양류사로 매어놓고 어-녕청 가래로다  
 우리어부는 가래질한다 어-녕청 가래로다 이화도화 만발하고 어-녕청 가래로다  
 행화방초 휘날리는데 어-녕청 가래로다 메레치는 풍년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값싸고맛좋은 메레치를 어-녕청 가래로다 있을적에 사들가소 어-녕청 가래로다  
 이메레치를 팔아다가 어-녕청 가래로다 나라상납 하연후에 어-녕청 가래로다  
 부모봉양 안할소냐 어-녕청 가래로다 어화청춘 소년들은 어-녕청 가래로다  
 백발보고 팔세말아 어-녕청 가래로다 우리도옛그제소년이더니 어-녕청 가래로다  
 오늘백발 잠간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어젯날에 메레치가 어-녕청 가래로다  
 오늘에 풍년일세 어-녕청 가래로다 메레치를 많이잡았으니 어-녕청 가래로다  
 임도보고 뽕도딸겸 어-녕청 가래로다 술밥간에 많이먹고 어-녕청 가래로다  
 검사검사 잘놀아보세 어-어녕청 가래로다 어-녕청 가래로다

**풍어소리**

(앞소리) 캐지나 칭칭나네 (뒷소리) 캐지나 칭칭나네  
 가자가자 어서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이수강변 백로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청천하늘에 잔별도많고 캐지나 칭칭나네 시냇가에는 자갈도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정월이라 대보름날 캐지나 칭칭나네 달밤에나온 소년들은 캐지나 칭칭나네  
 답교하고 노니는데 캐지나 칭칭나네 이월이라 한식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나무마다 춘기들고 캐지나 칭칭나네 가지가지 순이난다 캐지나 칭칭나네  
 삼월이라 삼짖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강남서 나온제비 캐지나 칭칭나네  
 내왔노라 현신하고 캐지나 칭칭나네 소상강변 기러기는 캐지나 칭칭나네  
 내가노라 하직한다 캐지나 칭칭나네 용왕님이 주신복지 캐지나 칭칭나네  
 태평무궁 빛내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우리겨레 단결하여 캐지나 칭칭나네  
 피땀으로 세운나라 캐지나 칭칭나네 너도나도 건설해서 캐지나 칭칭나네  
 억천만년 누려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칭칭소리 잘하는양반은 캐지나 칭칭나네  
 탁주일배 별주로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부경역사연구소, 『사하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2012, 468-478쪽.

## 참 고 문 헌

- 『금성』 제2호(1924. 1).  
『금성』 제3호(1924. 2).  
『사상문화』 제16호(2004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4.  
『사상문화』 제19호(2005년 신년호), 사상문화원, 2005.  
『사상문화』 제24호(2006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6.  
『사상문화』 통권26호(2006년 가을호), 사상문화원, 2006.  
『사상문화』 통권28호(2007년 봄호), 사상문화원, 2007.
-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낙동향토문화원(백이성),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복구 문화공보실, 1993.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Ⅰ-부산편』, 민속원, 2010.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서부산권)』, 한국학 중앙연구원, 역락, 2015.  
부경역사연구소, 『사하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2012.  
부산광역시 복구청, 『부산복구 향토지』, 도서출판 가람, 199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사상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부산복구 낙동문화원, 『부산복구향토지』, 부산광역시 복구, 2014.  
손진태 저,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박물관, 2002.  
엄용운, 「구포지역의 전래민요」, 『낙동강사람들』 제14호, 부산 복구 낙동문화원, 2002.  
윤은호, 『화명 대천마을의 정담』, 도서출판 강나루,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경상남도 민요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제보자 색인

ㄱ	김모연 254
강기점 489, 490, 491	김복님 206, 207, 208, 209
강선희 252, 253	김복림 473, 474
강성분 386	김복열 46
강숙자 294, 295, 296, 297	김봉기 420, 421
강순남 427	김봉희 100, 101
강순자 126	김삼덕 213, 214
강심분 225,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김상순 217, 218
강점순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5	김석이 140
강정자 278	김성훈 475
강춘자 313	김소석 344, 345, 346, 347, 348
경옥선 472	김수복 395
구말순 67, 68, 69, 70	김수연 10, 442, 444, 445, 446
구영순 287	김수정 446, 447, 448
국학연 163	김순덕(만덕동) 103, 104
고금단 339	김순덕(덕포동) 167
공춘덕 92	김순자 193
김갑순 134, 135	김양순 178
김경이 243	김양자 10
김경자 166, 167	김영숙 11, 449
김광식 224	김영순(주례동) 238
김귀남 350	김영순(하단동) 399, 401
김금만 328, 329, 330	김우래 281
김남순 491, 492, 493	김우선 21, 22
김덕념 366, 367, 368	김윤조 429, 430, 432, 433
김덕염 424, 427	김옥자 92
김도연 188	김용년 279, 280, 281
김말순 254	김유선 96
김명순 70, 71	김은래 340
	김을선 97, 98
	김응자 255, 256
	김점순 363, 364

김점심 161  
 김정애 340  
 김정의 76, 78, 79, 80, 81, 82, 83  
 김정자(감전동) 141  
 김정자(감천동) 256, 257  
 김정자(신평동) 348, 349  
 김종순 29, 30  
 김춘자 450, 451  
 김춘하 214, 215, 216  
 김홍문 369

ㄴ

노봉학 350  
 노영자 299  
 노월선 188

ㄹ

문순이 398, 399, 400  
 문순진 341  
 문정선 452, 453, 454  
 문정이 188  
 문호연 494, 495, 496, 497

ㄷ

박대근 475  
 박대선 391, 392, 393, 394  
 박덕희 314, 315  
 박경순 311  
 박만년 476, 477, 478, 479  
 박명순 46, 47, 48  
 박명화 83

박부자 287  
 박복남 234, 235, 236  
 박복덕 217, 218, 219, 220, 221, 222  
 박복순 104, 105, 106, 107, 108  
 박상조 109, 110  
 박순임 142  
 박시점 224  
 박시화 84, 85, 86, 87, 88, 89, 90  
 박소임 156, 157  
 박순자 197, 198, 199  
 박양자 394  
 박영도 315, 316  
 박영순 497  
 박영자 163  
 박옥련 401  
 박외선 100  
 박윤희 143  
 박정임 71  
 박종금 150, 151, 152, 153  
 박종식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박종이 15, 16, 17, 18, 19  
 박지조 455  
 박행순 111, 112, 113, 114, 115, 116, 117  
 박호연 90, 91  
 박화자 178, 179  
 박희분 136  
 방덕용 440  
 변순희 93, 94, 95, 96  
 배분이 395, 396  
 배연희 330, 331, 332  
 배종곤 91

배차순 189, 190  
 배필연 108  
 백귀남 191, 192, 193  
 백만녕 257, 258  
 백일순 421

ㅅ

서경연 297, 298, 299  
 서말금 498  
 서분선 72, 73  
 서인숙 456, 457, 471  
 성락동 164, 165  
 성봉이 281  
 성상경 199, 200  
 손복덕 422  
 손서운 414, 415  
 손순자 482  
 손여옥 370, 371  
 손필선 150  
 송순덕 372, 373, 374, 375, 376,  
 377  
 송순찬 499  
 송월분 153, 154, 155, 156  
 송윤수 316  
 송춘람 258, 259, 260  
 송현자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신갑연 261, 262  
 신두남 499, 500, 501, 502, 503  
 신복달 209, 210, 211  
 신영돌 238, 239, 240, 241, 242  
 신성자 377, 378  
 신정자 341, 342

심순남 457, 458  
 심필남 405

ㅇ

안금자 288, 289, 290  
 안명수 64, 65, 66, 67  
 안수복 49, 50  
 양수자 267, 268, 269, 270  
 양인화 410, 459, 460, 461, 462,  
 463, 464  
 예종순 396, 397, 398  
 오경임 483, 485, 486  
 오순남 179  
 오영자 244, 245  
 오월심 382, 383, 384, 385  
 오학분 170, 171, 172, 173  
 우재순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유계순 262, 263, 264, 265, 266  
 유막달 144  
 유부순 211, 212, 213  
 육분늬 379, 380, 381  
 윤분식 158, 159  
 윤옥자 144  
 윤증자 237  
 윤추자 201  
 은수연 201, 202, 203  
 이경년 173, 174  
 이경준 3, 4  
 이계화 51  
 이광섭 270, 272, 273, 274, 275  
 이귀선 203, 204  
 이기상 22

- 이남이 32, 33, 34, 35, 36, 37, 39, 41, 42  
 이동연 216  
 이말남 386, 387  
 이말달 174, 175, 176  
 이말순 332  
 이미자 123, 124, 125  
 이복순(구포동) 11, 12, 13, 14, 464, 465  
 이복순(당리동) 335, 336  
 이분선 136, 137  
 이상순 487  
 이성득 194, 195, 196, 197  
 이숙임 246, 247  
 이순덕 176, 177  
 이순선 310, 311  
 이순약 333, 334  
 이순우 98, 99  
 이순자 30, 31, 32  
 이순조 417  
 이어지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이연옥 179  
 이영기 278  
 이오용 50  
 이옥선 415  
 이용희 427, 436, 437  
 이우연 125, 126  
 이원경 247, 248, 249  
 이유남 101, 102, 103  
 이임이 137  
 이일화 321  
 이자야 23, 24, 25, 26, 27  
 이점숙 100  
 이정옥 161, 162, 163  
 이종달 369, 370  
 이진옥 504, 505, 506, 507, 508  
 이필복 117, 118, 119, 120, 121  
 이필순 137, 138, 466  
 이태임 250  
 이하자 317  
 이해순 418  
 임구자 49  
 임말순 423  
 임영자 334, 335  
 임일선 213  
 임화자 121, 122
- ㄱ
- 장명민 283  
 장미 282  
 장삼순 364  
 장월선 222  
 전경자 300  
 전덕순 28, 29  
 전연옥 509  
 전장덕 168, 169  
 정귀남 387  
 정금래 342, 343  
 정두련 399, 400, 401  
 정말수 312, 313  
 정명식 225  
 정복수 336, 337  
 정영순 509, 510, 511  
 정옥순 166  
 정윤선 315, 318, 319  
 정인숙 266, 267

정일선 487  
 정재임 15, 442, 466, 467, 468, 469,  
 471  
 정정순 250  
 정종읍 9  
 정차점 145, 146  
 조경이 388  
 조경분 237  
 조두리 322, 323, 324  
 조복지 361, 362, 363  
 조연순 324, 325, 327, 436, 438,  
 511, 512  
 조영학 338  
 조한숙 350  
 주광자 242, 243  
 주순덕 405, 406, 407  
 주학수 19  
 지순아 365

ㄸ

최갑순 147  
 최계수 513  
 최동수 434  
 최두리 300, 301  
 최무연 122  
 최미영 290, 291, 292, 293  
 최석순 418, 419

최순희 276, 277  
 최시점 177, 178  
 최연이 250  
 최이순 147, 148  
 최정자 338, 339  
 최채엽 389, 390, 391  
 최평순 29  
 최학연 363

ㅎ

하쌍선 406, 407, 408, 409, 411,  
 412, 413, 414  
 하위맹 283, 284, 285, 286  
 한금심 320, 321  
 한수봉 424  
 한복선 20  
 한석옥 488, 489  
 함민자 469, 470  
 허점조 204, 205  
 허태임 169, 170  
 현인수 159, 160, 161  
 홍길자 51  
 황경자 74, 75, 76  
 황명순 51, 52, 53, 54  
 황분희 223, 224  
 황원순 148, 149

## 민요 제목 색인

- ㄱ
- 가래질 가래 소리 546  
 가래소리 546, 632  
 가을바람 찬바람에 471  
 가정축원 615  
 각설이 563  
 각설이 서리타령 561  
 각설이 숫자풀이 557  
 각설이타령 182, 247, 307, 383, 524  
 강원도 장타령 560  
 강피 훑는 처자 노래 260, 266  
 개 노래 346  
 개 타령 321  
 개야 개야 검정개야 346  
 객귀 물리는 소리 101, 160, 224, 302  
 고기 잡으러가는 소리 630  
 고동바위골 민요 621  
 고딧줄꾼의 노래 583  
 고리타령 559  
 고사리 꺾는 노래 24  
 고사 소리 184  
 곱방대노래 407  
 과부 노래 116  
 구걸 564  
 구멍 타령 121, 152, 249, 329  
 구포 달집노래 570  
 구포선창 노래 552  
 구포 아리랑 571  
 구포장타령 554, 556  
 구포 재첩잡이 노래 564
- 구포 회향가 572  
 권주가 49, 61, 80, 129, 146, 222, 257, 274, 297, 329, 338, 339, 368, 376, 386, 394  
 그네 노래 19, 28, 65, 69, 95, 99, 138, 141, 147, 159, 162, 166, 175, 180, 193, 196, 229, 240, 262, 267, 310, 314, 322, 333, 335, 338, 366, 379, 386, 388, 392, 473, 496  
 그물 당기기 소리 622, 623, 624, 631  
 그물 신는 소리 629  
 그물 터는 소리 631  
 금자동아 옥자동아 499  
 꽃 타령 127  
 길타령 563  
 꿈배기 먹기와 노래 578  
 끝말 노래 362
- ㄴ
- 나무하는 노래 475  
 나물 캐는 노래 475  
 나비 노래 19, 99, 156, 162, 180, 193, 196, 233, 280, 296, 336, 358  
 낙동강 뱃노래 584  
 남녀연정요 24, 59, 62, 73, 86, 87, 89, 115, 135, 136, 234, 256, 386

- 남해 금산 뜬 구름아 283  
 내 차지 타령 564  
 너냥 나냥 46, 50, 66, 74, 78, 113,  
     123, 128, 135, 156, 184,  
     202, 242, 245, 252, 256,  
     270, 274, 288, 308, 318,  
     331, 341, 343, 360, 370,  
     378, 401, 465, 499  
 노랫가락 19, 28, 31, 52, 55, 56,  
     65, 68, 69, 86, 89, 95, 99,  
     100, 127, 130, 134, 137,  
     138, 141, 142, 147, 149,  
     156, 159, 160, 162, 166,  
     167, 174, 175, 180, 193,  
     196, 199, 207, 210, 211,  
     213, 217, 229, 230, 232,  
     234, 235, 238, 240, 245,  
     259, 262, 263, 273, 280,  
     296, 310, 311, 314, 315,  
     322, 324, 327, 332, 333,  
     334, 338, 357, 358, 366,  
     368, 369, 371, 380, 386,  
     387, 388, 392, 444, 473,  
     474, 488, 496  
 노들강변 273, 315, 365, 378, 513  
 논매기 노래 577  
 논매기소리 594  
 논매는 소리 16, 281, 342, 349  
 농부가 16  
 농사 때 부르는 노래 596  
 농요(農謠) 533  
 날니리아 465
- 다대포 후리소리 628  
 다래 605  
 다리 노래 593  
 다리 세기 노래 10, 15, 21, 51, 52,  
     61, 71, 81, 90, 92, 102,  
     126, 133, 150, 157, 161,  
     163, 178, 179, 185, 201,  
     204, 206, 214, 216, 223,  
     224, 230, 241, 250, 266,  
     277, 282, 286, 287, 299,  
     300, 319, 323, 334, 354,  
     371, 374, 472, 474, 482,  
     487, 495, 506, 510  
 다리헤아리는소리 426  
 달아 달아 밝은 달아 399, 446, 457,  
     462  
 달집노래 570  
 달타령 65, 276, 399  
 달 노래 446, 457, 462  
 당산제 628  
 당산지신풀이 3, 538  
 당산풀이 615  
 대목이 집을 짓는 풀이 613  
 대추 노래 371  
 대추복숭아 노래 21  
 댕기 타령 35, 56, 144, 292, 304,  
     354  
 댕기노래 430  
 대문 지신풀이 545  
 도라지 타령 69, 126, 138, 145, 174,  
     207, 238, 240, 316, 363,  
     366, 377, 399, 449, 455,  
     497

- 돈 타령 248  
 두견새 소리 620  
 두꺼비집 짓기 노래 348  
 둔사(遁辭) 537  
 둥게요 82, 282, 352, 361  
 등지 519  
 디딜방아소리 626  
 땅다지기 망깨소리 548
- 口
- 마구간풀이 617  
 말 유희요 204  
 말도 안 되는 소리 355  
 망깨소리 548, 600, 602  
 망깨풀이 613  
 먹자타령 561  
 며느리 한탄 노래 232  
 멀치터는소리 433  
 모심기 노래 448, 452, 455, 458,  
     459, 464, 466, 469, 470,  
     478, 489, 498, 500, 502,  
     504, 508, 511, 575, 589  
 모심기소리 405, 406, 412, 413, 414,  
     415, 420, 424, 436, 437  
 모심는 소리 10, 12, 13, 20, 22, 23,  
     24, 26, 29, 32, 33, 41, 46,  
     47, 51, 54, 68, 69, 71, 72,  
     75, 76, 83, 84, 85, 91, 96,  
     98, 101, 103, 104, 105, 106,  
     107, 109, 110, 118, 119,  
     120, 121, 123, 127, 129,  
     136, 137, 145, 148, 152,  
     153, 159, 161, 164, 166,  
     168, 169, 170, 173, 174,  
     177, 180, 189, 191, 194,  
     202, 203, 212, 213, 214,  
     217, 218, 219, 220, 225,  
     234, 238, 239, 242, 243,  
     250, 254, 258, 260, 263,  
     268, 279, 281, 283, 290,  
     294, 297, 298, 299, 302,  
     303, 324, 325, 328, 332,  
     333, 344, 350, 351, 355,  
     363, 367, 377, 379, 389,  
     398  
 모찌기 노래 453  
 모 찌는 소리 12, 73, 84, 107, 117,  
     123, 194, 197, 266, 287,  
     382, 396  
 목도소리 550  
 목매방아소리 626  
 못 갈 장가 노래 20, 39, 58, 114,  
     131, 155, 228, 248, 265  
 물 실러 가자 394  
 물레 노래 287, 309, 346, 413, 486  
 물레방아·연자방아소리 625  
 밀양아리랑 29, 150, 167, 241, 253,  
     275, 288, 313, 334, 367,  
     373, 393, 449, 460
- ㄴ
- 바지 각설이 562  
 반달노래 411  
 방구 528  
 방구노래 424  
 방귀 594

- 방귀 편 사람 찾는 사람 178  
 방귀 타령 79, 140, 210, 325, 504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223, 278, 363, 396  
 방아소리 434, 438, 440, 511  
 방아타령 627  
 발매기 노래 37  
 배내리기 소리 622  
 배 아프면 부르는 노래 215  
 배추 씻는 처녀 노래 353  
 백발가 59, 67, 80, 122, 138, 147, 155, 208, 212, 230, 243, 253, 264, 267, 274, 312, 314, 321, 333, 335, 367, 375, 387, 392, 448  
 뱃노래 377, 469  
 뱃놀이 노래 63, 236  
 베틀 노래 42, 61, 82, 88, 113, 156, 409, 418, 447, 477, 483  
 베 짜는 노래 82  
 베 짜는 소리 17  
 베 짜는 처녀 노래 228  
 보리타작 소리 50, 79, 122, 202, 574, 582, 597  
 본조아리랑 54, 101, 225, 241, 245, 267, 324, 350, 365, 394  
 본처 노래 112  
 봄배추 노래 52, 56, 68, 86, 134, 207, 210, 235, 238, 263, 311, 327, 337, 371, 397  
 불매소리 453, 470, 500  
 불매요 10, 49, 75, 83, 93, 133, 163, 206, 284, 352  
 부모 그리는 노래 36  
 부모 이별 노래 171  
 비둘기 노래 87  
 비 노래 14, 15, 93, 103, 183, 216, 223, 295, 301, 356  
 비야 비야 517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4, 15, 93, 103, 183, 216, 223, 295, 301, 356  
 빨래 노래 255  
 뽕 따러 가세 470
- 入
- 사랑가 133, 276  
 사발가 18, 52, 65, 67, 80, 85, 91, 95, 97, 125, 137, 138, 141, 170, 183, 195, 198, 207, 224, 228, 240, 259, 261, 268, 277, 285, 290, 311, 313, 316, 321, 322, 328, 349, 364, 375, 387, 393, 394, 400, 488  
 사위 노래 229  
 사촌형 노래 41  
 사친가 227  
 사하 방아소리 624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30, 98, 197, 221, 282  
 삼팔선 노래 31  
 살풀이 614  
 삼 삼기 노래 62  
 삼 삼는 소리 142  
 상여소리 124, 272, 385, 585  
 성주풀이 4, 75, 111, 148, 275, 341,

- 507, 539, 580, 608, 609
- 술배 띄우는 노래 100
- 술씨 뿌리는 풀이 611
- 새 타령 149
- 새는 새는 517
- 수요(數謠) 522
- 수제비 노래 592
- 숫자풀이요 111
- 소 노래 603
- 소마굿간 지신풀이 544
- 식집사리 518
- 시어머니 노래 233
- 시집가는 날 605
- 시집살이 노래 37, 41, 48, 52, 56,  
57, 78, 110, 117, 129, 154,  
198, 221, 235, 258, 307,  
327, 343, 378, 380, 381,  
599
- 신고산타령 176, 236, 317
- 신랑 원망 노래 17
- 신아리랑 205
- 신세 타령 88, 475, 557, 559
- 신세타령요 178
- 신세한탄요 232
- 신세 한탄 노래 209
- 쌍가락지 606
- 쌍가락지 노래 87, 114, 151, 188,  
254, 291, 370, 497
- 쌍금쌍금 쌍가락지 420
- 
- 아기 어르는 노래 10, 49, 64, 75,  
82, 83, 90, 93, 133, 163,  
200, 201, 206, 208, 282,  
284, 298, 304, 320, 323,  
342, 345, 352, 361, 368,  
422, 453, 462, 470, 484,  
486, 499, 500
- 아기 젓 떼는 소리 340
- 아기 재우는 노래 14, 31, 126, 136,  
153, 163, 169, 190, 198,  
206, 220, 284, 294, 345,  
353, 361, 364, 398, 454,  
456
- 아리랑 199, 212, 257, 391, 451,  
496, 501, 529
- 아해 재우는 노래 517
- 알강달강요 64, 132, 200, 201, 208,  
298, 304, 323, 342, 345,  
352, 368, 486
- 양산도 19, 46, 51, 60, 70, 78, 90,  
95, 97, 128, 148, 152, 183,  
192, 194, 208, 231, 242,  
254, 263, 269, 280, 293,  
296, 314, 347, 359, 375,  
384, 442, 445, 467, 468
- 어랑타령 391
- 어사용 소리 545
- 연치 노래 27
- 염불가 128
- 영감노래 599
- 영감할멈 놀리는 노래 215
- 옛날옛적 536
- 오록쫄록 520
- 오방지신밟기 551
- 오방지신풀이 3
- 오빠 원망 노래 335

- 용왕제 629  
 우물 지신풀이 543  
 우물풀이 617  
 운상소리 419  
 울아베 604  
 올케 먼저 구한 오빠 노래 116  
 왕대 노래 244  
 유희(遊戲) 521  
 음담요 505  
 의암이 노래 211, 306  
 이(風) 537  
 이같이 노래 94, 102, 159, 179, 184,  
 220, 278, 300, 345, 362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10, 15, 21,  
 51, 52, 61, 71, 81, 90, 92,  
 102, 126, 150, 160, 162,  
 179, 185, 201, 204, 206,  
 214, 216, 223, 224, 230,  
 241, 277, 282, 287, 299,  
 300, 319, 323, 334, 354,  
 371, 374  
 이 노래 485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11, 21,  
 29, 92, 299, 395
- ㄷ
- 자장가 14, 31, 136, 163, 169, 190,  
 198, 206, 220, 284, 294,  
 345, 353, 398, 454, 456  
 잠자리 잡는 노래 9, 30, 107, 185,  
 196, 395  
 잡각설이 타령 563  
 장가타령 429  
 장 노래 607  
 장독풀이 617  
 장독 지신풀이 544  
 장타령 111, 384, 524, 554, 559,  
 562  
 재첩잡이 노래 564  
 저들에라 청수간에 406  
 저승사자 노래 187  
 저승 간 남편 노래 212  
 정선아리랑 488  
 정 드는 노래 187  
 정 타령 372  
 제목 없는 노래 600  
 제방쌓기 노동요 545  
 제분·정미소리 624  
 제일 좋을 꽃 303  
 조왕풀이 112, 616  
 조왕 지신풀이 542  
 주머니 타령 34  
 주추 캐는 처녀 노래 472  
 죽은 낭군 그리는 노래 255  
 죽은 새신랑 노래 142  
 중 노래 604  
 지신밧기 노래 235, 385  
 지신풀이 538, 539  
 진도아리랑 157, 186, 209, 246, 261,  
 278, 320, 330, 339, 340,  
 341, 382, 390, 421  
 진주난봉가 25, 53, 57, 124, 130,  
 151, 176, 237, 249, 264,  
 305, 316  
 진주 처자 노래 108  
 집짓기요 140  
 집터 닦는 풀이 612

징거미 타령 243  
 찡금이 노래 606

ㄸ

창부타령 26, 28, 62, 67, 70, 90,  
 98, 134, 161, 165, 175, 181,  
 192, 193, 283, 289, 292,  
 293, 295, 310, 337, 350,  
 356, 357, 360, 369, 376,  
 389, 390, 392, 393, 397,  
 401, 445, 446, 457, 460,  
 466, 468, 490, 491, 492,  
 495, 503, 505, 506, 508,  
 509, 510  
 처남노래 411  
 처녀총각 노래 309, 408  
 첩 노래 210, 233, 276, 312, 381  
 청춘가 18, 50, 74, 95, 97, 99, 158,  
 167, 169, 170, 172, 173,  
 176, 177, 182, 188, 190,  
 191, 195, 205, 221, 231,  
 250, 253, 258, 259, 260,  
 265, 267, 269, 281, 293,  
 296, 310, 329, 332, 337,  
 338, 339, 347, 348, 356,  
 358, 366, 372, 374, 390,  
 444, 450, 456, 467, 492,  
 493, 506, 509  
 청실홍실 573  
 총각 노래 234  
 총각 희롱 노래 336  
 춘향노래 418  
 칩간 지신풀이 544

침 노래 237  
 치위 520  
 칭칭이 소리 479, 618

ㅋ

캐지랑이 531  
 쾌지나 칭칭나네 459  
 큰애기 노래 444

ㅋ

파랑새요 14, 15, 30, 66, 71, 96,  
 100, 186, 199, 205, 211,  
 252, 277, 285, 313, 315,  
 364, 376, 398, 399, 463  
 풀국새 노래 30, 221  
 풍어소리 633  
 풍소(諷笑) 521  
 풍수가 집터를 보러 가는 풀이 612

ㅌ

태평가 246, 317, 361, 400, 494

ㅎ

한산모수 처마밑에 407  
 한탄가 142  
 해다지고 저문날에 417  
 해방가 415  
 허랑타령 431  
 혼사 노래 231  
 화투 타령 48, 60, 64, 76, 81, 92,

94, 103, 108, 116, 120, 132, 401, 461, 473, 490, 493  
143, 158, 165, 167, 181, 회심곡 125, 270  
200, 209, 222, 227, 239, 회향가 572  
244, 256, 261, 262, 268, 후리 소리 84  
279, 318, 322, 330, 347, 흥부와 놀부 301  
380, 382, 387, 388, 396,

##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교열·주석 담당자)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민요학회 회장. 한국문학회 회장 역임. 제60회 부산시문화상(인문과학분야) 수상.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출강.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2014), 『6·25 피란민의 자전기록-부산의 기억과 삶』(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등 다수가 있다.

##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채록 등)

- 정혜란(부산외대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4-2016년), 김남정(부산외대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2016년), 김남희(부산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6년), 김지선(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2015년), 박소영(상동, 2014, 2016년), 신혜림(상동, 2015년), 이소현(상동, 2014, 2016년), 최지은(상동, 2014- 2015년), 김지수(상동, 2017년 자료 타이핑), 엄홍석(부산대 국악과, 2015년 악보 작성)

■ 시사편찬위원회(2018. 4. 3. ~ 20121. 4. 2.)

위 원 장 : 강대민(경성대)  
부위원장 : 김동철(부산대)  
위원(가나다순)

권영오(대저중)	김강식(한국해양대)	김대래(신라대)	김인호(동의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재욱(신라대)	박창희(수투라랩 수석)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동아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유영옥(동아대)	이정은(밤아사 성별박물관)	이종봉(부산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 8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편

---

발행인	강대민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장
편저	박경수 · 황경숙
기획·편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인쇄	산지니출판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14-2
	978-89-964675-9-5(세트)

---

(비매품)

연락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5056-8 / FAX : 051) 888-5059

원문공개

부산시 ([www.busan.go.kr](http://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http://www.bssisa.com))

※ 표지 자연마을 사진제공 : 강서구문화원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